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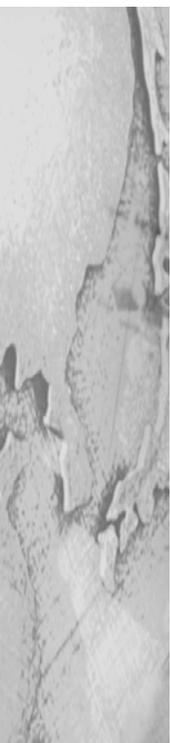
조정아 · 임순희 · 노귀남
이희영 · 홍민 · 양계민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 임순희 · 노귀남
이희영 · 홍민 · 양계민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예원기획 (02-745-8090)

인 쇄 처 (주)세원문화사 (02-2265-1141)

ISBN 978-89-8479-578-5 93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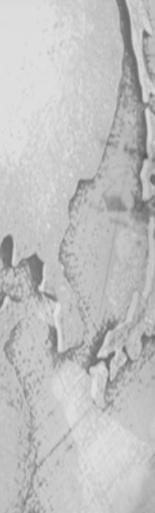
가 격 ₩17,000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내용	4
3. 연구방법	7
II. 자아와 내면세계	19
1. 의식전환의 메커니즘	21
2. 집단정체성 유지와 개인정체성 확대	78
III. 통제와 수용, 내면의 저항	117
1.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	119
2. 범죄의 사회적 구성과 주민 생계윤리	176
IV. 경험의 확장과 미시권력의 변화	245
1. 여성의 공간경험 확장과 의식 변화	247
2. 북한의 사회변동과 섹슈얼리티	297
V. 결론	353
참고문헌	377
최근 발간자료 안내	389

표 목 차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표 I-1> 성별 면접인원	12
<표 I-2> 연령대별 면접인원	12
<표 I-3> 출신지역별 면접인원	12
<표 I-4> 직업범주별 면접인원	13
<표 I-5> 탈북연도별 면접인원	13
<표 I-6> 입국연도별 면접인원	13
<표 I-7> 구술자 상세 인적사항	13
<표 III-1> 구술자 인적사항	187
<표 III-2> 2004년 개정형법에서의 형벌의 종류	189
<표 IV-1> 구술자 인적사항	304

I. 서론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1. 연구목적

이 연구는 정치학, 미시사,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의 이론을 동원하여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 변화를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이 다양한 생존전략을 통해 생존의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국가관과 집단주의적 의식을 비롯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의식과 가치관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의 자생적 시장화가 진행되고 중국을 비롯한 외부세계와의 인적, 문화적 접촉이 증가하면서 국가·당·지도자, 시장경제, 개혁개방, 남한에 대한 생각 등의 측면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정체성의 변화이다. 정체성은 한 사람이 특정 집단의 일원으로, 특정 역할의 수행자로, 한 인간으로서 지나는 의미들¹로, 시간 속에서의 변화를 담지하는 역동적 동일성²을 의미한다. 인간은 개인정체성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과 관련한 다양한 집단정체성을 동시에 지니며,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간의 선택, 서열 설정, 통합의 과정을 끊임없이 수행한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개인정체성을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다층적인 집단정체성에 귀속시키는 다양한 기제가 발달되어 있으나, 경제난 이후 집단주의가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대두되는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체성의 지형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¹ J. E. Stets and P. J. Burke, "A Sociological Approach to Self and Identity," Mark R. Leary and June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ew York & London: The Guilford Press, 2005), p. 132.

²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2009), p. 39.

있다. 국가의 공민으로서, 여성으로서, 자아를 지닌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정체성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 변화 및 이와 연관된 행위 양식의 변화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징후인 동시에 북한 당국의 사회통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간 북한 주민의식 변화에 관한 연구는 사회변화 실태 파악의 일부로 다루어졌으며, 주로 의식 변화의 주요 내용과 의식 변화로 인해 촉발되는 사회문화적 일탈행위를 기술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주민 개개인이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경험하는 의식변화의 미시적, 심층적 기제를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과 다양한 학문적 관점을 동원하여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는 교육학, 심리학, 미시사, 정치학, 사회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발전되어온 의식 및 정체성 관련 이론과 분석틀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의 다면적, 다층적 측면을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와 연관시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의 모든 측면을 구조적,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는 연구가 아니다. 완결된 구조를 지니는 거대한 이야기 대신 “한쪽 끝을 건드리면 다른 쪽 끝이 떨리는”³ 방식으로 서로 연결된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의식에 관한 작은 이야기들을 보여주고자 한다.

³-김연수, 『세계의 끝 여자친구』 (파주: 문학동네, 2009).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의 특징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주제영역을 크게 △의식 변화의 내적 기제 및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의 형성과 재구성이라는 개인 주체의 내면적, 심리적 영역, △개인의 의식 속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대면하는가에 초점을 둔 국가의 통제와 주민의 대응, △사회변화가 가져오는 경험의 확장과 이로 인한 미시권력과 정체성의 변화라는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II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자아와 내면세계를 △경험의 재구성과 의미관점의 전환, △집단정체성과 개인정체성간의 관계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최근 경제난, 시장화의 확산, 외부 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교육, 근로단체, 언론매체 등의 재생산기제들을 통해 접해왔던 의미관점과는 다른 신념, 가치, 의미 체계를 접하고 의식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끊임없는 재해석과 생애사적 의미의 변화를 일종의 학습과정으로 보고, 전환의 과정과 계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체성의 변화를 관점전환학습(transformative learning)의 관점에서 해석한다.⁴ 또한 경제난 이후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북한 주민들이 집단정체성과 개인정체성 간의 간격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합된 자아를 형성해나가는가를 살펴본다. 특히 경제난 이후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주민들의 개인정체성 발전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⁴ J. Mezirow에 따르면 학습이란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개정해나가는 과정이다.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미관점을 형성해 나간다. 자신의 의미관점에서 타인과 다른 점을 발견하거나 일상적으로 문제해결이 곤란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의미관점의 재검토와 전환이라는 관점전환학습이 일어난다. J. Mezirow,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1), pp. 33~36.

III장에서는 국가의 통제와 주민의 대응전략을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 △생계윤리와 범죄에 관한 심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경제난 이후 국가 배급체계가 마비되고 각종 사회보장 제도가 형해화되는 등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부분적으로 약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정치의식과 국가의 통제에 대한 대응전략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치체제와 정치기구, 지도자와 당간부, 인민보안원, 인민반장 등 당을 대리하는 정치적 행위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신의 권리, 의무, 역할에 관한 의식을 분석한다. 또한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는 일탈 행위인 범죄가 주민들의 심성세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실천되어 왔는가를 생계윤리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주민들이 범죄를 바라보는 시각, 범죄에 관한 담론과 처벌을 받아들이는 태도 및 심성, 범죄 및 이에 대한 통제에 관한 주민들의 도덕적 대응방식 등을 분석한다.

IV장에서는 경험의 확장과 미시권력의 변화에 관해서는 △여성의 공간경험의 확장과 의식 변화, △섹슈얼리티⁵의 재구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들뢰즈(G. Deleuze)와 가타리(F. Guattari)에 의하면 권력은 피라미드의 상층부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힘의 차이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편재하면서, 여러 힘들 간의 관계 속에서 침투하고 혼합되면서, 바로 우리 옆에서 작동하는 것이다.⁶ 이 연구에서는 최근 북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미시적 힘들 간의

⁵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욕망을 지시, 표현하며, 이를 조직하고 창출하여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의미함(M. Foucault, 1976; J. Weeks, 1986).

⁶ 이수영, 『권력이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2009), pp. 44~49.

긴장과 상호작용으로서의 권력, 늘 불안정하고 역전의 가능성이 있고 수많은 전략이 가능한 공간으로서의 권력 공간의 변화에 주목한다. 특히 시장과 중국이라는 이전 시기에 경험하지 못한 공간이 북한 여성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여성의 의식과 남녀간의 미시권력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한다. 또한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성적 체험과 연애, 결혼, 가족과 관련된 일상적 역할 수행의 특성을 밝히고, 사회변동 과정에서 이들의 성적 정체성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고찰한다.

Ⅱ장의 1절은 조정아, 2절은 양계민, Ⅲ장 1절은 임순희, 2절은 홍민, Ⅳ장 1절은 노귀남, 2절은 이희영이 집필하였음을 밝혀둔다.

3.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의 관점과 연구기법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북한 주민들의 주관적인 경험과 생각, 신념, 감정, 이들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와 스스로 그것을 해석하는 방식 등이기 때문에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주관적 자료가 중요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체제를 설명하는 모형이나 거시담론, 실증적 통계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행위와 경험, 주관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북한이라는 사회실재의 복잡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은 연구 대상의 질적 측면에 주목한 연구로, 연구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연구자가 당사자의 주관적 시각을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다. ‘양’이 비교와 측정을 통해 인식되는 관계적

I
II
III
IV
V

속성이라면 질은 비교하기 이전의 상태, 즉 개별적 사물의 고유한 속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질적연구방법에서는 법칙설정적(monothetic) 접근보다는 개별기술적(idiographic) 접근을 지향한다. 양적 연구와 비교할 때, 질적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을 지닌다.⁷ 첫째, 질적 연구는 사회적 실체와 현상이 어떻게 해석되고 이해되고 경험되고 생성되는가에 관심을 둔다. 둘째, 융통성 있는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고, 자료가 창출되는 사회적 맥락에 관심을 기울인다. 셋째, 자료의 분석에서 복합성, 세부사항, 맥락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풍부하고 상황적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해를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질적연구에서는 사회현상을 특정 상황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과 그 산물로 보는데,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해석학적 과정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 진리에 대한 실증적 해석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통해 진리에 접근한다. 리코르(P. Ricoeur)에 따르면 해석은 이해와 설명이라는 두 과정을 포함한다.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이해의 과정이고, 텍스트 부분의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설명의 과정이다. 설명의 과정에서 개연성과 반증가능성의 논리가 기본적 원리로 작동한다. 설명에서 이해로, 이해에서 설명으로의 해석학적 순환과정을 통해 텍스트가 갖고 있는 지시관계가 그 대상을 찾아가는 ‘해석된 의미의 전유’가 이루어지게 된다.⁸ 해석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학문적 전통을

⁷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2004), pp. 18~19.

⁸ 이대성, 『진리에 관한 다학제적 성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pp. 70~81.

공유한 사람들 간의 ‘그럴듯함’에 대한 인정, 즉 간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⁹

따라서 질적 연구의 기준은 ‘타당도’가 아니라 ‘이해도’라고 볼 수 있다. 질적 연구방법에서는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 일반성을 추구하기보다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례의 재구성을 통해 끌어올릴 수 있는 일상생활의 한 측면에 대한 ‘상호주관적 설득력’을 추구한다.¹⁰ 질적 연구에서 다루는 개별 사례는 그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사회에 관한 모종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내가 본 것을 그들도 보고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여 표현한다”는 것이 질적 연구의 ‘객관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 질적 자료의 신뢰도는 내적 일관도, 교차분석, 넓은 맥락에서의 판단 등을 통해 평가한다. 또한 질적 자료의 사실성 여부보다는 구술자가 특정 사건에 부여하는 주관적 생각, 감정, 감성, 의미를 주관적 진실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¹¹

⁹ 윌코트(Wolcott)에 의하면 해석은 “연구자가 안 것을 독자가 알게(know) 하는 일”을 의미하는 ‘분석’과 달리 “연구자가 이해한 방식으로 독자가 이해하게(understand)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기어츠(Geertz)는 해석이란 사람들의 경험을 구성하는 국지적 이론을 발견하여 제시하는 일, 행위의 의미 뿐 아니라 그 의미의 원천적 생성구조를 함께 제시하는 일이라고 본다.

¹⁰ 이희영, “북한 일상생활 연구자료의 생성과 해석,” 박순성·홍민 엮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울, 2010), p. 246.

¹¹ 구술사 연구 분야에서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다른 구술증언을 폐기해야 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인 해석 자료로 수용해야 하는가의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이 문제에 관해 포르텔리(A. Portelli)는 허구적 인식이라도 역사적으로 객관적인 힘을 발휘한다면 “심리학적 진실”이며 “객관적 세상을 만들어내는 주관적 감성 구조”라고 보고, 구술 자료의 오류는 구술자들의 공통의 주관적 꿈, 바램, 신화, 욕망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Alessandro Portelli, *The Death of Luigi Trastulli and Other Stories: Form and Meaning in Oral Histor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p. ix.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질적

이 연구에서는 각 장별로 생애사연구, 심층면접 및 초점집단연구, 사회극적 재구성 등 질적 연구방법의 다양한 연구 기법을 활용하였다. 생애사연구는 특정 집단과 사회를 표상(representation)하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생애사건을 통해 특정 사회의 ‘구체적 일반성’을 이해하는 것이다.¹² 심층면접은 면접자가 구술자에게 질문을 하여 이야기를 듣는 것인데,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형식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비구조화된 면접, 반구조화된 면접, 구조화된 면접으로 구분된다. 초점집단연구(Focus Group Interview)는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연구방법으로 그룹간의 언어행위, 상호작용, 의견형성 과정을 관찰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사회극적 재구성은 한 공동체나 사회의 구조를 돌출된 특정 위기나 사건을 통해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설명방식이다. 이 이외에도 질적텍스트를 해석하는 방식으로서 두껍게 읽기(thick description)¹³와, 다양한 자료와 연구관점을 종합하는 삼각검증법(triangulation)¹⁴을 적용하였다.

연구에서 초점은 자료의 객관적 사실성이기보다는 질적 자료에 내재해있는 주관적 진실을 연구자가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의 문제이다.성이기보다는 질적 자료에 내재해있는 주관적 진실을 연구자가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의 문제이다.

12. 인간의 구체적인 생애에 기초한 연구 방법에 대한 여러 학문 분야의 관심은 “전기적인 선회(biographical turn)로” 지칭되기도 한다. 이 선회는 실증주의(positivism), 결정주의(determinism), 사회적 구성주의(social constructionism) 등 지배적인 사회과학 담론이 사람들의 실제 삶으로부터 유리되어있다는 반성에서 비롯되었다. P. Chamberlayne, J. Bornat and T. Wengraf (eds.), *The turn to biographical methods in social science: comparative issues and examples* (New York : Routledge, 2000).
13. 두껍게 읽기는 조사자료의 집적에 기초한 얇은 기술과 달리 텍스트의 맥락에 대한 심층분석과 이해를 통해 상호교차하거나 복합적으로 읽힌 개인 행위자의 체험세계에 다가가는 접근법(C. Geertz)을 의미한다.
14. 삼각검증(triangulation)은 서로 멀리 떨어진 각각의 지점에서 각도를 관측하여 각각의 위치 관계를 수치적으로 정하는 삼각측량법과 마찬가지로 한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론적 실천, 경험적 자료, 관점, 관찰자의 조합을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 50여 명에 대한 생애사적 인터뷰와 심층면접, 초점집단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공동연구자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연변 등 북-중접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에서 표집은 양적 연구방식과 차이를 지닌다. Goetz & Le Compte에 의하면 질적 연구에서 모집단 특성과 분포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 연구자의 접근이 제한될 때, 일반화가 연구목적이 아닐 때, 표집 분포가 불규칙할 때 등의 경우에는 준거적 선택이 적절하다. 준거적 선택에는 네트워크 선택, 극단적 사례 선택, 전형적 사례 선택, 유일한 사례 선택, 유명한 사례 선택, 이상적 사례 선택, 대조적 사례 선택 등의 유형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선택, 전형적 사례 선택, 대조적 사례 선택 등의 표집방식을 적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총 54명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연구진이 실시하였다. 면접 대상자는 연구자가 직접 알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 단체를 통해 선정하여 접촉하였다. 이는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자와 면접 대상자간의 신뢰 형성이 면접의 내용과 심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데다가, 면접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이 신변 안전의 문제에 대해 예민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소개자에 대한 신뢰 여부가 면접 자료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자가 면접 대상자에게 먼저 전화로 연락하여 연구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조사참가의사를 타진한 후 연구자의 연구실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등에서 2~3시간 정도에 걸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면접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I
II
III
IV
V

면접 대상자 선정에 있어 계층과 거주지역, 성별 등이 골고루 분포 되도록 하려고 했으나,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면접 대상자를 확보하는 스노볼링 기법을 활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연령 및 거주지역 별로 인원이 균형있게 안배되지는 못하였다. 연령별로는 북한이탈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30대, 40대가 주를 이루었고, 지역별로는 함경북도 출신자가 주를 차지했다. 성별, 연령대별, 출신지역별, 직업범주별, 탈북연도별, 입국연도별 면접인원은 다음의 <표 I-1>, <표 I-2>, <표 I-3>, <표 I-4>, <표 I-5>, <표 I-6>과 같다.

●표 I-1 성별 면접인원

(단위: 명)

성별	남성	여성	합계
인원	22	32	54

●표 I-2 연령대별 면접인원

(단위: 명)

연령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인원	6	15	22	7	4	54

●표 I-3 출신지역별 면접인원

(단위: 명)

출신 지역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북도	황해남도	평양	평안남도	자강도	양강도	합계
인원	24	7	2	2	3	2	1	11	54

●표 I-4 직업범주별 면접인원

(단위: 명)

직업	노동자	농민	인텔리 (교원 등)	상인	군인	관리직 (관료 등)	학생	합계
인원	19	2	17	5	5	3	1	52

●표 I-5 탈북연도별 면접인원

(단위: 명)

탈북연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인원	2	1	1	2	1	0	2	3	0	2	13	18	7	52

●표 I-6 입국연도별 면접인원

(단위: 명)

입국연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합계
인원	1	1	1	0	3	2	1	9	15	19	52

구술자의 상세한 인적사항은 다음의 <표 I-7>과 같다.

●표 I-7 구술자 상세 인적사항

사례 번호	성별	나이	탈북 연도	입국 연도	북한 내 거주지	북한 내 직업	학력	면접일
1	남	30대	2008	2009	함경 북도	노동자	전문 학교졸	2010.03.31
2	남	20대	2008	2008	평양시	대학직원	대졸	2010.04.05
3	여	30대	2008	2009	함경 북도	장사	전문 학교졸	2010.04.06

I

II

III

IV

V

사례 번호	성별	나이	탈북 연도	입국 연도	북한 내 거주지	북한 내 직업	학력	면접일
4	여	40대	1999	2008	함경 북도	해설원	대졸	2010.04.06
5	남	40대	2008	2009	함경 북도	노동자	대졸	2010.04.07
6	여	20대	2007	2007	함경 북도	노동자	고등중졸	2010.04.10
7	남	60대	2008	2008	황해 북도	중학교 교원	대졸	2010.04.14/ 4.16
8	여	20대	2008	2009	함경 북도	경비대	고등중졸	2010.04.14
9	여	40대	2009	2009	함경 북도	노동자	고등중졸	2010.04.15
10	여	40대	2007	2008	양강도	노동자, 장사	간부 학교졸	2010.04.16
11	여	50대	2008	2009	함경 북도	해설원	대졸	2010.04.16
12	여	60대	2009	2009	양강도	부기원, 장사	전문 학교졸	2010.04.16
13	남	40대	2008	2009	양강도	교원	대졸	2010.04.17/ 4.23/5.4
14	남	40대	2003	2007	함경 남도	노동자	대졸	2010.04.26
15	남	40대	2000	2005	자강도	세관 검사원	대졸	2010.04.26
16	남	30대	2007	2007	황해 남도	인민보안 국 부원	대졸	2010.04.26
17	여	40대	2007	2008	황해 북도	노동자	고등중졸	2010.04.26
18	여	30대	2006	2007	평안 남도	예술선전 대, 노동자	고등중졸	2010.05.02
19	여	40대	2008	2009	양강도	의사	전문 학교졸	2010.05.03
20	여	40대	2001	2005	함경 남도	인민반장	전문 학교졸	2010.05.04

사례 번호	성별	나이	탈북 연도	입국 연도	북한 내 거주지	북한 내 직업	학력	면접일
21	여	40대	2007	2009	함경 남도	교원	대졸	2010.05.04
22	여	50대	2004	2004	함경 북도	교수	대졸	2010.05.04
23	남	50대	2004	2004	함경 북도	노동자	대졸	2010.05.04
24	남	50대	2003	2004	함경 남도	교수, 기술자	대졸	2010.05.04
25	남	30대	2009	2009	양강도	군인	고등중	2010.05.07
26	남	30대	2009	2009	함경 북도	노동자	고등중	2010.05.10
27	남	40대	2007	2007	함경 북도	노동자	전문 학교졸	2010.05.12
28	여	40대	2006	2008	함경 북도	호텔 관리원	고등중졸	2010.05.14
29	남	40대	2008	2008	함경 남도	농업 노동자	고등중졸	2010.05.16
30	여	40대	2004	2007	함경 북도	군부대 참고장	고등중졸	2010.05.18
31	남	40대	2008	2008	황해 남도	교원, 번역사	대졸	2010.05.19
32	여	40대	2009	2009	함경 남도	교원	전문 학교졸	2010.05.19
33	여	50대	1997	2001	함경 북도	고등중 교원	전문 학교졸	2010.05.20
34	남	40대	2007	2008	함경 북도	교수	대졸	2010.05.29
35	여	30대	2008	2009	양강도	물자관리원	대졸	2010.06.02
36	여	40대	2000	2006	함경 북도	농장원	전문 학교졸	2010.06.05
37	남	30대	2008	2009	평양시	합영회사	전문 학교졸	2010.06.08

I
II
III
IV
V

사례 번호	성별	나이	탈북 연도	입국 연도	북한 내 거주지	북한 내 직업	학력	면접일
38	여	30대	2008	2009	양강도	노동자	대졸	2010.06.26
39	여	30대	2007	2007	함경 북도	교사	대졸	2010.07.01
40	여	40대	북한 주민	-	황해도	-	-	2010.07.04
41	여	60대	북한 주민	-	함경도	-	-	2010.07.11
42	여	40대	1998	2000	함경 북도	노동자	고등중졸	2010.07.14
43	여	50대	2009	2009	평양 남도	장사	대졸	2010.07.18
44	여	40대	2007	2009	함경 북도	노동자, 장사	전문 학교졸	2010.07.19
45	여	20대	2008	2008	함경 북도	노동자	고등중졸	2010.07.24
46	여	30대	2008	2008	함경 북도	노동자	고등중졸	2010.07.24
47	남	30대	2009	2009	평양시	외무성 부원	대졸	2010.07.30
48	여	20대	2007	2007	함경 북도	대학생	대학재학	2010.08.06
49	남	30대	1997	2002	양강도	노동자	고등중졸	2010.08.17
50	여	60대	2007	2008	양강도	약사	대졸	2010.08.23
51	여	30대	2007	2007	양강도	사적관 강사	대졸	2010.08.23
52	남	30대	2007	2008	양강도	군인	고등중졸	2010.08.26
53	남	20대	2008	2008	함경 남도	군인	대졸	2010.08.26
54	남	50대	2008	2008	함경 북도	장사	대졸	2010.09.02

면접 내용은 면접 대상자의 동의를 구한 후에 녹음하였으며, 면접 후 면접 내용을 전문(全文) 녹취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녹취록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주요 내용을 범주화하고 주제별 코딩을 실시한 후 코딩 내용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 주제와 관련된 중심 주제들을 도출하고 중심 주제와 주제별 해석을 정교화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생애사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경우에는 생애사 구술 방식으로 수집한 전체 면접자료를 검토하여 연구주제와 관련된 최대비교와 최소비교의 관점에서 주요 사례를 선택하고, 선택된 사례의 개별적인 특성에 대한 주제와 작업을 통해 상호비교의 관점을 도출하고, 사례를 재구성, 해석하였다.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인 회의 및 워크숍을 통해 연구진 간에 자료 수집 및 사례 분석의 과정을 공유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면접자료 이외에도 일부 연구진이 중국의 접경지역에 여러 달 체류하면서 직접 만난 북한 주민들의 면접자료와 연변 등지의 중국 접경지역을 방문하여 체류 중인 북한 주민들에 대한 관찰을 통해 얻은 질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최근 발간된 북한사회 관련 연구물에 활용된 면접 자료를 재분석하기도 하였으며, 북한의 공간문헌, 북한사회 동향 관련 자료, 북한 소설, 북한 주민들의 수기 등의 문헌자료도 활용하였다. 로동신문과 북한방송 등 일차자료, 북한 소설 등의 문헌자료를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의 교차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탈북자 관련 NGO 등에서 수집·보고하고 있는 북한 주민생활 및 사회 동향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북한 주민들의 의식 및 가치관, 행위양식의 변화를 유추하였다.

I
II
III
IV
V

II. 자아와 내면세계

복합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성

1. 의식전환의 메커니즘

북한 주민들은 북한사회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가정, 학교, 직장 등 주요한 사회화 기관들을 거치면서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의식과 신념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는 북한체제가 내구력을 갖는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난, 시장화의 확산, 외부 문화의 유입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재생산기제들을 통해 접했던 의미관점과는 다른 신념, 가치, 의미 체계를 접하고 의식과 가치관의 혼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의미관점의 변화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현재까지 자신이 경험한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며 과거의 경험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는 전반적인 의식과 사고방식, 나아가 행동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과 같이 억압적, 이데올로기적 통제기구가 발달한 사회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의식에 반하는 의식의 변화는 쉽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북한사회 변화를 보여주는 미시적 징후인 동시에 행동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북한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그 변화가 북한 주민 개개인의 경험과 의식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목한다. 특히 새로운 생애경험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로 연결되는 미시적 메커니즘을 탐구하고자 한다.

가. 의미관점의 전환과 정체성, 생애사 서술

인간의 삶은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무엇인가를 체험하고 그러한 체험으로부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도적이든 아니든 모종의 학습을 하게 된다. 메

I

II

III

IV

V

찌로우(J. Mezirow)에 따르면 학습이란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개정해나가는 과정이다. 즉, 학습은 이후 행동의 지침으로서 현재의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전의 해석을 사용하는 과정이다.¹⁵ 사람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의미관점을 형성해 나가는데, 자신의 의미관점에서 타인과 다른 점을 발견하거나 일상적으로 문제해결이 곤란한 전환점을 맞이할 때 의미관점의 재검토와 전환이라는 ‘관점전환학습’이 일어난다. 관점전환학습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인식의 준거들을 보다 포괄적이고, 분별력있고, 개방적이고, 정서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성찰적인 준거들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¹⁶

이 절에서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특히 ‘관점전환학습’의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애경로를 해석하고 재구성한다. 관점전환학습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애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생애경로에 영향을 미친 경험과 경험의 재구성,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정체성의 변화에 관하여 탐색한다. 특히 사회화 과정, 사회경제적 변동, 문화접변 등 의미관점의 형성, 변화와 관련된 경험이 특정한 계기에 개인의 인식구조 속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탈북이라는 극

¹⁵ J. Mezirow,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J. Mezirow (ed.), *Learning as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 5.

¹⁶ 인식의 준거틀(frame of reference)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경험을 여과하는 가정과 기대의 구조인 “의미관점”을 의미한다. 그것은 인지적, 정서적, 의지적인 차원을 포함한다. 준거틀은 우리의 의도, 기대, 목적을 미리 조율함으로써 지각, 인지, 느낌, 성향을 형성하거나 제한한다. 메찌로우는 인식의 준거틀을 정신습성(habit of mind)과 관점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한다. 정신습성은 경험의미의 해석을 여과하는 광범위하고 일반화된 가정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이는 관점으로 표출된다. 관점은 의미도식(meaning schemes), 즉 즉각적인 특정한 기대, 신념, 느낌, 태도, 판단들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Ibid.*, p. 16.

적인 생애사건에 영향을 미친 의미관점의 전환 과정은 어떠한 것인가? 탈북을 전후로 한 생애사적 과정 속에서 북한체제에 대한 인식, 남한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등의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북한 주민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관점전환의 미시적 기제를 탐색하기 위해 구술생애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생애이야기(narrative)¹⁷를 서술하는 과정은 곧 자신의 생애 경험에 대한 성찰의 과정이자 현재 자신의 삶의 맥락 속에서 자신의 과거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이는 곧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구성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서술한 자기역사는 개인의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리코르(P. Ricoeur)에 의하면 인간은 과거를 정돈하고, 있었던 일을 반복 혹은 새롭게 이야기함으로써 정체성을 획득한다.¹⁸ 또한 구체적인 개인의 생애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가

¹⁷ 내러티브는 특정 사건, 인물에 관한 짧은 주제가 있는 이야기, 한 사람의 생애에서 중요한 확장된 이야기, 전체 생애사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중 생애사는 개인 삶의 특정한 중요 국면이나 전체 생애에 관한 확장된 자전적 이야기로서, 개인의 생애를 보여주는 사회과학 텍스트를 의미함. S. E. Chase, "Narrative Inquiry: Multiple Lenses, Approaches, Voices,"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lifornia: Sage Publication, 2005), pp. 651~652.

¹⁸ 리코르는 자기 이름으로 지칭된 행동의 주체를,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연장되어 있는 삶 전체에 걸쳐 동일한 사람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를 질문한다. 그에 의하면 "누가?"라는 물음에 답한다는 것은 삶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며, 따라서 '누구'의 정체성은 '서술적 정체성'이다. 서술 행위의 도움 없이는 인격적 정체성의 문제는 사실상 해결책 없는 이율배반에 빠지고 만다. 그는 정체성 개념을 '동일성' 대신 '자기성'으로 이해할 것을 주장한다. 동일성과 자기성의 차이는 바로 실체적 혹은 형식적인 정체성과 서술적 정체성의 차이이다. 자기성은 역동적 정체성 모델에 부합하는 시간 구조에 토대를 둔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동일자와 타자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있다. 동일자의 추상적인 정체성과는 달리 자기성을 이루고 있는 서술적 정체성은 변화와 변화 가능성을 삶의 일관성 속에 포함한다. 삶의 스토리는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진실하거나 꾸며낸 모든 스토리들로 끊임없이 다시 형상화된다. 그는 내러티브를 통한 재형상화를 통해 삶은 이야기된 스토리들로 짜여진 직물이 된다고 본다. 폴 리

I
II
III
IV
V

속한 집단, 사회, 문화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생애사는 개인의 직간접적인 체험에 대한 서술이라는 점에서 ‘사적’인 동시에, 개인의 생애사가 개인이 처한 사회역사적인 행위공간에서 타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공적’이다. 개인에게 주어진 사회적 규범과 질서는 그 자체로 개인사를 규정하거나 개인사 속에서 재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생애사적 작업’을 거쳐 특정한 방식으로 형상화된다. 따라서 특정한 사회의 개인과 해당 사회적 질서가 만들어낸 창발적 구성물인 생애사는 개인과 사회, 혹은 내부와 외부를 통합하는 매개물이며, 생의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변화하는 사회적 경험, 역할, 지위, 신분 등은 개인화의 표현이자 동시에 사회구조적인 사회화의 내용들을 보여준다.¹⁹

생애이야기를 말하는 구술자는 이를 통해 자기 삶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한다. 생애이야기는 자기 삶에 대한 화자 자신의 해석이고 주관적 조명이며 개인적 현실구성이다. 생애이야기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가 자기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하는 점을 드러내준다.²⁰ 구술자는 자신의 생애사를 이야기함에 있어 특정한 사건을 기억하고 선택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개인의 경험과 심리적 상황, 사회정치적 맥락, 구술자와 연구자간의 관계 등에 따라 구술자는 특정한 기억을 망각하거나 새로운 기억

피르, 김한식 옮김, 『시간과 이야기 3: 이야기된 시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pp. 471~472. 또한 기든스(A. Giddens)는 일관된 현상으로서의 자아 정체성은 내러티브를 전제하고 있다고 본다. 개인이 생산한 해석적 자기역사는 현대 사회에서 자아정체성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앤서니 기든스, 권기돈 옮김,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서울: 새물결, 1997), p. 145.

¹⁹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한국사회학회, 2005), pp. 124~133.

²⁰ 손병우, “대중문화와 생애사 연구의 문제설정,” 『언론과 사회』, 제14권 제2호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 사회사, 2006), pp. 46~47.

을 첨가하거나 변화시키기도 하며, 일련의 사건의 중요성과 전개과정을 재배치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생애사 구술 과정에서 일어나는 기억의 개정을 기억의 왜곡과 오류라고 보기보다는 구술자의 주체적인 경험의 재구성 과정이며, 구술자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본다.

나. 사례 재구성

북한 주민들의 의미관점의 전환과 이에 따른 경험의 재해석의 미시적 메커니즘을 탐색하기 위해 이 절에서는 구술자들의 생애체험을 살펴본다. 연구자가 직접 생애사 면접을 실시하였던 열한 명의 북한 이탈주민 중 세 명의 생애사를 재구성하여 서술하고, 나머지 사례는 관련된 내용 분석 시 부분적으로 소개한다.²¹ 구술자들의 의미관점의 전환과정을 전체 생애사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사례의 생애사 전개과정을 풍부하게 서술하고자 하였으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생애사적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이 이루어졌고 구술자 스스로가 해석하는 생애사의 주요 내용을 모두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생애사 분석의 주요 대상이 된 세 사람의 사례는 전체 사례들 속에서 관점전환학습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정체성 변화의 특성을 중심으로 최대비교 및 최소비교²² 사례를 선정한 것이다. 신주석 씨와의 최소비교 사례는 류선옥 씨이며, 최대비교 사례는 안영호 씨이다.

21. 생면부지의 연구자 앞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과 아픈 기억들을 열어 이야기 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구술자들의 생애 경험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은 전적으로 연구자의 비재의 소치이다.

22. 사례의 구조적 특징이 상호 공통점을 보이는 경우를 최소비교의 사례, 차이점을 보이는 경우를 최대비교의 사례라고 한다.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집 1호 (한국사회학회, 2010) p. 217.

(1) 신주석: 경계를 향해하는 사람

(가) 귀국자 티를 내지 않는 삶

신주석 씨와의 첫 만남은 2009년 봄에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그를 만난 것은 북한의 최근 교육 실태에 관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였다. 그는 30년 가까이 교원생활을 한 선생님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조심스럽고 예의바른 몸가짐과 말투를 지녔고, 인터뷰 내내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설명과 성실한 답변의 자세를 보여주었다. 신주석 씨와의 첫 번째 인터뷰를 통해 연구자는 한평생을 교원으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한 그의 자부심과 북한의 교육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 뒤로 일 년 만인 2010년 4월에 총 여섯 시간에 걸친 두 차례의 생애사 인터뷰를 통해 신주석 씨의 인생역정을 들었다. 여기에 소개하는 신주석 씨의 생애사는 이 세 번의 심층면접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신주석 씨는 1950년 일본에서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일제시기에 징용을 당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도망쳐서 일본에서 생활을 하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장사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버지는 글자도 못 쓰는 “알깡통”이었지만 “재간이 있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좋은 가정 출신의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이었다. 재일교포 복송²³이 진행되었던 1960년대 초반, 초총련 활동에

²³ 재일교포 복송문제는 1955년 북한외상 남일의 재일교포 귀환 추진 발언과 1958년 9월 8일 ‘재일교포의 귀국을 환영한다’라는 김일성의 성명을 계기로 표면화되었다. 이후 한국정부의 외교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9년 2월 일본각의에서 ‘재일조선인 중 북조선 귀환희망자의 취급에 관한 건’이 의결되고, 그해 8월 13일 북한적십자사(북적)와 일본적십자사(일적) 간에 켈커타 북송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재일교포 복송이 정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959년 12월 14일 975명의 재일교포 복송 제1진이 니가타항을 출발한 이래 1967년까지 약 8만 8,000명의 재일교포가 북한으로 입국했다.

적극적이었던 아버지는 민단계와 총련계 간의 싸움에 휘말려 위험한 상황을 맞게 되고, 가족과 함께 북한행을 선택하게 된다. 아버지에게 들었던 북한은 “세 끼마다 몽땅 다 고기밥을 먹는 세상”, “자기 일 하고프면 일하고, 일 안 하고프면 일 안 하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막상 북한 땅에 도착해서 그는 북한의 실상은 이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구술자는 “더블리스크”라는 배를 타고 함흥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과 에피소드에 관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다(신주석 구술녹취록, 2010 I/7).²⁴

아: 처음에 도착하는데 굉장하더군요. 그 함흥이라는 게 공업지구 아니냐요? 멀리서 보니까 뭐 굴뚝 연기가 나고 굉장하더라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와-’ 하더라구. 와: 굉장한데 온다구-. 아, 그런데 점점 점점 다가가는데 지금 이상한 그 뭐야, 부두에 이렇게 쪼개진 거까지 갈라진 거까지 다 보여요, 이렇게. 이마빼기 같은 거 밑에 쪼개지고 이런 거-. 점차적으로 이게 커- 가까이 가니까 세세하게 다 보인 다, 그거지. 겨우 사람들 그 환영하러 환영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쪽 보니까 단순하다 그거지. 사람들이- 내 눈에 보기도- 뭐인가 하면, 옷이- 일본에선 옷 입으면 가지각색 아니냐요? 이진 단순하다 그거예요. 쪽 보기에- ‘아: 저게-’ 어쨌든 그런 감을 가지고 지금 착 도착해서 지금 내렸는데, 아: 그 그때 가보니까 그래요. 대학생들이 지금 나팔 들고 환영곡을 부르는데, 그때 난 대학생인지 뭐인지 모르니까-. 그래도 악기 소리가 나니까 난 유심히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아: 개들은 번쩍번쩍 하더라구. 닭진 닭아서 그랬잖지. 근데 지나가면서 가차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막: 움푹 움푹 패었더라구. 얼마나 낡았는지-. 그런 나팔을 볼 수 있었던 말이야. 그카고 옷 보니까 회색, 그때 모자도 회

<<http://100.naver.com/100.nhn?docid=133667>>.

²⁴ 이 글에서 녹취록을 인용하는 방식이다. 괄호 안의 표시는 구술자 신주석 씨의 2010년 첫 번째 구술녹취록 중 7쪽에서 인용한다는 뜻이다.

I
II
III
IV
V

색이요 옷두 회색을 입었더라구. 여자들은 치만테 회색치마-. 그거 다 입었더라구. 넥타이는 땃더라구. 뭐 넥타이는 한 몇 가지 색으로 된 거 같애.²⁵

그가 떠올리는 북한사회의 첫인상은 한편으로는 함흥공업지구의 모습이나 환영 나온 인파와 환영곡을 연주하는 악기 소리와 같은 번영과 환영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이지만, 이와 동시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쪼개지고 갈라진 틈이나 낡은 악기, 회색 옷과 같은 이중성과 빈곤의 코드이다. 그는 지역에 정착하기 전까지 머물렀던 초대소에서 제공되었던 반찬, 초대소 부근에서 만났던 “홀랑 벗은” 아이들, 고무신, 장난감돈 같은 북한의 화폐 등을 보면서 느꼈던 문화적 이질감과 북한의 빈곤함에 대한 인상을 깊이 간직하고 있다(신주석 구술녹취록, 2010 I/7~9). 물론 북한사회의 빈곤함이나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낡은 이중성, 본인이 느꼈던 문화적 이질감과 관련된 강한 인상은 어린 시절 느꼈던 느낌일 뿐 아니라 이후 구술자의 생애 과정 속에서 축적되고 재구성된 기억이다. 이 시기의 회상에 등장하는 이질성과 거리감은 신주석이 평생 북한사회의 공민인 동시에 “짜포”²⁶라 불리는 경계인으로 살아온 이후 40여 년간의 삶에 대한 구술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신주석 씨의 가족은 황해북도 사리원에 정착하고, 신주석 씨는 인민학교에 편입하여 공부를 하게 된다. 그러던 중에 그는 월남을 기도한 어느 가족에 대한 인민재판 과정을 보면서 북한의 정치적 환경이

²⁵ 녹취록에 사용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의 숫자는 침묵이 지속되는 시간(초), ;는 장음부호, --는 말늘임 표시, (())은 연구자의 부연 설명, (...)은 생략된 인용을 의미한다.

²⁶ 북한 주민들이 재일교포를 일컫는 말이다.

일본과는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이미 “사회주의라는 게 완전히 다르다”, “어쨌든 사상이 좋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구술한다(신주석 구술녹취록, 2010 I/10). 그는 또 사리원 역전에서 벌어진 귀국자와 군대간의 다툼 끝에 귀국자 출신 청년 두 명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목격하고 “귀국자 티를 내지 말아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그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말을 열심히 배우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된다. 그가 기술학교²⁷에 다니던 60년대 후반 무렵 형의 친구가 주체농법을 비판해서 리당에 끌려가서 혼이 난 후 끝내 실종된 사건을 목격하고, “말 잘하구 행동두 잘하고, 여기서는 고조 오직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갓구나”라고 결심하게 된다. 북한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신주석 씨는 어린 나이였지만 북한사회의 정치적 특성과 남과 다른 자기 가족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귀국자라는 티를 내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는 인생의 좌우명을 갖게 된다. 이는 이후 북한에서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지배적 의식으로 작용하게 된다.

기술학교 졸업 후 고등기술학교에 진학할 때 신주석 씨는 자연과학계통의 학교에 진학을 원했지만 고등농업학교로 진학을 하게 된다. 본인의 희망과 달리 농업학교에 진학하게 된 그는 학교 공부보다도 음악에 몰두하게 된다. 그는 한편으로는 음악을 통해 세계를 인식하고, 북한사회의 한계에 대해서도 인식한다. 고등기술학교에서 음악을 하면서 신주석 씨는 ‘카이작 교습본’으로 바이올린 연습을 했다가 발각되어 북한의 교습본이 아닌 외국 교습본으로 연습을 했다는 이유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에서 비판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는 학

²⁷ 기술학교는 1967년에 신설된 초급중등 교육기관이다. 당시 기간학제는 4년제 인민학교, 2년제 기술학교, 2년제 고등기술학교로 구성되어 있었다.

I
II
III
IV
V

교를 무단결석하고 이리저리 손을 써서 고등의학학교 전학의 기회를 만들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1년 후 의학전문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천리마학교 쟁취운동을 위해 음악소조를 구성하고 있었다. 그는 음악소조 활동을 하면서 사리원 소년회관 음악지도교원을 만나 “많은 걸 배우게” 된다. 졸업 후 그는 “이 땅에서 살려면 당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에 군에 입대한다. 포병으로 근무하면서 중대 음악씨클 활동을 계속하고 1974년에 드디어 입당을 하게 된다.

제대하고 나서 신주석 씨는 리의 도서보급원과 사로청위원회 일을 맡게 된다.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로청 사업을 하면서 인정도 받고 즐겁게 놀기도 했던 이 시기를 그는 아주 즐거웠던 시절로 기억한다. 제대 후 3년 만에 그는 리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의 권유로 청소년 음악기동대를 조직하고 그 일을 맡는다. 음악기동대의 성과를 인정받은 그는 2년 후 음악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졸업 후 그는 대학 교원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이론과 집필보다는 실질적인 음악활동을 하고 싶어 몇 년 만에 “피병을 부려서” 대학에서 빠져나와 고등중학교 음악교원으로 가게 된다.

80년대 중반부터 중학교 교원생활을 하면서 그는 북한에서 음악은 “사람들이 다 애용하는 음악이 아니라 정치적인 음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자신이 하고 싶은 관현악이 아닌 취주악 중심으로 음악소조를 구성하여 시의 행사를 도맡아 해야하는 것에 대해 “맛대가리가 없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현실에 실망하고 이를 비판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속에서 취주악을 연구해서 관현악과 같은 편성과 편곡을 통해 “은근하고 멋있는”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 내고 음악인으로서 자신의 편곡 실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나) 다양한 경험과 의식의 점진적 변화

20대와 30대를 거치면서 신주석 씨의 삶의 무대는 군대, 대학, 직장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50대 후반에 탈북을 하기까지 그는 다양한 생애사건을 겪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북한사회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경험한다.

우선 북한사회에 대한 그의 비판적 의식은 음악 활동과 관련되어 형성된 부분이 많다. 중등학교 학생 때 외국의 바이올린 교본으로 연습하다가 곤욕을 치렀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이후 시기에도 계속 반복된다. 그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음악 스승 중에는 음악적인 측면에서는 천재적인 소질이 있으나 출신성분이 안 좋거나 사상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는 그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보다 높은 예술성을 추구하는 그의 노력은 북한사회의 폐쇄성, 북한 음악의 정치성과 충돌했다.

음악하면서 내가 더 알게 됐어요. 교칙본이라든가 음악이론, 화성학 이런 것들, 복성학, 이런 것들 주로 보는데, 북한의 거는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많지 못하고. 고저 한마디로 말하면, 단순음악, 노래에 후렴 있는 노래, 이런 것에 불과하지 무슨 큰 거 ((아니예요)), 그릇이 작다고. 그러자면 외국도서 꼭 봐야 되는데. 외국도서 보는 것 때문에 내가 수정주의자, 완전히 반동으로 몰렸었으니까, 내가. (신주석 구술녹취록, 2009 I/22)

음악 활동을 통해 북한사회의 정치적 제약을 느낀 것 이외에도, 그는 당원들만 보는 참고신문을 통해, 친한 동료 군인이나 교원들과의 은밀한 이야기를 통해, 남쪽에서 날아오는 빠라를 통해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했고, 이러한 정보는 일본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과 함께 북한사회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 작용

I
II
III
IV
V

하였다. 그는 대학교에 다니던 1980년대 초반에 남한에서 보낸 뼈라를 통해 남한 사회의 발전상을 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뼈라의 내용을 믿지 않았지만, 군대에서 동료 군인끼리 남한이 발전했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실을 떠올리면서 뼈라의 내용이 신빙성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한 나라 땅인데, 똑같은 땅이라는데 고저 여기보다 나으면 조금이나 낫겠지”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신주석 구술녹취록, 2010 II/23)

대학 교원으로 일할 때는 대학의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김일성에 관한 소문을 접하고는 “나도 안테나 좀 높여야 되겠구나”(신주석 구술녹취록, 2010 II/23)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김일성 사망 당시까지도 그는 정권에 대한 반감은 크게 갖지 않았다. 오히려 김일성 사망 추도 인파 속에서 일부 젊은이들의 경건하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섬뜩함을 느낄 정도였다.

1990년대 중반의 경제난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생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했다. 90년대 중반 들어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리원에서 공장 방화, 뼈라, 간첩사건 등이 연달아 일어나고 큰 사회적 범죄사건도 빈발하였다. 학교 교원들은 생계의 곤란을 겪고, 학생과 교원의 결석, 결근으로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그가 담당하고 있던 중학교 음악소조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유명무실해지기에 이른다. 이렇게 급격한 사회변화가 진행되었던 시기에 그는 동료 교원들과 다른 지역의 교원들을 만나면서 북한 간부들의 부패상과 남한의 경제적 발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

그러던 중 그는 의식전환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사건을 겪게 된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 사리원 지역 학생들의 출석률은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경제상황이 다소 호전된 2000년대에는 출석률이 다소 개선

되었고, 학교에서도 결석생들에 대한 가정방문 지도를 하게 된다. 신주석 씨도 재일교포 출신 학생의 집에 가정방문을 했다가 난방도 못하고 앉고 누워있는 학생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된다.

다 명단 작성해서 매 교원한테 돌아가는데 48명되는 교원들한테 다 줬어. 이 집에 가보라구 가보라구-. 그래 내가 한집에 갔어. 장판두 못했어. 세멘트 콘크리트 다 떨어졌지, 지금. 아, 근데 일본 엄마네 집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 난 그래서- 내 어카든 눈물 참아서 울진 않았어. 그 집은 새카매, 얼마나 그거한지-. 불도 때지 못해서, 겨울에 갔는데 춥지, 아이는 앓지, 그 딸-. 하니깐 그 엄마는 일본 엄마는 따로 살고 딸이란 말이야, 지금. 딸네 집에 가서- 야: 거기 왔는데 완전히 뭐 아예 내 생각이 달라지더라구. ‘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는데 너무하지 않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봐줘야 이거 되는 거지,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았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신주석 구술녹취록, 2010 II/27)

“장마당에 사람고기가 나왔다”는 소문까지도 나돌 정도로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신도 생계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주위 사람들의 참담한 생활상을 목격하였던 신주석 씨에게 한 학생의 어려운 가정형편이 새삼스러운 충격이 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었던 그러한 체험이 “너무하지 않나”하는 북한 당국에 대한 원망으로 연결된 것은 그 즈음에 있었던 또 다른 개인적인 사건과 연결되면서 그 의미가 증폭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북한 당국에서 재일교포 중에 몇 사람을 선발하여 일본 방문 가족 상봉을 허락하였고, 신주석 씨는 어머니의 평생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상봉단에 어머니를 포함시키려고 갖은 방법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는 결국은 불발로 그치게 된다. 어머니의 일본 방문이 좌절된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차곡차곡 누적되어왔던 북한사회에 대한 불만은 임계점

I
II
III
IV
V

을 넘어서게 된다. 신주석씨는 이 시기의 자신의 의식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술한다.

연구자: 그래서 그 시기를 겪으시면서 선생님 마음이 이렇게 많이 변화했어요?

구술자: 예: 난 특히 일본사람들 보면서 난 핵 했다가. ‘아, 내 이 새끼, 여기 이 따위들하구 이것들하구 안 돼.’ 일본 엄마들이야 정말 해줘야 되잖아요. 누굴 믿고 왔나요? 난 그게 생각되더라구. 그카고 보라, 일본 방문 보낸다고 어떻게 하는지-. 그 뭐야, 초대소 같은데 모이게 해놓군 거기서 한 달 동안 강습을 줬. 첫째, 일본사람들하구 북조선이 나쁘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는기야. 응? 그 다음에 일본에 떨어지겠다는 소리 하나도 하지 말라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본 사람들이 주는 거 절대로 받지 말라고요. 음식도 가서 절대로 좋아하고 먹지 말라고-. 뭐 이렇게 시킨단 말이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야요, 이거-. 나 그거 듣구, ‘야, 이거 쓰지 못해, 아들. 쓰지 못해-.’ (신주석 구술녹취록, 2010 II/29)

이전까지만 해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언정 북한 정권에 대한 반감은 크지 않았던 신주석 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당국이 “나쁜 놈”들이고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쓰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인식하고, 더 나아가 “귀국자 자녀라는 게 이게 북조선에서 살아야 이득 얻을 거 하나도 없다. 이 땅에서 이젠 떠나야 되겠다. 기회만 있으면 떠날 것이다”라고 결심하기에 이른다. 이후 아내의 사고와 십 년간에 걸친 병치레, 자녀의 군사학교 진학 실패와 싸움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과 좌절을 겪게 된 그는 “어떻게 출로를 찾아야 되었는데, 여기서 잘살지 못하겠는데, 이젠- 출로를 찾아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이후 병석에 누워 있던 아내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그는 남한으로의

탈출을 결심한다.

결국 2008년 신주석은 가족과 함께 고깃배를 타고 서해안을 통해 남한으로 입국하는데 성공한다.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지 오십년 만에 그는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북한 땅을 떠나 남한 땅에 발을 디디게 된 것이다. 그는 남한으로 향하는 뱃머리 앞에 “음나무 가로수길 같은 물기둥”이 꼭 들어서 있어 배가 계속 그 길을 따라 움직여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고 탈북 당시를 회상한다.

사회적 타자에 대한 배타성이 강한 북한사회에서 어머니가 일본인인 재일교포 출신으로 존재 자체가 내부인과 타자 사이의 경계선에서 있었던 신주석 씨는 태생적으로 경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는 부정적이고 저항적인 태도로 살아왔다고 보다는 귀국자임을 “티내지 않고” 자신의 환경에 최대한 적응하면서 북한사회가 가지는 한계 속에서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전시키려는 적응적인 태도로 일관된 삶을 살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애 사건을 통해 누적된 의식 변화의 계기들은 북한사회의 문제점과 경계인으로서의 그의 한계를 절감하게 만들었고, 끝내 북한사회로부터의 탈출이라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2) 류선옥: 가능성을 찾아가는 도전자

(가) 발전가능성이 없는 ‘새 세대’

류선옥 씨는 북한에서 ‘새 세대’라고 불리는, 80년대 후반에 태어난 청소년이다. 2009년 늦가을에 처음 만난 류선옥 씨는 비슷한 또래의 남한 청소년과 구분되지 않는 용모에 서울 말씨를 또박또박 구사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북한의 청소년 문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I

II

III

IV

V

2010년 여름에 다시 만나 그녀의 생애이야기를 들었다. 여기에 소개하는 류선옥 씨의 생애사는 이 두 번의 심층면접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류선옥 씨는 1989년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남한 출신이며, 할머니는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류선옥 씨의 아버지는 좋지 않은 출신성분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과 차별을 겪었다고 한다. 류선옥 씨는 출신성분이 좋지 않고, 출신성분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받았던 아버지의 경험이 자신의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신주석 씨 사례에 대한 최소비교의 사례이다.

류선옥 씨의 생애 진로에 영향을 미친 가장 중요한 ‘의미있는 타자’는 그녀의 아버지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에 다니다 중퇴를 했고, 의사로 근무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의사로서의 능력은 부족한 동료들보다 항상 낮은 처우를 받는 것을 감수해야 했다. 아버지는 정열적이고 강직하고 자존심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출신성분과 집안 형편 때문에 꿈을 성취하지 못한 아쉬움을 늘 마음 한 구석에 안고 사셨다.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던 아버지는 의과대학 졸업이라는 자신의 소원을 큰딸인 류선옥 씨에게 투사했다. 아버지는 그다지 넉넉지 않은 형편에도 딸의 대학 뒷바라지를 위해 따로 돈을 모았고, 딸이 중학교를 졸업하자 결혼시킬 때 해 보낼 가구를 만들 나무를 미리 구해다 놓을 정도로 만팔을 유독 아꼈다. 그는 류선옥 씨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도 했다. 류선옥 씨가 탈북 의사를 타진했을 때 어머니가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네 운명을 네가 결정할 때가 됐으니까 네 결심에 맡기겠다.”는 말로 승낙을 한 사람도 아버지였다. 그러한 아버지를 류선옥 씨는 무척 존경했

고, 자신의 역할모델로 삼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해 주고 싶었고, 아버지의 자존심도 지켜주고 싶었다”고 구술하였다.

류선옥 씨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기대, 지지 속에서 학교생활을 하였다. 그녀는 공부를 잘 했고, 인민학교와 중학교에서 소년단과 사로청의 간부를 도맡아 하는 모범생이었지만, 또래의 여느 북한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기성세대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청소년 특유의 의식을 형성하였다. 류선옥 씨가 태어난 1980년대 말은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배급제를 비롯한 사회주의적 경제제도 운영에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던 시기이다. 구술자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에 북한은 ‘고난의 행군기’라고 일컫는 최악의 경제난 시기에 접어들게 된다.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면서 많은 주민들이 굶주려 죽었고, 살아남은 주민들의 경제활동의 터전은 공장에서 시장으로 옮겨지고, 주민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합법과 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비공식 생존시스템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게 된다. 자생적 시장화의 움직임은 2000년대 들어 더욱 확대되었고, 교과서와는 다른 현실이 눈앞에 벌어지게 된다. 고지식한 부모님과 철저한 북한의 교육 시스템 하에서 모범생으로 성장한 류선옥 씨는 자신이 책에서 배운 바와는 다른 북한의 사회현실을 보면서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게 된다.

사람들이 살게끔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충실성 어쨌어 하면서 맨날. 군사 현지도도 해서 이렇게 배려한다지만 군대 나가면 영양실조 걸리고, 미디어에서 매체에서 나오는 말과 사람들이 진실로 겪는 그 일은 엄연한 차이가 있거나 너무 반대기 때문에. (...) 우리나라가 경제적 고립에 의해서 고난의 행군 한다, 자기들도, 김일성 김정일도 조밥을 먹고, “인민들이 그걸 먹는데 어떻게 좋은 밥을 먹냐?” 이런 식으

I

II

III

IV

V

로 해서 내보내니까 그런가보다 이랬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보니까 그런 게 너무. 고난의 행군, 제2의 고난의 행군, 맨날 지속되고. 사람들이 막 어떨 때는 굶어죽고 하니까, 달라지죠. 그 사람들이 우리같이 똑같이 못 먹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아닌 거 같다. 그 다음부터 비리가 너무 많이 이렇게. 아빠들이 말하는 거 들리고. (...) 이걸 진짜 누구 하나의 향락만을 위한 그런 거고. 비리, 사회적으로 비리하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진짜 정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고 그렇잖아요. 사회적으로 너무 불공평하고, 불공평한 거 말한다고 해서 잡혀 넣고 아무도 몰래 죽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그렇더라고요. (류선옥 구술녹취록, 2009 I/12~13)

교과서와는 다른 북한사회의 열악한 현실 이외에 구술자가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준 것은 남한 영상물을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이다. 그녀가 처음으로 남한의 영상물을 접한 것은 중학교 5학년 때였다.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게 되면서 그녀는 밤잠을 자지 않고 거의 중독이 될 정도로 이에 빠져들었다. 남한 영상물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웠던 것과는 다른 남한의 발전상을 알게 되었지만, 북한 정권에 분노하거나 속았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남한의 발전상을 알면 주민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할 수 있으니까 북한 당국이 이를 못 보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남한 영상물에서 그녀의 관심을 끈 대목은 남한 사회의 경제적 발전상이나 정치적인 부분보다도 남한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들 앞에 펼쳐진 삶의 다양한 가능성이었다.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일하고 싶은 분야의 직장에 취직해서 돈도 벌 수 있는 남한 젊은이들과 달리, 북한이라는 폐쇄된 사회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출신성분을 타고 태어난 자신은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남한 영상물을)) 보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는 다 른 거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보기 전에는 다 막아놓고 혁명 역사 배워주고 그런 거만 배워주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렇구나,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많이 생각되고, 또 그런 걸 보고 내가 직접 나와서 보는 거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또 대학을 졸업해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좀 앞이 안 보여서. 공부를 아무리 잘한다 한들 뭐 거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공부 잘해서 취직해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막막하고 비굴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노력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데. 보람도 있지 않겠나. (류선옥 구술녹취록, 2009 I/2)

류선옥 씨의 생애 경험이 보여주는 의식의 변화과정은 ‘새 세대’라고 통칭되는 북한의 청소년층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드러낸다.²⁸ 전쟁과 사회주의 국가 건설 과정을 경험하고, 60~70년대의 북한 경제 발전의 성과를 맞보았으며, 나름대로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을 체험하였

28. ‘새 세대’를 공식 문헌에서는 ‘혁명의 4세대’라고 칭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대한 규정은 사회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북한에서의 청소년기는 공식적으로는 ‘조선소년단’ 가입 연령인 9세부터 13세까지와,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가입 연령인 14세에서 30세 사이의 연령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 사회경제적 경험에 기초하여 북한의 세대를 구분하면, 혁명 1세대는 항일빨치산 세대, 2세대는 전쟁 및 전후복구세대, 3세대는 3대혁명 세대, 4세대는 그 이후의 세대로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은 3세대와 4세대 모두 전쟁과 제국주의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므로 반제혁명역사의식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29. 북한에서는 현 시기를 “혁명의 대가 바뀌고 새 세대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시기로 인식하고, “혁명의 1세대들이 개척하고 2세대들이 굳건히 고수해 온 주체혁명 위업의 성패는 3·4세대의 준비정도와 역할에 달려있다.” (『로동신문』, 2008년 10월 21일)고 하면서, 청소년층에게 식민지시기 민족해방운동을 이끌었던 1세대와 한국전쟁과 전쟁복구 시대를 이끌었던 2세대들이 살아왔던 자세로 살아가도록 교양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I
II
III
IV
V

던 북한의 기성세대와 달리, 경제난이 시작된 상황에서 태어나거나 곤궁하고 어렵게 유년기를 보낸 청소년들은 시대적 특성, 진취성과 호기심 등 청소년이 갖는 연령적 특성 때문에 기성세대들과는 다른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새 세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해타산이 빠르고 경제적 사정과 금전적 감각이 기성세대에 비해 뛰어나다. 기성세대가 정해진 자신의 삶에서 안주해서 살아가는 경향이 크다면, 이들은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삶,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민주적이고 발전된 사회에 사는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으나, 자신의 출신성분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북한에서 청소년들이 부모들의 삶이나 현재 자신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사회에서 부를 축적함으로써 출신성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도 현실화되고 있다. 사회 내부적인 변화 이외에도 외부 사회로부터 유입된 서구 문화와 정보 등은 청소년들에게 주위의 어른들과 같이 자신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삶과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진취적이고 민감한” 청소년들이 이러한 가능성에 눈을 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류선옥 씨는 북한의 기성세대와 청소년들 간의 삶의 방식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술자: 사는 방법은 기성세대는 대개 고정적인 관념이 틀에 박혀서, ‘이 부업으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만약 농사다 그러면 맨날 농사만 하고, 장사다 그러면 맨날 바다 가서 고기 해다가 팔고, 지방 다니면서 물건 나르면서 팔고 이런 식이고요. 장사하다 사업 잘 돼서 잘 살면 뽕 맞았다 이러구. 젊은 세대

들은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추구하고 그걸 찾는
거 같아요. (...)

연구자: 좀 더 나은 삶이란 걸 어떻게 생각하게 됐을까?

구술자: 그런 매체들, 중국에서 오는 그런 CD나 또는 라디오 같은 거. 한국라디오를 듣는다거나, 그런 거 들으면서 그러면 세계관이 바뀌잖아요. 보이는 시야가 저긴 저런데 진짜 너무 다른 것만 눈에 보이고, 억지다, 여기서 하는 거는. (류선옥 구술녹취록, 2009 I/8)

(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류선옥 씨는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서 의대를 진학하고자 했다. 그러나 그녀가 중학교를 졸업한 2000년대 중반에는 대학을 다니는데 상당한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했다. 경제난을 겪으면서 국가의 교육예산 지원이 감소하여 책값이나 생활비 등 대학생화에 드는 개인적인 비용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세 부담’이라고 부르는 각종 잡부금을 학생들에게 거두어 대학 운영에 드는 재정을 확충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⁹ 류선옥 씨는 한편으로는 대학을 다니기 위해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는 사실이 걱정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대학을 졸업해서 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북한사회에서 의사는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존경받는 직업이었으나, 경제난 이후에는 의사들에 대한 배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의사들은 개

²⁹ ‘기본 세부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국가적 건설사업, 군대지원사업, 대학 구내환경개선사업, 농촌지원, 생일잔치, 시험볼 때 교사에게 주는 사례금 등이 있다. 경제난 이전에도 이중 일부 항목이 지출되었지만 경제난 이후에는 더욱 액수가 커지고, 벽의 회칠, 창문틀, 기숙사 온돌 시설 보강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용으로 대학에서 모금하는 비용이 대폭 늘어났다. 이교택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p. 148.



인적으로 자신의 의술을 활용하여 환자들을 치료해주거나 피임, 낙태와 같은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해주고 환자들에게 그 대가를 지불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어려웠다. 어머니는 “여자는 대학 안 가도 된다. 시집만 잘 가면 대학 다섯 개 나온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였지만, 아버지는 그녀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했다. 그녀는 “공부는 못해도 대학졸업장 쥐어주겠다”는 생각과 “나한테 남는 게 뭐가? 그렇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데”라는 생각 속에서 갈등을 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의과대학이 아닌 3년제 간호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

류선옥 씨가 다니는 대학교가 위치해 있던 청진은 그녀의 고향과는 달리 함경북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곳이었다. 청진은 고향에 비해 주민들 간의 빈부격차가 컸고 옷차림을 비롯한 문화적 차이도 있었으며 사람들의 의식도 좀 더 개방되어 있었다. 생전 처음 고향이 아닌 타지에 나가 생활하게 된 그녀는 이러한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고향에서는 자기 가족이 그런대로 잘 사는 편에 속한다고 생각했지만, 청진 주민들의 생활상과 비교해보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청진에서는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겨서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면 어떻게 하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결혼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혼 후에 생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 하는 점이 걱정되었다. 북한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을 한다고 해도 경제적 능력을 갖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고지식해서 장사에도 소질이 없는 자신이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해서 어른이 되어서까지도 부모님 신세를 지고 살고 싶지는 않았다. 북한에서 사는 이상 자신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았고, 어느 순간에 자신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류선옥 구술 녹취록, 2010 I/6).

류선옥 씨는 스무 살 되던 해에, 남한으로 탈북한 친구의 고모를 통해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생활상을 알아보고 남한으로 갈 것을 결심한다. 남한에 가면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가고 돈도 벌어서 부모님께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 류선옥 씨가 자신의 인생행로를 고민하면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탈북과 남한행이라는 결단은 발전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북한사회의 삶에 안주하는 대신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개척하기 위한 모험이었고, 출신성분과 경제적 제약 속에서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기 위한 도전이었다.

중국과 동남아국가를 거쳐 탈북한 지 5개월 만에 한국으로 들어온 류선옥 씨는 현재 대학의 간호학과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있다. 대학 입시 준비를 하면서 학원 다니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에서 “미친 듯이 살았다” 한국 사회에 정착한지 2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살려고” 했는데,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숨겨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나는 한국 사람인가, 북한 사람인가?”라는 고민 끝에 “한국 사람인데, 그래도 북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류선옥 구술 녹취록, 2010 I/19). 낯선 땅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고 느낄 때면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이 있는 북한에서의 생활이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북한에 있었다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I

II

III

IV

V

(3) 안영호: 내 조국은 한반도

(가) 국가의 부름에 부응하는 엘리트

안영호 씨는 1973년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외국어학원과 평양외국어대학을 졸업하고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전형적인 북한의 엘리트 청년이다. 좋은 출신성분과 안정적인 가정환경 속에서 엘리트로 성장했으며, 북한에서의 생애 과정에서 자신의 출신성분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안영호 씨는 신주석 씨와 최대비교 사례이다.

여덟 살 때인 1980년에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아버지를 따라 폴란드에 나가 4년간 외국 생활을 한 안영호 씨는 귀국 후에 평양외국어학원에 입학해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 나간다. 초중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정치사상교양은 기본적인 세계관과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다. 유치원 때부터 김일성의 어린 시절 일화를 통해 사회주의 도덕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는 김일성, 김정일 관련 과목을 통해 애국주의 정신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배웠다. 정치사상교육은 교과수업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 조직활동 등을 통해 인생관, 가치관, 예의범절, 생활태도 등 기본적인 도덕성 교양과 결합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 형성된 관점과 태도는 “체질화”될 수 있었다.

안영호 씨는 평양외국어학원³⁰을 졸업한 후 대학에 바로 진학하지 않고 “국가의 부름에 평생 몸 바쳐 가면서 일하셨던” 아버지의 권유

³⁰ 평양외국어학원은 6년제 중학교 과정의 외국어 전문 중등교육기관으로, 1958년 9월 개교하였다. 영어와 러시아어, 일본어 등 8개 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평양외국어대학의 졸업생들은 대부분 평양외국어대학 등 외국어 전문대학에 진학한다.

로 군에 입대하게 된다. 군에서 입당한 그는 90년대 중반에 제대한 후 외무성에 배치된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 평양외국어학원 동창생들을 보면서 외교관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학을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평양외국어대학에 진학하게 된다.

그가 대학에 입학한 90년대 후반, 북한에서는 남한 드라마 붐이 크게 일어났다.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은 북한에서 외국 영상물, 남한 영상물 시청은 여가시간 활용의 새로운 양상으로 등장했다. 북한 주민들은 흥미와 호기심, 정보 취득 등의 다양한 이유로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였는데, 안영호 씨의 경우에는 자본주의를 공부한다는 심정으로 남한 드라마를 보았다고 한다. 남한 영상물을 통해 남한의 경제적 발전상과 정치적 자유와 민주적인 사회 분위기를 접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한 영상물이 전하는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기는 어려웠다. 그는 “거지왕 김춘삼”이라는 드라마에서 6·25 전쟁 시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국가보안법이 있는 남한에서 그런 구호가 TV를 통해 방영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친구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그 드라마는 “북한에 사상문화적 침투를 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만든 드라마”이고, 남한이 민주화되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사상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학 생활 속에서 안영호 씨는 엘리트로 성장하며 교육과 각종 조직생활을 통해 형성해왔던 세계관에 의문을 품게 된다. 그것은 북한 사회를 유지하는 원리이자 안영호 씨 스스로의 세계관이었던 주체사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였다. 그는 주체철학 수업 중

I

II

III

IV

V

에 수령결사옹위 사상과 2차 대전 당시 천황을 위해 죽어간 일본인의 정신이 무엇이 다른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교수에게 이를 질문했지만, 그에게 되돌아온 답은 “철학이라는 게 깊이 팔수록 과오 범하기가 쉽다” “앞으로 그런 질문을 다시 할 때에는 그때는 그저 선선한 데 갈 각오하구서 질문을 해라”라는 질책뿐이었다. 외국에 다녀온 선배 들로부터 항일무장투쟁 시기 김일성의 소련에서의 행적이나 6·25전쟁과 관련된 의문점도 전해 들었지만, 학교의 수업을 통해 이러한 의문점들을 해소할 수는 없었다.

대학을 졸업한 안영호 씨는 다시 외무성에 배치를 받게 되고 몇 년 후인 2000년대 중반에 동구권 국가로 파견 나갈 기회를 얻게 된다. 그는 해외 파견을 지원하면서 대학 시절에 가졌던 의문점들을 외국에 나가 “연구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북한에서 자라오면서 또 대학 시절 전 기간 배운 게 김일성의 주체사상, 이 주체철학인데 그거를 배우는 과정에 생겼던 모순점들, 의문점들, 북한에서는 그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이죠. 그 질문을 할 수도 없고, 또 질문을 한다고 하게 되면 내가 어디로 끌려갈지 모르니까-. 그랬던 문제점들을 해외에서 해외에 나와서 그런 기회에 한번 해명해 보자. 또 이 카고 당시 북한에 있을 때 당시 뭐 해외 먼저 갔다 온 애들 통해서 뭐 6·25전쟁 같은 것두 북한이 먼저 일으켰다고 해외에서 듣구 왔던 얘기들을 나두 전해듣구 하는 과정에 ‘과연 이런 게 진실이 어느 쪽에 있을까-’ 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을 좀 알아보자.’ 해서 해외 나와서 바람으로 적극적으로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안영호 구술녹취록, 2010 I/4~5)

해외에서 그는 북한에서 가졌던 의문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자료를 찾지만 동구권 국가에서 그런 자료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6·25전쟁이나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역사에 관한 외국 서적과 자료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한국에서 출판하는 탈북자 수기와 역사서적들도 구해보기 위해 다방면으로 애를 썼다. 그는 노트북과 인터넷을 통해 한국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한다. 당시 그가 머물던 지역에서는 전화번호가 딸린 무선인터넷 장치를 별도로 구매하여 컴퓨터에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러한 장치를 여러 개 구입하여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짧은 시간동안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한국 사이트에 접속하곤 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알고자 하는 북한 관련 전문 연구 자료는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았다.

그는 또한 지역의 한인들과 접촉하는 공작원들과 친해지면서 한인을 접촉할 기회를 탐색하고, 결국 한국인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알아낸다. 한인 거주 지역에서 한인신문을 구해서 읽고 남한의 서적과 영상물도 구해 보게 된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질문이 명쾌하게 해결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결해야 할 질문들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울타리가 커지는 만큼 자신이 모르는 세계도 넓어져갔다. 그는 한동안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몰라 “진짜 병병했다”

(나) 개종: 수령을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외국에 나와 더 복잡하게 얽힌 의문점들을 일거에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된 것은 북한 최고 지도층의 사생활을 쓴 이한영³¹의 책 “대동강

³¹ 이한영은 김정일의 전처 성혜림의 언니인 성혜랑의 아들로, 1982년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학연수 중 서방으로 탈출, 같은 해 10월에 한국으로

로열패밀리”라는 책이었다. 안영호 씨는 그 책을 읽기 이전에는 북한 관련 외국 서적이거나 남한의 서적들 속에서 북한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발견하더라도 “양국 간에 그런 뭐 자기 정치적인 뭐 이데올로기가 있는 것이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싸움을 하는 과정에 뭐 과장되는 수법도 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한영의 책은 여느 책과는 다르게 주체사상의 핵심인 수령론의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하였다. 지금까지 간부들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해왔던 북한사회의 부정부패와 어두운 측면들이 실은 수령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는 점, 수령은 흠결 없고 완전무결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도덕적 문제를 지닌 인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왔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의혹 속에서도 의심의 여지없이 믿어왔던 “사상의 핵”인 수령에 대한 도전이었다.

저희가 이 북한사회에서 살아오면서 술한 그- 뭐 술한 뭐 모순점이나 혹은 뭐 그런 부정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이거 접하면서 자랐다고 해도 그래도 그 정권에서 충실할 수 있었던 거는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수령이 계시는 한 정확히 이 사회는 성공할 것이고 앞으로 잘 살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런 과정에 나가는 과정에 뭐 일부 개인들 속에서 저런 이거 부정부패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게 그 어떤 하나의 신앙으로서 자리 잡은 건 줄은 당시로선 몰랐죠. 제가 와서 여기서 신앙을 배워보니까 아, 그것도 하나의 종교였다는 걸 알게-, 결국은 북한의 수령론도 하나에 종파입니다, 그제-. 네. 그럼 결국은 신앙이 하루아침 사이에 무너졌다고 할 때 그 사람이 받는 충격은 오죽하

망명했다. 그는 자신의 성분을 공개하고 북한 고위층의 실상을 파헤친 『대동강 로열패밀리 서울잡행 14년』을 1996년에 출간하는 등 북한 정권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활동을 하다가 1997년에 피살되었다.

했습니다. 평생 내가 이걸 믿고 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가려고 했던 것이 허물어지고 나면은 난 앞으로 뭘 믿고 어
떻게 살아야 되는가. (안영호 구술녹취록, 2010 I/4~5)

북한에 관한 기존의 정보나 자료와는 달리 이한영 수기의 내용이 안영호 씨에게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책이 안영호 씨가 살아오면서 직접 경험하고 선배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북한의 정치적 사건들을 이치에 맞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책에서 언급된 여러 가지 사건들, 예를 들어 구술자가 주변에서 접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해외 파견 중인 외교관이 외국 여성과 연애하다 적발되어 송환된 사건에서부터 김정일 가족과 관련된 소문들, 아카데미사건,³² 심화조사건³³ 등의 정치적 사건들이 이 책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었다.

안영호 씨가 대학생 때부터 해외 근무 시절까지 주체사상이 제시하는 세계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십여년의 시간은 장기간에 걸친 관점전환학습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관점전환학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시해온 사물을 지각하고 해석하

³² ‘프론트 군사아카데미 사건’은 1991년 12월에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된 김정일이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2년 소련 등지의 군사교육기관에서 유학한 한 군부 세력 세력에 대해 간첩 혐의를 씌워 숙청을 단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소련과 동독의 군사대학에 유학한 군인 700여명이 체포되었고, 일반대학의 유학생들을 포함한 2만 여명이 조사를 받았다.

³³ ‘심화조 사건’이란 1997년 8월 전 노동당 당중앙위 농업담당비서 서관희가 6·25전쟁 당시 미국 간첩으로 포섭됐다는 혐의를 받고 평양에서 공개 처형되면서 시작된 대규모 숙청사건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주민등록 요해 문건을 뒤져 6·25전쟁 당시의 행적을 조사하는 작업을 담당하는 사회안전성은 전국 수백 개 하부조직에 8천여 명의 인원으로 이뤄진 ‘심화조’라는 조직을 건설해 간첩사건을 조작해내며 당간부들을 숙청했다. 심화조가 1997년 말부터 2000년 말까지 숙청한 인사와 그 가족이 모두 2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I
II
III
IV
V

는 자신의 관점을 전환하는 과정이다. 우리는 기존의 관점으로는 설명되지 못하는 새로운 경험과 인식들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에 대응한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새롭게 체험한 것을 기존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애쓰고, 그것이 어려울 때에는 기존의 증거들에 맞지 않는 새로운 경험을 부인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우리의 증거들을 의문시하게 하는 관점은 기각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된 것으로 간주된다. 또 다른 경우에는 새로운 경험을 설명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겨온 증거들을 부분적으로 수정하거나 전적으로 폐기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들로 대체한다. 후자의 경우에 관점전환학습이 일어난다.

관점전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핵심적인 것은 자신의 경험과 의미관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세계에 대한 신념은 인식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감정적 경험으로부터 추론된 것이다. 대부분의 신념들은 외부의 의식과의 반복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일반화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부호화된 경험들 때문에 각 개인은 서로 다른 실재 내에서 생활한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의미관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찰성이다. 성찰성은 추론과 직관을 포함한다.³⁴

안영호 씨의 생애이야기는 의미관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관점전환학습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안영호 씨는 출신성분이 좋은 엘리트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제한이나 결핍을 크게 경험하지 못하였다. 그가 교육을 통해 형성된 자신의 세계관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것은 자신이 배운 주체철학과 수령관 자

³⁴J. Mezirow,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p. 21.

체에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지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는 지속적인 비판적 사유와 성찰을 통해 기존의 의미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자신의 경험세계 안에서 해석해보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고 자신의 경험세계를 확장함으로써 인식 상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대학시절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성찰과 추론은 이한영의 책을 읽음으로써 완성된다.

이전의 성찰적 과정이 한편으로는 자신의 인식틀 내에서 의문들을 봉합하며 한편으로는 또 다른 의문점들을 누적시켜온 과정이었다면, 이한영의 책을 읽음으로써 이루어진 관점전환은 그간의 의문이 한꺼번에 붓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일거에 해결되는 일종의 종교적 개종이었다. 이러한 질적 전환이 가능했던 것은 안영호의 의식에서 성역으로 남아있던 수령의 문제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사돈 벌의 친척이 연루되었던 아카데미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안영호 씨는 “과연 아카데미아사건에서 모두가 간첩이었겠는가?”라는 의문점을 가졌다. 심화조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간첩의 죄목으로 숙청된 많은 사람들이 김일성 생전에 정권을 장악했다면 도대체 김일성이 어떻게 정치를 했을까, 왜 김일성 생전에는 간첩행위를 발견하지 못하고 김정일 정권에 와서야 발견할 수 있었나 하는 의문점을 가졌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수령에 대한 믿음이 투철했기 때문에 의문을 갖는 가운데서도 그 사건들은 간첩에 의한 사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친한 친구들과는 이러한 문제로 논쟁을 벌이곤 했지만, 결론은 간부들이 나뉘어 뿐이고 “수령만은 절대로 믿자”라는 것으로 귀착되었다. 그런데 이한영의 책은 안영호 씨의 사상의 핵심이자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수령에 대한 환상”을 여지없이 깨버린 것이다. 그는 이전에 외무성

I
II
III
IV
V

의 선배들이 “그냥 책임지도원까지가 제일 좋아.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언제 목 달아나게 될지 몰라”라고 했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정치사상적 관점의 변화는 자기 인생에 대한 반성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인생관의 전환으로 연결되었다. 안영호 씨는 책을 읽고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릴 정도의 심리적 충격을 받았고, “허무한 생을 살아왔다”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반성하게 된다.

그렇게 산 게, 그런 삶이 허무하죠. 쪽 나를 위해서 산 삶이 없지 않습니까. 다- 글썄 뭐 애국적인 측면에서 국가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까지는 그거는 이거 팬츠를 수 있는데 종당에는 그것두 아니거든요. 국가를 그 수령으로 규정하다 나니까 나는 결국은 수령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왔고 나의 개인적인 삶을 산 게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대학기간에도 같고 사회에 배출돼서도 만수대 동상 정성작업 뭐 조직해서 가야 한다- 하게 되면은 만수대동상 매일 아침 출근 길에-. (...) 이런 식으로 매일과 같이 그런 걸 진행하는데, 그걸 하면서 그걸 결국은 ‘이게 보람이구 이거 긍지다.’ 하구선 살며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네, 그것을 끝내고 나면은 무엇인가-. 여기서 제가 지금 교회에 나가면서 느껴보는 감정이나 같습니다. 교회에 한 주일에 한번 나가는데 나갈 때 그 안 나가게 되면 무엇인가 찝찝한 거 같고 기분이 더러운 거 같고-. 그런 감정이 북한에서는 이제처럼 매일 그런 정성작업을 할 때 이걸 안 하면은 딱 무엇인가 내 마음에 뭔가 티가 생긴 거 같고, 뭐 이런걸 느껴요. ((웃으며)) 그게 그렇더라구요. 그런 감정 속에서 살아오다나니까 이거 뭐 내 자신을 위해서는 바친 게 없죠. (안영호 구술녹취록, 2010 I/23~24)

정치사상적 관점의 전환에 이어진 “인생총화”의 핵심은 나를 위해 산 삶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인생을 “다시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왔

다. 그는 “맹목적으로 부모님들처럼 북한 정권에 충실한 삶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그는 자신이 읽은 책을 절친한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이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도 한다. 그는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했지만,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정치권과 거리를 두면서 일반 무역회사에서 돈을 벌어 개인과 가족의 안위를 챙기는 것이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던 중 그는 또래의 한국인 한 사람을 만나 그를 친구로 삼게 된다. 남과 북의 젊은이로서 서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다가간 두 사람은 북한과 통일에 관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그와의 대화를 통해 안영호 씨는 남북한 사람들 간의 언어의 차이와 생각의 차이를 절감한다.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는 한국인 친구의 말에 그는 통일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매국노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자신이 품었던 북한에 대한 의문점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고 남북한의 잘잘못을 놓고 서로 간에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인 친구를 만나면서 그는 북한에 돌아가지 않는 삶도 선택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북한으로 돌아가 지금까지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새로운 대안이 생겨난 것이다. 친구를 통해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대우받고 있는지에 관해 전해들을 수 있었다. 자신이 한국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한국 사회는 누구나 다 살게 돼 있는 사회”라는 친구의 말에 결심하게 되고, 결국 해외 파견 4년 만에 한국인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안영호 씨의 생애이야기는 북한의 엘리트로 태어나 성장하면서 폐쇄적 사회의 기능적 지식인으로 안주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주변 세

계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해 참된 진리를 찾고자 했던 한 지식인의 삶의 궤적을 보여준다. 안영호 씨는 인터뷰 말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연구자의 질문에 “저는 좌파도 우파도 아닙니다. 둘 다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인지하고 규정하는데 있어 여전히 정치적 측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같은 민족이 사는 한반도를 남과 북으로 가르고, 교육을 통해 상대방의 역사를 부정하는 관점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북한을 떠난 뒤에도 그에게는 여전히 ‘조국’이 중요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조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이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는 자신에게 “조국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야 한다”는 애국주의 사상을 깊이 심어준 것이 북한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북한에서는 조국을 곧 수령이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내 조국은 한반도”이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주민이 수령을 대체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는 남한 사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남북한 제도의 차이를 좁히고, 후대들이 “올바른 사고관으로 나의 조국이라는 한반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의 삶의 터전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옮겨졌지만, 지식인으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은 여전히 그의 삶의 중요한 동력이다. 또한 그는 여전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변경을 북한에서 한반도로, 세계로 넓히고 있는 중이다.

다. 관점전환학습 과정의 역동

(1) 관점전환학습 과정의 다양성

이상에서 살펴본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애사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관점전환학습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메찌로우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의미구조(meaning structures) 내에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고 이에 의미를 부여한다. 의미구조는 우리가 사회문화적인 맥락으로부터 생성하는 규범과 기대,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의 경험에 대한 일관성을 부여하고, 개인적 경험을 중재하고 해석하는 여과지의 기능을 한다.³⁵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이나 의도적인 학습을 통해 획득한 새로운 경험이 과거 경험의 구조, 즉 의미구조와 유사할 때 그 경험은 의미구조 속으로 동화된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이 너무 이질적이어서 기존의 의미구조 속에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딜레마’에 빠지거나 새로운 경험을 거부하게 된다. 이 양자간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유형의 학습이 일어나게 된다. 기존의 의미구조 속에서 새로운 경험이 해석되지 않는 딜레마의 상황이 올 때 가치관의 재구조화가 촉발될 가능성이 생겨난다. 메찌로우는 혼란스러운 딜레마의 상황이 새로운 의미구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관점전환학습’이라고 명명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례는 북한 주민들이 의식의 딜레마를 초래하는 생애사건을 접하면서 기존의 의미구조에 의문을 품게 되고, 직

³⁵-Sharan B. Merriam and M. Caroryn Clark, *Life Lines: patterns of work, love, and learning in adulthoo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pp. 50~51.

I
II
III
IV
V

관, 자아성찰, 비판적 평가 등의 기제를 통해 기존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의미관점의 형성을 이루어내는 구체적 과정을 보여준다. 관점전환 학습에 관한 연구에서는 메찌로우의 관점전환학습의 과정이 다음과 같은 다양한 국면 또는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혼란스러운 딜레마, 자기 검열, 인식론적·사회문화적·심리적 가정을 비판적으로 평가, 불만과 전환의 절차를 타인과 공유하며 다른 사람도 유사한 변화를 겪었음을 인식, 새로운 역할·관계·행동의 선택지 개발, 행동 절차 계획, 자신의 행동을 실현할 지식·기술 습득, 일시적으로 새로운 역할 시도, 새로운 역할·관계에 대한 능력 구축과 자기 확신, 새로운 관점에 의한 자신의 삶의 재통합 등이 관점전환학습의 단계이다. 또한 타일러(J. Taylor)는 3개 국면 6개 단계의 관점전환학습 과정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관점전환학습 과정의 첫 번째 국면은 의식의 생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이는 기폭제가 되는 사건과 조우하는 단계와 실제에 직면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두 번째 국면은 의식 전환으로 전환점에 도달하는 단계와 도약 단계로 구분된다. 세 번째 국면은 의식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새로운 관점에 대한 헌신과 의식적, 목적적인 행동 단계와 새로운 관점을 확인, 적용, 실현하는 단계로 구분된다.³⁶

앞 절에서 검토한 북한 주민들의 생애사를 보면, 메찌로우와 타일러가 제시했던 모든 단계가 반드시 단선적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식의 혼란과 전환의 과정을 타인과 공유하며 다른 사람도 유사한 변화를 겪었음을 인식하는 단계는 정치적 불만의 표출로 인해 극단적인 불이익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³⁶ J. Mezirow,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pp. 168~173.

수도 있는 북한과 같은 사회 속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신주석 씨와 류선옥 씨의 사례에서 “타인과의 공유” 단계는 드러나지 않거나 가족이라는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나타난다. 반면 안영호 씨의 경우에는 학교 친구와 선생님, 믿을만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자신이 안고 있는 딜레마를 공유하는 과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가관, 남한관과 같은 정치적 관점과 관련된 인식의 전환인 경우 새로운 역할·관계·행동의 선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안영호 씨 사례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거나, 사회 내부에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회로의 탈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위의 사례들에서 의미관점의 전환은 특정한 사건이나 통찰을 계기로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관점전환의 충분한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특정 과정을 나선형의 순환 궤적을 그리면서 반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안영호 씨는 대학 시절 주체사상과 역사를 공부하면서 혼란스러운 딜레마에 빠지고 기존의 의미관점을 검토하게 된다. 이에 가용한 자료를 동원하여 기존의 의미관점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수업시간에 교수나 동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인식의 전환과정을 공유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곧바로 기존 의미관점의 폐기와 새로운 의미관점의 생성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그는 기존의 의미관점에 새로운 경험을 끼워 맞추려 노력하는 가운데 언젠가 기회가 되면 “연구해봐야 되겠다.”고 최종적인 평가를 유보한다. 심화조 사건과 같은 의심스러운 정치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해외 공관에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I
II
III
IV
V

가지 정보와 자료를 접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관점 전환의 동일한 단계가 반복되었다. 이 순환적인 과정은 이한영의 수기를 접하면서 비로소 다음 단계로 발전하여 안영호 씨의 세계관과 인생관 전체의 전환으로 이어지게 되고, 남한 청년을 친구로 사귀게 되면서 또 한 단계 발전되어 새로운 행동 대안을 개발하고 행동 절차를 계획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신주석 씨의 경우에 관점전환은 특정한 사건에 의해 급격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십 평생의 삶 속에서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 점진적이고 누적적으로 이루어졌다. 귀국자로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 음악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정치적 제약, 각종 자료와 동료들과의 사적 담화, 남한의 선전물과 방송, 경제난 이후의 열악한 생활 등 장기간에 걸쳐 그의 내부에 쌓여온 관점전환의 고리들이 어머니의 일본 방문 좌절이라는 사건을 통해 하나로 연결되면서 북한 정권에 관한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된다.

류선옥 씨의 생애사 속에서는 관점전환학습의 여러 단계 중 혼란스러운 딜레마를 느끼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인식의 변화와 관련된 단계들보다, 행동의 대안을 개발하고 새로운 관점에 근거한 행동을 계획하고 이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는 인식 변화에 따른 행동양식의 변화와 관련된 단계들이 다른 두 명의 구술자에 비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관점전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 구축과 자기 확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정체성에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재통합하는 과정은 탈북 이후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앞 절에서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사례인 진남수 씨(사례 34)의 경우에는 의식의 전환이 특정한 한 가지 사건을 계기로 급격하게

진전되었다. 진남수 씨는 아버지가 장교, 어머니는 노동자인 기본계급 출신으로, 군복무 중 입당을 하고, 제대 후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수로 임용되는 순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는 좋은 출신성분, 당원증, 대학졸업증이라는 간부가 되는데 필요한 기본 요건을 다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남들도 다 보는 남한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되어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일반 공장의 기술직 노동자로 강등되었다. 이 사건은 그의 인식을 급격하게 전환시킨다. 남한드라마 한편 때문에 “운명의 회오리”를 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발감이 들어서 “에이 내가 뜬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탈복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그는 남한드라마를 보곤 했지만, 그것이 북한체제에 대한 의심이나 불만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나서는 “야, 너네들이 왜 이렇게 한국 그거 가지고, 뭐 실지 뭐 같은 민족 뭐 한겨레 뭘 하면서 뭐 그다지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죽이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남한드라마에 더욱 탐닉하게 되면서 급격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2) 비판적 성찰과 지식인의 관점전환

관점전환은 반복적인 감정적 상호작용 또는 무심히 이루어지는 동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³⁷ 전환의 기폭제가 되는 주요한 계기는 내적인 딜레마를 초래하는 외적인 사건이거나,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이전의 인식틀로는 해석하고 해결할 수 없을 때 일어

³⁷-J. Mezirow,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p. 21.

나는 내적인 환영의 해체이다.³⁸ 굴드(Gould)는 관점전환의 과정이 지적인 것이기보다는 내적인 대화와 성찰, 개인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힘들 사이의 투쟁의 과정이라고 본다.³⁹ 우리는 자신의 의미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러한 관점의 맥락, 예를 들어 당연 시되는 신념의 원천, 성질, 결과를 자각함으로써 인식의 준거틀을 변환시킨다. 비판적 성찰의 과정에서 특히 핵심적인 요소는 권력관계와 헤게모니적 가정을 검토하는 것이다.⁴⁰

북한 주민의 생애사 속에서도 사회, 정치, 경제체계에 관한 신념뿐만 아니라 도덕적 추론과 인간관계, 정서적 반응을 지배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관점전환의 핵심적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애사를 살펴보면 관점전환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환영의 해체’를 촉진하는 요소로서 학습자 개개인의 성찰의 역할을 찾아볼 수 있다. 관점전환을 야기하는 성찰의 맥락과 구체적인 계기는 다양하다. 류선옥 씨의 경우에는 비판적 성찰이 주로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자아성찰이라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반면, 안영호 씨의 경우에는 주체사상의 진리성 여부나 정권의 성격과 같이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로 연결되었다. 신주석 씨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일본 방문 좌절이라는 개인적

³⁸-P. Cranton, “Individual differences and transformative learning,” J. Mezirow (ed.), *Learning as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 300.

³⁹-Sharan B. Merriam and M. Caroryn Clark, *Life Lines: patterns of work, love, and learning in adulthood*, p. 223.

⁴⁰-S. D. Brookfield, “Transformative Learning as Ideology Critique,” J. Mezirow (ed.), *Learning as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 126.

사건이 발화점이 되어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확대되었다. 이 세 사례 모두에서 구술자들의 관점 전환은 인간적 상호관계 속에서의 동화와 같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목적의식적인 성찰에 의해 매개되었다.

북한은 학교와 각종 대중조직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해 국가가 규정한 규율을 주민 개개인에게 평생에 걸쳐 내면화시킨다. 학교나 기업, 당조직과 대중조직, 인민반조직을 통해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이 강조된다. 주민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것은 상부의 결정사항으로 제시되고 개개인은 이에 순종하고 적응해야 할 뿐이다. 주민들 스스로의 가치판단과 비판, 주체적인 사고와 행위의 여지는 그다지 크지 않은 듯 보인다. 이와 같이 북한의 전반적인 환경은 개개인의 성찰성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억압하지만, 일면 그러한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의 성찰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가 강요하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사회, 개개인의 자유로운 성찰이 억압된 사회에서 억압의 틈을 뚫고 나오는 개개인의 성찰성은 관점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 더 큰 잠재력과 폭발력을 갖는다.

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미래에 대한 성찰성은 안영호 씨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여타 집단에 비해 북한의 엘리트와 지식인들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북한의 엘리트 계층과 지식인들은 일반 주민들에 비해 외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비교적 쉽게 접한다. 일반 주민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속한 지역과 계층, 직업 등의 사회적 환경을 벗어나 보다 넓은 맥락에서 사회 전반의 상황에 대한 평가나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회적 교류의 폭이 넓고, 외국의 간행물과 영상매체 등을

I
II
III
IV
V

단속의 위험 없이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일반 주민들의 접근이 제한된 고급 정보도 취급하는 지식인 계층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보다 총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지식인 특유의 성찰성을 지니고 있고 더불어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에 비해 북한사회를 다른 사회와의 비교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의 지식인 중 많은 사람들이 북한사회의 미래상을 더 이상 사회주의의 발전에서 찾지 않는다. 과거 사회주의적 제도와 계획경제 체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기능했던 시대를 “그전에 사회주의 때”라고 말하고 지금은 “다 자본주의가 됐다”고 말하는가 하면,⁴¹ 현재의 북한체제가 “오래간다는 신심”이 없어졌다고 하기도 한다.⁴² 북한의 지식인 중 다수가 북한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경쟁사회”, “개혁개방”이 그들이 말하는 미래 북한의 방향성이며, 구체적으로는 북한과 가장 가까운 우방국인 중국이 북한의 지식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하고 현실적인 대안인 듯하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 현실 속에서 위로부터의 변화가 없는 한 그 누구도 그러한 생각을 과감하게 꺼내 놓거나 정책화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역시 개혁개방이 자신들의 살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보다는 현재의 김정일 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얻는 수많은 단기적인 이익, 개혁개방이라는 사회 변화에 내재된 불안정성과 위험 요인, 개혁개방이 가져올 미래의 발전가능성 등

⁴¹- 40대 북한이탈주민, 남성, 양강도 거주, 작가 출신, 2006년 탈북. 2008.05.23 면접.

⁴²- 40대 북한이탈주민, 남성, 양강도 거주, 기자 출신, 2004년 탈북. 2008.07.22 면접.

을 놓고 계속 저울질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 충성을 하는 이중생활을 할지언정 엘리트 계층은 아직까지는 체제 유지의 강력한 주체로 기능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식인층 내에서의 사 고의 차이를 표출시키고 내적인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강력한 계기 가 주어진다면, 이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 최고지도층의 변동과 권력 계층 내부의 세대교체는 그 러한 가능성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 관점전환학습 촉진 요인

인간이 자신의 의식과 의미관점을 전환시켜나가는 과정은 문화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변주된다. 타자의 존재, 성찰적 담론, 조언하는 공동체, 자발적 행동의 기회 등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관점전환의 조 건이다.⁴³ 비판적 성찰보다는 공식적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자발적 행동보다는 집단 속에서 기대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교육체 제, 가까운 사람들과도 사회와 정치체제에 대한 비판을 공유할 수 없 도록 만드는 억압적인 정치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는 이 러한 관점전환의 일반적인 조건들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다른 요인들이 관점전환학습을 촉진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북 한 주민들의 생애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관점전환학습의 촉진 요인은 사회구조적 불평등, 즉 출신성분으로 인한 박탈감과 불 평등 경험과, 외부 세계와의 문화적 접촉 및 대안으로서의 남한 사회 의 존재이다.

⁴³-L. Daloz, "Transformative Learning for the Common Good," J. Mezirow (ed.), *Learning as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pp. 112~117.

(1) 출신성분으로 인한 박탈감과 불평등 경험

북한 주민들의 관점전환을 촉발하는 요소 중 두드러지는 것은 출신 성분으로 인한 삶의 주변성(marginality, Musgrove)이다. 연구 과정에서 만난 북한이탈주민 중 상당수는 부모나 조부모가 남한 출신이거나 중국, 일본 등지의 교포 출신이었고 정치적 사건과 연루되어 적대 계층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었다.⁴⁴ 출신성분은 대학 진학이나 취업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배우자 선택과 같은 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선택의 가능성을 제약한다. 엘리트 계층 출신의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성장 과정에서, 그리고 성인이 되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출신성분 때문에 크고작은 사회적 불평등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이들은 처음에는 출신성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체제 자체에 불만을 갖기보다는 이를 주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수용한다. 또한 입당과 같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 체제에 가장 순응적인 인간이 됨으로써 출신성분에서 오는 제약을 극복해보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입당의 과정은 험난하고 입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별의 벽은 쉽사리 극복되지 않는다. 차별의 경험과 극복의 노력, 그리고 좌절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에 대한 차별을 파생한 사회구조

44. 북한은 1970년 주민재등록사업 시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의 3계층 51개 부류로 분류하여 관리해왔으며, 1990년대부터는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계급·잔여분자로 분류하고 있다. 기본군중에는 혁명가·혁명가 가족, 영예군인, 집권자, 영웅·공로자, 제대군인 등이 포함되며, 복잡군중은 계급적 토대, 사회정치생활 경위, 가정 주위 환경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계층으로 인민군대 입대 기피자, 정치범 교화출소자 및 가족, 월남자 가족, 지주가족, 부농가족 등이 포함된다. 적대계급·잔여분자는 지주, 부농, 예속자본가, 친일파, 종파분자 등이 해당한다.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계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56~58.

의 문제점에 대해 간파와 통찰이 이루어지게 된다.

연구과정에서 면접한 한민국 씨의 생애 과정은 출신성분으로 인한 불평등과 좌절의 경험이 의식전환의 강력한 계기로 작용한 전형적인 사례이다. 한민국 씨는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함경북도에서 노동자로 일해오다 2008년에 탈북한 30대 남성이다. 그는 살아온 생애를 이야기해달라는 연구자의 말에 학교 졸업 후 국가에서 배치해주는 직장에 배치받아 일을 하다가 왔다는 내용의 한 문장으로 자신의 생애를 요약하여 대답하였다. 연구자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애를 압축하여 설명하였다.

뭐 저는 이제 중간질이라고 할까 그저 그 정도에서 살아왔습니다. 뭐- (8) 딱 무슨 글썽 살아오는데서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글썽 제가 무슨 생각이 남는다 하는 게, 아: 97년도? 아, 96년도에 어떨 때는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통옥수수나 먹고 무슨 그때 아, 저두 별로 뭐 살아온 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무슨 생활이-, 생활도 생활이지만 또 저기 제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저 딱 체제 고 체제 안에서 그저 간혀있다나니까 뭐 별로 뭐 어쩔래야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저두 이 길을 택한기고-. 제가 여기로 오게 된 동기라 할까? 그걸 보면 솔직히 저 사회에선 좀 제가 좀 저두 뭔가 하고 싶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길 좀 실현하기가 좀 어려웠다 할까? 그래서 이 길을 택한 거긴-. 별로 뭐-. 구체적인 질문 상으로 뭐 물어보시는 거나 대답해놔야 좀-.” (한민국 구술녹취록, 2010 I/1)

첫 번째 대답에서 한민국 씨는 학교를 졸업했고, 일을 했고, 국가가 배치해주는 데 따랐다는 세 가지 점으로 북한 주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였다. 두 번째 대답에서는 “중간질”의 삶을 살았다는 것, 고난의 행군 시절에 생활고를 겪었다는 것, 생활고보다도 제도의 한계 때문에 탈북을 했다는 것, 자신이 북한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었

는데 그것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이 탈북 동기였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였다. 자신의 생애에 관한 이 두 번의 짧은 초기구술은 이후 두 시간 정도 이어진 구체적인 생애사 구술을 해석하는 기본적 관점을 제시해준다. 첫 번째 대답을 통해 한민국 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국가의 지시에 따르는 북한체제에 충실한, 북한 국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았음을 밝힌다. 두 번째 대답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즉 중간계층이지만 생활고를 겪었고, 무엇보다도 북한체제의 한계로 인해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실현하지 못했다는 자각을 표현한다. 자신의 삶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 사이의 좁힐 수 없는 간격이 한민국 씨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 요인인 셈이다.

한민국 씨의 아버지는 1960년대에 중국에서 건너온 조선족 출신으로 입당을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조선족이고 중국에 친척들이 있다는 것은 꼬리표가 되었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꼬리표를 그저 달고 다녔다” 중등학교 시절에는 아버지가 당원이 아니라는 것이 불만스러워서 어머니께 아버지는 남들이 당원 입당할 때 뭘 했느냐고 묻기도 했지만, 자신의 출신성분으로 인한 “제한성”에 대해 인식하고 나서는 “다 사람의 운명”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한민국 씨는 진학이나 취업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없게 되자 당원이 되어야만 자신의 가슴속에 맺혀 있는 한을 자식에게까지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당원이 되기 위해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친구들에게 머저리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직업생활과 청년동맹활동에 열성적으로 참가했다. 그러나 당원이 되는 길은 쉽지 않았고 오히려 그는 청년동맹 간부들과의 불화로 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입당이 좌절되었을 때의 감정을 그는 “앞이 캄캄하고 무슨 무엇이든 뭐

하고 싶은 게 없더라구요, 고저 막 미쳐 죽을 거 같기도 하고”라고 표현한다. 그 후 그는 1년 동안 자칭 “타락생활”을 하면서 탈북을 결심하게 된다.

2007년에 탈북한 40대 여성 홍화숙 씨의 생애사 역시 꿈의 좌절로 인한 타락의 메타포를 공유하고 있다. 홍화숙 씨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하고 광산노동자로 일했다. 광산노동자였던 아버지는 홍화숙 씨가 어렸을 적에 “아빠는 언제 당원이 되느냐?”는 언니의 질문에 충격을 받아 “내가 애들 위해서라도 무조건 당에 들어가 되겠다”고 해서 지하갱도 굴진노동에 자원해서 몇 년간 고생을 한 끝에 입당했다. 그러나 아버지가 당원이 되었어도 가정의 형편은 별로 나아지는 게 없었고 오히려 아버지는 건강 악화로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다. 홍화숙 씨의 꿈은 방직 공장의 기사가 되어 의류업계에서 “뛰어나게 될 좀 해보는” 것이었고, 그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진학하고자 했다. 그녀는 경공업대학에 지망했지만 입학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아버지가 광산노동자였기 때문에 그녀도 광산 직장에 배치되었다. 그 후 그녀는 “아예 타락”해서 “그냥 이렇게 살자”하고 자신의 꿈을 접고 평범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녀가 말하는 “타락한 삶”이란 “자기 원하는 걸 원하는 걸 원하는 게 잘 안돼서 그냥 아주 아주, 뭐 여기로 말하면 아주 뭐 접어버리고, 아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삶을 의미한다. 5년간 재미도 의미도 없는 삶을 살던 그는 남한의 영상물을 접하면서 그동안 접어두었던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가 있음을 알게 되고, 남한과 북한사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가게 된다.

한인국 씨와 홍화숙 씨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좋지 않은 출신 성분을 갖고 태어나 북한사회에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

I

II

III

IV

V

회적 차별을 경험하면서 한편으로는 차별의 구조를 체념하고 사회 체제에 순응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입당이라는 정당성이 부여된 절차를 통과하여 사회적 인정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상의 제약을 극복하려 한다. 호네스에 의하면 사회적 인정의 형태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따라 사랑, 권리, 연대로 구별되며, 이에 따라 개인은 자기믿음으로부터 자기존중과 자기가치부여의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비해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어떤 형태의 무시와 모욕, 즉 사회적 인정의 철회는 개인의 정체감을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의 위험을 동반한다. 신체적 불가침성을 무시하는 학대나 폭력 등의 경험, 개인의 사회적 불가침성으로서의 권리를 훼손당하는 차별과 배제의 경험, 나아가 어떤 사회적 가치의 위계 질서가 특정한 생활방식과 신념을 열등하고 결합이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겪게 되는 사회적 동의를 부재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정체성 구성에서 중요한 갈등요소로 작용하게 된다.⁴⁵

사회 구조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입당이라는 사회적 인정의 기제를 통해 북한사회의 주변인들은 사회에 통합되어 나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좌절, 입당이라는 사회적 인정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천정의 존재에 대한 자각, 순응하는 삶이 아닌 대안적 삶의 가능성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가치체계에 의문을 품고 의미관점의 전환을 모색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곧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인해 손상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북한의 공민이라

⁴⁵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옮김,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과주: 동녘, 1996), p. 150; 이희영,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 『한국사회학』, 제44집 1호, p. 213.

는 집단적 자아로부터 개인적 자아가 독립되어 나오는 과정이기도 하다.⁴⁶

(2) 외부 세계와의 접촉

북한 주민들의 관점전환학습을 촉진하는 또 한 가지의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외부세계의 문화 및 정보 접촉이다. 북한은 주민의 외국여행이 극도로 제한된 사회이고, 외국의 방송이나 영상매체도 중국이나 구 사회주의권 국에서 제작된 일부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볼 수 없으며, 외국과 연결된 인터넷망도 일반 주민들에게는 차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난의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의 인적왕래 및 물자거래가 급증하고 장사 등의 목적으로 북한 사회 내부에서 주민들의 이동과 정보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외부 문화 및 정보 접촉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남한 영화와 드라마 CD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한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했던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29)은 자신은 “김정일을 받들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CD 장사를 하게 되어 중국을 드나들면서 한국 영화를 자주 보다 보니까 “인식 자체

⁴⁶ Brewer와 Gardner는 자아를 개인적 자아(the individual self),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집단적 자아(collective self)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한다. 개인적 자아는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되며 타인과 구별되는 자아이다. 관계적 자아는 타인과 동화되는 자아로 양자간의 관계로 정의된다. 집단적 자아는 “그들”과 다른 “우리”를 나타내는 그룹의 멤버십을 의미한다. Michael A. Hogg, “Social Identity,” Mark R. Leary and June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ew York & London: The Guilford Press, 2005), pp. 463~464.

가 자연스럽게 돌아섰다”고 말한다.

1984년부터 라디오로 남한의 대북방송을 들었다는 30대 북한이탈 주민(사례 13)은 남한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일어난 의식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니까 외국하고 우리나라 비교하게 되고 자꾸 생활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하면서 좀 국가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이 생겼죠. ‘왜 하지 않을까?’ 속아 살아온 것 두 많구-. 왜? 이 한국방송 못 들었다면 속아 살아온 것 두 잘 모르겠죠. 근데 아무리 여기 방송 두 좀 혹시 뺨친다 하더라도 두개를 비교해놓고 보면 진실은 알리거든요. (...) 그러니까 이 대남방송, 그 다음 대북 KBS 사회교육방송 두 이렇게 들으면서 어느 게 진실일까 하는 좀 생각 고민도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 그 알리거든요. 느낌에 ‘아, 이건 거짓이고 이건 진실이다.’ 하는 그런 것들-. 그 다음 또 중국 넘어오면 중국집들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두루 하고-. 그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북한에서 생각이 그때부터 돌아섰다고 봐야죠.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을 통해서 남한 영화와 드라마 등의 영상물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서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학교교육이나 북한의 방송매체와 공식 선전물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공식적인 교육 내용이나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접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남한에 대한 지식과 생각은 물론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는 기존 가치관과 경험 범주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영상물 시청을 통해 새롭게 획득한 새로운 지식과 사고의 관점을 자신의 총체적인 세계관 속에서 재구성해내는 일종의 ‘관점전환학습’의 계기로 작용한다. 남한의 영상물을 처음 접할 때는 20%밖

에 믿지 않지만, 이를 반복적으로 시청하면서 “한국 사회가 정말 저렇구나” 생각하게 되고, 영상물의 내용을 자신의 삶이나 북한의 현실과 “자꾸 대비를 하게 된다”(사례 34) 단속을 피해 은밀하게 주변의 믿을 만한 친지, 친구들과 함께 남한 영상물을 시청하고 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은 의식전환의 절차를 타인과 공유하는 과정이 된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속의 남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현실의 자기 자신의 삶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 즉 일종의 이상향으로 다가온다. 생애사 면접을 하였던 한 북한이탈주민(사례 26)은 남한 드라마 시청이 탈북을 결심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하면서, 부러울 것 없이, 없는 것 없이 생활하고 남녀 간에 사랑을 나누는 내용의 남한 드라마를 보면서 저런 행복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돈만 있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 “최종 목표”로 자신의 머릿속에 “인이 배겼다”고 토로한다. 홍화숙 씨도 남한 방송을 보면서 “아. 저런 데서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진짜로 저렇다면, 저런 생활 한다면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 일 년에 몇 번쯤은 저런 자유로운 생활도 가지고, 어디 뭐 놀러도 가고, 이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탈북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말한다.

남한의 영상물은 북한 주민들의 억눌렸던 사적 욕망을 자극하고, 북한사회 내부에서는 실현하기 어려운 생활을 꿈꾸게 만든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은 정치적인 측면보다는 멋진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며, 남녀가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일하는 틈틈이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것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활과 관련된 욕망들이다. 자신이 지향하는 삶과 현재 자신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는 가운데 남한 사회에 대한 동경이 싹트게 된다.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그것은 ‘꿈’에 불과할 뿐이지만, 일부 주민들에게는 불가능

I
II
III
IV
V

한 꿈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지향해야 할 ‘유일한 대안’이 된다.

드라마 속의 남한으로 대표되는 이상적 사회에 대한 동경은 역으로 자신이 밭 딛고 있는 현실을 보다 비판적인 안목으로 평가하게 한다. 드라마를 통해 남한 주민들의 부유하고 자유로운 삶의 모습을 접한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은 왜 궁핍한가, 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가와 같은 의문을 품게 된다. 이 경우에 비판적 성찰이 새로운 삶의 대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맥락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관점전환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특히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비롯한 자본주의 문화는 문화적 코드에 민감한 북한 청소년들의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앞에서 살펴본 류선옥 씨 사례에서도 그녀가 부모님 세대와 같은 인생이 아닌 다른 삶을 꿈꾸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중학교 때 남한의 드라마를 본 것이었다.

공감대가. 어리니까, 환상적, 꿈꾸고. 같은 나이다 그러면 ‘나도 똑같은 나인데 저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상 같고 꿈이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엄마 같은 경우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다 지났으니까 부럽다, 저 나이에 저렇게 살 수 있으면, 그런 식이죠. (류선옥 구술녹취록, 2009 I/5)

남한 영화 단속에 적발되는 것은 “다 20대”라고 할 정도로 북한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남한의 영상물이 유행하고 있다. 청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 탈북한 한 청소년(2009년, 사례 53)은 반에서 80%가 한국 영화를 보았다고 말한다.

남한의 영상매체를 보면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남한에 대한 생각이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타난 남한의 모습은 학교에서 배운 “허물어져 가는” 남한과는 다르지만,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는 드라마의 모습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청소년들은 “다 안다”고 한다. “지하철 멋있다. 거리랑 보니까 잘산다”는 정도의 얘기를 친구들과 나누기도 한다. 북한의 현실과 영상매체, 가족의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이 발전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의 의지로 탈북한 한 북한이탈청소년⁴⁷은 북한에서 중학교 2, 3학년 무렵에 형성되었던 김정일에 대한 비판적 의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김정일은) 최고고, 신같은 존재예요. 배운 게, 소학교부터 중학교 6학년까지 교재가 있어요. 위대한 인간이라고 꼭 써 있어요. 위대한 인간이로구나. 역사책이 많아요. 조선시대 몇 대 몇 대 왕족들이 한심하고 부패하고 이러면 김정일도 이렇지 않을까. 왕족들만 있는데, 애네라고 망하지 않을까, 혼자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 생각해요. 우선은 다른 거 다 떠나서 사람이 먹고살게 해야 하는데, 위대한 영도자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나라가 잘살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지금은 힘들지만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변명하고. 자본주의는 못산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못살겠나 생각도 들고 ... 좀 알면서 크면서나니까 뭐 책 같은 거 웃긴 거예요. 어디 시찰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야, 다 그랬겠지.

그러나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흔하지는 않다. 자신의 의지로 탈북한 청소년들도 북한의 현실과 학교교육이나 공식선전매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그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 역사를 배우면서 “나도 이걸

⁴⁷-10대 북한이탈주민, 남성, 황해남도, 중학생, 2007년 탈북. 2009.10.30 면접.

I
II
III
IV
V

본받아가지고 장군님을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김일성에 대해 “하늘이 내린 분이어서 저런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갔구나”라는 생각도 했다고 한다. 한편에서는 학교교육을 통해 주입된 사상과 다른 한편에서는 영상매체 등을 통해 체득한 비판적 의식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순적으로 공존하며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외부 세계와의 문화적 접촉과 이로 인한 의식의 변화는 또한 북·중 접경지역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북·중접경지역은 지리적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중국이 마주 보고 있는 지역을 지칭한다. 북한의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 함경북도 지역이 해당되며,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시 등 일부 지역과 지린성의 장백조선족자치현을 포함한 일부 지역, 연변조선족자치주가 포함된다. 연변 등 북·중접경지역은 지리적 특성상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들의 친인척이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북한과 중국으로 서로 오가기도 한다. 북·중접경지역에는 17개의 해관이 설치되어 있어 양국 간의 경제활동 및 인적 교류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⁴⁸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업,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의 수는 최근 몇 년간 매년 10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이다. 장사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방문비자를 받지 않고 뇌물을 써서 수시로 국경을 넘나드는 북한 주민은 그 수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공식적 왕래 인원의 몇 배에 달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⁴⁸ 광승지, “북한사회 미시연구를 위한 시론: 북중 접경지역 활용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남북소통의 길』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pp. 141~144.

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북한 주민들은 개혁개방이 진행된 중국 사회의 모습과 북한사회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정보를 접하고 기존의 가치관에 의문을 품게 된다.

연구과정에서 만났던 구술자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중국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거나 장사를 하기 위해 중국을 드나드는 과정에서 의식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중 한 사람인 (사례 26)의 경우에는 1990년대부터 북·중접경지역에서 두만강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했었다. 1990년대에도 이미 중국 사람들이 북한을 넘나들면서 장사를 하거나 장을 보고 나가곤 했다. 그는 직업의 특성상 중국 사람들과 많은 대화를 하였고, 2000년대부터 장사를 하면서 중국을 가끔씩 드나들게 되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쪽 사회에 대해서 눈 탁 트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북한에서 교육받은 가치관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하면서 중국에 나와 틈틈이 책과 중국 뉴스, 남한 방송 등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보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보도와 중국, 남한 뉴스의 차이점을 비교하기도 하고 한국전쟁이나 김정일 출생지와 같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고 캐묻게 되었다. 중국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촉발된 의식의 변화가 십여 년 넘게 진행되면서 2009년 그는 탈북을 하게 된다.

마. 소결: 북한 주민 의식전환의 특징

이 절에서는 구술생애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특히 ‘관점전환학습’의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애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생애경로에 영향을 미친 경험과 경험의 재구성,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정체성의 변화에 관하여 탐색하였다.

I

II

III

IV

V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의식의 딜레마를 초래하는 생애사건을 접하면서 기존의 의미구조에 의문을 품게 되고, 직관, 자아성찰, 비판적 평가 등의 기제를 통해 기존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의미관점의 형성을 이루어내는 구체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주민들의 생애사례들은 의미관점의 전환이 특정한 사건이나 통찰을 계기로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관점전환의 충분한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특정 과정을 나선형의 순환 궤적을 그리면서 반복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또한 관점전환의 핵심적 요소로서 사회, 정치, 경제체계에 관한 신념, 도덕적 추론과 인간관계, 정서적 반응을 지배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중요성을 고찰하였고, 사회구조적 불평등, 외부 세계와의 문화적 접촉 및 대안으로서의 남한 사회의 존재가 관점전환학습의 촉진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향후 북한사회의 변화와 관련하여 계층의 이동과 주민들간의 경제적 격차 심화 및 하위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심화 현상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경제난과 2000년대 이후 자생적 시장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사회에서 계층구조의 변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전 시기 출신성분이라는 정치적 잣대에 의해 구분되던 계층은 최근에는 시장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한 경제적 자산과 정치권력의 소유 여부라는 두 가지 기준에 의해 복합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개인이 선택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출신성분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제약이 시장경제 적응 능력이나 경제적 지위에 의해 부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본도 경제적 자본도 소유하지 못한 하위

계층의 경우, 상위 계층과의 생활수준의 절대적 차이가 더욱 벌어지고, 이로 인한 상대적 빈곤감, 박탈감이 심화됨으로써, 개개인의 의식에서 정치적 측면의 관점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북한사회의 변화와 주민의 의식 변화와의 관계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외부 세계와의 문화 접촉이다. 2000년대 들어 북한 주민들의 삶 속에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은 시장과 북·중접경 지역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통해 남한을 비롯한 외부 세계의 문화와 정보가 유입되고 있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학교교육이나 선전매체를 통해 접하는 북한 당국의 공식 담론이나 선전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접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남한에 대한 지식과 생각은 물론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한다.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한 외부 문화의 유입과 확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정치적 의미를 갖는 관점 전환은 지식인 계층과 젊은 세대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식인들은 지식인 특유의 성찰성을 지니고 있고 더불어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에 비해 북한사회를 다른 사회와의 비교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지식인층 내에서의 사고의 차이를 표출시키고 내적인 성찰의 계기를 제공하는 강력한 계기가 주어진다면, 이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발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기성세대와 달리, 경제난이 시작된 상황에서 태어나거나 곤궁하고 어렵게 유년기를 보낸 청소년층은 사회역사적 경험과, 진취성과 호기심 등 청소년이 갖는 연령적 특성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다른 의

I
II
III
IV
V

식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자신의 삶에 대한 민감성과 적극성이 작용하면서 의식전환의 과정에서도 역동적인 특성이 뚜렷이 나타난다. 의식전환 측면에서 지식인 계층과 청소년층이 나타내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향후 북한사회의 경로를 예측하는 행위자적 변수로 북한 엘리트·지식인 계층의 동향과 권력 계층 내부의 세대교체, 북한 청소년층의 의식과 청소년 문화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집단정체성 유지와 개인정체성 확대

정체성(identity)이란 한 마디로 ‘나는 누구인가’로 대표되는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이다. 사회학자들은 정체성에 대해 ‘어떤 대상에 대한 성찰적 인식’⁴⁹, ‘의미의 원천으로서 중요한 문화적 특징 또는 문화적 특징들의 집합이라는 기초 위에서 의미가 구성되는 과정’⁵⁰, ‘자아이해’⁵¹, ‘한 행위자가 타자의 시각을 받아들이는 속에서 사회적 객체로서의 자기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의미들의 집합’⁵², ‘개인이나 집합체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개인이나 집합체들과 구별되는 방식들’⁵³ 등과 같이 사회적 관계 및 사회 속에서의 자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심리학자들은 ‘개인의 연속성, 단일성 또는 독자성,

⁴⁹-Anthony Giddens,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st Modern 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⁵⁰-Manuel Castells, *The Power of identity* (MA: Wiley-Blackwell, 1997).

⁵¹-R. Hall, *National Collective Identity: Social Constructs and International System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⁵²-A. Wendt,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1994).

⁵³-R. Jenkins, *Social Identity* (London: Routledge, 1996).

불변성,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 감각(*consciousness sense of individual identity*),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 갖는 연속성과 단일성에 사로잡히는 주관적인 느낌⁵⁴ 등 개인 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고, 사람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남들과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전체감(*feeling of wholeness*)내지는 통합감(*integrity*)을 얻게 되고, 이 속에서 개인을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해주는 연속성과 동질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타인과 구별해주는 독특성을 내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다양한 의미를 정리해보면, 정체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을 다른 개인들과 구분하는 자신만의 독특성에 대한 느낌이라는 것, 그리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고 확립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체성은 개인정체성과 집단정체성으로 나뉜다. 개인정체성은 ‘개인들이 어떤 다른 사람, 사회적 사실, 사물 같은 대상들에 대하여 형성하는 의미’들을 의미하며, 가변성이 크고 지속성이 짧은 상황성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이에 비해 집단정체성은 ‘한 집합체의 성원들 간의 상호적 인식과 그들의 자기 집단에 대한 소속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집단정체성은 개인적 정체성에 비해 가변성과 상황성 측면은 작은 대신 지속성과 일관성이 크며, 그런 이유로 집합체의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다.⁵⁵ 개인정체성은 성장과 사회적 과정에서, 상호작용 질서 속에서, 그리고 제도화된 식별 관행 속에서 한 개인을

⁵⁴-E. H. Eric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1968).

⁵⁵-A. D. Smith, “National Identity and the Idea of European Un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68, No. 1 (1992).

I
II
III
IV
V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며, 타인과 공유되지 않은 의미들의 독특함이 가져오는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정체성은 의미공유에서 비롯되는 성원들 간의 통일성을 강조하며 성원들의 개별성보다는 그들 간의 공통점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⁵⁶ 그런 이유로 각 사회집단이나 조직이 공유하는 가치관에 동일시하고, 때때로 그 가치관을 자신의 인생 목표로 삼기도 한다. 일단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되면 사람들은 이 가치관에 알맞은 삶의 스타일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부여되고 기대되는 역할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개인적 또는 집단적 정체성 모두는 한 사회가 지닌 가치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며,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특성을 내면화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체성의 이러한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주민의 정체성은 북한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북한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화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집단주의 집단정체성이 보다 강하고, 개인정체성은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최근 변화와 경제적 어려움, 기근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북한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북한 주민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 북한 주민들은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했을 것이며, 과거에 비해 집단정체성이 약화되고 개인정체성이 강화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⁵⁶ *Ibid.*, 개인정체성과 집단정체성을 구분하기는 했지만, 이 두 정체성을 구분할 것인가의 문제는 논쟁거리이다. 개인적 정체성과 집단적 정체성의 구분은 관점이나 강조점의 문제일 뿐이지 구분이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 쟁점의 하나이다. R. Jenkins, *Social Identity*.

이런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의 변화와 북한 주민의 정체성의 변화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집단주의 가치관의 주입과 정체성

북한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치는 집단주의 원리로 북한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는 규범으로서 작용한다. 북한 주민들은 소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개인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집단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익히게 되며, 이로써 자율적, 능동적인 개성 있는 자아를 형성, 인식하기보다는 집단에 매몰된 타율적, 수동적인 획일화, 전형화된 자아를 형성,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⁵⁷ 개인의 삶보다는 다수와 인민대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 여겨지기에 집단이 정한 생활방식에 순응하지 않거나 집단이 ‘인민의 적’으로 규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집단 따돌림을 통해 심리적 공격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⁵⁸ 따라서 자신만의 독특한 특성인 개인적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거나 개인정체성에 근거하여 행동할 경우 그것은 서구사회에서처럼 독립적이고 바람직한 인간이 아니라 사회적 이탈자로 인식된다.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국가나 인민대중을 위한 삶과 배치된다고 여겨지고, 이기적인 행동이며 비난받을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사적인 개인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자기를 위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인간은 사회적으로 가장 ‘낙후한 사람’으로 규정되기에, 국가와 인민대중

57.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 78.

58. 이태건 외, 『21세기 북한학 특강』 (서울: 인간사랑, 2003), p. 289에서 재인용.

I
II
III
IV
V

을 위한 삶을 강조하고, 개인의 독특성은 상대적으로 억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면접 대상인 사례 22와 사례 23은 공통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개인적인 삶을 위해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개인의 독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일탈로 인식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특질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는 생각 안하고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교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을 살린다는 게 북한에서는 오히려 일탈이죠. 그렇게 하면 일탈이죠. (사례 22)

북한 자체가 개인의 삶을 없애버렸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을 마칠 때까지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된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 봐보고 사는 사람은 가장 낙후한 사람으로 그렇게 규정했거든요. (사례 23)

인간이란 존재가 본래 집단정체성과 개인정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 집단정체성이 더 크게 부각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정체성이 부각되기도 하는 것인데, 북한정부 수립 이후에 강력한 체제를 만들고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도록 교육한 결과 전반적으로 집단정체성은 강해지고 개인주의적인 정체성은 매우 약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 대다수는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북한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의식 속에 뚜렷하게 잠재해 있는 것이다.⁵⁹ 그러나 북한 주민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국가의 요소로써 국가의 가치를 내재화하여 국가와 일치감을 보이는 측면이라

⁵⁹ 이주철, “북한주민의 정권인식과 체제 선전에 대한 반응,” 『통일문제연구』, 2001년 하반기호 (2001), p. 7.

기보다는 당과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국가에 대한 일체감을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접대상자 사례 6은 늘 교육을 통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주입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활 자체에 김정일이 곳곳에 배어 있고, 삶의 모든 측면에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관련되어 있었다고 회상하고 있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끼는 자체가 늘 장군님인데 우리가 탄생 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배우는 자체가 늘 장군님에 대한 거잖아요. TV를 켜도 뭐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늘 장군님.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다 사적지, 장군님에 대한 거. 노래 나오는 것도 다 장군님 노래 중의 어느 노래 하나고. 가끔이지만 장군님이 들어가지지만 노래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늘 생활하는 자체에 장군님이 있었어요. (사례 6)

면접대상자 사례 46 역시 유사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불난 집에서 김정일의 초상화가 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 두 살짜리가 이 층에서 뛰어내렸다는 등의 사상교육을 받았을 때, 자신도 실제로 그러한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회상하고 있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북한정권이 선전하는 충성사례를 실제로 믿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음을 의미한다. 만일 형식적으로 받아들였다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I

II

III

IV

V

그때는 말하자면, 열두 살짜리가 초상화 이 층에서 몸에 안고 뛰어 내려서 죽고, 초상화는 보유했다는 등. 그게 진짜 영웅스럽고, 어렸을 땐, 나도 저런 기회가 있으면 저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도 한 거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거 무서워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2층에서 혼자 뛰어내리자면 그 불길에서, 초상화 쥐고 뛰어내리자면 무섭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했었어요. (사례 46)

이렇듯 당과 수령을 위한 삶을 강조하는 북한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적 생명이고, 정치적 생명이란 결국 당의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에 입당하여 당간부가 된다면 가장 성공적인 인간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학교교육과정 및 사회 전반에 걸친 사상교육을 통해 당과 수령을 위한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생각이 전 주민에게 주입되고, 어려서부터 끝없이 수령을 위한 삶에 대해 강조하는 교육을 받다보니 수령을 위해 살고 나중에 입당하고 간부가 되는 것이 개인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김정일을 만나서 은혜를 입어보는 것을 상상하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고 무슨 리수복이처럼 자기 조국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리수복이라고 조국해방전쟁에, 6·25전쟁 때, 조국해방 전쟁이라고 해요, 그 가슴으로 화구를 맞고 “나는 해방된 조선청년이다.”하면서 시까지 남기고 죽은 리수복이라고 있어요. 꽤 많이 알려주고, 그것처럼 살아야 된다고. 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자기 한목숨을 바칠 줄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 때만 해도 진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뭐 소문들은 어디서는 김정일이 현지지도하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들으면 나도 어떻게 돼서 어느 순간에 장군님을 만나 뵈어서 이런 배려를 받아 봤으면. 김정일 아는 사람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아

는 사람이 돼서 만날 수 있을까. 여기 오기 전까지도, 대부분 머리가 뒤틀려지지 않은 사람 이상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지요. (사례 46)

이러한 가치관의 주입에 대해 의심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상 북한 이외의 다른 세계를 접촉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의 경우, 대부분 당국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며 이에 대해 한 치의 의심도 없다. 아무리 사는 게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은 미국이 지구상에 하나 남은 사회주의국가를 압살하려고 하기 때문이지 김정일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수령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굶어 죽더라도 자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못살고 못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다 미국 때문이고, 수령과 지도자가 있어서 미국에 압력을 가해서 식량도 받아내고, 지도자 덕분에 이만큼 사는 거라고 생각한다. 또한 혁명사상과 김정일에 대한 교양학습 내용은 아주 어려서부터 반복적으로 배우고 암송해왔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김정일과 당에 대한 믿음은 남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교육기관뿐 아니라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에서도 100% 같은 논리를 유포하고 있고, 정부당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보상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본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선전을 믿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주체사상을 비롯한 선전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여 선전하고 교육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의심을 품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I
II
III
IV
V

북한에서 물어보면 다 제국주의 압살 정책 때문에 못산다 그러지. 그래도 장군님 있어서 놈들한테 압력을 가해서 식량도 받아내고 그래도 장군님 덕분에 이만큼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북한은 완전 다르다니까요. 사람들이 거기다 세뇌돼요. (북한정권의 선전을 다 믿느냐는 질문에) 그럼요. 모든 환경이... 나도 처음에 와서 북한사람이, 우리가 참 모자랐나 생각했는데, 여기 남한에서 교회 믿는 거 봐요, 이상한 교회. 사람들이 이 열린사회에서도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는 100% 통신 방송 다 통제되지, 그런 말만 사회에 유포되게 하는데. 그다음에 그게 되는 사람은 보장을 주고 안 되는 사람에게는 제재를 가하고. 정부가 물리력을 가졌지 경제력을 가졌지, 거기다 사상수단을 다 독점했지. 그야 말로 북한에서 주체사상을 하나의 종교라고 하지만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인데. 그것도 무슨 얼토당토않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논리적으로 정당화시켜 가지고. 북한사람들이 가진 민족주의, 이걸 북한사람들이 가진 전통적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엔 무슨 충효사상, 그다음에 옛날에 일본 놈들한테 당한 거, 그리고 전쟁, 이런 걸 다 어떻게 엮어가지고 그걸 정당화해서 꾸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래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사례 22)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의 불만여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김정일에 대한 불만은 아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고, 불평을 해도 지도자가 나쁘다는 말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한다. 단지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먹고살기 힘들다 하는 정도일 뿐이다. 이웃 간에도 상호 감시와 통제가 심하고 불만을 표현했다는 것이 드러날 경우 정치범으로 고발되어 일생을 망칠 수도 있는 등 여전히 강력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뿐 아니라 당과 지도자에 대한 부정적 소문 역시 북한 전반으로 퍼져 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

북한은 그 사람들이 여기 남한사람들처럼 세상하고 대지 못했기 때문에 당국에서 말하면 다 그런가보다 그렇게 생각하구, 당국에 불리한 거는 말 안 하니까. 북한정부에서 생산한 정보가 다 사람들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유명한 실험 있잖아요. 따라서 다 60%가 생각 없이 따라한다는. 그 진짜 맞는 말이라고요. 북한에서 100이라면 동조가 70%고 나머지 30%가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 여론을 절대로 확산시킬 수가 없어. 자기한테서 국한돼야지. 그러니까 불평을 해도 장군님 나쁘다는 말을 절대 못해요. 그거 불평하면 이게 왜 이러냐, 이 정도는 허용되니까. 먹고 살기 힘들 거 같다, 배급을 언제 주겠냐, 이런 식의 불평을 하는 거지. 이거 김정일이 때문에 어떻게 되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저저 저 정도를 어떻게 알지, 이렇게 되거든. 하니까 몰래 정보 듣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만 말해야 돼. 그야말로 뜻이 통하는 사람한테만. 그러니까 이 정보가 확산되지도 못하는 거지. (사례 23)

불만을 말하게 되면 다 제거돼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런 말하게 되면 처벌하는데, 따라서 법적으로 놓고 보면 그거 다 정치범으로 되고 맙니다, 제도를 비판해서 이렇게 하는 건. 다 정치범으로 되게 되면 다 10년 이상 죽을 때까지 나갈 수 없는 그런. 말 한마디 잘못해서 일생을 감옥살이 하는 사람 많단 말입니다. (사례 2)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비판적 언사는 국가 반역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어왔지만,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외부 문화와 정보의 유입으로 인해 정치사상교육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선전하는 지도자에 대한 생각과는 다른 생각들이 주민들 사이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국가 지도자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조직적인 비판과 저항을 할 수는 없어도 가까운 친지들이나 믿을만한 친구들끼리

I
II
III
IV
V

모인 자리에서는 국가 정책이나 지도자를 비판하는 말들이 오고간다고 한다. 또 시장과 같이 여러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도 우회적이고 풍자적, 반어적 형태로 당과 지도자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 이러한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북한 주민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본능적 수준의 거부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당과 수령에 대한 이상화가 내면화되어 있다고 한다. 사례 45의 경우 남편이 중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드나들던 사람이었는데, 친정 식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정일과 김일성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던 경험을 회상한다. 이와 같은 증언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에 대한 이상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체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때 당시 남편 말 탁 듣는데 북한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뒤돌아 앉아서. 그때 당시 초상을 달았어요. 김정일 당상을 달았는데.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 앉아서 (초상을 들여다보면서) 일성이야, 정일이야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제가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나고. (사례 45)

이러한 집단주의 가치관 및 정치사상교육의 효과는 북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비합리적이고 거짓이라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사고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일부 북한이탈주민들은 탈북 초기나 입국 초기, 경우에 따라서는 남한 입국 후 한참이 지난 시점까지도 장군님이라는 말이 입에 익숙하고, 누가 김일성, 김정일을 욕하면 자기도 모르게 당황하거나 화가 나서 이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정치사상

교육의 효과가 신체와 정서 깊숙이 각인되어 인지적 측면이 변화한 후에도 개인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례 23의 경우는 탈북한 후 중국에서 1년 동안을 지낸 경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김정일을 욕하는 것을 듣고,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는 반감이 생기더라고 회상한다. 사례 6의 경우도 자신이 세뇌교육을 많이 받은 결과 남한사회에 와서 다른 탈북자가 김정일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듣고 이와 유사한 감정을 경험했다고 구술하였다.

내가 탈북해 중국 사는데, 중국 애들이 1년 동안 김정일 개 새끼(라고 하는데). 아이 씨, 내가 화를 냈다니까. 그래 되다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 어혈이 쉽게 안 빠져요. (사례 23)

(김정일에 대해 비판하는 말을 듣고 처음에) 니들이 뭐데 그렇게 말하냐고 화를 냈어요. 장군님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웬지 반동,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사니까 나도 김정일이라고 할 수 있고 김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세뇌교육을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도 애들하고 말하다가 장군님 어찌고 하니까 애들이 너희 장군님이 요즘 취장암이 걸리셨다더라 하고 (농담을 해요). (사례 6)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집단주의 가치관 및 김정일 우상화에 대한 내용을 끊임없이 교육받은 결과 쉽게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강력한 집단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국가를 반대하는 행동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며 비난받아 마땅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은 탈북하여 남한 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정부를 바라보는 관점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I
II
III
IV
V

북한사람들은 (남한의) 촛불시위에 아주 부정적이야. 남한 사람들이, 민주화하는 사람들이 북한사람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건, 거기서 그렇게 억압당했는데 여기 와서 그럼 자유화하는데 앞장서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북한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죠. 국가관이 철저히 때문에. 저렇게 하면 국가가 무너지지 않냐. 남한 사회는 말하자면 북한사람에게 남한 국가가 생존의 기둥이야. 그런데 국가를 허물려는 행동은 나쁜 행동이지. 촛불시위하고 데모, 국가에 침해하는 건 그런 놈들은 참 나쁜 놈이고, 왜 가만 놔두냐, 저거 완전 무자비하게 진압해야지. 그런 거 하는 놈들이 북한하고 친하기까지 하다니까 다 죽일 놈이지. 북한식 사고가 바뀌지 않는다니까. (사례 22)

북한 주민들은 일생에 걸친 조직생활을 통해 수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교육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탁아소에서 서부터 유치원, 소학교, 중학교, 대학, 직장생활, 은퇴 후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조직생활과 사회단체 모임에 참가하게 된다.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조직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조직생활이 야말로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학교에 입학해서 8세부터 ‘조선소년단’에 입단하고, 15세부터 30세까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서 활동한다. 30세가 넘으면 직장인은 ‘조선민주주의 직업총동맹’에, 농민은 ‘조선농업근로동맹’에, 가정주부는 ‘조선민주여성동맹’에 가입을 하여 조직생활을 한다. 당원은 북한 최고의 조직인 ‘조선로동당’의 한 사람으로 일반인과는 다른 ‘당조직’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총화’는 주 1회, 김일성의 혁명사상과 주체사상에 대한 ‘학습모임’과 ‘강연회’ 모임은 월 2회, 김일성의 혁명 활동을 따라 배우기 위한 ‘해설모임’도 월 2회 진행되는 등 끊임없는 사상교육을 받는다.⁶⁰

주마다 생활총화 하지 않습니다. 채취공업 같은 경우 우리 탄광 같은 거는 열흘에 한 번씩 했는데, 그런데 통해서 호상비판을 하고 계속 이렇게 사상개조를 시키는 거죠. 또 주마다 계속 학습시키고 또 수요 강연회 계속 주입시키고 그 내용이 다 그겁니다. 수령에 대한 충성을 다하자. 그런 환경에서 또 그 길로 사람들이 걸어가야만 뭔가 앞길이 열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사람들 머리 상태가 개인생활하고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사례 23)

북한의 교육목적은 공산주의의 인간육성, 주체사상, 집단주의 지향, 그리고 교육과 실천의 결합, 교육과 노동의 결합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중 집단주의 지향은 북한교육의 매우 핵심적인 목적으로, 집단주의를 사회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활동원칙으로 삼고 있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여 사회와 인민의 이익, 당과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한다. 집단에 대한 헌신과 봉사를 강조하며, 집단주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하여 학습과정에서 집단적인 학습활동을 강조하고, 위와 같은 각종 단체 활동을 통하여 단체에 대한 소속감, 단결심, 집단의식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다.⁶¹

2001년에 입국한 한 북한이탈주민의 북한생활경험에 대한 글을 보면,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 김일성 대원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매일 새벽 5시에 학교에 세워진 김일성 입상화(대형초상화) 앞을 청

⁶⁰ 정순희, “탈북자를 알고 사랑의 실천을,” 『북녘마을』, 통권 6호 (2010) p. 118.

⁶¹ 한만길, “통일이후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연구: 북한 학생의 재사회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연구용역보고서, 1997) pp. 24~25.

I
II
III
IV
V

소하러 다녔고, 12월의 눈 덮인 산에 올라 언 손을 붙여 진달래가지를 꺾어다가 햇빛 드는 창가에 놓고 아침저녁으로 정성스레 물을 주어 아름다운 꽃을 키워 설날 아침에 김일성 초상화 앞에 가져다 놓았고, 그 대가로 ‘표창’을 받아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는 경험을 서술한 경우도 있다.⁶² 이러한 사례들은 북한 주민들의 성공적인 삶이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과 연결되어 있고, 결국 북한당국이 주입하는 가치들을 깊숙이 내면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 출신성분에 따라 결정되는 삶

개인적 자아정체성이란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남들과는 다른 고유한 존재라는 전제감’을 의미한다. 남들과 다른 고유한 존재로 드러내는 대표적인 방식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 또는 ‘어떤 꿈을 가진 사람’,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 등으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사람의 개인정체성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또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십니까?’ 등을 질문하는 것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사회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사회적 계급과 출신성분에 따라 인생의 향로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원하는 바가 있어도 사회적으로 원하는 지위까지 올라가기 어렵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삶이 정해져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기 어렵고, 꿈을 가지더라도 자신의 부단한 노력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기에 일반 주민이 개인의 정체성을 명확히 형성하고 강화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토대

⁶² 위의 책, p. 119.

가 나쁜 누군가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포부와 희망을 갖게 되다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러한 포부와 희망을 가진 당사자에게 절망과 스트레스를 가져오는 일이 된다. 면접자 중 한 사람(사례 23)은 부농의 자식이었는데, 부농의 자식은 출신성분이 나빠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항상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 출신성분이 나쁜 경우는 아무 잘못이 없어도 꼬투리를 잡아서 처벌하기도 하고,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이 면접자는 글을 쓰는 능력이 뛰어나서 본인이 쓴 토막극이 특등을 받고 영화제에 추천을 받아서 나갔는데 한 달 만에 평양에서 지방으로 쫓겨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결국은 출신성분 때문이었다고 한다.

군대 있을 때 글을 발표해 갖고 인정받고 올라갔지. 평양 18차 근무자축전을 올라가서 추천을 받았는데. 제가 000이라는 토막극을 하나 썼거든요, 18차 근무자 축전할 때. 그때 내가 21살이였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아침 밥상을 들고서 식사를 하다가 0000이라는 토막극이, 여기로 연극이라 하나, 짧은 20분짜리, 저거 보다가 잘 썼네, 작품 좋네, 이렇게 되어 갖고 그 작품이 특등을 먹었어요. 그래서 연극영화제 추천받아 갔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쫓겨 내려왔어요. 성분이 안 되는 거예요. (사례 23)

사례 23의 경우 북한에서 사람들이 희망하는 것은 당일꾼이 되는 것인데, 안전부 나 보위부와 같은 권력기관에 진출하려고 해도 “뿌리가 되어야”, 즉 출신성분이 좋아야 하고, 출신성분이 나쁜 사람이 권력기관의 당일꾼이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은 한마디로 “웃긴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웃긴 이야기”라는 것은 그러한 꿈을 지닌

사람은 사회적 상황을 잘 모르는, 어딘가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출신성분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토대가 좋지 않다면 출세는 생각지도 말아야 하는 것이 북한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사회 구조가 부모의 출신성분과 그에 따른 직업을 자식이 물려받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지며, 개인의 노력으로는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어렵도록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사회라는 게 뭐, 부단히 뭔가 노력을 해서 뭔가 이루려고 노력해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경우를 놓고 봐도 뭐가 되려면 자기 뿌리부터 이불깃을 보고 다리를 펴라.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자리가 뭐입니까? 유급당 일꾼이 된 다든가, 당 일꾼이라는 게 초급당 비서들도 순 당사업만 하는 게 유급당원이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될려면, 또 안전부에 별이나 달고 보위부에 뭐, 이런 권력기관에서 한자리 할려 해도 그 뿌리가 돼서, 또 자격을 갖춰야 되거든요. 원체 뿌리가 나쁜 사람이 권력기관 그런 걸 바라보면 웃기는 얘기죠. (사례 23)

(출신 성분) 딱딱 정해져서 노동부에서 집계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장래 희망이 시인이다 해서, 너는 장래희망이 시인이니까 그쪽으로 뺏어서 그쪽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가라 이렇게 밀어주고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저 뭐 암만 장래희망이 그렇다 해도, 내가 이제 앞에서 말했잖아요, 밑에 돈이 뒷받침 돼야 되고 뇌물이 뒷받침 돼야지만 그쪽으로 뺏는다고요. 물론 졸업 당시에는 자기 희망이 뭐가. 장래 희망이 뭐가 그거 다 써서 내라 해요. 자기도 무슨 장래 희망이 뭐이다, 써서 내도 뭐 그 희망대로 되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농장 하면 자식도 농장원 돼야 되고 아버지가 직장인에 무슨 직장 무슨 거 했으면 딸도 그 직장에 배속돼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노동부에서 딱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조선소 노동자 무슨 형식반에서 일했다 하게 되면 자식도 조선소 형식반 배치돼서, (사례 45)

북한사회에서는 직업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고, 대학의 전공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정하지 못한다. 물론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 전공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인생이 ‘흘러가게’ 된다. 부모도 무엇이 되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어렸을 적에 꿈이 있어도 자포자기하게 된다고 한다(사례 46). 사례 22의 경우 어렸을 적에 어렵풋하게 선생이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고 기억하지만, 성장해 사회 구조를 경험하게 되면서 본인이 원하고 노력해서 직업을 정한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그냥 대학을 가게 되었고 그 결과 인생의 경로가 정해졌다고 회고하고 있다.

조그만 할 때는 선생이 되겠다고, 우리 사촌언니가 선생이었어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생각했다가 조금 크니까 희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희망 많이 안 줘요. 희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옮겨놓는데 따라. 여기서처럼 어릴 때부터 뭐 되어라 이런 것도 없고. 대체로 어떤 생각 가지냐면 당과 수령이 부르는 곳에 아무데나 간다, 이게 가장 좋은 꿈인 거예요. 북한에서 꾸라는 꿈은, 그러니까. ... 북한사람들은 자기 전망 선정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꿈 키우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똑똑치 못해서가 아니라 대다수가 그래요. 어려서부터 꿈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야말로 개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한마디로. (사례 22)

그러다 보니 가정 내에서도 암묵적으로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대략적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서 살도록 사회화된다. 자신이 노력한다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음을 부모 역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소위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입당을 하고 당간부가 되어야 하지만, 출신성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입

I
II
III
IV
V

당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이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식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나 당에 대한 충실성을 보임으로써 어렵게 입당을 하는 것을 바라기보다 일찍 장사를 가르쳐 돈을 벌도록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증가하고 있다.

뭐가 되어라 이런 건 상상 못하고. 거기서 뭐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봐도 뭐가 돼라가 아니고 돈 많이 벌어서 잘 살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 막 공부하면 공부해라, 공부해라, 무슨 사람이 된다, 이리잖아요? 거긴 돈 많이 벌어라, 이거밖에 없어요. (사례 6)

특히 출신성분이 나쁜 경우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사회적으로 명확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개인적 자아실현에 대해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들도 처음부터 기대를 하지도, 자녀가 기대를 갖도록 하지도 않는다.

그런 생각을 안 하죠. 자기가 어디 간다는 걸 다 알고, 이제 선생님 꿈 자체를 힘든 걸 끈 거죠. 작가는 권력기관 아니지만, 선전선동부문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중시하는 부문이에요. 한니까 지질기사나 작가나 같고 같은 인텔리잖아요. 하나는 공학관련 인텔리고 하나는 인문계통 인텔리인데 북한에서는 그 비중이 다른 거죠. 인문계통 인텔리는 공학계통 인텔리보다 성분이 깨끗해야 하는 거죠. 사상선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생이 그걸 알았으면 처음부터 그런 꿈을 꾸지 말아야 되고, 차라리 의사 쪽으로 간다던가. 처음부터 공학쟁이가 되겠다 이런 꿈을 꺾야 되는데, 어렸을 때 그걸 모르다나니까 한번 좌절을 한 거죠. 좌절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대체로 부모들이 자기네 아들을 다 알아가지고 무슨 꿈꾸면 어릴 때부터 상처 안 주도록 바뀐라 주의를 주죠. 60년대 들어와서 급격히 그렇게 됐

어요. 성분을 따진 게 58년 말부터 그랬거든요. 70년대 아마 자랐으면 너 그거 하지 말고 돌려라, 부모님이 방향 바뀌주는 거고, 또 애들이 아는 거죠. 토대가 나빠서 나는 저거밖에 못 한다. 애초 꿈을 접고 할 생각 안 하는 거죠. (사례 22)

부모들 자체도 뭐 너 그쪽으로 해서 배워서 그쪽으로 발전해라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 말마따나 그저 뭐 돈이나 잘 벌고, 남편이나 여자들은 돈이나 잘 벌고 남편이나 잘 만나서 시집가면 되고, 남자애들도 그렇다고 해서 발전하고 그저 그런 거죠. (사례 45)

결국 출신성분에 따라 자신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북한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드러내고, 타인과 다른 독특성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사회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개인정체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방식보다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정해진 역할을 해내는 방향으로 사회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결과 다른 속마음

북한 주민들은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내면화하여 생활화하는 한편, 마음속으로는 국가가 강조하는 집단주의적 가치관과는 다른 생각을 갖기도 한다. 대부분 당과 수령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지만, 경우에 따라 조직생활에 대한 혐오감과 반감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활총화의 경우는 지나치게 반복되다 보니 오히려 북한 주민들은 이를 형식적인 의례적 행동으로 여길 뿐 진심으로 이에 임하지 않는다. 당이 시켜서 하기는 하지만 마음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직생활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고, 조직 내에서 반복되는 생활총화에 마음을 담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어

I

II

III

IV

V

느 정도 자신의 개인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북한에서 아무리 집단정체성을 강조해도 인간의 특성상 겉으로 내세우는 가치와는 다른 속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제가 생활총화가 너무 싫어서, 공부하다가도 가령 어렸을 때 별명도 부르고 말도 잘 못할 때고, 그런데 조그만 걸 선생님한테 일러바치겠다고 생활총화 때 일어나서 비판도 받고 이랬는데, 좀 억울하게 된 그런 측면이 제일 많았어요. 저는 좀 내성적인 성격이 돼가지고 그런데 나서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때가 너무 싫은데, 한 번 뭐 잘못된 게 아닌데 그 애가 비판하겠다고 야단하더라고, 실제로 비판했어요. 그게 그렇게 고깝더라구요. 어쨌든 그 생활총화가 너무 싫어서. 이거 계속 생활총화하고 사는가, 그래 가지고 다른 나라도 그렇게 사는가, 누워서 이렇게 생각한 기억이 나요. 너무 힘들어서. 그때는 뭐 김정일 장군님밖에 모른다, 이런 거밖에 모르면서도 아 힘들다, 이런 생각이. (사례 46)

(학교 다닐 때는 김정일에 대한 교육내용을 다 믿고 나라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바뀐 것이 언제인지 질문에 대해) 졸업하고, 그것도 헌신해야 된다, 이것도 사회생활 철들기 전에 그때지요. 어지간히 딱 20대 들어서가지고 이게 사는 거 흐름을 보게 되면 대충 알잖아요, 어떻다는 거. 그 때 가서는 뭐 그렇게 헌신 안 하고, 그렇게 했었자 나한테 들어오는 거 뭐 있냐, 이런 식으로. 그저 오직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잘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생각할 기회조차 없어요. 먹고 사는 데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생활총화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생활총화하면 막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무슨 놈의 생활총화. 생활총화 빠지면 또 큰일 날 생각하고 달려들고, 막 그러니까 생활총화 회의 모임장소 이런 데는 사람들이 간다면 막 질색을 해요 앉아 있는 게. 그런 게 이제는 귀에 안 들어오니까. (사례 45)

그러나 조직생활에 대한 염오와 생활총화에 대한 형식적 태도는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해 쉽게 밖으로 드러내지 못한다. 생활총화나 정치학습에 불참하게 될 경우 사상을 의심받기 때문에 타당한 핑계가 없는 한 조직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생활총화를 빠질 수 없다. 사례 45는 생활총화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회의하는데, 이렇게 쫓기, 뭐 이렇게 쫓기하는 데 못 갔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파서 못 갔어요. 그럼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해서 세포비서한테 썩어지게 욕을 먹거니와 그다음에 그 주 생활총화 때 그거 가지고 사상투쟁에 걸리는 거예요, 달려들어서. (사례 45)

겉으로는 당과 수령을 위한 삶을 충실히 따르고 있고, 이러한 태도와 신념이 어느 정도 내면화되어 집단정체감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북한 주민들은 속으로는 이에 대한 반발심과 염오감을 지니고 있지만, 처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면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들은 북한 주민들이 겉과는 다른 속마음을 지니고 있고, 국가에서 시키는 것을 100% 진심으로 수용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라. 자본주의 가치의 유입과 의식의 변화

(1) 개인적·독립적 행동방식의 성공

1990년대의 경제난과 사회주의권의 붕괴 등 국제적 환경의 변화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인 식량배급 제도를 흔들었고, 나아가 의료, 복지, 교육 등 사회 인프라를 전면적인 마비 상태에 빠뜨렸다. 그

I

II

III

IV

V

결과 식량구입을 위한 주민 이동량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주민 상호 간 정보유통이 증대되었으며, 장마당의 활성화에 따른 주민 간 상호 접촉 및 정보교환의 증대 등으로 북한 주민은 의식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⁶³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문물의 침투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보다는 개인과 가족위주의 가치관, 정치·사상보다는 돈과 물질 위주의 가치관을 형성하게 했으며, 식량구입을 위한 주민의 이동량 급증과 장마당의 활성화는 이러한 가치관의 확산, 심화에 속도를 심화시켰다.⁶⁴

특히 90년대 중반 기근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시기에 들어서면서 식량배급이 끊어지고 국가적 보상이 사라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가치관에 따라 국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굶어 죽고, 오히려 국가의 정책이나 가치에 반하여 스스로 살 궁리를 했던 사람들이 살아남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인 생존능력이 중요한 특성으로 부각되고, 이전에는 비판받던 개인적 삶이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가치 있는 행동방식으로 인식되었다.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면서 국가적인 보상이 없다 보니까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말 충성했던 사람들이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굶어 죽었고 뭔가 뼈투로 나갔던 사람들이 많이 살아 남았던 소리죠. (사례 23)

63.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 43.

64.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p. 59.

그래서 고지식한 건 뚫어죽는다. 다 뚫어죽었어요. 그래서 고난의 행군 때 살아남은 건 승냥이하고 여우밖에 없다. 그만큼, 여자보다 여우라 그러고, 남자는 승냥이같이 악착같이. 그래야지 그때를 살아서 지금 사는 거고. (사례 6)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이제 출신성분만으로 사회적 성공을 보장받던 시대는 지나갔고, 경제적 능력이 함께 갖추어져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 더 이상 당에서 시키는 대로 당의 가치에 따라 살다가는 생존 자체를 할 수 없고, 무조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가치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북한 주민들은 “겉으로만 사회주의지 뱃속은 모두 자본주의”(사례 6)라고 생각하며,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확고하게 운영되었던 경제난 이전 시기에 비해 출신성분의 중요성이 감소하게 되었다. 북한이 탈주민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생애경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출신성분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은 토대 가지고 북에서 절대로 못 살아요. 만약 토대가 좋다 하면 백두산 줄기쯤 돼야지. 토대가 백두산 줄기라는 건 항일투사네, 뭐 이렇게 줄기가 되면 조금 괜찮을란지. 조국전쟁에 나가서 열사가 됐다든지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걸 하나도 안 봐요. 근데 이 지주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주했고 뭐 토대가 나쁘잖아요. 토대 나쁜 사람은 어떻게나 잘사는지. ... 근데 토대가 좋아도 밑에 받침이 돼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수수해요. 그저 남자라면 가정을 먹여 살리고. (사례 45)

대부분 사람들은 돈을 많이. 예전에는 여자도 학교 나오는 거 대학 나오면 좋아했었고, 아무튼 그런 공부 쪽으로 하면

I
II
III
IV
V

좋아했잖아요. 결혼상대는 뭐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돈만 있으면 뭐 여자도... 내가 딱 생각해도 돈을 벌어서 시집갈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당, 말이 그렇죠. 당을 받들긴 받드는데 굶고 당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사례 6)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나 농민들이 일터에 있는 자재와 원료를 절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농장원은 비료나 쌀, 옥수수 등을 착복하고, 제철소에 다니는 사람은 철근을 절취한다. 그러다 혹시 발각이 되어도 다시 뇌물을 주어 무마하고, 간부들 역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 그와 같은 행위는 집단주의적 가치관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생존을 위한 행위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신문을 읽잖아요. 김정일에 대한 신문은 읽는다 해도 밑에 사람들은 뭐 그렇겠지 맨날 듣는 소리.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막 들고 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입당해서 뭐 이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제는 입당해야 되겠다 막 신경 쓰는 사람이 별반 없고, 암만 그렇게 말은 한다 해도 시키는 일을 그저 오늘까지 하라 하면 눈치나 희뜩희뜩 보면서. 그러니까 농사가 되겠어요? 비료 종자 심으라 하면 종자는 종자대로 뭐 두 알씩 넣으라는 거 한 알씩 넣고서리한 알은 빼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예를 들어서 비료를 열키로,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땅이 백 평인데 여기에 열키로를 비료를 줘라, 이거 갖고 어느 면적을 줘라 하게 되면, 한 줍씩 줘라 하게 되면 3분의 1 요만큼씩 떨구고, 나머지는 다 나눠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네 집에 강냉이 밭에 비료 주고. 그렇게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쌀 가지고 나오면 쌀 먹고 비료 가진 놈은 비료 갖구.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하나 하면 반장은 반장대로, 예를 들어서 비료가 몇 백 개씩 내려오잖아요. 그럼 반장은 반장

대로 제 낫내기를 다 해요. 거기서 팔아먹고 제집에 실어가고. 근데 농장원들은 그런 걸 사람들 앞에서는 노골적으로 못해도 눈치는 채잖아요. 봐도 그걸 말 못해요. 그렇지만 뒤 돌아 앉아서 뭐 반장 먹는데 우리가 왜 못 먹겠냐. 우리가 썩어지게 농사지었잖아 우리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그래 갖고 나눠 먹고. 가을걷이할 때도 마대치기로 막 흠치고, 그저 그렇고. 그렇게 안 하면 또 못 살아요. 그렇게 해야만 살지. (사례 45)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와 사회 전체의 목표와 이익을 대신해서 자신이 소속해있는 소집단의 목표와 이익을 중요시하는 ‘변형된 집단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공장의 공동 재산을 활용하여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이나, 공장 차원에서 현금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격차 노력’⁶⁵, 기관 정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배정받고 직장의 적이 필요한 사람들과 교섭하여 직장의 적을 유지하게 해주는 대가로 일정한 돈을 받아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노임으로 충당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북한 주민들은 국가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데 배급 중지 등으로 인해서 그것이 충족될 수 없는 조건이므로, 공동의 재산을 활용해서 자신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기능을 개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것일 뿐, 집단주의 사상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작업반이나 직장의 동료와 같은 실제적인 집단이 국가와 전체 사회라는 추상적인 집단을 대신하고, 그러한 집단 속에서 개인의

⁶⁵ 격차노력은 기업소에서 소속 노동자들을 외부 일터에 내보내 일을 시키고 출근을 인정해주면서, 그 대가로 외부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그 중 일정 비율을 일한 개별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기업소에서 취하는 형식의 노동력을 의미한다.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소에서 작업조를 편성하여 돌아가면서 격차노력 형식의 노동을 허용하고, 그 수입을 기업소 운영과 배급 비용에 충당한다고 한다.

I
II
III
IV
V

이익과 개인의 확장으로서의 소집단의 이익이 상반되기보다는 조화를 모색하게 되는 집단주의의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북한 주민들 개개인의 마음 내부에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과 개인정체성이 충돌하고 갈등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지금까지 비판받던 생활방식을 취하려다 보니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뭔가 심리적 불편함을 느끼지만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의식의 변화를 통한 생존을 지향하게 된다. 사례 22는 기존의 집단주의적 가치관과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개인주의적 가치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렇게 교양을 받지만, 사람의 본성은 어디 가겠어요? 사람들은 은연 중 국가와 자기를 일치시키다가도 분리시키고, 자기 살 궁리를 해야 된다. 더군다나 90년대 이후 와서 국가에다 몸 바쳤다 가야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의 삶과 자기 삶을 점점 이렇게. 70년대, 80년대 진짜 당과 국가를 위해 싸웠죠,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국가가 내준 교리 원칙에 충실했고 그래야 된다고 다 생각했고, 그렇지만 9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당과 국가가 믿을 게 못되고, 그러니까 당과 국가에서 되라는 사람 되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다. 자기를 위해서 생활하는데 그걸 국가에서 어찌 산다고 생각 안 하나까. 그렇게 하면서도 교육을 철저히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되나 양심상 가책을 처음에는 받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삶이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렇게 자기 삶을 사는 거죠. (사례 22)

(2)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

최근 북한 주민들의 개인정체성 강화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외부의 문화가 북한 내부로 유입, 확산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에 변화를 초래하

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다른 사회와의 비교의 관점에서 북한사회의 모순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세력은 외부세계를 방문했던 경험이 많은 외교관이나 해외유학 경험을 한 유학생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외래문화에 대한 배타심을 길러내기 위하여 정치적 통제장치를 강화하고 주체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 생활을 경험한 엘리트나 청소년층의 심리적 이반과 외래문화의 전파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당국의 통제하에서도 암암리에 유입된 한국문화는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번져나갔고,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하고 기존의 가치에 대해 의심을 품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한의 영화 CD는 젊은 사람들이나 대학생들의 경우 보지 않은 경우가 없을 정도로 일반화되었고, 남한의 상황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에서도 국가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의 모순과 남한 사람들의 반정부적 행동보다는 남한사람들의 차림새를 더 눈여겨보고, 정부에 대해 반대시위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에 더 주목하는 등 이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게 된다.

옛날에는 막 남한에서 깡통을 들고 다닌다, 먹을 게 없어서 이런다, 어릴 땐 늘 그런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크면서 한국드라마 보니까 딴 세상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도 완전 잘 생기고, 그 정말 잘난 것들만 나오잖아요. 저기 사람들은 다 저렇게 생겼구나, 그런 환상을 막 심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걸 단속하니까. 젊은 층이 다 봤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지방 살 땐데, 평양 지하철을 딱 세워가지고 대학생들 가방을 열어봤는데, 책가방에 몽땅 한국 CD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요. (사례 6)

대학생들이 시위투쟁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경찰들이 뭐 이런 거 가리는 거 그거 똑 나오면서, 막 저렇게 시위랑 별

I

II

III

IV

V

여도 괜찮은가. 아버지 저렇게 했다가 저 죽지 않아요? 저기는 민주국가 돼서 대통령도 막 시위, 반대하는 시위 투쟁해도 잡아 안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람들 그땐 호감이 가서 그러니까나 저 사회가 나쁘다 이러면서도 호감이 가고 이러면서. 옷도 다 잘 입었잖아요. 막 잘 입으니까. 병에다 붙이랑 달아서,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남한에서는 그걸 보여주면서 정치를 반대한다고 보여줬지만, 그와 반대로 사람들은 그 인식이 저렇게 정치를 반대해서 들고 일어날 수도 있는가 하고,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요. 교양으로 보여줬는데 그게 반대성 띠기도 하구. 저 사람들은 잡혀가는 사람도 있다더라, 들어가면 감옥에서 잘 먹인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린 감옥 들어갔다가는 죽든가, 굶어죽는데, 일이 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례 46)

그러나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본다고 갑자기 자신들이 통제체제 속에서 속아 살았다는 생각에 충격에 빠진다거나 정부를 직접적으로 대놓고 비판하게 되기는 어렵다. 인간의 인지적 특성상 자신이 지니고 있던 세계관이 한 번에 무너지게 되면 지나친 혼란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스스로 정당화하는 기제를 통해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 북한 주민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선전하던 것과 다른 세상을 보았어도 북한당국이 말한 것이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전에는 당에서 말하던 것이 맞지만, 지금은 남한이 발전해서 변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체제에 대해 뭔가 생각하던 것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 의식이 깨어나는 변화를 겪기도 하지만 개인의 정체성을 강하게 깨닫고 자아 실현을 위해 행동을 한다거나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 비해 개인정체성이 더욱 강해지고

외부로 표현되는 분위기로 변화하고는 있으나, 북한체제의 영향력은 여전히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까지 당에서 시키는 대로 당의 가치를 자신의 인생의 가치로 생각하고 집단정체성을 강화시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개인정체성이 부분적으로 확대되거나 강화되어도 집단이 요구하는 것과 전혀 별개의 삶을 영위할 정도로 확고한 수준의 개인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례 22는 최근 북한 사람들 사이에서 개인정체성이 표출되는 양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그렇지만 내 삶이 어떤 거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보다도 그렇게 살면서도 뭐가 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사람은 뭐 개인으로서 권리가 있고, 내 삶을 충실하게 살 권리가 있고, 이런 거 사람들이 다 모르고, 국가에서 하란 대로 내가 안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떡하겠나, 살자고 하는 건데,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중이지, 그게 아직 사람들이 머릿속에 정당한 내 삶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이 존재하지 못하죠. (사례 22)

결국 식량난을 겪으면서 북한 주민들의 자아인식은 점차 집단보다는 개인지향적인 것으로 변화하였으며 생각과 행동에 있어 자율성, 능동성이 더해져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배급제를 비롯한 사회복지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자율적 판단과 계획에 따라 가족의 생계유지를 모색하였으며 장사 등 개인 상행위로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능동적,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체성이 집단정체성을 압도할 정도로 확대, 강화되어 개인의 독특성과 타인과의 차별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이미 집단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와 일치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퍼진 것이다.

I
II
III
IV
V

(3) 젊은 세대의 적응과 개인정체성

사회적 의식의 변화에 대해 구세대가 보고 있는 것과 신세대의 생활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비교적 구세대에 속하는 한 북한 이탈주민은 집단주의가 개인의 심리적 구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 개인주의적 정체감이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단지 고난의 행군 이후 조금 더 커진 것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은 국가가 주민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개인에게 알아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많이 팽배해 있지만, 예전처럼 배급 체계가 복구되고 집단주의적 삶을 사는 데 적당한 여건만 보장된다면 집단주의적 심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다. 북한 주민들의 집단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렇게 쉽게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50대 남성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전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 그 집단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북한 정부 수립과 함께 강력한 체제 만들고 세뇌시키는 과정에 후천적인 어떤 사회적 정체성이고, 예전에 다 개인주의화, 천성적으로 개인적이고,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사실은 북한이 선전하는 것처럼 북한 주민이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똘똘 뭉쳐 전체적인 삶을 살아왔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북한이 평가하는 그거하고 그 안에서 느낌하고 다른데, 다만 한국하고 비교해 보면 집단주의 의식이 사회에서 다르지만, 북한이란 정체성에서 개인주의라는 삶이 공존해 왔다는 거죠. 전혀 없는데 어느 날 고난의 행군 이후 싹 튼 게 아니고 공존해 왔어요. 계속 사상투쟁, 생활총화, 학습시키고 집단주의 정체성 가지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난의 행군 이후에 확장된 건데, 그 이유는 집단주의 사회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에 종속되어 일하면 국가가 보상해 줘야 되고, 삶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을 제공해야 집단을 위해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94년 이후부터 국가가 이걸 보급을 못 했다는 거죠. 집단주의 체제 내에서 살 수 있는 경제기반이 없어져 버려, 국가가 개인적으로 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에서 먹고 쓰고 사는 걸 해결해라. 시장을 만들어놔요. 전략물자 제외하고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자급자족해라. 이걸 뭘니까? 개인적인 삶을 살라는 거죠. 이게 상당히 배타적인 건데, 그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자연히 커진 거고, 얼마큼 커지겠냐? 국가가 다시 옛날처럼 공급제를 확실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공급을 제대로 해주고 예전처럼 집단주의 삶을 사는 데 적당한 여건만 보장해주면 커진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례 24)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급제를 복구한다고 하더라도 예전의 집단주의적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세대들은 ‘당성과 혁명성이 부족하며 개인주의적 체제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⁶⁶ 경제난의 과정에서 생계유지의 어려움, 이에 따른 가족과의 사별이나 이별을 겪으며 북한 청소년들은 사상, 이념보다도 돈과 물질을 중시하고, 국가와 사회, 집단과 인민을 위한 삶보다는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삶에 더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⁶⁷ 기성세대의 경우 사회주의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가의 사상교육과 각종 이데올로기적 기구가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기를 경험해보았지만, 20대 초반까지의 청소년층은 경제난이 시작되었던 90년대 초반에 태어났거나 유아기를 보냈던 집단이기 때문에 공고한 사회주의의 경험을 해보지 못하였다. 삶의 경험 자체가 기성세대와

⁶⁶ 박종철, “북한의 국가·사회와 정치적 변화,” 『북한연구』, 제4권 3호 가을호 (1993), p. 178.

⁶⁷ 임순희, 『북한 세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p. 41.

I
II
III
IV
V

다른 청소년들에게 국가나 집단의 대의는 이해 불가능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돈과 관련된 것일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는 “나라를 위해 몸 바쳐야 된다”, “당일꾼 하라”는 생각이 많은데 비해 청소년들은 “공부한다고 누가 밥을 주나 돈을 주나”, “가족만 잘 먹고 잘살고 편안하게 살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의무교육제의 영향으로 기본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고, 경제난 이후 북·중 교류의 확대와 외부 문화 유입으로 인해 외부 세계와 북한사회를 비교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자가 접한 20대 북한이탈주민들은 대부분 남한의 방송과 영화 CD 등을 자주 보았고, 그것이 세상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고 증언하고 있다. 단속을 피해 몰래 보게 된 남한의 방송과 영화 등은 북한과는 다른 세상이 있고 북한체제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자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가 이런 거 캐보자 느껴보자, 그런 인식은 그저 대학교 올라와서 1학년 정도부터. 제가 라디오 구입해서 다른 나라 방송도 들어보자. 친구 따라서 이렇게 여기 CD 영화도 보고 이렇게 됐는데, CD 영화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라디오는 한민족방송이라든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쪽 말해주는 데. 저는 솔직히 거짓말로 인식이 좀 가기도 하고. 그래서 맞긴 맞나 이런 인식을 가졌는데, 매일 듣다보니까 생각이 넓게 인식. 이건 거짓말이 아닌 거 같다. 살기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막 통제받고 그렇게 하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체제가 잘못된 거다, 이런 인식이 자연적으로 들더라 말입니다. (사례 2)

또한 구세대에 비해 신세대들은 자본주의적 생활방식이 비교적 익숙하다. 사회적 변화로 인하여 비공식적으로 장사를 하는 일이 대학생들을 비롯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에 다니면서 오전에는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항구에 나가 항구를 통해 들어오는 가전제품이나 자전거 등 외제 물건들을 받아서 파는 일을 하기도 한다.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장사 밑천으로 쓰는 경우도 있다.

언젠가부터 친구들이 만나면 “요즘 뭐해”라고 묻는 걸 “요즘 어떤 걸 하나고 물어요” (중략) 옷 장사 같은 거 많이 하는 애들은 언젠가 새 거, 좋은 거 입을 수 있으니까 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하면서 옷 같은 데 신경 많이 써가지고 옷 가지러 많이 가서 집에 가서 옷가지고 친구들한테 막 파는 거예요. 집에 가면 친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진짜 쉽고 그냥 좋아서 할 수 있고, 뭐 밖에 나가 장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사례 6)

젊은 여성들의 경우 옷을 떼어다 파는 일을 하기도 하는데, 옷을 떼어다 파는 것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옷 장사를 하면서 자신이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옷 장사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다른 특이한 옷차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다. 북한의 젊은이들은 다른 사람과는 조금 다른, 유행을 앞서가는 옷차림이나 남한 스타일의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 등장하는 옷차림이나 말투를 모방하기도 한다. 노출, 긴 머리, 염색한 머리, 귀걸이, 몸에 붙는 바지, 나팔바지, 옆이 터진 옷, 짧은 치마, 꽃무늬 옷, 그림이나 영어가 쓰인 옷 등이 단속 대상이 되는데, 금지하고 있는 스타일의 옷들이 비싸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오히려 그런 옷을 입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CD를 보기 때문에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안 먹히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닌다” 오히려 “국가에서 그런 옷을 만들어내라. 나라에서 생

I
II
III
IV
V

산을 못 하는데 도대체 뭘 입고 다니냐고, 외국 옷, 중국 옷밖에 입고 다닐 게 있냐고”라고 반문한다고 한다. 북한사회에서 특이한 옷을 입는 것이 용납되고, 남한 스타일의 옷이 유행한다는 것은 북한의 사회적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근데 좀 저는 북한에서 특이했어요. 어떤 면에서 특이했다면 남들처럼 평범한 옷을 입는 걸 안 좋아하고, 유행, 북한에도 유행 이런 게 있거든요. 일자바지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바지를 입었어요. “재는 뭐 저런 바지를 입고 다녀” 하지만 그런 애들은 끝내 그 바지를 입어요. 나중에는 유행이 되니까. ... 한국 막 유행할 때, 처음에 머리 이렇게 해서 내리는 거 있었잖아요. 저희 다 그렇게 하고 다니고 다 한국 스타일, 그때는 그게 다 유행해가지고 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옷도 다 한국 꺼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일본 옷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한국 옷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례 6)

물론 북한 당국은 독특한 옷차림에 대해 단속과 통제를 한다. 한두 명이 특이한 복장이나 장신구를 하면 단속을 하지 않다가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면 길에서 단속을 한다고 한다. 단속에 대해 반항심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것 역시 사회적 변화로 인한 결과로, 유행하는 바지를 입지 말라고 단속을 했는데 다른 스타일의 유행하는 바지를 다시 입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당국의 통제력이 예전과 같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어떨 때는 제일 막 반발이 생기냐면, 처음에 맘보바지라고 해 가지고 밑에 좁고 위에 넓은 이런 바지가 유행됐어요. 다 단속하는 거예요, 그 바지를. 대체 뭘 입고 다니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한 번은 다른 바지를 입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바지는 다 똑같은 거

거든요. 그래서 판 바지를 입었는데 약간 스타일이 다르지 같은 형태의 그런 거니까. 집에 가서 온전한 바지 입고 오라니까 또 이런 거 입고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없는데 어떡해요. 참 속 탄다 했는데, 그 후에는 청바지가 유행됐어요. 밑도 나팔바지가 유행됐는데, 그 바지가 유행되니까 이번에는 이 바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사례 6)

그러나 당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젊은이들은 옷차림 단속을 크게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옷차림 단속에 걸리는 일은 담배 몇 갑 정도의 작은 뇌물로 바로 무마될 수 있는 종류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잦은 단속으로 인해 오히려 단속반과 친해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한다. 옷차림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불합리하게 여기지만 작은 뇌물을 사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문화를 향유하고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신세대를 구세대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보기도 한다. 구세대들은 신세대들이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조직의 이익은 무시한다고 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충실하다’고 말한다. 이는 구세대의 가치관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시각을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대학교수를 하지 않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리로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구세대 교수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죽든 살든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젊은 교수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리로 옮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에 대해 50대 교수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한다.

I

II

III

IV

V

네, 바쁘다는 게 먹고살기가 바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학선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쓰는데, 오래된 선생들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죽든 살든 거기서 충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을 써서 다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국가에서 하란 대로 해야지, 저렇게 병병 날다니. 그다음에 자기한테 일이 있으면 조퇴도 팍팍 내고 빠지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할 줄 모르거든요. 다섯 시에 나오려면 다섯 시에 나오고 열 시까지 일하라면 열 시까지 일하고. 일요일 날도 나오려면 고지식하게 다 나오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벌써 우리하고 생각이 많이 달라서. (사례 22)

90년대 대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집단생활 자체가 맞지 않았다고 스스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 구세대에 속하는 한 북한 이탈주민은 신세대들의 가치의 변화에 대해 놀라면서, 개인주의적 삶을 이기적으로 자기의 이익만을 아는 삶이라고 규정짓는 부정적인 표현을 한다. 즉, 개인주의적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노력하면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의 장점이 없어진 이기적 삶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90년대 대학생활 한 사람들은 더 개인주의적이라고. 그다음에 또 이 집단생활 자체가 잘 먹지 않았대나. 대학생활 보고도 많이 느꼈는데, 우리는 그때 개인적인 삶이란 걸 생각 못했는데, 이건 대학 생활하면서도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과 집단에 충실한 게 아니라. 내 어디서 충격을 받았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농촌동원 많이 나갔거든요. 농촌동원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바쁜 편이예요. 특히 90년대 이후는 더 어렵겠죠. 가기 전에 먹을 준비를 다 자체로 해 가지고 가는데, 그전에는 농촌동원 가서 먹을 게 부족하면 다 집체적으로 해결했거든요. 우리 한 학급이 집체적으로 뭐, 돈을 모아도 집체적으로 하고, 뭘 농

장하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다 집체적으로 하구 그래요. 이렇게 사바사바 그걸 해도 집체적으로 했는데, 90년대 졸업한 사람들은 농장 가서 개별적으로 사업하고 끼리끼리 해 먹어요. 하니까 가기 전에 물건을 하나 좋은 걸 갖고 가는 수도 있으니까, 공산품이 있고 농촌은 공산품이 부족하잖아요. 친한 사람끼리 가서 저녁도 바꿔먹고, 지네끼리 끓여 먹는다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세 명 네 명이서 끓여 먹냐 그러니까 당연한 걸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다. 말하자면 우리는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지. 세 명이 가서 뭘 해 먹었다간 당장 사상투쟁에 걸려들 거야. 하니까 삶이 벌써 그런 걸 통해서도 바뀐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개인주의적으로 각자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바뀌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집단주의 삶하고는 달라진다는 거죠. (사례 22)

어떤 사회나 존재하는 세대 간의 차이는 북한사회 역시 존재하는데, 특히 사회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치에 적응하는 속도와 정도 측면에서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세대의 경우 신세대들의 개인주의적 삶에 대해 이기적인 태도라고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반면,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신속하게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며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고, 대학생 신분으로 장사에 뛰어들고, 개성을 살리는 옷을 찾아서 입는 등 개인정체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마. 소결: 집단정체성의 유지와 개인정체성 드러내기

이 절에서는 북한의 가치관과 사회적 변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의 개인정체성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집단정체성을 매우 강조하는 사회이고 학교, 직장 등 조직 내에서 끊임없이 당과 수령을 위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의 사고와 감정체계 깊숙이 집단주의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다. 그 결과 자신을 독립적 개인으로 인식하기에 앞서 집단의 성원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집단의 목표에 일치시키는 등 집단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출신성분에 따라 삶의 행로가 결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나 독특성을 드러내고 성장시킬 기회가 없고, 그러겠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각종 사회화의 기제와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적 정체성은 이에 복속시키는 삶을 강요당하는 이면에, 조직생활에 대한 염오와 반감, 불만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의 사회적 변화와 시장화, 자본주의 가치의 유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행동방식이 새로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활을 통해 체득하면서, 그동안 집단적 정체성의 그늘 하에 가려져 있던 개인정체성이 표면에 드러나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성세대보다 젊은 층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세계적 변화의 추세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고, 북한 역시 외부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외부세계로부터의 문화 전파와 시장관계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개인정체성의 확장 및 강화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Ⅲ. 통제와 수용, 내면의 저항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1.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

가. 북한의 정치: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당·국가의 통제

북한체제의 특성과 북한의 ‘정치’ 개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 분석은 일반적인 분석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일반적인 분석틀보다는 북한이 공식화한 ‘정치’의 개념과 정치의 주요 내용들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을 선정하기로 한다. 북한은 공산주의체제 및 전체주의체제의 특성과 함께 신정체제적 특성을 지닌 정치체제이며 북한의 권력체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체제, 당-국가지배체제, 중앙집권체제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체제적 특성을 지닌 북한에는 자치적인 하부체제가 없으며 정책결정의 상향적 흐름 및 정책시행의 하향적 흐름과 관련한 구조, 기능, 역할 등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도권은 당·국가의 소수 권력 엘리트가 장악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수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북한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정치를 개념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능면에서의 정치 개념은 다양한 이해와 기대 조정, 또는 인간의 협동을 유발시키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한다.⁶⁸ 그러나 북한은 정치의 개념을 공동선을 위한 조정 및 동기유발 ‘능력’이 아닌 ‘사회적 기능’ 자체로 규정하며 정치는 곧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정치란 “계급 또는 사회의 공동의 이익에 맞게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회적 기능”이며 “사회적기능으로서의 정치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휘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⁶⁹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

⁶⁸- 김운태, 『정치학 원론』 (서울: 박영사, 1991), p. 5.

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일정한 활동내용과 범위를 규정한 사회적 권한과 임무를 규정하여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는 것은 규정된 사회적 권한과 임무에 맞게 활동하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뜻하며 이런 의미에서 정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사람과의 사업”이라고 한다.⁷⁰ 또한 북한에서 정치는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정치의 주요 내용은 “사회조직을 만들고 개편하고 해체하는 것, 사회제도를 세우고 개조하고 폐기하는 것,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⁷¹

북한은 주장하기를 착취사회에서 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착취계급의 계급적 지배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근로인민대중은 정치의 대상으로 되는데 반해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된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정치가 진행된다고 한다.⁷² 그러나 북한은 정치의 개념을 사람들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조직, 지휘,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사회조직 구성 및 개편, 해체, 사회제도 수립 및 개조, 폐기, 사람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일상적 지도 통제 등을 정치의 주요 내용들로 함으로써 ‘근로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대상화하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의 실질적인 주체는 수령과 노동당이다. 북한의 정치는 노동계급에게 주권이 있으나 노동계급의 정치는 수령의 영도를 받아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에서 정치는

69.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403.

70. 위의 책, p. 403.

71. 위의 책, p. 403.

72. 위의 책, p. 403.

수령의 혁명사상의 구현이고 정치는 수령과 당에 의하여 영도되기 때문이다.⁷³ 또한 북한은 “정치가 없다면 사회에 무질서가 조성되게 되어 사회가 유지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다”라고 하여 사회 유지 및 발전을 위한 정치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 바, 이는 당·국가 기능 및 당·국가권력의 행사에 있어 무제한성 내지 자의성이 배어 있음을 시사 하는 것이라 하겠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북한의 ‘정치’ 개념은 ‘근로인민대중’의 활동을 조직, 지휘, 관리하는 사업이며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일상적 지도 통제 등이 정치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정치’ 개념과 정치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정치의식 분석대상을 포괄한다면 북한 ‘정치’의 실질적인 주체로서 기능하는 수령, 노동당과 국가, 정치의 객체로서 대상화된 ‘인민대중’, 당·국가의 지도와 통제 아래 있는 여러 사회조직 및 사회제도, 그리고 ‘근로인민대중’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일상적 지도 통제 기능을 하는 대중매체 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이 글은 정형화된 정치의식 분석틀을 사용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포괄적인 분석대상들을 국가, 노동당, 최고지도자(김정일 위원장), 근로단체(조직)생활, 언론매체,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 역할 등으로 구체화하여 이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평가, 태도 등을 파악, 분석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특징적인 양상들을 논하고자 한다.

⁷³ 사회과학출판사 편,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 756.

I
II
III
IV
V

나.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

(1) ‘인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국가

북한당국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치사회화로 북한 주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라는 공식 가치지향을 주입시키며, 이로써 북한 주민들은 국가, 곧 ‘우리식 사회주의’를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다. 북한당국은 거의 평생에 걸친 사상교양을 통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북한 주민 모두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는 참다운 조국”이며,⁷⁴ “참다운 어머니 품이고 행복의 요람”이라고 인식토록 한다.⁷⁵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있으며 사회의 모든 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며 “국가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 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 주는 우월한 사회제도라고 주입시킨다.⁷⁶ 또한 “주체사상을 구현한 사람 중심의 사회주의”⁷⁷인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⁷⁸라고

74. 김일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p. 410.

75.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김일성저작집 4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p. 219.

76.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595~597.

77.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김일성저작집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p. 296.

78.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 5월 10일),” 『김정일선집 11』

주장한다.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는 오직 사회주의제도 밑에서만 사람들이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고 자주적·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도 한다.⁷⁹ 또한 북한당국은 위와 같은 내용들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면서, 인민대중은 국가와 사회, 집단에 대한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하며 국가가 베푸는 혜택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경제난 이전까지만 해도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사상교양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들을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은 무엇보다도 북한당국이 주장하는 바, “모든 근로자들이 누구나 다 먹고 입고 쓰고 살 수 있는 권리와 그에 필요한 조건을 국가와 사회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고 있으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와 자신을 위한 창조적 노동에 참가하고 있고, 노동의 결과에 따라 분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민적 시책에 의하여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⁸⁰고 생각하며 그런대로 별다른 불만 없이 살아온 것이다. 이러한 생활은 김일성이 통치하는 동안 계속되었다. 김일성이 통치할 때는 국가에 대해 좋은 감정이었으며 “미공급이 왔을 때도 나라가 좀 어려운 난관을 겪는구나”라고 생각하며 참아낼 수 있었다고 한다(사례 11). 김일성이 통치할 당시에는 식량배급을 비롯해 무상교육, 무상치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공급”이 시작되었어도 국가를 원망하기보다는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53.

⁷⁹-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 459.

⁸⁰-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3』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151.

I
II
III
IV
V

난관을 극복해 나갈 각오를 다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입국 탈북자(이하 구술자)들에 따르면 김일성의 통치가 끝나고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악화,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당국의 강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주민들 사이에 ‘인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점차 확산, 심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처음에는 다 좋게 생각하는데 점점 생활이 막연하니까... 뭐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런 구호도 있어요. ‘가는 길 험난한데 어떻게 웃음이 나와?’ 그리고 다른 말은 안 해요. ...김일성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제일이다.’ 그런 공지는 있었었어요. 그런 공지는 있었는데 점점 나라가 발전 못하고 완전히 남의 나라, 외세에 이러니까... (사례 11)

북한의 사회보장제는 현금 및 현물 지원, 일자리 보장, 사회적 원호 등의 형태로 실시된다. 현금 및 현물 지원에는 각종 연금 및 보조금 지급, 불구자에 대한 교정기구 공급 등이 있으며 사회보장에 의한 연금 및 보조금에는 공로 있는 사람에게 주는 연금, 나이 많은 사람에게 주는 연로 연금, 오래 앓은 사람과 불구자에게 주는 노동능력 상실 연금과 보조금, 유가족 연금, 후방가족원호 보조금 등이 있다.⁸¹ 국가 사회보험은 근로자들이 노동능력을 일시적으로 상실하였을 때 본인과 그 가족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며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을 보장하는 국가적 시책이다.⁸² 또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에 있어 대표적인

⁸¹. 위의 책, p. 82.

⁸². 위의 책, p. 82.

공적 부조에 해당하는 것은 의·식·주의 공급제이다. 그러나 구술자들은 북한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해 물으면 거의 모두가 하나같이 무상의 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말한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무상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에 따른 수혜가 가장 좋았으며 제도 자체에 대한 자긍심도 높았다는 것이다.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다른 나라 외세 말도 듣지 않고 우리나라 식대로, 우리식대로 살아나가자”(사례 11), 또는 “개혁개방 안 하는 사회주의”(사례 9)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식 사회주의를 “자기식 자본주의”, 위장한 “봉건주의” 등으로 해석하는 구술자도 있다. 중국의 자본주의화와 관련해 중국당국이 국민들의 의혹과 비난을 막기 위해 ‘특색 있는 사회주의’라고 한 것처럼 김일성, 김정일도 나라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방식을 도입하면서 북한경제의 실질적인 자본주의화를 주민들이 눈치채지 못 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며, 또한 조선왕조의 봉건사회처럼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 권력을 물려받고 사회주의가 아닌 봉건주의로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 낸 말이라는 것이다(사례 5). 이와 같은 구술내용들은 북한 주민들이 ‘사회주의제도’, ‘우리식 사회주의’ 등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구술자들은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였나, 국가를 어떻게 생각하였나.’ 등을 물으면 경제난, 식량배급 중단, 국가적 통제 심화, 사회질서 문란,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생활고 등 부정적인 실태들만을 말한다. 이러한 말들에는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의 감정이 배어 있다. 구술내용들을 통해 보면 북한 주민들이 국가에 대해 회의와 불신, 원망의 감정을 갖게 되는 주요 계기 내지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집약된다.

I
II
III
IV
V

첫째, 국가가 인민들의 의식주, 특히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서 오히려 ‘세부담’을 늘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다.

옛날에는 국가라면 우리를 그래도 보장해주고 살피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빈, 국가가 이제는 빈 허울뿐이고, ...국가에서 그걸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국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개인이 세금부담 다 해 가지고... (사례 9)

둘째,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한 원망과 비난이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상층부’에 속하는 사람들, ‘지휘권’에 있는 사람들, 당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 등을 일컬어 간부라고 한다. 예를 들면 직장의 지배인, 노동당비서, 국가보위부원, 인민보안원 등을 말한다. 북한 주민들은 간부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 부정·부패한 짓을 할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고를 파악할 수 없도록 최고지도자(김정일)의 눈을 가리는 행태를 일삼는다고 비난한다.

간부들 자체라는 게 무조건 돈, 내가 돈 좀 먹으면 무조건 죄를, 큰 죄를 지어도 살게 됐다.⁸³

간부들 다 잘살잖아요, 지들이 다 부정부패 해 가지고, ... (김정일) 그 사람은 막 다니고 주민들 접촉을 안 해요. 현지 지도는 명목뿐이고 하니까 간부들이 다 하는데, 현지지도 다녔대봤자 노동자들 얘기하면 다 (간부들이) 준비시킨 말 하니까... (사례 8)

⁸³. 이00, 2008 탈북, 2009.03.12 면접.

셋째, 남한,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한 인지도 증가에 따른 국가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다. 1980년대 말 국경지역 주민들 사이에 ‘연변가요’라는 이름으로 남한가요가 유행하기 시작한 이래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인지 및 인식이 크게 달라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남한 드라마, 영화 등의 녹화물을 시청하거나, 가전제품, 의류, 화장품 등 남한상품을 목격 내지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쌀, 옥수수, 비료, 의약품, 의료기기 등 남한으로부터의 지원품을 목격, 또는 구입하여 사용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지 및 인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의 중국에 대한 인지도 증가는 주로 중국 방문 및 중국 텔레비전방송 시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경제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의 합법·불법적 중국 왕래 횟수가 많아졌으며 특히 북·중 접경지역에 사는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중국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는 바, 이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은 중국이 북한보다 잘 사는 나라이고 북한 주민들이 생활용품의 상당부분을 중국제품에 의존하고 있음을 인지하며 중국은 개방을 해서 경제발전을 이룬 모범사례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분적·제한적이기는 하나 1980년대 말 이래 확대되어 온 북한의 체제개방도 주민들의 외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요약하건대 위와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남한,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 대한 인지 및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 국가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보다 확산, 심화되어가고 있다.

지금은 한국문화가 많이 들어 와 가지고 생각 바꾸면서...
중국도 왕래 많이 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저만큼 사는데 우
린 못 산다, 그것만으로도 사람들 (국가에 대한) 불만 같은
거 있잖아요. (사례 8)

I
II
III
IV
V

넷째, 경제난에 따른 생활고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절정에 치달았던 북한 주민들의 생활고는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 조치’(7·1조치)에 따라 한동안 개선의 기미를 보이기도 하였다. 7·1조치 이후 한동안은 장사 허용, 시장의 공식화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이 좋아지고 생활형편도 좀 나아지는 듯 보인 것이다. 그러나 7·1조치 이후에도 공장·기업소는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물가만 크게 올라 일부 배급을 받는 고임금근로자나 돈이 많은 부유층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주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졌으며 지난해 11월 실시된 화폐개혁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고가 보다 심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⁴ 북한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래 지속되고 있는 극심한 경제난 속에서 소수의 신흥부유층이 형성되면서부터이다. 그리고 7·1조치에 따른 물가 급등으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와 함께 빈부격차도 보다 더 심해졌다고 한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가운데 부유층은 소수이며 대다수는 극심하게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 사이에 빈부격차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감에 따라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자긍심 약화에 따른 국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다. 북한 주민들은 식량배급제, 무상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 등 사회주의제도(사회보장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 국가가 다양한 제도를 통해 모든 인민들에게 차등 없이 혜택을

⁸⁴ 지난해 11월 말 단행된 화폐개혁 이후 주민들의 생활형편이 보다 더 나빠졌으며 계속되는 물가 폭등과 만성적 식량부족, 시장폐쇄 등으로 인해 국가에 대한 불신이 매우 고조되었다고 한다. 대북사업자, 2010.04.25, 중국 심양에서 면담.

배풀며 인민생활의 보호 및 향상을 기한다는 데에 북한 주민들은 자
궁심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적 시혜는 김일성 사
망 이후 점차 그 의의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난
이래 제도의 시행이 이전과는 다르게 정상적이지 못한 데 대해 주민
들의 불만이 매우 크며 제도 자체에 대한 자궁심도 높지 않고, 따라서
국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은 “속아 살아왔다”는 배신
감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국가가 ‘인민’들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지 못함에 따라 당국의 사상교양·교육이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
었으며 이러한 깨달음과 국가에 대한 불신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이미 확산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나를 주인으로 만든 게 아
니라 노예로 만든 국가”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하는 구술자도 있다.
국가가 ‘인민’의 생활을 보장해주지도 못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한 ‘인
민’의 활동마저 국가의 권위 내지 강제력으로 억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나이 먹어서, 크면서 이제 와서 감이 서고, ‘이
게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계속 속았었구나’, 이거를 이
제 와서 인식했지만, …(소학교·중학교)아이들끼리 어떤가
하면 ‘TV통 뭐하나?’, 그러면 우리 애들 동무들도 같이 TV
보다가도 무슨 보도 나오거나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가, ‘야,
재 또 거짓말 친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퍽 보
니까 ‘아이들 자체가 이제는 인식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감이 많이 든다.⁸⁵

국가는 나를 주인으로 만든 게 아니라 노예를 만들었거든
요. …그때 국가에서 날 먹여 못 살리더라고요. 원래 ‘인민
이 주인 된 나라’라는 나라인데, 주인이라는 게 아무것도 못

⁸⁵- 김00, 2007 탈북, 2009.05.07 면접.

I
II
III
IV
V

해요. 공장 나가서 먹을 거 안 줘요. 쌀 안 주고 돈 안주지 그러니까 재간 없어요. 그렇다고 먹고 살자고 어디 가면 직장 무단했다고 잡아가요. ...어쨌든 국가라는 강제적 틀에서 인민들 내려누릅니다. (사례 5)

구술자들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고 중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감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중국식 개방에 대한 요구 및 기대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국가 경제가 회생하고 주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려면 사회주의 사상은 고수하되 중국처럼 개혁·개방하여 경제는 자본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일컬어 북한 주민들은 ‘중국식 사회주의’, ‘개방 사회주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등으로 말한다.

국가에서 인민들 먹여 못 살리면, 다시 말해서 사상은 사회주의사상 하되 경제야 열어야 되지 않나, 말하자면 경제는 자본주의 체계를 세워라, 쉽게 말하면 중국식 사회주의를 하란 거죠. 제가 알아서 먹고 살 거 한다. (사례 37)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개방의 의미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를 테면 개방이란 “공동노동 및 공동분배 원칙보다는 개인중 중 및 개인위주”(사례 25), “외국과의 자유 왕래”(사례 3), “외국 자본 도입 및 활용, 외국지원”(사례 9), “국경 개방”(사례 47)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외국 공관에 근무했던 한 구술자는 대학 시절에 토론을 통해 국경 개방, 즉 외국과의 자유 왕래는 주체사상에도 어긋나지 않는 바, 중국처럼 발전하려면 정책변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구술자는 적대국과의 관계개선이 없이도 북한 국경만 개방하면 북한 주민 개개인이 자체적으로 외화를 벌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로써 개방의 의미 풀이에 있어 오류를 드러내고 있다. 그의

주장대로 한다면 이는 적대국으로의 밀입국을 통한 외화벌이를 국가가 조장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으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중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경 문을 연다고 봐야죠. 즉 자유내왕... 그 어느 나라든, 적대국이란 걸 구태여 선을 두지 말고... 또 그게 주체사상에도 당시에는 부합된다고 토론이 진행됐거든요. ...우리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중국처럼) 이런 정책 변화를 이루는 게 좋지 않냐, 국가가 적대국하고 외교관계를 개선 못한다 하면 외국관계를 개선하지 말라, 대신 국경 문만 열라. 국경 문만 열면 개인들이 자체적으로 나가서 외화를 벌 것이 아니냐? ... (이런 얘기를) 대학 시절에 더 많이 했죠. (사례 47)

북한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과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은 통일에 대한 바람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빨리 통일이 되어서 나라에 변화가 있고 생활이 나아졌으면 하는 막연한 바람을 갖고 있으며 특히 남한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절실하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일부는 평화적 방법이 아닌 전쟁을 통해서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통일을 원하는데 ‘남조선 괴뢰도당’과 ‘미제’가 통일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남한과 미국 때문에 북한이 잘 살 수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사례 25).

(남한에) 흡수되는 걸 바랬죠. 왜냐면 우리 어머니 동생들이 여기에 그 50년도에 여기에 나왔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통일되면 남한에 나와서 살겠다고, ...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요. 남쪽은 땅이가 좋고... (사례 11)

I
II
III
IV
V

(2) 경제적으로는 약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강한 나라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아주 못 사는 나라이지만 ‘당국이 선전하는 대로’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사상적면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군사 면에서도 강국 지위에 올라섰지만 인민생활에는 걸린 것이 적지 않다”⁸⁶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세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이는 막강한 군사력에 대한 신뢰 내지 기대감을 표출하는 것이라 하겠다.

경제적으로는 제일 좀 떨어지는 국가라고 생각은 했고, 군사적으로는 세다, 그래서 감히 지금 전쟁을 못한다, 그저 이렇게 생각했죠. …핵무기가 있다, 핵무기가 세긴 센 거다, 그러길래 감히 지금, 또 저 덤비지는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기가 좀 곤란하고 이러면, ‘차라리 전쟁이나 팍 터지지’, 사람들 생각이 그렇거든요. ‘전쟁이 팍 터져서 정권이 바뀌던지 죽는 건 죽고 사는 건 좀 제대로 살게끔 됐으면 좋겠다’, 이렇죠. (사례 3)

그거 핵무기가 그때 미사일이 어디에 쏘다 하면서리, …그때는 그랬어요. ‘미국사람들이 우리 핵무기가 있으니까 적은 못 두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 우리 ‘김정일이 그거만은 똑똑하다’ 그랬지. (사례 11)

구술자들의 대부분은 북한에 핵무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였다. 언론에서 보도한 적은 없지만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⁸⁶ “새로운 승리로 부르는 전투적 기치,” 『로동신문』, 2010년 1월 09일.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은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자긍심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핵이 있어 미국의 침략에 맞설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북한의 재외공관에서 근무했던 한 구술자도 1990년대부터 북한이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평양사람들 거의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한다(사례 47).

자기 나라 (핵) 있는 거니까 긍지감 가지고 있죠 뭐. 미국에 대한 안정감 있잖아요. 핵 억척력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 …(핵무기가 있어서) 군사는 일없다, 괜찮다, 경제는 솔직히 안 좋아서 그렇지만… (사례 8)

그러나 군사복무를 했던 한 구술자는 북한에 핵이 없으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유엔이나 미국의 거짓말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모두가 일심 단결하여 굳게 뭉쳐 있기 때문에 외부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다(사례 25). 북한 주민의 자긍심은 무상의무교육제나 무상치료제 등의 사회보장제도보다는 군사력에서 비롯된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 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으며 학교생활을 하면서 군사훈련을 받아서 전쟁에 대한 공포심도 없고 전쟁을 다룬 북한의 예술작품들에서도 모두 북한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말지어지기 때문에 군사력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높다는 것이다(사례 47).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약하지만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가 된 것은 선군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998년 9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직후 김정일 특유의 정치방식으로 공식화된 선군정치방식은 “군사 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령도방식”이다. 또한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의 탄생만큼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20세기의 위대한 철학”⁸⁷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주의 헌법 제3조에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국가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선군사상의 의의를 주체사상과 동일하게 법조문화 하였다. 선군정치의 구현에 있어 강조점은 전체 인민이 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 투쟁기풍, 생활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한다는 것이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선군정치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이중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당국의 사상교양 및 선전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외세에 맞서 나라를 지켜낼 수 있고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쌀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선군정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군대 우선으로 하는 선군정치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국가에서 군대를 내세워주고 “군대가 제일”이라고 추켜세움에 따라 민간인들에 대한 군인들의 횡포가 심해졌으며 모든 지원물자가 군대한테만 들어간다고 하여 주민들이 선군정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비난한다는 것이다(사례 11).

선군정치라 하게 되면, 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좋은 걸로 생각해요. 군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지키니까, ... 우리 군사가 강하니까 이렇게 좋구나, 김정일이 세긴 세다, 장군님이 세긴 세다, 이래라 저래라 해서 미국에서도 쌀이 오고, 대한민국 쌀이 오고, ...그때는 그랬는데 최근에는 사람들이 선군정치라 하면서도 다 굶어죽고... (사례 9)

⁸⁷ 최길상, “새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639호 (평양: 조선작가동맹, 2001), p. 5.

북한에서는 군대가 최고예요. 거리나가도 군대들은 행세하고, 사회사람 폭력도 하고…. 선군정치니까요. 군대가 왕이에요. …군복이 호랑이 가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있거든요. 선군정치로 군대만 내세우니까, 평백성은 못 먹고 쪼들리니까…. (사례 25)

(3) 돈의 위력에 무력화된 법: 법보다는 돈이 우선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현행 부문법에 대한 인지 및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법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편이다. 북한 주민들은 법제정 절차 및 과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며 관심도 별로 없다. 대학에서 북한 법체계를 공부한 사람들도 북한 법체계의 현존을 확인했을 뿐 ‘법치주의’의 의의 및 중요성은 알지 못한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검찰소, 재판소 등 법을 집행하는 이른바 ‘법기관’ 사람들의 말이 곧 법이 되며 현행법보다 더한 위력을 가진다고 알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관 출신의 한 구술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북한의 법절차라는 건 그 조항이 있어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대학기간에 배워준다고 해도 그 법은 시험을 위해서만 내가 공부하는 거지 시험이 끝나는 순간부터 모든 헌법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감옥에 잡혀갔을 때 아무것도 움도 안 되거든요. 즉 북한에서 법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법이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국가적으로 뭐 그런 권한을 가진 국가보위부, 사회안전부, 지금 보안성이죠. 그리고 검찰소, 후에 보위부 안에 새로 생겨난 거, 보위사령부도 있고…. (사례 47)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헌법에 대해 모르며 관심도 없다. 소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마칠 때까지 헌법 관련 강의가 없으며 중학교 과정에서는 일회성으로 헌법교육을 하는 곳은 있다.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과목이 있었으며 특강 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 가운데 사회주의 헌법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대학에서, 또는 인민대 학습당에서 헌법을 찾아보기도 한다. 그러나 형법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또한 사회주의 헌법, 형법 등이 몇 차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으며, 알고 있는 사람들도 개정된 사실만 알지 개정된 내용은 모른다.

(헌법에 대해서) 들어본 거 같진 않아요. ...학교에서 배운 생각 안 들어요. 학교에서 헌법을 배우는 건, 대학 같은 데선 배우는지 몰라도 소학교나 중학교에서 이런 건 없고...
(사례 3)

그저 (법이) 변화됐다는 통지만 하지,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어떻다는 건 누구도... 우선 그걸, (해설하러) 내려온 강사들도 구체적인 조항 설명하는 강사 없거든요. 설명하는 강사 자체도 결국은 그 헌법에 대해서 알고 설명한다기 보다는 모르고 설명한다는 것이죠. (사례 47)

일반주민들은 자신들은 힘이 없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를 테면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가 피의자를 위해 변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검사, 판사 등과 함께 피의자를 범법자로 규정하고 비난하기 때문이다(사례 5). 북한 주민들의 법에 대한 인지 및 인식 부족은 개인의 무관심에서도 비롯되지만 국가(정부)의 교육·홍보 부족에서도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종래 북한에서는 법 관련 책자를 출판하지 않는 편이며 법전은 제한된 장소에 비치되어 있고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 특히 형법, 형사소송법 등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으며 연구 활동 등을 위해 특별히 허가를 받아야만 도서관에서 열람이 가능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⁸ 그러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실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을 의식하여 2004년 8월 북한당국은 ‘사회주의헌법과 현행 부문법들’을 수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을 편찬, 발행하였으며 발행 목적을 “국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⁸⁹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북한 사람들은 예심, 1심, 2심, 3심 전혀 모르고 재판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 모른다.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할 때는 헌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치적인 개념만 줄 뿐이고 그 안에 형사소송법이라든가 형사법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는 개념을 전혀 주지 않고 있다.⁹⁰

북한 주민들이 법보다는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실태는 도강, 밀수, 절도, 부화(간통)사건, 불법의료 행위 및 의료사고 등 다양한 범법 행위와 이혼 사례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단기 비자를 받아서 중국으로 오는 방문자(북한 주민)들 가운데 60~70%는 기간이 끝난 후에도 불법으로 중국에 체류하며 북한으로 돌아갈 때는 뇌물을

⁸⁸ 박영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0』 (서울: 통일연구원, 2010), p. 98.

⁸⁹ 법률출판사 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⁹⁰ 강00, 2008 탈북, 2009.06.18 면접.

I
II
III
IV
V

주고 들어간다.⁹¹ 생활총화 불참, 사회노동 불참, 조직의 선전대 공연 불참 등의 문제도 뇌물로 무마한다. 한국드라마·영화 CD를 보다 단속에 걸려도 돈으로 해결하며 인신매매나 매춘도 돈을 고여서 단속에서 제외되도록 한다. 나진·선봉도 돈만 고이면 통행증이 없고 군 초소가 있어도 통과가 가능하며 뇌물을 주면 통행증이 빨리 발급된다. 병원 진료도 주택 매매도 뇌물이 있어야 통하며, 돈만 있으면 어떤 부정도 다 무마된다.⁹² 또한 선거 불참 행위도 돈으로 무마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 주민들은 법보다는 돈(뇌물)의 힘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법은 돈의 위력에 무력화된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은 경제난의 악화, 지속에 따른 국가 권위의 실추, 사회질서의 혼란 및 사회통제 이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북한 법은 있죠. 돈만 있으면 이겨요. 돈 있는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사람 죽여도 돈 있으면 살아나고... (사례 37)

선거할 때 불참하면 피해 있는데, 인민반에서 다 해 났더라. 내가 (선거에) 참가했다고 다 만들었더라. 그게 뭐 있겠냐? 돈 많이 주니까 보위지도원이고 뭐고 다 만들어 났더라.⁹³

(4) 노동당의 허상, ‘어머니 품’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노동당은 ‘어머니 품’으로 되어 있다. 당이 어머니 품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노동당 활동의 원칙이다. 당은 인민 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 어머니, 인민들이 자기의 운

⁹¹ 대북사업자, 2010.04.24, 중국 심양에서 면담.

⁹² 김00, 2008 탈북, 2009.06.09 면접.

⁹³ 전00, 2005 탈북, 2009.06.10 면접.

명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어머니 품’이 되어야 하는 바, 당은 모든 활동의 중심에 인민대중을 내세우고 인민들로 하여금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당사업을 통해 인민들의 어머니 품으로 되었다고 한다.⁹⁴ 또한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생명체’론에 따르면 노동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 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추를 이루고 있는 바,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조직을 통하여 수령과 조직 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된다.⁹⁵ 이와 같은 의의를 지닌 노동당의 지위 및 권위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11조)라고 명시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당의 영도를 헌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있어 노동당은 입법, 행정, 사법 등을 모두 망라한 국가기관의 임무와 활동을 조정·지도 및 통제한다.

북한당국은 반복적인 사상교양·교육을 통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노동당이 생명의 모체이며 삶의 근원, 운명 그 자체이고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무조건적인 헌신성은 한 개인의 생명유지라는 차원에서 당위성을 띠고 요구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당의 지시를 외면하는 등 ‘어머니 품’으로서의 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생활이 어려워지기 전에는 당이 지시하고 이끄는 대

⁹⁴ 김정일,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 (1990년 10월 3일),”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p. 253~254.

⁹⁵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pp. 448~449.



로 따라갔으나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적 시혜가 줄어들고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어지면서 ‘어머니 품’이라는 당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 심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사람들 인식이 그거다. 그전에는 (당에서) 하자고 하면 계속 따라 하던 게, 요즘, 앞에서는 하자고 하고 뒤 돌아앉아서 자기 할 일 해야 한다. 그래야 먹고 산다.⁹⁶

‘어머니 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실망과 무관심은 주민들의 입당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경제난이 심화되기 전까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인생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가 당원이 되는 것이었다. 노동당원이 되는 것은 당과 국가의 신임을 입증하며 신분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원은 취업 및 직장 배치, 간부 승진, 그리고 결혼에 있어서까지 특혜를 받는다. 또한 당원은 범법행위를 하여도 경고를 받는 정도로 무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중한 범죄가 아닌 경우에는 당에 대한 일반주민들의 인식이 나빠질 것을 우려하여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두고 북한 주민들은 “당원은 목숨이 두 개”라고 말한다. 그러나 경제난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당원이 되는 것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당원을 선망하지도 않는다. 북한 주민들은 당원이 되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생계유지 및 치부를 위한 경제활동을 더 중시한다. 또한 당원은 조직생활 및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신분상 규제를 당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이 선망하지 않는다. 당원이 아닌 일반 주민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조직생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지만 당원들은 “계속 불러다니며”, 장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난 이후로는 당원임을 오히

⁹⁶ 김00, 2008 탈북, 2009.03.03 면접.

려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단속에 걸려도) 비당원과 당원이 똑같은 행위를 했다 하면 당원을 봐주게 돼 있습니다. 우정 당 기관을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사례 5)

입당 가지고 이제는 신경 안 쓴다. ...입당하면 딱 목사 줄 매고 딱 잡혀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못한다. ...내가 돈 먹여서 좀 편한 직장 가겠다고 돈 먹었으면 보내줘야 하는데, 다 행정문건 떼서 주는데, 당 이동은 안 떼어준다. 당 이동 안 떼어주면 당 생활은 거기 와서 해야 한다. 그러면 괜히 두드려 맞고, ...또 본래 자리에 와야 한다.⁹⁷

입당한다 해서 배급을 더 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더 고달프더라 말입니다. 당 생활총화요 무스거요 더 불러 다니니까 고달프다 한단 말입니다. (사례 32)

그러나 당간부인 경우에는 다르다. 이들은 권력 내지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보안서, 보위부, 재판소 등 법기관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단속에 걸린 사람이나 중대한 법을 어긴 사람들로부터 사안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는다. 그러나 사안과 관련해 법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당간부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에게 있어 당간부가 더 두려운 존재이다.

⁹⁷-이00, 2008 탈북, 2009.03.12 면접.

(5) 지도자의 허상, ‘자애로운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반감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은 무엇보다도 전체 인민대중이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결속하여 혁명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있는데서 나타난다.⁹⁸ 또한 북한 주민들의 ‘정치적 신념’⁹⁹ 가운데 기본은 수령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영원히 높이 우러러 받드는 숭고한 정신이다. 북한체제에서 수령의 절대적인 지위와 결정적인 역할은 이른바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에서 극대화된다. 주체사상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¹⁰⁰에 따르면 수령은 인민대중에게 영생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주며 ‘사회정치적 집단’의 ‘최고뇌수’로서 모든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생명 활동을 통일적으로 지휘한다. 또한 수령은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최고뇌수’로서 집단의 생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동지애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영원한 수령’은 오직 김일성 하나로 되어 있다. 김일성은 민족 재생의 은인이며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안겨주고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삶을 마련하여 준 “자애로운 아버지”이므로 김일성을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는 것은 조선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로 되어 있다.¹⁰¹ 이와 같은 김일성의 존재는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는 “수령” 김일성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고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며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

⁹⁸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3』, p. 176.

⁹⁹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7』, p. 412.

¹⁰⁰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 pp. 447~452.

¹⁰¹ 김정일,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0월 10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p. 60.

한 주석”으로 받들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사실상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김일성은 협동농장을 많이 현지도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 ‘인민의 정치’를 한 지도자로 인식되어 있다. 구술자들은 거의 모두가 김일성을 말할 때 ‘주석님’으로 부르거나, “~하셨다”, “~계셨다”, “수령님 서거하셨으니까” 등의 높임말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듯 보였다. 북한 주민들은 1994년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의 회담이 예정되었음을 알았을 때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컸다고도 한다. 또한 김일성 사망 당시에는 모두가 애통해하며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한다.

김일성 수령을 인정하는구나 서울에서도... 이래 가지고 당장 통일된다고, 우리도 잘살게 됐다, 이래 됐었어요. ...항간에서 그거 막 이렇게 내놓고 막 말했었어요. ... (김일성 사후에도) 아, 이제 수령님이 살아계셨으면, 서울 가서 서울 시민들 앞에서 연설하면 당장 연설 한마디에 통일되는 데... (사례 9)

당시에는 몽땅 다 무너지고, 우리 어떻게 살겠는가 싶습니다. 다 백성들, 사람들이 정말 한 달까지 그냥 그저 울음바다 댔습니다. ... 지금도, 우리 올 때까지도 모두 ... ‘그래도 우리 수령님 대에는 모두 잘살았다’ 한단 말입니다. (사례 32)

김일성 사후 북한당국은 김정일을 김일성과 다름없는 ‘위대한 지도자’, ‘자애로운 아버지’로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며 문학예술작품을 통해서 김정일을 ‘김일성의 화신’으로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김일성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며 경제난이 악화, 지속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최고지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원망과 반감이 확산,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이 아버

I
II
III
IV
V

지 김일성의 후광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가계우상화에 집착하는 인물이며, ‘평백성’(인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책임한 지도자이고, 나라 살림을 잘 못해 경제난을 해소하지 못하는 통치자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이 군사부문에만 치중하고 인민들은 먹여 살리지 못하며 고생도 전혀 안 해보고 아버지(김일성)의 업적도 다 말아먹은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김정일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요. …(김일성은) 사람 잘난 것도 있고 인격도 일단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백성들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김정일은 솔직히, 아버지가 이뤄놓은 토대 위에서 다 이렇게 말아먹고 있는데… (사례 8)

흔히 뭐 평양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김일성 업적을 김정일이 다 말아먹었다고… (사례 37)

지속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화되면서 주민들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한 김정일에 대한 원망과 반감은 북한 주민들의 합법·불법적 중국 왕래가 보다 잦아짐에 따라 더해가는 추세라고 한다. 중국을 왕래하며 북한 주민들은 중국의 경제·사회적 변화, 남한의 경제발전과 자유롭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알게 되고, 특히 남한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지며, 이에 따라 최고지도자에 대한 인식도 보다 더 부정적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이다. 김정일에 대한 원망과 반감은 특히 20대와 30대 연령층에서 더한 편이다. 젊은이들은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지도자로서의 김정일의 능력과 업적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다. 특히 젊은층에서 김정일에 대한 회의와 반감이 확산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당국의 문화적인 통제에 대한 반발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이제 우리끼리 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원래 그룹이 생기면 안 되겠는데 북한에선 그런 게 많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끼리니 말이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례 5)

지금 20대 30대는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40대도 ‘에휴’, 이렇게 나가는데, 김정일을 콧방귀 뀌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젊은층들은 계속 통제하니까, 머리로 길게 하게 되면 ‘단발 잘라라, 치마도 짧게 입으면 안 된다, 목걸이 반지 귀걸이 해도 안 된다’, 못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더구나 20대 애들은 얼마나… 한국드라마 보고 한국 말씨(서울말) 막 해요 자기네 끼리는… (사례 9)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밀고와 처벌이 두려워 김정일을 직접 거명하며 원망, 비난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간부들을 지목하여 비난한다. 간부들이 김정일에게 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음을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고 반대로 ‘인민’들이 잘살고 있다고 거짓보고 하며 부정·비리를 일삼는다는 것이다. 2009년 11월 단행된 화폐개혁 이후 주민생활이 더 어려워졌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중간 간부들과 보안원들에 대한 비난이 보다 거세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²

차들이 몇십 대 와서 식량부터 시작해서 완전 흔하게 만들어 놓는단 말입니다. 다 진열시켜놓고 그리고 장군님이 시찰하게 되면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잘 먹고 잘 입고 잘사는구나’하지, 어디 허리띠를 조이고 제 허물을 못 쓰고 쪼글쪼글한 사람 있는가 모를 정도란 말입니다. …(식량사정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중간간부들이) 허위보고를 다 한단 말입니다. (사례 32)

¹⁰² 대북사업자, 2010.04.22 단동에서 면담.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의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음은 이른바 ‘정성관리’에서도 엿볼 수 있다. ‘정성관리’란 각 가정에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사진)를 잘 모시는 일을 일컫는 말이다. 북한의 각 가정에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사진)이 있다. 기본적으로 김일성 사진, 김정일 사진, 김일성과 김정일이 함께 서서 사업 토의하는 모습의 사진 등 3장을 걸어놓아야 한다. ‘3대 위인상’이라고 하여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숙(김정일의 어머니)이 군복에 영웅메달을 달고 찍은 사진도 있다. 이 사진은 간부들에게 주어지거나 생활을 아주 잘 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으며 판매해서는 안 된다. 2005년에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은 ‘3대 위인상’이 있었으며 아침에 일어나면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에 꼭 인사하고 밥을 먹을 정도로 초상화를 잘 모셨다고 한다.¹⁰³ 북한당국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 보이거나 먼지가 있으면 김일성·김정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몰아서 비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초상화 아래에 종이 한 장도 놓지 않고 주위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¹⁰⁴

초상화 중요하게 여긴다. 금이 갔다거나 뭐 어떻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김일성, 김정일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니까... 초상화 검열을 지금도 인민반에서 많이 나와서 한다. 인민반장 또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초상화 위에 쓱, 이렇게 틀을 만지는데 먼지가 있으면 김일성, 김정일 잘 받들어 모시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동사무소에서 비판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계속 초상화를 닦아야 한다.¹⁰⁵

¹⁰³-하00, 2005 탈북, 2009.07.28 면접.

¹⁰⁴-윤00, 2007 탈북, 2009.06.03 면접.

¹⁰⁵-강00, 2008 탈북, 2009.06.18 면접.

북한 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가정에서만 “모시는” 게 아니라 가슴에도 “모시고” 다닌다.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의 표시로 가슴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배지를 다는 것은 의무적이며 이를 어기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 강제 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초상화는 모신단 말이다. 자주 검열한다. 거기에 먼지가 묻었는가, 안 묻었는가 검열하는데, …거리에 규찰대들이 있어서 그거 없는 사람들은 적어가지고 또 통보를 한다. …중요하게 생각은 안하지만 단속하니까 달고 다닌다.¹⁰⁶

그러나 구술자들에 따르면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성관리’에 많이 소홀해졌다고 한다.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장식품, 또는 귀중품을 감추는 곳으로 활용하는 주민들이 있는가 하면, 판매해서는 안 되는 ‘3대 위인상’이 시장에서 몰래 매매되고 있다고도 한다. ‘3대 위인상’ 초상화(사진)는 품위가 있어 보여 멋으로 집에 걸어두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초상화 뒤에다가 돈이랑 깔았다가 혼난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 초상화는 채가지 않으니까 가장 안전한 곳…¹⁰⁷

또한 최근에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 가슴에 달고 다니는 김일성·김정일 배지도 지도자에 대한 충실성에 의의를 두기보다는 몸치장의 일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배지는 신분,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모양과 값이 다르다고는 하나 일부 주민들은 나름대로의 멋을

¹⁰⁶ 양00, 2008 탈북, 2009.06.03 면접.

¹⁰⁷ 백00, 2008 탈북, 2009.06.30 면접.

I
II
III
IV
V

내고 과시를 하기 위해 좀 더 잘 만들어진 것을 많은 돈을 주고 구입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의 연설, 담화 등을 수록한 『김일성 저작선집』은 찢거나 버리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고 나서부터는 『김일성 저작선집』도 장마당에서 물건 싸주는 포장지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일성 저작집이랑 다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건사한 집이 한집도 없습니다. ...왜 없는가? 빵 장사, 파배기 장사해야 되잖아요. 여기처럼 싸주는 게 아니라, 종이 어디 있습니까, 제일 흔한 게 그 종이입니다. 쪽쪽 찢어서 거기다 빵이고 뭐고 다 싸줍니다. ...걸리죠. 엄연하게 걸리는데, 보위원도 보안원도 생활을 알기 때문에 다 상관 안 합니다. 그래서 저작선집 1권부터 6권까지가 자주색 뚜껑인데 그게 있는 집이 한집도 없습니다. (사례 5)

김일성·김정일의 권위를 상징하며 주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충실성을 함양토록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모셔야 하는’ 배지와 초상화가 시장에서 일반주민들 사이에 암거래되고, 『김일성 저작선집』이 장마당에서 포장지로 사용되고 있음은 김일성·김정일의 권위 하락과 이들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충실성 약화를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 ‘의도적·획일적’인 정치사회화 매체

(1) 일상적인 조직생활에 대한 권태와 일탈

북한 주민들은 11년 의무교육을 마치고 나면 당원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근로단체에 소속되어 조직생활을 하게 된다. 북한 주민들이 각 근로단체에서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은 “정치적 생명의 요구를 실현”하고 “집단주의를 높이 발양”하기 위한 ‘정치사상생활방식’으로서 의무화된 것이다.¹⁰⁸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 사회의 본질과 우월성은 사상의 우월성에 있는 바,¹⁰⁹ 따라서 근로단체의 주요 임무 및 과업들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사상교양사업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상교양과 의무화된 조직생활은 이른바 ‘정치사업 선행원칙’의 구현에 따른 것이다. ‘정치사업 선행 원칙’이란 “사람들을 교양하고 발동시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 원칙”이며, ‘정치사업’은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발동하는 사업”을 말한다.¹¹⁰ 북한의 근로단체는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등 4개가 있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경제난이 심화, 지속되기 이전까지 북한 주민들은 근로단체 조직생활에 비교적 충실했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학습과 당에서 요구하는 노력동원 내지는 지원활동에 잘 따라주었으며 특히 매주 하는 ‘생활총화’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경제난의 악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강요적이고 일상적인 조직생활에 피로와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¹⁰⁸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7』, p. 409.

¹⁰⁹ 위의 책, p. 76.

¹¹⁰ 위의 책, p. 409.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무단, 또는 편법을 동원하여 조직생활에서 벗어나는 사상 및 체제 일탈 행위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조직생활에 대한 권태와 일탈은 특히 주민통제의 사상적 기제인 생활총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있어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적인 생활총화는 심신의 피로와 부담을 더해 주었으며 이에 따라 생활총화에 대한 거부감 내지 비판의식이 점차 강화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경제난 이전에도 생활총화에 대한 비판적 의식이 없지는 않았다고 한다. 잘 아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음에도 없는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거북한 감정을 갖기도 했다는 것이다(사례 5). 생활총화를 할 때에 북한 주민들은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10대원칙)에 의거하여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한다. 10대원칙은 수령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절대화·신조화·무조건성을 세습후계자인 김정일이 공식화한 것이다. 북한당국은 사상교양을 통해 주민들로 하여금 10대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면화하도록 하였는 바, 10대원칙은 북한 주민의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의식 형성에 크게 작용한 사상 기제라 하겠다.

(10대원칙은) 매일 다지는 선서문과 같다. 형식적인 것... 그런데 계속 읽으면 김정일에 대한 숭배심이 나오는 것 같다. ...‘김일성, 김정일을 무조건 따라야 되겠구나,’ 세습정치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김정일 아들도 김정일처럼 대통령을 하는구나,’ 북한 주민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하지.¹¹¹

¹¹¹-강00, 2008 탈북, 2009.06.18 면접.

(10대원칙은) 북한에서 살면서 지켜야 할 기준, 내가 죽을 때까지 끝수에 뿌리박히게 암송해야 돼서, 내 몸으로 표현하면서 살아야 할 신조랄까...¹¹²

그러나 경제난 이후 생활고에 지친 북한 주민들이 사상적으로 해이해지고 사회통제도 이완됨에 따라 10대원칙은 사상적 기제로서의 의의 및 중요성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당하려는 사람들과 당원들은 10대원칙을 잘 암송해야 하지만 일반주민들은 굳이 암송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10대원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정확히 외우거나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은 없으며 생활총화를 할 때에 부분적으로 인용할 뿐이라고 한다.

조직 이탈은 노력동원 및 지원활동에 대한 부담에서도 비롯된다. 이는 특히 ‘조선민주녀성동맹’(여맹)원들에게서 잘 엿볼 수 있다. 종래 북한당국은 노동력 부족에 따라 여맹원들을 각종 건설현장, 농촌 지원, 길 닦기, 군대원호사업 등에 동원하며 이와 관련한 명분은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정부인들의 사상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장사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심신이 고달픈 여맹원들은 뇌물(돈), 또는 ‘안면’을 이용하여 조직생활에 불참하는 등 조직이탈 행위가 드물지 않다고 한다. 이와 같은 조직이탈 행위는 다른 근로단체에서도 보편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에 사회동원이라는 게 많습니다. 일 시키고 돈 줄 건 없으니까, 사회적으로 정신개발 시켜서 다 이렇게 헌신해

¹¹²- 심00, 2008 탈북, 2009.02.26 면접.

라 이건데, ...길 닦기, 도로공사... 여맹원들 강제적으로...
안 나가게 되면 그 집에서 돈 모다 냅니다. (사례 5)

(2) 주요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 및 인지의 부족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는 정치사회화¹¹³의 주요 매체로서 기능한다. 그러나 주민들의 정치사회화가 당·국가기관에 의해 의도적·획일적·계획적으로 진행되는 북한에서는 모든 언론매체가 당적 통제 아래 있어 언론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북한당국은 특히 경제난 이후로 외부 사조·문물의 침투, 유입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상적 해이와 체제 동요를 우려하여 모든 방송수단을 철저하게 단속, 통제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녹음기 등을 구입하게 되면 반드시 당국에 등록해야 하며 주파수를 고정해야 한다. 모든 라디오 주파수는 북한 공영방송인 중앙방송에 고정되어 있다.¹¹⁴ 북한의 주요 언론매체로는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방송을 비롯하여 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정부 기관지 ‘민주조선’,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등 3개 일간지, 그리고 각 도당위원회 기관지인 11종의 지방신문이 있다.¹¹⁵ 그러나 이러한 매체들은 일반주민들에게 있어 매우 제한적이다. 북한에서는 ‘로동신문’을 비롯한 중앙지 구독이 보편적이지 않으며 평양시민을 제외한 다른 지방에서는 주민의 일부가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정도라고 한다. 특히 ‘로동신문’은 발매 부수가 적어서 일반주민들은 받아보기 어려우며 주로 당일꾼이나 간

¹¹³ 정치사회화란, 개인이 사회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치적으로 적절한 태도적 성향과 행위패턴을 배우는 과정이다. Kenneth P. Langton,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pp. 4~5.

¹¹⁴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78.

¹¹⁵ 열린북한방송, 2010.05.17.

부들이 구독한다. 구술자들을 통해 보면 북한 주민들은 언론매체의 종류, 매체의 이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다. 또한 일반주민들은 신문보다도 방송을 많이 들으며 라디오방송보다는 텔레비전 방송을 주로 시청하는 편이다. 경제난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방송을 위한 동선을 주민들이 잘라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을 거의 듣지 못하고 조선중앙텔레비전 방송만 시청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가 하면 라디오는 주파수를 조선중앙방송에만 맞추어 놓으나 중앙방송이 들리면 다른 방송의 전파도 수신될 수 있으므로 아예 방송을 들을 수 없도록 수신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사례 11). 녹음기도 구입하게 되면 보위부 같은 곳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 방송 수신은 차단하고 녹음과 노래테이프 듣는 것만 가능하도록 한다.

저는 조선중앙방송밖에 들은 게 없어요. 그거밖에 듣지 못해요. 라디오 없었으니까, ... 선이 없어요. 선 해놓기만 하면, 그거 동이니까 사람들이 잘라가지고 밀수, 중국에 팔아버려요. 오직 텔레비전만 보고 있어요. (사례 9)

라디오는 다 차단해요. 듣지 못하게... (조선중앙방송) 그런 건 나오죠. 녹음기에 그런 건 잡히는데 다른 것 못 잡혀요. 일단 내가 녹음기 사잖아요, 그럼 보위부나 그런데 갖고 가서 승인받아야 되요. ... 중앙방송이 잡히면 외부파장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도 잘라버리고 중앙방송은 오직 티비로만, (라디오방송은) 안 듣는 게 아니고 못 들죠. (사례 25)

그러나 텔레비전 방송도 ‘보도’ 시간이 많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 영화나 드라마 외에는 다른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방송 내용의 절반가량은 김정일 관련 보도로 진행되며 내용은 주로 군부대 현지시찰, 공장·농장 현지지도 등이다. 북한 주민들은

I
II
III
IV
V

언론매체의 하나인 잡지의 종류와 이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편이다. 관련 질문에 대해 구술자의 대부분이 “여러 가지 잡지”가 있다고 말할 뿐 잡지의 이름이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잘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여성구술자의 경우에 “여맹 잡지가 있다”라고는 말하지만 잡지 이름이 ‘조선여성’이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다.

잡지는 여러 가지로 잡지가 많아요. 여맹잡지도 있고…. 음식 하는 잡지도 있고요. (잡지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리법에 대한 이런 잡지도 나오고…. 여자들이, 어떻게 말할까…. (잡지 이름은) 잘 생각 안 나오 갑자기…. 잡지는 많아요. (사례 11)

국내외 소식들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는 ‘3방송’이다. 이는 북한의 각 가정의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유선 라디오 방송망’이며 스피커로 전달되는 방송이다. ‘3방송’은 정전이 되어도 들을 수가 있는 바, 건전지로도 작동되기 때문이다(사례 47). 북한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3방송’은 중앙방송보다 더 강력한 대남 비방방송이며 도당 선전부, 지방 선전선동부에서 관리하고 20시간 가운데 1시간씩 지방방송을 끼워주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¹¹⁶ ‘3방송’은 특히 북한당국이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를 주민들한테 전달할 때 이용된다고 한다. 예를 들면 등화관계 대피훈련, 군사훈련 등과 관련된 내용들,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왔을 때 지켜야 될 언어 표현 방식, 옷차림(여자 한복, 남자 정장차림) 등에 대한 주의 방송, 당의 방침 및 정책 해설, 또는 선전 및 지시 등이다.

구술내용을 통해 보면 ‘3방송’ 청취율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¹¹⁶-장00, “북한정보체계 협동연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 2010.05.07.

있으나 평양에서는 거의 모든 주민들이 듣는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합법·불법적 중국 왕래 횡수가 증가하고 장사 등으로 인해 지역 이동 및 상호 정보 교환의 계기가 많아짐에 따라 ‘3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주민들 사이에 ‘3방송’의 사실 왜곡 및 조작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례로 ‘3방송’은 ‘남쪽에서 온 편지’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을 통해 남한 사회의 혼란상, 남한 주민의 생활고 등을 주민들에게 알리는데, 그 내용이 주민들 사이에 알려진 남한 사회 및 주민생활의 실상과 다르며(사례 47), 북한 내 식량배급 실태 관련 보도 내용도 실상과 다르다는 것이다.

‘함경남도 양강도 함경북도 평남도 평북도, 쪽 이 주민들 식량공급을 안 빠뜨리고...’ (이러한 내용의 방송을 듣게 되면) 저거 거짓말이다 보도하는 거, 우리 어디 한 달치 배급 줘는가? 사람들 막 말합니다. (사례 32)

북한 주민들은 국내·외 정세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신문을 읽기도 하지만 또 다른 용도로 신문을 찾는다.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주민들은 간부들이 보고 난 신문을 장마당 등지에서 구입하여 ‘담배말이’(담배종이)로 사용한다. 김일성·김정일 사진은 신문을 파는 사람들이 판매 전에 올려내서 문제의 소지를 없앤다. 당원이나 간부 등 일부 계층의 사람들을 제외한 ‘평백성’들에게 있어 신문은 전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문으로 담배를 말아 팔아요. ...원래 (신문은 도로) 바쳐야 되요. (읽어)본 부만큼... 종이도 없다 보니까 거기다 (담배를) 말아 피고... 그걸 시장에서 팔아요. ... (김일성·김정일) 사진 나오면 사진만 올려요. 파는 사람이 자기네 집에서 소각해요 모르게. ... (신문) 그게 이제 돈이

I
II
III
IV
V

니까, 담배종이, 돈이니까, 신문배달원, 통신원들이 하루 보면 하루분을 통째로 빼냅니다. 빼내서 장마당에 넘깁니다. 조선로동당 기관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통신원도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매일 공급 안 되는 게 많잖습니까? 그러면 통신원보고 ‘어째 어제 신문 안 왔소’, 물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을 소리 없기 때문에… (사례 8)

라. ‘대상화’된 정치 주체

(1)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무관심

정치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다. 북한당국도 노동계급에게 주권이 있으며 ‘근로인민대중’이 정치의 주체라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당국으로부터 정치 주체로서의 권리 내지 권한 행사를 철저히 제약당하며 수령과 노동당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로서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를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은 아주 소극적이며 수동적이다.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를 정치의 주체가 아닌 정치의 객체로 대상화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 권력자들이 ‘만들어 내는 정치(정책)’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인식, 규정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케 하며 종국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는 근원으로 작용한다.

구술자들에게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를 묻게 되면 대부분이 “우리 같은 평백성은 그런 거 모른다”, 또는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 없다, 알아서 뭐하냐”, “잘못 말하면 법기관에서 잡아간다” 등으로 답변한다. 정치란 힘을 가진 간부들, ‘법기관’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평백성’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한 구술내용을 통

해 보면 경제난 이후 북한 주민들은 ‘정치’의 개념 자체에 대해 이전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구술자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거의 모든 구술자들이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 내지 비난을 쏟아내는 데에서 엿볼 수 있다. 이를테면 구술자들은 김일성 통치 때와 김정일 시대의 생활 형편 비교, 김정일 시대부터 악화된 북한경제 상황과 주민의 생활고,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관련 사상 교양·교육 실태, 간부에 대한 비난, 사회통제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을 토로하며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성분차별에 대한 의식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은 출신성분에 따라 3계층으로 구분된다. 이른바 핵심계층(핵심군중), 동요계층(기본군중), 그리고 적대계층(복잡군중)이다. 이 가운데 가장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주요 감시 및 통제대상인 적대계층이다. 적대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진학과 취업을 비롯한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당국으로부터 제약을 당하며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불공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국가의 정치 내지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되며, 이로써 정치란 ‘공정하지 못한 것’, 또는 ‘절대적인 권력’ 등의 왜곡된 인식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우리 같은 건 토대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그게 그 나라 정책에 대한 첫 의심이었다, 능력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데..., 그 사람 줄기를 보고 뿌리를 보고 환경보고 하니깐, 우리 환경 안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선 안 되겠다..., 지금 보면 이렇지만 그때는 정치란 개념이 아니고 우린 토대 나빠서 발전 못 하겠구나 이런 생각... (사례 5)

I

II

III

IV

V

북한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무관심은 최고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문제와 관련해서도 잘 나타난다. 구술내용들을 통해 보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의 후계자, 곧 다음의 최고지도자가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그저 ‘누군가가 되겠지’, ‘누가 되면 어쨌고, 뭐가 달라지겠나’ 하는 태도를 보인다. 중국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들도 다르지 않고 한다. 방문자들은 최근 후계자로 부각되고 있는 김정은에 대해 알지 못하며 오히려 질문한 사람에게 묻는다고 한다.¹¹⁷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의(異議)가 없는 바,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었던이 김정일의 아들이 후계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북한당국에 의한 사상교양·교육 과정에서 김일성 가계를 중심으로 한 혁명 활동만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김일성의 대를 이어 후계자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의 권력을 세습할 아들이 누구지 모르며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면서 대를 잇는 권력세습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북한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 및 무관심의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네 알기로는 응당 그렇게 대를 물려받아야 되는 거로 생각했습니다. 여기는 대통령 자리를 4년 임기요, 5년 임기로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니까, 정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혁명 활동 교육, 교육 자체를 배우는 게 김일성 가정 내력, 김형직으로 시작해서 김일성, 김정일,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인계받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머리에 인

¹¹⁷-대북사업자, 2010.04.22 중국 단둥에서 면담.

이 박혔으니까 후계자는 꼭 김정일이 넘겨받는 걸로 생각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이가 된다고 생각 못했습
니다. 여기는 자식들 후계자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러는데,
김정은이 밑에 또 누가 있고 위에 누가 있고, 이런 무슨 김
정일이 자식들에 대한 공개를 우린 알지 못했습니다. …김
정은이 있다는 건 (2009년 3월)선거 전에, 한두 달 전에 알
았단 말입니다. (사례 32)

우리야 그냥 그렇게 돌아가야 되나 보다 하고 있죠 뭐….
투표나 이런 방법은 신경 안 쓰거든요. …아들이 뭐, 그 후
에 누가 되면 김정일 자식이 되겠지, 그런 관점밖에 없어요.
(사례 25)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정일의 후계자 세습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
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 김일성 가계의 권력세습으로 인해 경제
난이 심화되고 주민 생활이 어려워짐에 따라 일부 주민들 사이에 권
력 세습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권력세습에 대해 비난
하는 사람들은 남한방송을 보고 들으면서 다당제, 대통령 선거제 등
을 알게 되며 이로써 대를 이은 권력세습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된다.

안 좋게 봐요. 계속 이렇게, 한국이란 거는 다당제 돼 가지
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대통령하고 이렇게 백성들 살려야
되겠는데, 내리내리 하니까 경제가 침체되고 못산다고, 살
아봤댔자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정당제도에 대해 교육
은) 안 시키는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갔다 왔
다든지 뭐 다 이런 거 통해서…. 라디오도 듣는 거 같아요.
(사례 9)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일부 주민들 사
이에는 선거에 의한 대통령 임기제에 대한 말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
러한 말들은 특정한 사람으로부터 대를 이어 권력이 세습됨에 따라

I
II
III
IV
V

국가의 비전 내지 정책목표가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간부들의 부정·부패와 비리 등 사회 불안정 요인들이 증대되는 데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에서도 수령은 직접적·노골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북한 주민들은 수령보다도 수령 아래에 있는 간부들을 비난한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구태의연한 국가 비전과 정책목표를 고수하려는 수령보다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어 북한체제 및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경제를 다시 살리는 것이다. 단적으로 말해서 최고지도자가 교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혼자서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주체혁명위업 완성이라는 명목 하에 잣대를 가지고 정치를 하자고 하니까 밑에 일꾼들 속에서는 여러 가지 아부 아침꾼들이 생겨나게 되고 부패 타락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 많은 불안정 요소들이 생겨난다’ 하는 이런 의견 가지고 있죠. 그게 고난의 행군 때부터죠. 90년대 중반부터죠. 그때 그런 이야기가 진행됐죠. 물론 그건 수령을 비난하고자 해서 하는 소린 아닙니다. 그저 현재 수령이 정치는 잘은 하는데 그 밑에 일꾼들이 하나의 잣대로 지금까지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와서 사회주의라는 지난 시기 펼쳤던 정책들의 모순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문제들인데, 이것을 그때의 정치방식으로 이어오던 현재 수령이 타개할 수 있겠냐, ...그럼 새로운 대통령이 차라리 올라앉아서 새로운 자본주의적인 관리방식을 운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주제 내용은 얘기해봤죠. ... (지도자가 교체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렇다고 봐야죠. (사례 47)

또한 경제난이 심화,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김일성의 또 다른 아들인 김평일이 기대되는 지도자로 회자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김평일을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갖

춘, 김일성을 “딱 닮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으며(사례 25), 최고지도자가 김정일이 아닌 김평일이었다면 경제난도 없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때 김정일이 대통령 되지 말고 김평일이 돼야 된다고... 김평일이야, 사람이 김일성이 닮아가지고 김평일이 됐으면 우리 지금처럼 안됐다. 우리 (북한에) 있을 때 말했어요. (사례 9)

북한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이들이 말하는 이른바 ‘권력기관’, ‘법기관’, ‘당기관’ 등에 대한 의식에서도 엿볼 수 있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기관들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 북한 주민들은 이 기관들을 막강한 정치권력을 행사하며 자신들을 억압하는 두려운 대상으로 의식한다. 또한 이 기관들은 돈과 같은 뇌물을 “고여야” 자신들을 편하게 살게 해주는 기관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권력기관은 당기관과 법기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권력기관으로 지목하는 것은 ‘중앙당’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당조직이다(사례 47). 북한 주민들은 가장 권위 있고 권력이 강한 ‘중앙당’을 비롯하여 각 부문의 당기관들을 가장 두려운 기관으로 의식한다. 법기관은 당적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법기관도) 당 기관에 가서 마지막 총화를 해가지고 나오니까 법기관보다 당기관을 더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사례 32)

일반주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당기관은 일반주민들이 가장 불만을 갖는 대상이기도 하다. 지배인과 같은 ‘행정일꾼’들은 행정사업이라도 하지만 당비서는 주민들을 모아 놓고 학습시키는 것밖에는 다른

I
II
III
IV
V

하는 일이 없으면서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를 대표하는 당으로서 지도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앙당에 대해서는 경외심을 갖는 편이지만 기관·단체들에 속해 있는 당비서들에 대해서는 “쓸모없는 존재들”이라 하여 불만이 많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행정일군이라 할 때, 지배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행정사업이라도 하는데, 당비서라 할 때, 솔직히 말해서 학습시키는 거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밖에 안 하면서 당비서란 명목하에 사람들 당 생활 주고 있다고 해서, ‘너 생활 왜 이렇게 했냐, 출당되고 파? 벌 받고파?’, 이러면서 하니까… 결국 당일군이라는 게 하등에 쓸모가 없는… 중앙당은 별문제로, 국가를 대표하는 당으로써 지도기관으로 될 수 있겠지만 매 기관단체들에 소속돼 있는 당비서들, 이거는 놀고먹는 자들이거든요.
(사례 47)

구술자들이 지목하는 북한의 법기관은 보안서, 보위부, 재판소, 검찰소 등이다. 구술내용에 따르면 보안서는 일반범죄를 다루는 기관이며 보위부는 일반 범죄보다 정치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다. 재판소는 분쟁에 대해 재판을 내리는 기관이다. 또한 검찰소는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들의 국가법 준수를 감시하며, 범죄자를 비롯한 법 위반자 적발 및 법적 책임 추궁을 통해 국가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는 기관이다(사회주의헌법 제156조). 보안원들은 장마당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대상이다. 이들이 주로 장마당 장사를 단속, 통제하기 때문이다. 장마당 주재 보안원들은 장사하는 장소, 품목 등을 통제하며 자릿세도 거두어 가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과 충돌하는 일도 잦은 편이다. 북한 주민들은 보위부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술자들은 비사회주의적 내지 일탈 행위와 관련해서는 보위부 통제가 가장 심하다고 말한다. 또한 보위부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나 공로를 세우기 위해서 주민들을 단속, 통제한다고 비난한다(사례 11).

북한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인민반장’에 대한 감정 및 평가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에서 인민반장의 지위 및 위상은 낮지 않다. 북한당국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인민반에 소속되어 생활하기 때문에 가정의 혁명화, 주민생활의 편의 도모 등의 문제를 인민반 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며 인민반사업을 강화하여 불순분자들이 받을 불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보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¹¹⁸ 따라서 인민반 사업을 주도해 나가는 인민반장은 당의 정치적 신임과 배려가 있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사실상 인민반장은 그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고 일정한 권력 내지 권한도 행사한다. 구술자들에 따르면 한 개 인민반은 23~25세대(큰 곳은 50~100세대) 정도이며 인민반 10~15개를 모아 ‘종합반장’이 나오고 7개 정도 종합반장들을 모아서 한 개 동사무소가 만들어진다.

한 인민반에는 인민반장, 당세포비서, 여맹 초급단체 위원장 등이 있으며, 당세포비서, 인민반장, 여맹초급단체 위원장 등의 순으로 권력 및 권한이 있다. 여맹위원장은 조직생활 하루만 권한을 행사하지만 인민반장은 일년 내내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서열이 앞서는 것이라고 한다(사례 9). 인민반장은 모두가 여성이며 노임여부는 구술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인민반장은 월급이 없으며 동사무소에서

¹¹⁸ 김정일,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7월11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p. 400.

I
II
III
IV
V

소액을 지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매월 일정액의 노임이 나오는 곳도 있다.¹¹⁹ 인민반장의 임무 내지 역할은 동네 청소, 건설 현장, 농촌 지원 등에 주민 노력 동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회의를 소집 진행하며 전기세, 물세 등을 수금하는 일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구술내용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인민반장을 주민들을 감시하고 보안서나 보위부에 주민 동태를 보고하는 이른바 ‘스파이’ 역할도 하는 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특히 감시대상이 된 주민들에게 있어 인민반장은 가장 꺼려하면서도 잘 보이려고 애쓰고, 주의 깊게 경계하는 대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안원이나 보위부원보다 더 두려운 대상으로 의식되기도 한다. 사실상 인민반장의 권한이 법기관보다 우선하는 실례도 있다. 예를 들면 법기관이 각 가정에 대한 검열을 할 때에는 인민반장에게 알리고 인민반장과 함께 검열을 해야 한다. 법기관이 이를 어길 시에는 인민반장의 신고로 당기관이 개입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인민반장은 당세포비서를 인민반 부반장인 위생반장으로 겸임시켜 주민 동원 등 인민반 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도 한다.

인민반장이라 보면 대체로 다 무식한 말로 스파이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비법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경계하고, 반장하고 엇설려고 안하고 반장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려고 한다.¹²⁰
 (인민반장을) 무서워한다. 감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보기는 다 싫어한다.¹²¹

¹¹⁹- 1972년 7월에 나온 김정일의 한 담화에는 당시 김일성이 인민반장들을 유급으로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위의 책, p. 398.

¹²⁰- 허00, 2008 탈북, 2009.11.17 면접.

¹²¹- 정00, 2006 탈북, 2009.06.25 면접.

(인민반장을) 어려워한다기보다 잘 보이려고 해요. …(인민반장은) 매 세대 손가락까지 다 헤라는 김일성의 그런 교시가 있어요. 이렇게 인민반장은 그 사람이 심지어 무슨 생각하고, 그 사람의 동태… 몇 시 몇 분에 출근하고 어떻게… 그 사람의 지금 생활까지 인민반장이 다 틀어쥐고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안전원하고도 제일 가까운 게, (안전원이) 인민반장한테 와서 물어봐요. …보위부도 인민반장한테 와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숙박검열해요. 밤에 할 때는 인민반장 입회하에서 딱 하지, 세포비서 데리고 안돼요. (사례 9)

(법기관) 자기가 검열할 때는 인민반장한테 먼저 얘기해야 돼요. 인민반장 권한이 그거예요. 인민반장이, 만약에 자기한테 통지 안 하고 자기 인민반 (검열) 했잖아요? 그럼 군당 가서 신소 해 버려요. …그러면 그것도 걸리거든요. (사례 8)

(2)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왜곡된 인식

북한의 공식문헌을 통해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도 ‘정치적 자유와 권리’¹²²가 부여되어 있다. “정치생활에 참가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개념 규정되어 있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북한 주민들의 주권행사 및 국가 관리 참가, 정당·사회단체 조직 및 참여, 정치적 이념과 견해 표명 및 정치적 이익 옹호 등의 정치적 활동을 국가적 보호 밑에 제한과 구속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또한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사회주의 헌법에 전면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실현이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이 수립되면서부터 북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¹²².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 17』, pp. 413~414.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적 권리’¹²³란 “정치적 주인으로서의 권리”, 곧 “국가정치생활과 사회정치활동, 정당, 단체의 정치생활에 주인답게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민대중이 누려야 할 정치적 권리는 주권행사와 국가관리 등 국가정치생활에 참가할 권리와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릴 수 있는 권리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특히 주민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주권행사에 참가할 권리’이다. 인민대중은 모든 주권행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만 국가의 정책에 자기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의 정치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는 정치로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민대중이 반드시 누려야 할 또 하나의 정치적 권리는 사회정치활동의 권리이다. 이는 언론, 출판, 집회, 시위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민대중은 이와 같은 사회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하며, 이로써 국가사회생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자기의 의견과 희망을 제때에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적 권리’와 함께 북한이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념은 ‘정치적 평등’¹²⁴이다. 북한당국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적 평등은 북한 주민 누구나 선거권과 선거 받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주권기관 선거와 주권행사, 국가 관리에 참가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하는 데서 표현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 주민들은 위와 같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 및 ‘정치적 평등’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북한 주민들이

¹²³- 위의 책, p. 411.

¹²⁴- 위의 책, p. 414.

‘주권행사에 참가할 권리’를 행사하는 선거를 통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수령유일체제’인 북한도 형식상으로는 입법(최고인민회의), 사법, 행정(내각) 등 3권 분립에 기초한 체제이며 대의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의제과정은 본질적으로 선거 및 투표와 관련되며 선거는 필요조건이다.¹²⁵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에 “17살 이상의 모든 공민은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 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제66조)를 갖는다고 명시함으로써 이러한 조건을 법적으로 충족시켜 놓았다. 또한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 “군인민회의로부터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로 선거한다”(제5조)라고 규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도 형식상으로는 비밀투표를 한다. 일반적으로 대의제 과정에서 투표는 비밀로 행해지며 비밀투표는 선거의 공정성 보장에 의의를 두고 있다. 비밀투표는 부패와 협박의 위험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¹²⁶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비밀투표는 당에 의한 후보자의 단일화, 후보자에 대한 암묵적 찬성 강요, 찬성 투표함 유일 배치 등으로 인해 본래의 의의 내지 중요성이 크게 훼손되고 변질된 투표행위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비밀투표는 유권자의 투표 행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되는 비밀투표이다. 주민들이 투표하는 동안 인민위원회, 군당, 또는 보안원, 보위부원 등이 투표행위를 감시하기 때문이다.

¹²⁵ 앤드류 헤이우드, 조현수 옮김, 『정치학(개정판)』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0), p. 460.

¹²⁶ 위의 책.

I
II
III
IV
V

(투표소) 안에 대체로 한 사람이 앉아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다 활 열어 놔다. 문을 활 열어놓고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다 본다. 그다음에 형식상으로 거기다가 연필도 있고, 반대하면 그으라고 한다. …만약에 내가 반대한다면 금을 그으라고 하는데 금을 그을 사람이 어디에 있나? 다 보는데 어떻게 금을 그나? 심지어 어떤 것(사람)은 의자 놓고 앉아서 보는데… 그저 꼭두각시 놀음이다.¹²⁷

선거의 공정성은 신뢰할 수 있고 균형적인 정보에 투표자가 접근하게 됨으로써 일어나게 된다.¹²⁸ 그러나 북한당국은 당에서 내세운 후보자와 관련해 ‘당이 추천하는 인물’이라는 것 말고는 후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선거 유세를 하기는 하지만 후보자들이 정견을 발표하고 주장하는 유세가 아니라 찬성을 유도, 강요하는 유세를 한다.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신상이나 이력, 경력 등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유권자인 북한 주민들은 선거에의 참여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의식하기보다는 자신들은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여 당에서 내세운 특정인물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무감 내지 강박감을 가지고 투표행위를 할 뿐이다. 이러한 투표행위를 북한 주민들은 “체질화”된 투표라고도 말한다. 선거 날에 투표소에서 선거위원이 선거표를 “툭” 주면 “툭” 받아서 별다른 생각 없이 찬성 투표함에 “홀” 넣는 것으로 투표가 끝나는 ‘몸에 밴’ 행위라는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거기 앉아서 툭 선거 투표용지를 준다. 그런데 북한사람이라는 게 선거 가지고, 우선은 그게 너무 체질화되어 가지고, …그저 툭 받아서 갖다가 넣으면 된다.

¹²⁷- 김00, 2008 탈북, 2009.06.09 면접.

¹²⁸- 앤드류 헤이우드, 조현수 옮김, 『정치학(개정판)』, p. 460.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그저 선거 날에 가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가서 그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다가 인사를 하고 투표함에다 훔 넣고... (투표용지를) 펴보지 않고 넣는 사람들이 가득하다.¹²⁹

북에도 선거유세라는 게 있습니다. 유세라는 게 집단적으로 청년학생들 시켜서 찬성 투표하라고 구호 외치는 게 선거유세입니다. (사례 5)

북한 주민들은 선거일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역적’, ‘반동’ 등으로 몰리어 처벌을 받는다(사례 25). 몸이 아픈 환자나 투표소에 나가기 어려운 주민들에 대해서는 병원, 또는 집으로 선거함을 가져가 투표하도록 한다.¹³⁰ 따라서 북한의 선거 결과는 늘 100% 투표에 100% 찬성을 기록한다. 그러나 구술자들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처벌 때문만이 아니다. 북한 주민들의 일부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최대의 의무이며 권리”라고 생각하여 투표를 한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해외에 나갔거나, 비법 도강을 했다가도 투표에는 반드시 참여하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선거 참여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고, ‘최대의 의무, 자신의 권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강요된 것이지만 그것은 사람들 머릿속에 확실히 박혀 있다.¹³¹

¹²⁹ 김00, 2007 탈북, 2009.05.07 면접.

¹³⁰ 고00, 2008 탈북, 2009.02.12 면접.

¹³¹ 김00, 2008 탈북, 2009.02.05 면접.

북한 주민들의 선거는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에 인사하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오는 것으로 끝난다. 또한 선거일의 투표장 주위는 마치 축제를 연상케 하는 광경이 연출된다. 투표소 앞에서 취주악대의 연주와 노래가 계속되며 주민들은 군중무예를 즐기는 등 무도회가 열린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대표를 지명해 준 당과 국가, 곧 김일성·김정일에게 감사하며 선거 전에 이미 기정사실화된 후보자의 대의원 당선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구술자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선거하는 날은 번거롭고 짜증나는 날이었다고 기억한다.

선거표 넣고 나와 가지고, 나와서 춤추고 노는데요, 할 수 없이 하죠. 흥이 나와 노는 건데... 즐거움보다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처럼 제가 즐겁게 놀자고 하는 게 없어요. (사례 25)

선거 날에는 (이건 내 권리 행사하는 거다) 그런 생각보다도 번거로워요. 사람들이 그 하루도 장사해야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짜증내요. (사례 9)

구술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권리와 의무에 대해 물으면 거의 모두가 의무만을 이야기하며 권리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답을 한다. 이를테면 ‘자신의 권리를 다해서 국가에 기여 하겠다’는 식의 비논리적인 답이다. 구술내용들을 통해 보면 사실상 북한 주민들은 ‘정치적 권리’나 ‘정치적 의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권리) 그런 건 이야기 안 했어요. ...이거 권리를 이렇게 해서, 사람이란 게 솔직히 말해서 내 조국을 빛내서 일도 잘 하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사례 11)
정치와 관련된 토론하겠지만 이게 내 정치 권리라든가, 정

치적 의무라든가 이런 표현 써본 적 없습니다. 그런 표현 안 쓰고, 또 그런 표현을 쓸 일도 없죠. 왜냐면은 일개인한테 어떤 정치적 권리나 의무 이런 건 북한사회에서 주로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사례 25)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왜곡, 형성하고 있음은 ‘평민’, 또는 ‘평백성’이라는 용어 사용에서 잘 나타난다.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자신들을 일컬어 ‘평민’, 또는 ‘평백성’이라고 말한다. 이를테면 권력을 가진 간부에 대해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말할 때 그들은 ‘우리 같은 평민들이야, 우리 같은 평백성들이야’라고 말한다. 우리 국어사전에서 ‘백성’(百姓)은 “나라의 근본을 이루는 일반 국민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그리고 “예전에 사대부가 아닌 일반 평민을 이르는 말”이라고 개념 정의 되어 있다.¹³² 그러나 북한의 사전에는 ‘백성’(百姓)이란 “백가지 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민≫을 옛스럽게 이르는 말”¹³³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또한 북한사전에는 ‘평민’의 의미가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 하나는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에서 신분적으로 노예소유자나 봉건귀족계층보다 낮고 노예나 농노(노비)보다는 나은 농민, 수공업자, 상인 등과 같은 계층”으로 “아무런 권력도 가지지 못하여 특권계급인 귀족의 억압과 착취대상으로 된다”고 규정되어 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넓은 사회에서 벼슬도 하지 않고 권세도 재산도 없는 보통의 평범한 일반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평백성’이라는 단어

¹³²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검색일: 2010년 11월 20일).

¹³³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599.

I
II
III
IV
V

가 동일한 의미로 되어 있다.¹³⁴ 조선왕조의 봉건사회와 일제 식민통치를 겪고 이어서 김일성 유일독재체제 아래 놓여져 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북한 주민들은 ‘평민’, 또는 ‘평백성’이라는 용어 사용에 거부감이 없다. 또한 북한당국은 ‘평민’이 봉건사회에서의 계층적 구분에 따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평민’, 또는 ‘평백성’이라는 용어가 주민들 사이에 통용되고 있음을 그대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 ‘평백성’, 또는 ‘평민’이라는 용어가 통용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이로써 주민들로 하여금 봉건사회의 왕을 대하듯 ‘수령’의 권위에 복종토록 하려는 북한당국의 의도를 엿보인다. 오래전 이기는 하나 한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김일성 초상화 앞에 절하는 것은 그가 나라의 왕이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바도 있다.¹³⁵

마. 소결: 북한 주민의 정치의식에 있어 특징적 양상

(1) 정치·사회 용어들의 일반적 개념에 대한 인지 및 이해 부족

북한 주민들은 국가, 사회, 정치, 법, 민주주의, 권리, 의무, 언론, 조직, 당 등 정치·사회적 용어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며 북한당국에 의해 정치적·이념적으로 조작된 개념정의에 대해서도 지식 및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구술자들은 ‘정치’에 대해 물으면 일반적인 개념 정의를 말하기보다는 북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생활고, 김일성 통치 때와 김정일 시대의 생활 형편 비교,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관련 사상교양·교육 실태, 간부에 대한

¹³⁴-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798.

¹³⁵-월간조선 편집부,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서울: 조선일보사, 1991), p. 94.

비난, 사상적 통제, 사회통제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을 말한다. 해외 공관 근무를 했던 한 구술자는 예외적으로 정치란 “어떤 자기 이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사례 47). 이 구술자에 따르면 북한에서 정치와 관련한 논의 내지 토론은 주로 주체사상, 수령론 등 북한의 공식이데올로기와 관련된 문제들이며 이 밖의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도 토론한다. 이를 테면 외국의 지도자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그에 따른 문제점, 전망 등을 토론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제의 논의 내지 토론이 일반주민들 사이에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일부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 특히 당·정·군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는 일부 대학생들 사이에서 토론이 이루어진다. 또한 공개적인 토론에서는 북한체제나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말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토론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한다. 구술자들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해서도 각기 다르게 인지,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당국이 사상교양을 통해 강하게 주입시켰을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외세 배격, 개혁개방을 하지 않는 사회주의, 북한경제의 자본주의화 등으로 각기 다소 다르게 해석한다.

위와 같이 북한 주민들에게서 나타나는 정치·사회 용어들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한 인지 및 이해 부족 현상과 유사한 사례는 구동독 주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독일 한스자이텔 재단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동·서독 통합 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 가운데 하나가 통합 전 구동독에는 ‘social’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 같으며, 사실상 통일 후에도 동독주민들은 ‘social’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¹³⁶

¹³⁶. 재단 관계자, 2010년 7월 1일 독일 한스자이텔 재단 본부에서 면담.

I
II
III
IV
V

내독관계를 연구하고 통일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경험한 **Bernhard Stangl** 교수도 통합 후 동·서독 언어의 이질화가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구동독 법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들이 국가, 사회, 법치주의 등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느꼈다고 밝힌 바 있다.¹³⁷

(2) 의무적인 사상교양·교육에 의한 정치의식 함양과 당·국가 정치(정책)의 무비판적 수용

북한 주민들은 11년 의무교육과정과 거의 평생에 걸친 조직생활에서 계획적이고 획일적인 틀에 박힌 내용의 사상교양·교육을 받는다. 또한 한결같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으로 귀결되는 사상교양·교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며, 이로써 북한 주민들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절대화·신조화하고 수령과 동일시되는 노동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 헌신이 곧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에 대해 저항 내지 비판할 줄 모른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가의 정책을 말없이 따르고 당·국가의 시혜 및 배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의식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현실 정치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거나 몇 마디 언급하는 것조차도 ‘평백성’에 불과한 자신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행동이며 자칫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당·정·군 주요 간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으며 관심도 별로 없는 편이다. 생계유지에 바쁘고 생활고에 시달리느라 정치 현실에 관심을 둘 이유도, 필요성도 없다는 것이다.

¹³⁷-Bernhard Stangl, 2010년 7월 1일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 본부에서 면담.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당·국가 정치(정책)에 대해 소극적·수동적 태도로 반응한다.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당·국가의 정치논리 및 정책에 대해 파악, 이해한 후 이를 수용, 또는 저항하기보다는 무비판·무조건적으로 전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들은 당·국가의 정치논리 및 정책에 대해 관심이 없으며 알고고도 하지 않는다. 이른바 ‘평백성’들은 당·국가의 정치논리 및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도 알annel 방법이 없으며 알 필요도 없고 아는 체했다가는 예기치 못한 처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정치의식의 세대 간·지역 간 차이

구술내용들을 통해 보면 북한 주민들의 정치의식은 세대 간·지역 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김일성 시대에 살면서 국가적 시혜를 누린 60대 이상의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와 당, 그리고 최고지도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며 젊은 세대의 불만과 비판적 사고를 우려하는 편이다. 또한 국가와 당, 최고지도자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비난은 평양을 비롯한 내륙의 주요 도시들보다는 양강도 등 국경연선 지대의 주민들 사이에 더 확산, 심화되어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평양 출신 구술자는 다른 지역 출신 구술자들과는 다른 견해를 말한다. 평양에서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은 있었어도 김정일의 아들이 대를 이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수도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에서도 평양 주민들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계자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말한다(사례 47).

I
II
III
IV
V

2. 범죄의 사회적 구성과 주민 생계윤리

가. 사회적 언어로서 범죄: 법·정치·도덕의 경계선들

범죄는 사전적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그러나 ‘범죄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언어’라고 보아야 한다.¹³⁸ 그 이유는 ‘범죄’란 이름붙이기 또는 개념정의이고 이런 개념정의가 이루어질 때에만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기 때문이다. 이름붙이기는 사회정치적 과정과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또 다른 측면에서 범죄는 사회를 드러내는 언어이기도 하다. 범죄 행위가 한 사회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구조를 드러내는 하나의 언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는 사회적 구성의 개념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범죄는 사회학적 상황이며, 정치제도와 권력의 문제이며, 사회구조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북한에서의 범죄 현상 역시 사회구조의 총체적 특성과 현실의 균열선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표본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범죄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환경과 ‘생계윤리’(substantial ethic)¹³⁹의 온도를 잴 수 있는 ‘온도계’, 그들이 발휘하는 생존기술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프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는 절박한 생존과 법적·제도적 경계선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

¹³⁸-Gwynne Nettle, *Explaining Crime* (New York: McGraw Hill, 1984), p. 16.

¹³⁹생계윤리는 제임스 스콧(James Scott)의 정의에 따르면 경제적 관행과 교환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도덕적 원칙을 의미한다. 생존의 권리로서 노동과 희생, 잉여 수탈에 대해 국가가 응답하게 생존을 보장해 줄 최소한의 장치를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국가나 시장이 최소한의 생계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침해했을 때 생계윤리가 발동하게 된다. 그것은 먹고사는 생계와 관련되어서 그 사회가 지켜야 할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임스 스콧, 김춘동 옮김, 『농민의 도덕경제-동남아시아의 반란과 생계』 (서울: 아카넷, 2004), p. 26.

다른 한편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주민들은 나름의 아이러니와 부조리에 직면하며 산다. 범죄는 그런 일상의 아이러니와 부조리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는 부패한 거대 관료정치의 그물망과 주민들의 생계윤리 사이에 또한 자리하고 있다. 결국 북한의 범죄는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이 교차하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북한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범죄 현상과 그 현상 밑에 있는 생계윤리의 심성을 통해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범죄 일반에 관한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북한의 범죄와 정체성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이론적 배경과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두 번째, 북한에서 범죄가 공적으로 구성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세 번째, 탈북자 인터뷰와 각종 증언 자료를 토대로 범죄 사례들을 분류하고 종합하여 범죄의 양상과 주민 인식 태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라는 현상 속에 담겨진 주민 생계윤리와 지배체제의 갈등구조 양태를 살펴보았다.

(1) 범죄와 정체성 연구: 몇 가지 검토와 전제

(가) 범죄연구와 담론분석: 승인과 배제의 변증법

범죄에 대한 규정은 특정 시공간에서 특정한 행위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제를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배제가 항구적일 수는 없다. 범죄 처벌 대상의 변화에는 사회경제적 요소뿐 아니라 문화적 요소가 작용한다. 범죄에 대한 규정, 이에 대한 승인과 배제는 사회 전체 혹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들의 사회적·문화적 가치관의 변동과 더불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북한에서 시장이란

I
II
III
IV
V

공간은 법적·문화적 금기의 공간이었지만,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제도적으로 완화된 승인의 공간으로 변화하였으며, 기존 관료문화와 친화적으로 결합하며 배제와 승인의 긴장 속에서 새로운 행위를 창출하는 문화적 공간이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 또는 권력이 설정한 관용과 불관용의 경계에 위치한 (범죄)자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선 권력의 불관용으로부터 야기되는 배제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생존의 필요성 차원에서 불관용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들이다. 사실상 이들에게 ‘경계’는 생존의 문제이다. 많은 북한의 하층 주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관용과 불관용의 경계를 관리·감독하는 관료들도 경계에 선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실상 경계를 관리하는 자이지만 그 권한을 통해 이 경계를 넘나들며 필요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들은 경계 관리·감독의 권한을 통해 경계를 전유하는 자들이다.

이 두 부류 모두 승인과 배제, 관용과 불관용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 관계 속에서 경계를 전유하거나 변화시키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승인과 배제의 경계가 변화하고 조정되는 것은 직면하는 사회경제적인 요구와 기존의 문화적 가치체계가 결합하면서 경계를 재전유하는 이들의 행위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행위는 절박한 생계의 차원에서 또는 위협에 비례해 관료적 이익의 크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진다. 그것은 처벌의 공포를 압도하는 생계와 이익에 대한 집착이 커지는 순간이다. 이러한 행위들의 집합적 결과는 경계를 허물거나 무력화하는 생계의 기술로 일반화되고 국가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새로운 승인과 배제의 경계를 설정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범죄 연구는 첫째, 승인과 배제를 낳는 사회경

제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이러한 승인과 배제의 방법으로서 법·제도, 물리력, 공식담론, 정치적 소외 등이 어떻게 변화 - 규모, 강도, 범위의 측면에서 - 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셋째, 그러한 승인과 배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공포감’과 그 공포에 대한 도덕적·심리적 대응 방식, 즉 생계윤리의 관점에서 공포의 수용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승인과 배제의 ‘사이’에서 어떻게 북한 주민들과 관료들이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가는 생존기술과 ‘저항’의 측면에서 범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나) 범죄의 드러남과 감춤: 권력과 도덕적 시선

사회주의 범죄연구에서 단순히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처벌된 행위만을 다룰 경우 온전히 범죄가 구성되는 사회구조를 설명하지 못한다. 범죄는 법을 위반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하고 누군가에 대한 기만과 착취에 근거한 행위이지만, 처벌되지 않거나 은폐되는 행위도 범죄의 연구영역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은폐되거나 ‘범죄화되지 않는 범죄’가 존재하는 것은 그것이 권력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¹⁴⁰ 북한의 경우,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¹⁴⁰. 마리아 로스(Maria Los)는 “서구와 동구의 저자들에 의해서 반복하여 제기되는 다음과 같은 주장, 즉 공산주의국가에서는 자본주의국가보다 적은 범죄가 발생한다는 주장은 특히 충분히 근거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공산주의국가 자체 내에서 보고되는 자료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범죄와 일탈행위가 사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통제를 행사하려는 당의 노력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두 체제 사이의 범죄에 대한 양적 비교는 힘들지만, 범죄 및 피해자화 그리고 범죄에 대한 공포의 수준, 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 및 공식적 반응 등의 차이와 유사점을 살펴본다면 현존했던 사회주의사회 역시 범죄로부터 자유로웠던 체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Maria Los, *Communist Ideology, Law and Crim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pp. 285~286.

I
II
III
IV
V

같은 죄가 누군가에게는 적용되고 누군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여기엔 대체로 권력 또는 정치자본(political capital)¹⁴¹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남성과 여성, 지역과 세대 등의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이 함축되어 있다.¹⁴²

따라서 범죄의 ‘드러냄’과 ‘감춤’의 과정에는 권력의 메커니즘, 위계, 속성 등이 내장되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범죄 영역 또는 범죄 행위 역시 북한사회 범죄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바로 범죄의 ‘드러냄’과 ‘감춤’ 사이에 범죄가 구성되는 사회적 메커니즘과 권력관계의 복잡한 그물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드러냄과 감춤의 경계와 영역은 물론 변화한다.¹⁴³ 무엇을 범죄로 낙인찍고 그렇지 않은가는 사회경제적 요구와 행위자들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과

¹⁴¹ 정치자본이란 사회주의 사회에서 관료적 지위와 함께 그것을 보유한 자들에게 ‘공공적 재화의 점유·활용과 서비스(주택, 자동차, 병원, 학교 등)의 사적 전유’의 형태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보장’이란 권한을 이용한 공식적인 전유의 허용도 있지만 비공식적 방식으로 전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Pierre Bourdieu,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6;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p. 41.

¹⁴² 한편 범죄의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함축되어 있다.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생존하는 데 혹은 승진하는데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개인적 능력은 대체로 세습적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가령 출신성분과 가계에 의해 그 물자를 활용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각각의 성분 내에서 어떠한 관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물자를 확보, 이용, 점유할 수 있는 능력이 차이가 난다.

¹⁴³ 서용석은 ‘잠재된 범죄인구’를 정치적 소외집단과 개인적 형태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모든 주민·관료들을 포괄하는 잠재인구로 구분한다. 정치적 소외집단은 정치권력에 의해 직접적으로 언제든지 범죄자로 규정되거나 혹은 재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된 범죄인구들이다. 한편 물자부족으로 인해 북한 주민 누구든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모두 사실상 잠재된 범죄인구라고 본다. 서용석, “북한사회의 범죄,” 『아세아연구』, 제35권 1호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92), p. 67.

타협의 산물이다. 이 드러냄과 감춤의 경계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도덕적 평가나 시선을 우리는 생계윤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범죄는 정치와 권력은 물론 성(性), 계급, 문화 등을 포함하는 법적·제도적 차원 이상의 사회적 과정 속에 ‘묻혀’ 있다.

(다) 복합정체성과 정체성의 정치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고유한 자아와 단일하고 고정된 정체성이라는 가정을 문제시하는 것이다. 정체성은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서술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¹⁴⁴ 정체성은 본질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끊임없이 이동하는 서술이며, 그래서 정체성 범주와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러한 의미는 결코 끝나거나 완결되지 않기 때문에 정체성은 누군가에 의해 하나의 의미로 포착되는 한 ‘장면’이거나 스냅사진과 같다. 누구도 한 사람의 정체성을 단일화할 수 없으며 다만 의미화할 뿐이다.

따라서 어떤 정체성도 단일하고 중심적인 정체성일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분열된 복수의 정체성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체성의 외형적인 ‘단일성’은 상이하고 구별되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상황적인 조건에서 수많은 모습으로 재접합된 모습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의 정체성은 어느 ‘단일성’으로 포착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의 그물망으로 구성된 정체성이다.¹⁴⁵ 복합정

¹⁴⁴. 크리스 바커·다리우시 갈라신스키, 백선기 옮김,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p. 284.

¹⁴⁵. 이런 차원에서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을 북한의 공식문헌이나 담론을 통해 이해하려는 접근의 위험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가 간행물로 표현되는 공식담론상의 국가정체성과 개개인이 갖는 정체성의 개념적 구

체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복합정체성(Multiple identities)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상이한 모습을 보이며 잠정적으로 모순적이기도 한 정체성들에 대한 가정을 지칭한다. 이러한 정체성들은 통합되고 일관된 자아를 형성하지 않는다. 즉 인간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통일성 있는 하나의 ‘자아’로 수렴되지 않는 여러 개의 정체성으로 구성된 존재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출생부터 사망까지 하나의 일관된 정체성을 가진다고 느끼는 것은 우리가 자아에 대해 하나의 통일된 이야기 혹은 서사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이동하는 일련의 주제 위치와 관련된다. 그러한 주체의 위치는 계급, 젠더, 성, 연령, 민족성, 국적, 정치적 입장, 도덕성, 종교 등에 대한 귀속 의식을 포함하며, 이러한 주체의 담론적 위치 각각은 그 자체가 불안정하다. 그중 어떤 하나의 정체성도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구성적인 정체성으로 작용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정체성은 주체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혹은 어떻게 재현되는가, 그리고 주체가 어느 장소와 환경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 변한다고 할 수 있다.¹⁴⁶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은 단일한 모습으로 포착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불안한 자신의 위치(또는 장소)들에

분이 필요하다. 국가정체성은 개인들의 차이를 감추는 담론적 권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경험적으로 국가는 서사에 의해 통일된 국가정체성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이야기, 이미지, 상징, 의례는 국가라는 서사를 통해 국민성이라는 공유된 의미를 재현해 낸다. 따라서 국가정체성은 이야기, 문학, 대중문화, 미디어를 통해 말해지는 공유된 경험과 역사의 재현을 통해 구현되는 동일시의 과정에 관여한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과 국민, 문화와 담론에 의해 끊임없이 모습을 바꾸는 개개인의 복합적인 정체성의 과정을 은폐한다.

¹⁴⁶ 위의 책, pp. 153~154.

서 그것을 끊임없이 자각하면서 또는 망각하면서 생존 기술을 터득해 가는 실존적 ‘삶’ 자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범죄 행위는 그들 개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삶 그 자체에 대응(또는 적응)해 가는 복합적인 정체성의 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침묵하고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또 한편 적극적으로 일탈의 경계를 넘는 다면적인 그들의 생존기술 그 자체를 복합적인 정체성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라) 생계윤리의 범죄와 저항의 범죄

생계윤리(subsistence ethic)는 도덕경제(moral economy)에 입각하여 피지배자가 지배자(또는 후견-피후견)와의 관계에서 갖는 심성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원 사이에는 상호 생존 유지를 위해 기대되는 행동양식이 규범으로서 공유된다는 것이다. 일종의 호혜성과 ‘생존에 대한 권리’로서 정당한 지배를 위해서는 마땅한 ‘생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며, 수탈을 하더라도 수탈한 다음 생계를 유지할 만큼 남기는가 또는 결핍을 보전해 줄 장치를 제공하는가를 묻는 민중의 지배자에 대한 도덕적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도덕경제는 정당한 지배와 마땅한 생존을 둘러싼 갈등과 타협 속에서 구성되는 사회적 관계를 뜻한다.¹⁴⁷

1990년대 이후 나타난 다양한 북한사회의 변화는 가치의 변화를 수반한 것으로 경제관념, 국가와 관료에 대한 심성, 법·제도 등에 대한 ‘생계윤리’적 자기 해석을 의미하기도 한다. 생계윤리적 자기 해석은 공공의 규범에 대한 주민 생계일상 차원에서의 해석과 실천이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는 국가가 정당한 지배를 위해 마땅한

¹⁴⁷ 생계윤리와 도덕경제에 관해서는, 제임스 스콧, 김춘동 옮김, 『농민의 도덕경제: 동남아시아의 반란과 생계』 참조.

I
II
III
IV
V

생존의 조건을 마련해 주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심각하게 대두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생계윤리적 자기 해석은 국가가 마땅한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할 때 기존의 규범과 통제, 제재를 생존과 자기보존 차원에서 넘어서고 전유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측면에서 범죄는 국가의 공적 규범과 주민 생계윤리 사이의 충돌의 결과이며 체제의 불확실성을 재-전유(re-appropriation)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국가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거나 억압할 때 생계윤리는 적극화된다. 이것이 범죄적 양태를 가질 때, 국가에 대한 가시적 저항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범죄라는 수단을 통해 표현된 생계윤리의 심성, 즉 ‘일상의 정치’이자 ‘저항의 범죄’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그것은 고도의 도덕적 이상으로 무장한 공식담론과 비도덕적이며 부패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범죄의 방식으로 적극화될 가능성이 크다.

(2) 접근방법과 텍스트 분석방법

북한 범죄 연구의 어려움은 우선 자료 차원에서 제기된다. 실증적인 자료의 구득(求得)과 자료의 극심한 부정확성이나 편차가 존재한다. 통계자료에 의한 실증적 접근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극히 제한적으로 수집되는 범죄 사례들 역시 일반화와 대표성의 측면에서는 사회과학적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표면화된 형사법적인 처벌 이외에 정치적인 처벌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 범죄 행위임에도 범죄화되지 않는 범법의 ‘잉여지대’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죄 연구의 대상, 범주 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자료의 질적 편차와 양적 규모가 크게 차이 날 수밖에 없다.

둘째, 시간적 및 공간적 비교의 어려움이다. 시대별로 범죄 사건에 대한 보고 및 기록 관행이 차이가 날 뿐 아니라, 그러한 기록이 부족하나마 시대별로 실존하고 있는가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다. 또 범죄에 대한 인내도 역시 시대별·사안별로 차이가 있다. 일종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력의 관용이나 처벌 수위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그것에 따라 범죄의 규정영역도 변화한다. 시대나 권력의 요구에 따라 권력기관이나 형사사법기관의 태도 변화 역시 존재한다.¹⁴⁸ 그리고 권력 변화와 연계된 범죄의 증감 현상도 고려의 대상이다. 권력 변동기 또는 권력에 의해 기획된 범죄 처벌의 증가 등이 범죄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 변화와 범죄 현상의 상관성을 연구하고자 할 때, 그러한 변화가 사람들이 사실을 보고하려는 의지의 적극성 내지 소극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 범죄 연구는 이런 어려움과 한계들을 최대한 고려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통계학적인 접근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전략 차원에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질적·해석적 접근의 가능성을 보다 높이는 방향에서 연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⁴⁹

그런 의미에서 북한의 공식 문헌자료가 지배집단의 범죄에 관한

¹⁴⁸ 이와 관련한 논의로는, **Ezzat A. Fattah**, “체제변환 국가의 범죄현상,”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43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p. 26 참조.

¹⁴⁹ 서용석은 1992년 북한의 범죄와 관련한 연구를 통해 “경험적 자료의 절대적 부족은 북한사회의 범죄에 대한 우리의 접근을 범죄자들의 사회적 배경 혹은 객관적 조건을 규명하는 수준 정도로 제한시키고 있다. 하지만 범죄의 발생은 단순한 객관적 조건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 보다 복잡한 주관적, 심리적 의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자는 이런 주관적, 심리적 차원은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질적·해석적 접근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용석, “북한사회의 범죄,” p. 2.

I
II
III
IV
V

입장과 대응을 이해하는 주요 텍스트라면, 탈북자 면접을 통한 구술 자료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경험하거나 실천했던 ‘범죄’ 사례를 발굴하고 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즉, 범죄가 실제 주민 삶의 현장에서 갖는 현실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 차원에서 바라보고 느끼는 범죄나 부패 행위, 그리고 처벌 등에 대한 의식세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가령 범죄에 관한 국가 담론과 처벌을 받아들이는 태도, 경험하거나 실행했던 범죄의 생생한 내용들, 범죄 행위 또는 피해 과정에서의 의식상태, 범죄 피해나 처벌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범죄의 (비)공식적인 처벌 과정과 내용, 자신이 행한 범법 행위에 관한 정당화 또는 도덕적 해석 방식 등이다. 이들 모두는 사실상 국가의 법적·제도적 경계에 대한 생계윤리적 해석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탈북자 면담을 수행하여 범죄에 관한 주민들의 심성세계와 범죄와 관련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듣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면담 대상자들을 들을 범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전체 구술 인터뷰 중 특히 이 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될 사례는 다음 <표 III-1>과 같다. 이들 중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북한에서 크고 작은 범죄로 인해 노동교화소, 단련대, 구류장 등에 수감된 경험이 있으며, 일부는 재판 경험도 지니고 있다.

표 III-1 구술자 인적사항

사례 번호	이름 (가명)	성별	연령	거주지	북한 내 직업	탈북 연도	입국 연도
14	남형오	남성	40대	함남	철도국 근무	2003	2007
15	조건철	남성	40대	자강도	세관검사원	2000	2005
16	김명남	남성	30대	황남	인민보안국 부원	2007	2007
50	김예지	여성	60대	양강도	병원 약품검사원	2010	2010
51	김유순	여성	30대	양강도	사적관 감사	2010	2010
53	이금철	남성	20대	함남	군인	2008	2008
54	정광일	남성	30대	양강도	지방공장 목수, 대학생	2007	2008

이외에 1명은 범죄를 직접 적발하고 처리했던 道 인민보안국 경제감찰처 부원으로 실제 범죄를 다뤘던 생생한 경험을 구술해 주었다. 한편 구술자 구성의 또 다른 특징은 이들 모두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상당 부분 고학력자들에 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범죄와 관련한 주제 구술에서 상당 부분 경험을 시공간적으로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구술하거나 경험이나 상황, 체제에 대한 자신의 가치 평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다.¹⁵⁰

¹⁵⁰ 면접 진행방식은 3명의 구술자와 함께 범죄를 주제로 경험을 이야기하는 포커스 인터뷰 방식과 1:1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진행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북한에서의 삶을 시계열적으로 구술하도록 하는 한편, 질문자가 사전에 작성한 범죄 관련 주제형 질문을 추가로 질문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나. 범죄의 공적 구성과 변화 양상

(1) 범죄의 정의와 종류

범죄란 사회적 현상이고, 한 사회의 범죄와 형벌의 양식은 그 사회의 구조적 특징을 반영한다.¹⁵¹ 북한에서의 범죄에 관한 정의와 유형화 역시 권력의 요구와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일정한 변화를 보여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004년 개정 형법은 조문의 대폭적인 확대와 구체성, 새로운 범죄에 대한 규정이란 측면에서 이전 형법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고난의 행군’ 이후 변화된 사회질서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종합시장의 허용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조문에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2004년 개정형법과 이전 1999년 형법을 비교하여 범죄에 관한 정의와 유형화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개정형법 제10조(범죄의 개념)에서는 범죄를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² 범죄에 관한 개념은 1999년 형법과 동일하나, ‘형법의 사명’이란 차원에서는 용어의 변화가 있었다. 1999년 개정형법 제1조에서 형법의 사명을 ‘범죄와의 투쟁’으로 정의한 반면, 2004년 개정형법 제1조에서는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으로 수정하여 다소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⁵³ 북한

¹⁵¹-R. Michalowsky, “Perspective and Paradigm: Structuring Criminological Thought,” R. Meier (ed.), *Theoretical Criminology* (Beverly Hills, CA: Sage, 1977), p. 17.

¹⁵²-『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2004년 개정 형법)』 제10조(범죄의 개념), 『북한법령집 (上)』 (국가정보원, 2008. 10), p. 287.

¹⁵³-이금순 외, 『2008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101.

형법이 가진 반인권적인 성격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의식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2004년 개정형법에서 형벌의 종류는 모두 기본형벌과 부가형벌을 포함하여 여덟 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기본형벌로는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이 있고, 부가형벌로는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등이 있다.

표 III-2 2004년 개정형법에서의 형벌의 종류

구분	형벌의 종류	내용
기본형벌	사형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
	무기노동교화형	교화소에 수감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 집행기간 공민의 기본권 일부 정지
	유기노동교화형	기간 1~15년
	노동단련형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 집행기간 공민의 기본권 일부 정지 기간 6개월~2년
부가형벌	선거권박탈형	반국가범죄, 반민족범죄 저지른 자 선거권 박탈 선거권박탈기간 5년 이하 유기노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
	재산몰수형	유죄판결자의 가족 최저생활 제외한 재산 국가 몰수
	자격박탈형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박탈
	자격정지형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 자격정지형기간 3년 이하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

I
II
III
IV
V

1999년 형법과 2004년 개정형법을 비교했을 때, 형벌의 종류에서는 1999년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형벌이었던 노동교화형을 무기노동교화형과 유기노동교화형으로 분리하여 종신자유형을 도입하였고, 노동단련형을 새로 채택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서 기본적인 형벌이 되도록 하였다. 즉 2년 이하의 자유형은 노동교화형이 아닌 노동단련형으로 대체한 것이다.

또한 사형을 법정최고형으로 하고 있던 규정에서는 형벌인 사형을 계속 존치시키면서 이에 덧붙여 무기노동교화형도 법정최고형의 하나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택형의 하나로 둬으로써 처벌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다. 이런 변화는 외부의 시각을 의식한 인권 차원에서의 형벌 완화 조치로도 볼 수 있지만 그만큼 양적으로 늘어난 범죄에 대한 처리에서 국가가 갖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차원에서 선택권의 폭을 넓히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2) 범죄의 유형화

북한은 범죄를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정치범은 “반혁명적이며 반국가적 성격을 띤 범죄자”¹⁵⁴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범죄는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적대적 의사가 없이 국가와 사회,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¹⁵⁵ 따라서 일반범죄는 사상교양과 준법교양을 통한 개조의 대상이지만, 정치범죄는 철저한 진압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¹⁵⁴-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210.

¹⁵⁵- 위의 책, p. 1716.

2004년 개정형법 이전에는 정치범죄의 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적대분자’ 등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정적을 제거하는 데 이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4년 개정형법은 ‘반국가¹⁵⁶ 및 반민족 범죄¹⁵⁷’로 규정하여 정치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중 국가전복음모죄, 테러죄, 조국반역죄, 민족반역죄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 사형이나 무기노동교화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일반범죄를 “반국가적 목적 없이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로부터 국가사회질서를 문란시키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약취하며 공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면서 일반범죄의 근원을 ‘일부 근로자들의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¹⁵⁸

범죄 유형과 관련하여 2004년 개정형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경제범죄와 사회문화 관련 범죄에 대한 조문체계의 대폭적인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제5장 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8개 조문에서 74개의 조문으로 증가하여 개정형법에서 가장 많은 조문이 추가 신설된 부분이다. 대외교역, 상거래 확대, 새로운 경제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범죄유형을 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성폭속 규제, 컴퓨터범죄, 의료형법 등에 관한 규정의 확충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제6장 ‘사회주의 문화를

¹⁵⁶ 반국가범죄에는 국가전복음모죄(제59조), 테러죄(제60조), 반국가 선전선동죄(제61조), 조국반역죄(제62조), 간첩죄(제63조), 파괴암해죄(제64조),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제65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제66조)가 있다.

¹⁵⁷ 반민족범죄에는 민족반역죄(제67조),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제68조), 조선민족적대죄(제69조)가 있다.

¹⁵⁸ 김근식, 『형법학2』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p. 50.

I
II
III
IV
V

침해한 죄'는 구형법에서는 총 6개조에 불과했으나, 2004년 형법에서는 총 26개조로 대폭 늘어났다. 이들 조문이 모두 사회주의문화에 직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장에 포함시키기 모호한 경우까지 여기에 폭넓게 규정해 놓았다.

한편 형벌의 완화 측면에서 탈북자 처벌에서의 변화 역시 눈에 띄는 대목이다. 1999년 형법에서 처벌되는 탈북행위는 단순월경행위와 공화국전복목적탈출행위 두 가지가 있었다. 2004년 형법에서는 단순월경행위의 주체를 '국경을 넘는 자'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자'로 개정하였으며, 그 처벌도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서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대폭 완화하였다. 이와 더불어 단순히 적대적 방송의 청취행위 등을 반국가범죄로 몰지 않고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으로 완화한 점 역시 변화된 부분이다.

(3) 범죄 증가 추이: 인민보안부 내부 통계자료

북한 범죄연구에서 부딪치는 첫 번째 어려움은 범죄 관련 계량적 지표를 확보하기 힘든 것은 물론 관련 언급조차 찾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¹⁵⁹ 다만 탈북자들에 의해 전해지는 사회 실태에서 범죄의 양적 증가 정도를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범죄 통계자료의 입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현재로서 북한의 범죄 실태를 계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할 수 있다. 어느 탈북자의 말처럼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

¹⁵⁹-물론 최근 북한 주요 간행물 중에는 '범죄'에 관련한 언급이 자주 눈에 띄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2004년 창간된 『정치법률연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에서는 자주 '범죄'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어 줄”(사례 15)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일환의 공개적인 범죄 처벌 이외에는 세부적인 범죄 내용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다행히 치안 관련 기관에서 종사했던 탈북자들의 내부 통계자료에 대한 구술이 중요한 추정 근거가 될 수 있다. 황해북도 인민보안국 경제감찰처 부원이었던 탈북자는 ‘고난의 행군’시기와 이전 시기를 대비해 볼 때 범죄 발생지수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수치의 근거는 2007년 작성된 인민보안부(구 인민보안성, 이하 인민보안부) 내부 통계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인민보안부의 경우 전국에 있는 지역 분주소, 시·군 보안서, 도 보안국 등에 보고되고 처리된 범죄 건수를 종합해 매해 통계 자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¹⁶⁰ 종합된 통계 자료는 범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과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학생들에 대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사례 16).

이런 내용을 참고할 때, 북한에서 범죄의 양적 증가는 고난의 행군 전후로 확연하게 증가일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 식량난과 시장화, 인구 유동성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범죄의 증가에 대해 개연성을 추정해 오긴 했지만, 사실상 내부 통계를 통해 그 증가 양상을 확인하긴 힘들었다. 그런 점에서 관련 기관 출신 탈북자의 증언은 정확한 통계수치의 제시는 아니지만 범죄 증가 양상에 대한 개괄적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를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범죄 증가 추이에 대한 정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경제범이나 민생 관련 범죄를 다루는 인민보안부와 달리 국가

¹⁶⁰ 1992년 한 연구에서도 탈북자들은 사회안전부에서 보관하는 통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최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3권 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p. 274.

I
II
III
IV
V

안전보위부와 같은 주로 사상범이나 정치범을 다루는 기관을 통해 ‘범죄화’된 사건들 역시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에 의해 적발되거나 범죄로 처벌된 사건 수를 포함시킨다면 북한에서의 범죄 증가의 규모는 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가령 현재 약 2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주민들의 수를 고려한다면 상당한 수가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범죄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⁶¹

한편 범죄의 증가 추이는 크게 자연적 증가 추이, 시장에 대한 통제 수준에 따른 시기별 증가 추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기획된 범죄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자연적 증가 추이의 경우 경제 전반의 어려움으로 인해 불법적·비법적 행위들이 거시적인 추이 상에서 증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크게 고난의 행군 전후의 증가 추이 변화를 들 수 있고, 이밖에 그해 식량의 작황 수준, 대외 식량 지원의 감소에 따른 식량 수급의 어려움, 홍수나 가뭄 등 자연재해의 여부, 농업의 계절적 주기 등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민생 범죄의 증가이다. 이들 모두는 식량 공급 수준과 범죄 증감과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시장 통제 수준에 따른 증가 추이가 있다. 이 경우 시장에 대한 국가의 통제 수준이 범죄 증가 추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의 정치적·경제적 동기에 의해 시장 통제가 가해졌을 경우, 시장을 대체할 주민들에 대한 국가적 공급 능력이 특별히 개선된 상황이 아니라면 통제에 적발되는 범죄 건수는 자연적으

¹⁶¹ 1950년대 후반부터 운영된 정치범수용소는 1970년대까지 추가 설치되어 한때 13개소에 이르렀으나 1980년대 말 이후 폐쇄와 통합 과정을 거쳐 현재 6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수감자 규모는 약 20만 명으로 추정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정치범 수용 실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p. 4.

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가령 2008년부터 본격화된 국가의 시장통제에 따라 시장 관련 범죄 사례들이 자주 보고되었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2009년 11월 화폐 교환 조치 이후 생계형 범죄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도 이 경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¹⁶² 그만큼 주민 생계활동의 중요한 공간인 시장에 대한 통제 여부와 범죄의 증가 추이와도 일정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개연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획된 적발 강화에 따른 범죄의 증가 추이이다. 이 경우는 국면적으로 대내외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국가가 특정 시기에 기획된 범죄 적발에 나서는 경우이다. 국가가 정책이나 제도를 집행하기 전후에 그 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또는 그 집행의 여파를 차단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가령 화폐개혁 이후로 민심의 이반을 막기 위해 사회 전반에 대해 단속과 적발을 강화하고, 표본적인 범죄 적발을 통해 사회기강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획된 범죄화를 들 수 있다.¹⁶³ 또한 100일 전투, 150일 전투 등 특정 정치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기강을 잡는 차원에서 일상에 강화된 규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

162. ‘좋은벗들’을 비롯하여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전하는 북한 소식의 내용상 추이를 보면, 화폐교환 조치 이후 범죄 적발이나 사건에 대한 사례 소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63. 2010년 2월 8일 북한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는 연합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탈북자 단속 강화, 국내 주민 민심을 고려한 비법적 소유에 대한 처벌 강화, 강도·살인·마약제조 판매 등 치안 강화, 해외 주재원 이탈 방지 등이 그 내용이다. 이는 화폐 교환 조치 이후 나타난 사회적 혼란에 대한 일종의 대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성명에 담겨진 주요 단속 대상을 보면 화폐교환 조치 이후 그들이 고심하는 문제, 우려하는 사회적 혼란의 양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31호 (2010년 2월 16일), p. 12.

I
II
III
IV
V

강 해이자들의 범죄 건수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이와 같이 범죄는 국가가 국면적으로 사회통제의 필요 여부에 따라 증가하기도 한다.

(4) ‘전인민이 도둑놈’: 범죄의 일상화와 유형 변화

한 탈북자는 고난의 행군 이후 ‘전인민이 도둑놈’이 되었다는 말로 변화된 사회 현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990년대 이전에는 소위 경제범죄라고 하는 ‘지능화된 범죄’가 대표적인 범죄에 속했다고 한다. ‘지능화된 범죄’란 주로 공장회계와 관련된 것들로 공장 및 기업소의 지배인이나 간부들이 자재에 대한 ‘농간’을 통해 개인이나 조직의 이득을 챙기는 행위에 해당한다.¹⁶⁴ 사실 이런 행위들은 계획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전형적인 비법 행위에 속하며 여타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¹⁶⁵

그러나 이런 비법적 행위 역시 사회 전체에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범죄로 적발되고 처벌되는 경우는 제한돼 있다고 할 수 있다. 가령 경제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한 표본적인 처벌, 정치적 숙청을 위한 차원에서 비법적 행위를 명분으로 삼는 경우, 기관이나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적 착복을 위한 행위 등에 대해서 처벌하는 경우이다.¹⁶⁶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¹⁶⁴-1992년 조사에서도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직업별로 범죄행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로 당간부와 관료들을 꼽았다. 최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p. 277. 그러나 그것이 주된 수탈적 성격을 갖지는 않았다.

¹⁶⁵-사회주의체제에서 나타났던 각종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는, Maria Los, *Communist Ideology, Law and Crime* 참조. 계획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에서 비롯되는 이들 범죄는 주로 서류날조와 위조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서류범죄’라고도 한다.

¹⁶⁶-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은 ‘간부혁명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빈번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한다.

90년대 이전에 범죄는 일반범죄보다도 지능화된 범죄가 많았어요. 어떤 범죄자이냐면 간부들, 공장지배인이라든가 공장회계,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로 해서 일반 하층 사람들이 아니고 그런 쪽 있는 사람들이 범죄가 있었거든요. 해먹어도 크게. 그런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전 인민이 다 도둑놈이 된 거죠. 전 국가가. (사례 16)

경제난이 심각해지면서 사회 전반의 부족이 심화되어 생존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한 인민들의 ‘절도’가 공공연하게 사회 전반에 나타난 것이다.¹⁶⁷ ‘범죄’라는 용어 자체가 가졌던 사회적 인식 변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고난의 행군 이전 범죄는 살인이나 가정집을 터는 범죄, 강도¹⁶⁸, 패싸움, 그리고 국가 공동재산을 훔치는 ‘지능화

게 표명하며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한 투쟁을 강조해 왔다. 이런 언급들은 경제일꾼들에 국한돼 있던 불법적 행위가 간부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일종의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간부들을 혁명화하는 것은 오늘의 복잡한 정세와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 있는 혁명임무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요구로 나선다 … 간부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 일부 일꾼들 속에서 혁명화되지 못한 현상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되어 있다. 오늘 간부들 속에서 혁명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부정적 현상이 자라나 혁명과 건설에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칠 수 있다.” 최금준, “간부혁명화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게 한 역사적 문헌,”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0권 제3호 (2004), pp. 12~13.

¹⁶⁷ 물론 물자 부족으로 인한 국가재산에 대한 절도와 횡령은 사회주의체제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북한에서도 1990년대 이전에 광범위하게 존재했다. 이러한 범죄와 관련하여 러시아에선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농담이 있었다고 한다. “소련은 세계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이다. 거의 반세기 동안 누구 할 것 없이 국가재산을 훔쳐왔는데도 아직도 훔칠 것이 있다.” 만연했던 국가재산 횡령의 실태를 보여주는 유머라 할 수 있다. J. D. Ilya Zeldes, *The problem of Crime in the USSR* (Illinois: Charles C. Thomas, 1981), p. xi.

¹⁶⁸ 1992년 탈북자 인터뷰를 토대로 조사된 연구에서도 강도 피해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최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I
II
III
IV
V

된 범죄’로 일부 간부급에서 행하는 비법적 활동으로 인식되어왔다.

대체로 시기로 보면 제가 보기로는 92년 이전까지는 사실 범죄현상이 없진 않았죠. 있었는데, 그때는 그 국가적 차원에서 배급도 다 주고 사람들이 그 생활을 안착시키는 정도로 생활은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부족한 건 있지만 생존권을 유린당하게끔 그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거기에서 대체로 보면 범죄라고 할 때, 일반적 상황에서 살인이라든가 이런 거 범죄로 봤어요. 그리고 가정집을 터는 범죄, 이런 범죄. 그 다음에 흑간 강도나 패싸움. 근데 그 정도밖에는 뭐 범죄라고 하는 거... 사회 국가 공공 대상에 손을 대거나 그런 현상에 대해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생활이 척박해지면서 사람들은 국가 재산에 손을 대는 행위들이 많이 노골화됐죠. (사례 16)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인민들의 공공재산에 대한 절도는 생계우리의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절박한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일용할 양식을 주지 못할 때 발동하는 자구적인 주민들의 자기생존의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행위가 비법 또는 불법인 것을 분명 인지하였지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차원에서는 법적 차원을 넘어서는 생존의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 인민이 도둑놈’이 되었다는 것은 비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범죄행위의 일상화를 의미하는 한편 국가의 주민들에 대한 부양 능력의 저하가 범죄 일상화와 일정한 함수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주민들이 갖는 범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그들이 범죄를 어떻게 유형화하고 있는가를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구술을 통해 범죄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예비적 고찰,” p. 269.

있었다. 하나는 ‘생계형 범죄’이고, 다른 하나는 힘 있는 간부들에 의해 행해지는 자신의 ‘폭리’를 취하는 ‘권력형 범죄’이다.

범죄유형을 보면 생계형 범죄하고 그 어떤 폭리를 취하기 위한 범죄로 볼 수 있어요. 생계형 범죄로 본다 할 때 일반적으로 이걸 이제 배급에 의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최하층, 노동자, 농민. 그다음에 폭리를 취하는 범죄라고 볼 때 간부, 간부들이 범죄를 하거든요. 범죄양상에 따라 도둑질하는 범죄가 있고 권력에 의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당원, 권력기관 이런 사람들은 자기 권력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은 범죄에 잘 안 걸리는 거죠. 물론 검열에 걸리면 걸리지만, 그 사람들 자체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웬만한 범죄는 자기 들끼리 다 묵살시키고 일반 생계형 범죄는 엄격히 다루는 거죠. (사례 14)

그러나 이들이 구분하는 범죄의 두 유형은 실제 범죄로 적발되고 처벌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일반 주민들에 의해 행해지는 소위 도둑질은 적발될 경우 처벌이 거의 대부분 뒤따른다면, 간부들이나 권력기관이 행하는 ‘폭리를 취하는 범죄’는 묵인되거나 적발되어도 쉽게 무마되어 최종적으로 범죄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위는 불법이지만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은 ‘은폐된 범죄’ 또는 ‘범죄화되지 않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불법 행위가 ‘범죄화’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경계선은 권력을 가졌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계급적 구분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적발되지 않지만 힘 있는 관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불법행위 역시 범죄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범죄의 유형을 ‘생계형’과 ‘권력형’으로 구분하여

I
II
III
IV
V

인식하는 속에는 유형화를 넘어서, 이러한 행위 처벌에서 계급적 구분이 작동하는 왜곡된 법적 처벌 체계, 권력계층에 대한 강한 불신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엔 먹고 사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행한 불법적 행위와 개인적 축재를 위해 행해지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이 불공정하다는 강한 불만이 깔려 있다. 이것은 고난의 행군 이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산해지기 시작한 경제적 ‘계층화’나 상대적 박탈감 역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면, 경제난으로 대표되는 고난의 행군이 “북한 시스템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끔, 가장 일반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사례 16)라는 인식이 일반적인 평가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이나 평가는 불법적 행위나 처벌되는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체제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는 평가라는 점이다. 이것은 일종의 국가나 체제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범죄를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닌 ‘운이 없어’ 적발돼 처벌받는 개인의 ‘운’ 문제로 보거나, 같은 불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범죄 여부가 판별되는 ‘권력 소유’ 여부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범죄의 일상화는 주민 차원에서 체제에 대한 도덕적 분노나 불신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다. 구술을 통해 본 범죄의 양상과 인식

(1) 권력형 범죄: 레드-칼라 범죄

(가) 권력을 이용한 범죄적 ‘수탈’

탈북자 구술을 재구성하면 소위 권력을 이용한 범죄로서 ‘레드-칼라(Red Collar)¹⁶⁹ 범죄’ 또는 ‘권력가 범죄(crime of the powerful)¹⁷⁰’는 시기별로 그 유형과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여준다. 물론 시기는 고난의 행군 전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고난의 행군 이전 시기에 권력을 이용한 범죄는 앞서 언급했듯이 공장·기업소에서 자재 ‘농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전형적인 형태였다. 그나마 그러한 ‘농간’조차 계획경제가 야기하는 자재 부족과 생산의 불확실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기업소 차원의 자재 축장과 개인 착복이라는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발생하곤 했다. 그래도 인터뷰에 참여한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고난의 행군 이전 대다수 당일꾼이나 권력계층들이 ‘혁명적’으로 살려고 했고 돈에 집착하기보다는 명예를 중시했다고 평가한다.

169. ‘레드-칼라’는 소위 당성과 혁명성을 인정받은 주요 엘리트 관료, 당관료 등이나 관리·감독·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에 있는 간부들을 뜻한다. 레드-칼라 범죄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자신이 가진 관료적 권한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 등을 비공식적으로 수수, 횡령, 절취, 약탈, 착복하는 행위를 뜻한다.

170. ‘권력가 범죄’는 “한 사회의 정치기관들이나 경제조직들이나 이 둘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이, 그들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강화·방어할 목적으로 직접 저지르거나 교사하는 모든 범죄행위와 처벌 위협이 있는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철,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한 개념적 접근: “비유효 범죄” 영역의 개념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 1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pp. 331~374.

해당 자기 공장에서 필요 되는 자재를 구입하려 그 공장에
가 가지고 물품이라든가 또는 뇌물을 가져가서 그 공장에
줘서 그 공장에서 받아야 할 양보다 더 많이 받아와 가지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사취해서 돈을 자기가 갈취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경제
범이라고 해요, 경제범... 그때 당일꾼이나 권력계층들이
말하자면 국가자금을 빼먹는 현상에 대해 보면 그렇게 농
후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래도 혁명적으로 살려는 그런
생각이 많고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은 시대에
요 그때가. 그리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노력
하는 시대였고. 그 밑에 자재를 가지고 휘두르는 그 사람들
이 비행이 많았거든요. (사례 14)

그러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서면서 권력을 이용한 범죄는 새로
운 양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우선 권력을 이용하는 간부층이 수
직적·수평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과거 주로 행정계통의 공장·
기업소 간부들을 중심으로 행해지던 불법적 행위가 행정계통의 간부
는 물론이고 당간부, 법일꾼 등 거의 모든 기관의 간부들로 수평적으
로 확대되었다. 또한 각 계통의 간부들 사이에서도 그 위계에 따라
서로 협력·묵인하면 소위 말하는 공모하는 범죄적 행위를 하기 시작
했다. 한편 그 범죄적 행위의 성격도 ‘농간’에서 ‘갈취’ 또는 ‘수탈’의
성격으로 바뀐 것이 특징이다.

관료적 권한을 이용한 갈취와 수탈의 예를 어느 탈북자의 구술을
통해 살펴보면 이렇다. 힘 있는 기관의 간부들이 갈취 대상으로 삼는
표적은 소위 “힘없고 뺨없는” 곳이다. 가령 가장 힘없는 곳 중 하나가
협동농장이다. 사적지나 전적지 건설 지원, 사회노동에 대한 지원 명
목으로 ‘육고기(돼지고기)’가 1톤이 필요하다면 2톤을 상납할 것을 농
장에 요구한다. 농장에서 농장원들을 통해 2톤을 마련하여 상납하면
1톤은 지원 사업에 보내고 나머지 1톤은 간부들이 사취하는 방식이

다. 또 가을걷이 때가 되면 당은 당대로, 행정은 행정대로, 근로단체는 근로단체대로 각각 담당지도원을 농장에 보내 필요한 양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갈취’를 해 간다. 이런 갈취에는 법질서를 지키는 보안일꾼마저도 참여한다. 수많은 권력기관들이 갈취해 가는 것을 눈감아 주고, 보안일꾼마저도 농장 간부들에 대한 비리 적발을 명분으로 농장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갈취해 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시기에 들어서면서 국가적인 공급이 끊기고 모든 생활필수품이라든가 그런 게 열악한 환경이 제기되면서 사람들은 권력을 이제는 악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당일꾼이라든가 권력, 우리 법일꾼도 같죠. 행정일꾼은 행정일꾼대로. 말하자면 제일 밑에 하부말단이라는 게 뭘니까. 힘없고 뺨 없고. 농촌 아낙니까. 농촌이나 공장 기업소 가서 갈취하는 데에 이르렀어요. 갈취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사실 북한에서 법이 존재한다고 하지만 당이, 집권당 체제로 이뤄진 나라기 때문에 당 안에 법이 있어요. 이 법에서 당을 감시하거나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당일꾼 비행에 대해서 봐도 법일꾼들은 눈 감아야 하고 취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사례 14)

이런 권한을 이용한 수탈로 인해 “농민들은 아무리 일해 봤자 먹을 게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만큼 현물이나 현금 분배에서 폐기 때문이다. 해당 농장의 당일꾼이나 관리위원장도 “담당지도원들한테 잘못 보이면 해임철직이나 법에 잡혀가게 되고” “뇌물을 어쨌든 주어야만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수탈에 사실상 가담하게 되는 것이다. 원하는 뇌물을 상납하지 않을 경우 꼬투리를 잡아 오히려 범죄자를 만들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정의보다는 권력의 자의성에 의해 조작되는 범죄만 있게 된다. 관료들이 수탈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범죄 낙인을 찍을 수

I
II
III
IV
V

있는 권한을 통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권력을 이용한 범죄적 행위에 대해 주민들은 ‘수탈’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수탈 방식도 특정 계통의 간부들만이 아닌 각 계통의 간부들이 총체적으로 서로 공모하고 묵인하면서 ‘힘없고 뺨없는’ 농장, 기업소를 대상으로 수탈을 행하고 있다. 사실상 그런 수탈의 물자들이 농장원과 노동자들을 통해 조성된다는 점에서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 권력의 ‘수탈’이 하층 일상에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들의 행위를 과연 위로부터 적발되어 처벌되지 않는 이상 범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이것을 ‘수탈’로 보고 범죄적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탈’이란 용어 사용 속에는 권력을 이용한 갈취에 대한 상당한 도덕적 분노가 담겨있다. 상대적으로 일반 주민 자신들이 행하는 작은 비법은 언제나 범죄로 낙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억울함’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나) 통제와 약탈 사이에서: 황해남도 인민보안국 운영의 실제

북한에서 인민보안부는 주민들의 치안을 담당하며 범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기관의 법적 존재 이유와 달리 실제 운영과정에서 인민보안부는 각종 불법적 행위를 방관하거나 주도하는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주민 통제 명분을 통해 주민 보호보다는 오히려 범죄적 약탈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인민보안부의 이중적인 행태에는 북한사회에서 범죄가 구성되는 모순적 양상은 물론, 북한체제의 지속 메커니즘에 범죄적 약탈 행위가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보여준다.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재구성한 황해남도 인민보안국의 운영 실태를 통해 이러한 모순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민보안국 전체의 임무>

황해남도 인민보안국의 임무는 첫째, 도급 행정기관 - 道 인민위원회, 경영위원회, 근로단체부, 국토환경보호관리부 - 의 감독과 통제이다. 이들 구성원들의 출퇴근 보고 정형, 유동 인원 확인, 각 기관에서 제기되는 각종 비리 등을 조사한다.

둘째, 각 시·군, 기관·기업소에서 제기되는 모든 사건에 대한 지도이다. 가령 지배인과 부기장이 담합하여 국가 자금 갈취하는 행위, ‘전량세대’(뺨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 생산물이 없는 사람,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람)에게 나오는 보조금을 갈취하는 행위, 비법적으로 ‘덧벌이조’를 만들어 나오는 수익을 단위 책임자들이 횡령하는 행위, 손님 접대 명목으로 돈을 탕진하는 행위, 주민들에게 세외 부담을 주는 행위, 각 학교들에서 미성년자를 노동시키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도내 협동농장에 대한 감독·통제이다. 협동농장에서 제기되는 당의 방침 집행에 대한 태공 현상, 모내기를 제 기일에 끝내지 못하는 현상, 김매기를 제철에 하지 않은 현상, 국가 생산물이나 수확고를 낮춰서 보고하는 행위, 예비 토지를 국가에 신고(등록)하지 않는 행위, 세외 부담을 주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8, 9호 단위¹⁷¹에 대한 관리·통제이다.

<보안국 경제감찰부의 임무>

보안국 경제감찰부서는 다음과 같이 각각 부원들에게 담당 업무가

¹⁷¹-8, 9호 단위는 중앙당에 보내는 물자를 담당하는 단위를 말한다.

부여되어 있다. (1) 시·군 담당지도원들은 지도원 1명이 3개 군을 담당하며 1개월에 20일 정도를 시·군에 내려가 지도 활동을 한다. (2) 도급 지도기관 담당지도원들은 30명 정도로 도급 지도기관에서 일어나는 범죄현상에 대한 감독·통제를 하고 도난 사건, 수입 대 지출 관계, 개인들의 국가자금 횡령 관계 등을 감독 조사한다. (3) 8, 9호 담당부원은 각 시군 기관에 있는 8, 9호 물품에 대한 횡령이나 관리감독의 수행 여부를 파악한다. (4) 사건 담당 부원은 시군에서 제기되는 신소 자료에 대한 현장 조사 활동을 한다. 주로 발생하는 사건은 ‘해독 사건’이 많다고 한다. 해독사건은 가령 누가 벼를 심었는데 자라기 전에 베는 행위이다. 일단은 경제감찰 사건담당 부원, 보위부 사건담당 부원이 같이 현장에 나간다. 적(간첩)들의 행위인가 개인의 감정적 행위인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사건이면 경제감찰이 맡고 간첩이 했다고 판단되면 보위부로 넘긴다. (5) 국토담당 부원은 국가 산림을 침해하는 현상, 불법 바다 양식장을 돈과 물건을 받고 규정대로 하지 않고 안면 관계로 떼 주는 현상 등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한다. (6) 종합부원은 들어온 사건을 접수하고 각 부서에 분배하고 제기된 사건을 보고를 받아서 중앙의 보안성에 통고하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지시를 보안국장과 보안처장에 갖다 주는 일을 한다.

<비리노트 작성과 보호세 받기>

경제감찰부원들은 ‘봐주는’(보호하는) 단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잘살고 별이가 좋은 관할 농장, 공장 중 담배나 장공장, 피복공장, 신발공장, 국토보호관리부 산하 수산사업소 등이 주요 표적이 된다. 도에서 검열을 내보내도 다른 데로 돌리고, 농장 관리위원

장한테는 “당신 해임 철직될 수 있었는데 봐 준거야, 명절날 돼지나 식량 공급하라”라는 식으로 권한을 이용하여 뒤를 봐주고 뇌물을 받는 식이다. 대체로 주요 표적이 된 농장이나 공장 책임자들의 비리를 미리 조사하여 ‘비리노트’를 만들어 놓는다고 한다.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책임적으로 보장(보호)’해 주는 방식이다. 다른 담당자로 ‘우라까’(교체) 되어도 나가면서도 후임자에게 연결시켜 준다고 한다. 후임자에게 연결시키지 않을 경우 자신의 비리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비리노트를 세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뇌물 사슬’은 거의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비리를 조사하는 방식>

모든 도내 기관, 기업소에 일명 ‘안전소조원¹⁷²’을 심어 놓는다고 한다. 안전소조원은 해당 기관, 공장·기업소, 농장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비밀리에 선별한다. 보통 조직에 30명 중 한 명이 안전소조원이라고 한다. 그들 안전소조원들은 비밀리에 서약서를 쓴다고 한다. 해당 소속 조직의 모든 비리에 대해서 빠짐없이 보고하겠다는 서약서이다. 이들을 통해서 보름에 한 번씩 A4 용지 반 페이지 분량의 정책자료, 동향자료 등이 비밀리에 접선을 통해 보고된다. 가령 누가 농촌동

¹⁷² 안전소조원은 평상시에는 해당 직장에서 자기 생활을 하지만 생활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위법행위, 불법행위, 행동이나 말을 감시한다. 그걸 정책자료와 동향자료 등으로 작성하여 비밀리에 담당 보안국 부원들에게 보고한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체로 누가 안전소조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안전소조원들에게 따로 물질적 보상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안전소조원의 선택은 토대와 가정환경이 좋은 사람, 경력에서 공백이 없는 사람, 성격에서 과오가 없는 사람 등 주민등록 문건을 보고 선택한다고 한다.

I
II
III
IV
V

원기간에 무슨 말을 했다, 누가 장사해서 폭리를 봤다, 담당 과장이나
위원장이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그걸 사취한 것 같다는 등 주민 언행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동향을 비밀리에 보고한다.

<안전소조원의 역할, 규모>

안전소조원은 그 직종에서 해임되는 날까지 임무를 비밀리에 수행
한다. 일을 잘 했다 하면 다른 직장에 가서도 한다고 한다. 주위 사람
들이 안전소조원인 것을 알게 되거나 신변에 위험이 제기되면 직장을
옮겨준다고 한다. 대체로 안전소조원을 하는 사람들은 공지를 가진다
고 한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알려지면 공지를 가진다고 한다. 자신이
힘 있는 기관과 관계된 사람이라는 것, 당과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 자신을 주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한다.

기업소 종업원이 100명이면 보통 3명 내지 4명의 안전소조원이 있
다고 한다. 경제감찰은 일반기업소 상대로 급수와 상관없이 종업원
수로 안전소조원을 비밀리에 투입한다. 기업소에서는 당비서만 안전
소조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 그 사람을 채용하는데 해당 기업소의
당비서의 수표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안전소조원
은 전국적으로 평균 주민 20명 중 1명으로 보면 된다고 한다. 북한
전체 주민을 2,000만으로 본다면 100만 명인데, 이들 중 노인과 아동
을 제외하면 50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
람들은 궁극적으로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주민을 통제할 수 없고 내부에 숨어 있는 적색분
자를 잡아낼 수 없다고 한다. 한편 이들의 정보를 근거로 권력기관들
의 뇌물과 부패 사슬, 수탈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다.

<법의 무풍지대: 중앙당 비서국 비준 대상>

도보안국에서는 중앙당 비서국 비준 대상들은 건드리지 않는다고 한다. 가령 인민위원장, 경영위원장, 보안서장 등 중앙당 비서국 비준 대상에 해당하는 간부들은 비리가 있어도 도보안국에서 건드릴 수 없다. 1개 군에 중앙당 비서국 비준 대상은 보통 7명이다. 군당 책임비서, 조직비서, 선전비서, 근로단체비서, 군인민위원장, 군경영위원장, 군보안서장, 군보위부장 등이 기본이고, 시(市)는 특급기업소 책임비서, 대학학장들도 비서국 대상이다. 이들을 비리로 적발하려고 한다면 최고인민위원회나 중앙당 비서국에서 합의(허락)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비리가 많아도 바로 보안국에서 직접 행동을 할 수 없다. 비리를 자료화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중앙에서 해임·철직해도 그 간부가 속한 ‘계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한다. 그것은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서국 비준 대상 당일꾼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암묵적인 철칙이라고 한다.

가령 도인민위원장이라고 하면 도당(道黨)의 큰 간부들은 연출과 이해관계를 통해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 만약 도당의 큰 간부들 배경의 힘으로 앉아 있는 사람을 건드렸을 경우 “송사리 같은 놈이 건드려, 너 보자”라는 식으로 복수한다고 한다. 따라서 대체로 이런 사람들의 비리를 절대 건드리지 않고 못 본 체한다고 한다. 모든 핵심 당간부들은 그들의 계파와 라인을 가지고 묶여 있다고 한다. 이들은 위와 아래로 서로를 보호해 준다. 그래서 이들 계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위와 아래로 절대적으로 충성한다고 한다.

결국 중앙당 비서국 비준 대상에 해당하는 간부들의 비리나 부패는 내부적으로 척결되기 힘들다. 이들의 권력 유지 방법은 일단 자기 권



한으로 몇 사람을 간부로 등용해서 키운다. 누가 자기를 뒤에서 도와줬다 하면 김정일보다 속마음으로는 더 우상화한다고 한다. 만약 그 계파에 속한 한 사람이 어떤 기관에 의해 ‘다쳤다’(비리 적발)라고 한다면, 그 계파의 간부들이 달라붙어서 다치게 한 사람이나 기관에 복수하는 방식이다.

<권력 파벌 형성과 은폐되는 범죄>

계파나 파벌은 지역적으로만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김정일의 내부 방침은 ‘의형제를 맺거나 한 간부를 우상화하는 행위는 용서 안 하겠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파벌을 형성하여 비밀리에 내적으로 자기를 보호해 주는 사람을 우상화하고, 서로 의형제를 맺지만 절대로 외부로는 표현하지 않는다고 한다. 북한 관료사회는 내부적으로는 모두 그런 충성과 의형제의 관계에 의해 움직인다. 법 계통, 행정 계통, 당계통 모두에 이런 파벌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이 기준이 되기보다는 인물적으로 계파나 파벌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어느 관리위원장을 취급을 하는데, 관리위원장이 교도소에 들어갈 만큼 많은 양을 먹었어요. 당기관에서 도당 부원이 내려와서 관리위원장 좀 살려주자고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당 조직비서가 전화 온 거예요. 그 그룹인 거지. 어느 관리위원장 있지, 그 사건 다치지 말라, 하더라고요. (사례 14)

인구 규모와 상관없이 1개 군에 중앙당 비서국 비준 대상은 보통 7명이다. 이렇게 추산하면 한 개 도(道)에 약 20여 개 군이 있고 약 140명의 중앙당 비서국 비준 대상이 있다고 할 수 있고, 평양을 포함

9개 도(道)에 약 1,400명의 비준 대상 간부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특급기업소 간부 5,000명, 중앙당에 있는 간부를 포함하여 지도원까지 하면 이들이 북한 권력 파벌을 형성하는 핵심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파벌을 형성하고 각 계통과 역할에 따라 서로 균형을 형성한다. 이들의 균형이 없으면 북한체제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다) 통제와 약탈 사이에서: 보안기관의 수탈 사례들

보안기관들은 각 지역, 단위 모든 곳에서 통제 권한을 이용해 약탈적 행위를 하고 있다. 해당 관할 지역과 단위의 특성과 이해관계에 파고들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심지어 범죄 행위자들과 결탁하여 오히려 범죄 행위를 보호하면서 치안 권한을 이용한 자신들의 ‘특수’를 독점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러한 보안기관이 통제와 약탈 사이에서 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권력 행사의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안원과 밀무역꾼의 결탁>

국경연선지역의 보안원들은 주로 밀수꾼들의 밀수품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재산을 불리기도 하다. 양강도 혜산시 보안서 보안원들의 경우, 네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개인용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고 한다. 보안원 개인들이 오토바이를 사서 보안서에 등록한 것으로,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로 다. 일반 주민들이 자전거도 없이 걸어서 힘들게 공장에 출근하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사치가 아닐 수 없다. 혜산시 보안서 보안원들 중에서도 순찰대 4조 조장 강OO는 혜산시 주민들 사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I
II
III
IV
V

강씨는 해란동, 해신동을 비롯한 국경 순찰 근무를 하면서 밀매업자들의 밀매품, 예를 들어 희금속인 동, 금, 뽀베지트(팅스텐 합금) 등의 운반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대가로, 매일 인민폐로 500위안 이상을 벌었다고 한다. 만약 500위안 이상 벌지 못하는 날에는 “재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오토바이도 보안원들 중에 가장 비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데, 중국 돈으로 6,300위안 주고 산 것이라고 자랑하고 다녔다고 한다. 암달러상들에게 돈을 바꿀 때에도 2~3만 원(북한 돈) 정도는 거스름돈이라며 안 받는 정도였다고 한다.

강씨가 악명이 높은 이유는 단지 밀매매자와의 유착관계 때문만은 아니다. 같은 밀수업자라 해도 별 돈별이가 안 될 것 같으면 약삭같이 빼앗아 보안서에 바쳐서 근무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돈이 된다 싶을 만큼 밀매매 양이 많으면 자기가 절반 이상 떼먹는 식이다. 이렇게 부를 축적한 강씨는 보안서와 도당의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몇 번의 검열도 무사히 넘겼다고 한다.¹⁷³

〈‘보호비’로 공생하는 보안원과 조직폭력배〉

조직폭력배들은 주로 대도시 역전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¹⁷⁴ 이들은 대체로 군에서 제대한 이들로 특별히 할 것이 없어

¹⁷³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73호 (2010년 11월 3일), p. 2.

¹⁷⁴ 고난의 행군 이전 1980년대 말이나 1990년대 초에도 조직폭력배가 전국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보고는 많았다. 주요 시·군 지역마다 거의 2-3개 씩 구성되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조직으로 나포지역의 ‘망치패’, ‘깡패’, ‘편치패’, ‘만수패’ 등이 구성되어 있어 술을 마시고 패싸움을 자주 하며 간혹 부녀자도 폭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 시기만 해도 고등중학교 졸업 후 일정하게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패거리로 형성하여 패싸움이나 절도를 하는 경우로, 주로 청소년들의 힘겨루기 차원의 성격을 가졌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는 제대군인이 중심이 되어 조

조직폭력배를 결성한다고 한다. 특히 특수부대 출신의 30~40%가 조직폭력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역전에서 물건을 빼앗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일, 사기당한 돈 받아 주기, 시장 주변에서 장사꾼들을 보호해 주는 대가 등으로 ‘보호비’를 받으며 생활한다. ‘보호비’를 받고 주로 시장에서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 치는 사람들로부터 지켜준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해당 관할의 보안원들과 뇌물을 통해 결탁되어 있다. 이들이 보호비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보안원과의 결탁도 있지만, 시장 활동 등 비공식적인 상거래의 계약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들이 번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 또 간부들이 다 있죠. 그 간부를 끼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보안서 감찰과장이나 보위부 무슨 반탐과장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다 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구누구 사건 중에서 잡아간다, 잡아갔잖아요. 말하자면 내 오야붕인데 내 밑에 있던 사람 잡아갔잖아요. 그럼 가서, 야 우리 사람인데 좀 빼 달라, 꺼내 준다고. 그 능력이 없으면 그 오야붕 밑에 뭉치지 않으니까 그런 조직이 많아요. 황해북도에 마영이파, 평성에 뭐 누구지. 좌우간 시내에 가면 다 있어요. (사례 53)

돈 빌려준 거. 내가 사기당하든가 못 받았잖아요.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받아요? 그럼 조폭에 누가 아는 놈 있으면 나 이런 것 좀 해 달라 그럼 형님한테 갖다 대죠. 야 누가 얼마를 누구한테 못 받았대, 야 그거 가서 하라. 그럼 애들은 다 낀 사람들 있으니까 군부대 명칭 달고 차들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차타고 밤에 새벽 2시, 3시 그때 막 날아 들어가거든요. 자는 거 들어가서 들이패거든요. 돈 내놓으

직적인 이권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공권력과 결탁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I
II
III
IV
V

라. 돈 없다. 그럼 나가라. 그럼 집 뺏기죠. 집 뺏고 내쫓고, 시장 나가서 시장 보호해 주고, 보호비 받아먹고. (사례 53)

<조직화된 매춘조직과 보안기관의 결탁>

매춘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국경도시나 내륙의 주요 교통요충지 도시에서 번성하고 있다. 북한은 숙박시설이 많지 않고 숙박검열이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여행자들은 비공식적인 개인 ‘숙박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개인 숙박소는 브로커(인신매매)를 통해 여자를 채용하여 매춘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매춘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보안기관 또는 보안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한다고 한다.

여자들 소개해 주고, 개인숙박소 있거든요. 집은 있는데 먹을 게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자들 채용해 가지고 자기네 집에 놔뒀다가. 대부분 군인들이 많이 찾아다니죠, 60~70%. 군인들만 보면 무조건 가서 말 시키거든요. 처녀, 북한에선 처녀라고 하거든요. 고운 거 있으니까 하룻밤 자고 가라. 그럼 보자. 이게 어느 정도야, 종이 기다란데다가 사진들 요만큼씩 붙였거든요. 가격이 얼마다. 진짜 실물을 찍어 가지고 사진에다 가격이 얼마 이렇게 해 갖고, 찹찹착착 적어갖고 쪽 찌면 고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 많은 여자가 한 집에 못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그러다가 야 누구 찾는다, 그러면 그거 대는 주인이 있을 거 아니예요. 저 사람이 그 여자 찾는다, 그럼 소개해 줬으니까, 그 사람한테 소개비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이렇게 가면 그 여자하고 하룻밤 자고 우린 돈 주고 나가면 그 여자는 또 집값을 또 주고, 그게 많아요. (사례 53)

<보안원과 결탁한 대규모 도적단>

평양시 서성구역에서 30여 명으로 구성된 전문 도적집단이 2009년 체포된 적이 있다. 이들은 지난 6년간, 잘사는 집이나 은행, 상점들을 털거나 길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금품을 약탈해왔다고 한다. 이들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범죄 행각을 이어온 데에는 서성구역 보안원들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서성구역 보안서 일꾼들은 크고 작은 명절마다 뇌물을 받거나, 축구경기를 할 때 식사와 선물 등을 챙겨 받기도 했다. 대신 각종 도난사고는 유아무야 처리하곤 했다고 한다. 이렇게 보안원들과의 결탁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보안원들도 함께 조사받았다. 이 사건은 2009년 150일 전투 기간을 맞아 평양시 검찰소에서 과거 미결사건을 재수사하면서 밝혀지게 됐다고 한다.¹⁷⁵

(라) 시장과 권력기관의 결탁: 뇌물 사슬과 권력범죄의 확대재 생산

2002년 7·1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허용 이후부터 시장의 관리소장과 해당 지역의 당비서, 행정간부들, 보안기관 사이의 공생관계가 더 밀접해지기 시작했다. 관리소장의 입장에서는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당 간부와 행정 간부들에게 뇌물이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신임을 얻어 업무나 개인적인 치정관계 때문에 ‘말밥에 오르내리지 않게’ 관리하는 목적이 있고, 지역당 간부와 행정 간부들은 관리소장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뇌물이나 편의를 제공받는 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밀접한 공생관계

¹⁷⁵-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98호 (2009년 9월 29일), p. 7.

가 성립하는 것이다.

가령 해주시 종합시장에는 약 2천 명의 매대 상인들이 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이 매일 내는 장세는 7,000~14,000원으로 평균 1만 원으로 볼 수 있다. 대략 2,000개의 매대에서 내는 장세는 전체적으로 하루 평균 2,000만 원 정도로 2009년 화폐 교환 조치 이전 가치로 한국 돈 700만 원에 해당한다. 이들에게는 장세를 낸 증표를 떼어 주는데 시장 관리소에서는 장세를 받고도 증표를 안 떼 것으로 처리하고 그 돈을 관리소장이 모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돈으로 당기관에서 명절 공급 해 달라고 하면 주고, 분주소에서도 얼마 주는 식으로 지역 권력 기관에 뇌물을 상납하고 나머지는 관리소장이 돈을 사취하는 방식이다. 또 검열 나오는 보안원들이나 검열원들에게 ‘접대비’ 명목으로도 쓴다. 이런 접대비 명목인 경우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사례 16). 이런 식으로 장세를 착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 기관 간부나 보안원 등 지역 권력기관에게 뇌물을 상납하고 나머지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이것이 후에 문제시되어도 사건화되지 않고 ‘뒷일’ 없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캄짜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둔한 사람 있어요. 일단은 돈 이렇게 해서 아까 영수증을 없애는 방법으로 저희 시장관리원들하고 나눠 먹어요. 몇 백만 원 제가 가졌어요, 시장관리소장인데. 당 기관에서 명절공급 해 달래서 얼마 주고, 분주소 해 달래서 얼마 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먹었어요. 이제 시장검열 나가서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 돈을 내고 안 내고를 우선 수입 대 지출 잡아놔요. 300만 원이 빈다, 책임자한테 들이댁니다. 300만 원 비는데 대라. 그럼 책임자는 그때 씁니다. 당 기관에 얼마 주고 분주소 얼마 주고 그걸 써요. 근데 자기도 먹은 거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을 등록을 했다간 당이건 분주소고 우리가 제 새끼 잡아먹는 격이 되거든요. 캄짜한 사람은 먹으려고 하면 당

기관이나 법에다 반드시 쪼러주고 먹는 거예요. 그럼 이 사건 우리가 사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사건을 보안서장한테 보안국장한테 비준해 주시오 들어가면, 야, 훈제처리. 여기로 말하면 훈방처리죠. 훈방처리하고 말아요. (사례 14)

결국 시장관리소를 두고 지역 권력기관들이 뇌물을 통해 공생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공생구조 속에서 불법적 범죄행위는 ‘범죄화’되지 않는다. 이들의 공생구조는 권력기관들 사이의 상호 견제 속에서 나름의 긴장과 암묵적 협력 속에서 이루어진다. 서로 다른 권력기관들의 일꾼들은 상호 ‘비리’를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수집하고 그러한 비리를 알고 있다는 상호 긴장 속에서 서로의 비리를 묵인하며 결국 힘이 없는 주민들이나 농장, 공장, 시장 등에 대해 수탈을 한다.

그래서 시장은 위로부터 통제할수록 권력기관의 부패는 번성하는 생리를 갖는다. 위로부터 통제를 하라고 하면 할수록 “그 통제를 모면하기 위한 뇌물이라든가 돈이 더 들어” 오기 때문이다. 오히려 시장 통제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감독·통제 권한이 있는 권력기관들의 힘은 커지고 뇌물의 명분을 키우게 되고 위협이 많아진 만큼 “뜯어 먹는 게 많아진다” 결국 보안기관이나 여타 권력기관은 사실상 시장에 기생하면서 시장의 근절을 바라지 않는 ‘시장 세력’의 핵심으로 자신들의 먹이 사슬을 만들어 놓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 권력 기생을 통한 부의 축적: 정치논리와 희생양 처단
권력기관이나 일꾼들의 공생을 통해 이루어지는 힘없는 주민이나 공장, 농장, 시장에 대한 범죄적인 수탈 행위도 권력 유지의 ‘임계선’

I
II
III
IV
V

안에서만 가능하다. 자신들의 범죄적 수탈 행위나 뇌물수수, ‘뒤 봐주기’(보호비)가 자신의 권력 유지에 위협이 되거나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정치논리로 철저하게 비리가 될 만한 요소를 ‘도려낸다’ 그래서 권력을 끼고 돈을 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돈을 벌고 여자를 벌고 빵에 간다”, “돈벌이, 여자벌이, 교화벌이”와 같은 말을 통해 권력에 기생한 부의 축적이 갖는 허망함을 표현하기도 한다. 결국 권력기관의 시장에 대한 수탈 행위도 자신의 권력 보존과 유지에 해가 되지 않은 선에서 이루어지며, 그것으로 인해 권력이 위협받거나 침해받을 때 정치논리에 의해 과감히 희생양을 처단하게 된다. 그들은 시장을 권력 유지와 개인 축재에 유리하게 이용하는 수준에서 하나의 ‘시장 권력’이며, 이들 행위 자체가 북한시장의 작동메커니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정치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저게 암적인 세력이다, 저게 내가 권력을 유지하는데 뭐 이제 사소하게라도 침해를 주거나 위협을 준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도려내는 거예요. 북한에 그런 사례가 많았어요. 돈이 많아지면 그 사람 죽든가, 외화벌이하는 사람들 격언이 있어요. 돈을 벌고 여자 벌고 빵에 간다. 돈벌이, 여자벌이, 교화벌이. 외화벌이 교훈이. 외화벌이 한 사람들 공통된 격언이에요. 의미가 뭐냐면 돈이 많다고 시장을 좌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표적이 된다면 타겟이 되면 그 사람 살아 못나요. 사형을 당하든가. 그게 98년도인가 황해도 임수산 사건이라고, 밀립 회사, 간첩이라고 싹 다 쓸어버렸고, 95년도 신천에서 신정선 사건이라고, 그건 연형목이가 잡아 죽였어요. 그 할머니가 60살부터 70살까지 김일성 훈장 내놓고는 국기훈장, 노력훈장 해가지고, 김정일이 방침도 받고, 근데 사형당했어요. 그게 암적 존재로 보였기 때문에. 연형목이가 가서 봤는데 그 할머니는 해마다 돼지를 20자루씩 식량도 몇 톤씩 군대를 지원해주고. 근데 다 어떻게 했냐면 권력하고 연관됐

으니까 국가가격으로 물건을 받아다가 시장가격으로 팔아
 가지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그걸로 식량을 사 가지고 군
 대를 지원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당한 활동인데 어쨌든 북
 한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인정해 주지 않으니깐 불법
 으로 걸린 거예요. 근데 원래 이봉길이가 도당책임비서 할
 때 자강도당 전원회의를 희천이란 곳에서 했어요. 근데 이
 봉길이가 중앙당 검열위원장으로 가고 연형묵이가 왔는데
 밑에 있는 조직비서들이 그때 영웅 만들려고 했는데 도당
 책임비서가 바뀌니까 못 만든 거예요. 근데 연형묵 내려온
 다음에 뭐랬냐. 책임비서 동지 희천에 진짜 일 잘하고 인민
 들 지원 잘하는 사람 있다고. 그래 조직비서랑 갔어요. 갔는
 데 1년에 돼지 100킬로 이상 되는 거 20개 이상 지원하고,
 그 집에 가니까 돼지우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연형묵이가
 뭔가 이상하다 저거 좀 수사해라. 이렇게 하니깐 그런 방법
 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확산시키면 인식이 본
 보기면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으니깐 싹을 잘라 버
 린 거예요. 그런 사례가 엄청 많아요. 국가에서 1991년 외화
 별이 벌기 위해 보위부 외화별이 부장하던 사람 노력영웅
 칭호 받았지만, 그렇지만 마지막 그 사람 간첩으로 사형당
 했어요. 돈 많았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거 좌지우지하는데.
 (사례 15)

이처럼 권력을 유지하는 데 지장을 줄 만큼 문제가 표면화되거나
 사회적 이슈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철저하게 정치논리에 의해 제
 거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가 철저하게 수령을 정점
 으로 하는 위계적인 정치자본의 ‘힘’에 의해 움직여지는 사회이기 때
 문에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 시장과 돈을 권력에 필요한 수준까
 지는 수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상 권력을 압도하고 통제하
 기 힘들 정도로 놓아두지 않기 때문이다. 수령제 사회의 근간은 초법
 적 수령과 ‘충성심·당성’에 의해 선택된 관료들의 ‘배품과 보답’의 호
 혜관계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그러한 호혜관계의 규정력을 위협하

I

II

III

IV

V

는 것은 제거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권력의 필요에 의해
감싸다가도 “카바를 못하게 되면 자르는”(사례 16) 것이다.

근데 뭐가 있냐면 저는 현장이지만 중앙당지도검열이라는
게 있어요. 10년에 한 번 정도. 그게 이제 내려오면 그 도둑
놈들 속에서 왕도둑놈은요. 출당, 철직, 최고 총살까지예요.
그게 2000년에 그런 일 있었죠. 호위사령부가 들어왔을 때
중앙당 조직지도부 검열 내려와 가지고 그 해주시멘트공장
초급당비서 하던 사람이 처형됐고, 그때 좀 몇 명 그렇게
했어요. 왕도둑놈들이고.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조직지도부 검열이다 벌써 내려온다 하면 그거 수
습하기 위한 또 **작전**이 벌어지는 거죠. **운수가 나쁜 사람**은
또 잡히는 거고. 근데 그때마다 타겟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일반주민들이 원성이, 저 사람 이유 없이 잘살고.
중앙당 검열, 보위사령부 검열 이럴 때 무조건. 그런데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 나빠지면 무조건 **희생양**을 찾아줘
야 되니까. 그래야지 또, 사람을 달래고 그런 거죠. 어떻
게 보면 **일종의 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죽는 사람만 재
수 없이 죽는 거지.¹⁷⁶

이러한 정치논리는 한편으로 ‘민심’과도 깊게 연관이 되어 있다. 대
다수 주민들의 도덕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권
력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경우라도 정치논리를 개입시켜 표본적으로 처
단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 일종의 ‘작전’이란 표현으로 ‘희생양’ 처단
메커니즘을 표현하기도 한다. 도덕적 분노로 인해 이반된 민심을 달래
주는 차원에서 희생양을 정하고 죄를 덮어 씌어 처단하고 나머지 뒤를
봐주었던 권력은 그런 희생양의 처단을 통해 은폐되는 방식이다.

¹⁷⁶- 굵은 글씨체는 연구자가 강조한 것임.

(바) 마약 장사꾼과 지방간부의 공생구조: ‘특대형 범죄’

마약의 제조 및 판매, 유통에도 여러 단위의 지방 간부들이 뇌물 공생구조를 통해 개입해 있다. 예를 들어, 함경남도 함흥시에서는 2009년 11월 28일, 같은 해 9월부터 실시되었던 마약 검열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검열에서는 마약 장사꾼들과 생산자들을 보호해주고, 편리를 봐주면서 재물을 사취한 당일꾼들이 집중 검거되었다. 검열에 걸린 일꾼들은 도당급 간부 4명, 시당급 간부 3명, 성천강구역 보안원 2명, 도검찰소 검사 2명, 사포구역 당일꾼 1명 등이었다. 사실상 지역 권력기관의 간부들이 총체적으로 마약 범죄행위에 결탁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¹⁷⁷

2009년에도 전국 시, 도검찰소에서는 지방 고위층을 중심으로 마약 밀매매 사건을 집중 수사한 바 있다. 검찰소 4처에 새로 꾸려진 담당 팀은 보안서와 해당 검찰소를 통하지 않고 마약 밀매매자와 관련 있다고 판단된 간부들은 체포해 직접 도검찰소로 압송했다고 한다. 이는 지역 법관들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런 ‘특대형’ 마약 범죄자들이 체포되면 조사 수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약 밀매와 관련된 시당(市黨) 간부와 보안원, 검찰 등의 법일꾼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¹⁷⁸

이처럼 마약 범죄는 소위 ‘특대형 범죄’로 간주되는 큰 사건으로 보통 처리된다. 그 이유는 마약범죄가 사회적 위해도가 큰 이유도 있지만 주로 각 단위의 지방간부들이 마약범과 공생구조를 이루며 연루되어 있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대규모 마약 상인들이 검거된 바 있는데, 이들은 함경남도 함흥시를 비롯해서 평성, 평양, 사리원, 개성

177.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21호 (2010년 1월 5일), p. 7.

178.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96호 (2009년 9월 15일), p. 10.

I
II
III
IV
V

등지까지 아우르는 전국적인 마약 상인들이었다. 이들은 함흥에서 생산된 마약을 평성시로 운반해 평양과 사리원, 개성 등에 퍼뜨리는 방식으로 장사를 해왔다. 이들은 각 지방 고위간부들과 긴밀한 연계를 맺고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도검찰소 차원에서 해당 지역의 보안서와 검찰소를 통하지 않고 직권으로 수사해야만 할 정도로 연루된 지방간부들의 규모가 크다.¹⁷⁹

(2) 생계형 범죄: 빈곤과 생계윤리, 그리고 범죄 낙인

(가) 인민보안부의 몰이식 범죄 사냥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 행위는 대부분 범죄로 적발되거나 처벌받지 않는 반면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범죄 낙인과 처벌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계획적’, ‘조직적’, ‘몰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행태는 보안기관의 ‘성과주의’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주민들은 사실상 권력기관의 존재 이유와 성과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 탈북자는 2006년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다른 수감자들이 범죄로 처벌받은 사연을 들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식의 조직적인 몰이식 범죄 사냥의 대상이 되어 들어 왔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에는 이게 인민보안성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한 달에 너희 군안전부, 시안전부에서 몇 명 잡아넣으라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잡아넣을 사람이 막 없을 때에는 옥수수 한 자루 채는 사람도 군량미 도둑질한 걸로 해 가지고 1년씩 잡아넣고. 뭐 옥수수 세 자루 훔쳐갔고 와

¹⁷⁹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93호 (2009년 8월 25일), p. 10.

서 2년 형기 받은 사람도 있어요. 큰 사람들은 또 돈이 있으니까 그건 안 오죠. 돈 주고, 그러니까 잡혀오는 사람들이 맥없는 힘없는 사람이 많이 오고, 우리같이 사람 죽여서 이렇게 비준받아서 할 수 없이 오고. (사례 53)

한편 이렇게 몰이식 범죄 사냥에 잡혀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보안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빠져나오지만 대체로 잡혀 온 이들은 그럴 돈조차 없는 이들이라고 한다. 이들은 교회소나 단련대에 들어와서 형기를 줄여나가기 위해 가족들을 통해 돈을 마련하여 교회소장이나 단련대 책임자에게 뇌물을 준다고 한다. 이중적인 수탈, 착취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 형기를 부여받지만 형기를 줄이는 것은 교회소장이나 단련대 책임자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들 역시 권력을 이용해 ‘수형자’를 수탈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유랑하는 사회, 불안한 국가: 빈곤·부랑성·범죄

고난의 행군 이후 15년 가까운 시간은 ‘부랑성’이 번성하는 시기였다. 대부분이 먹고사는 문제로 집과 가재도구를 팔거나 가족 해체로 인해 부랑하게 된 사람들이다. 소위 ‘꽃제비’로 불리는 유랑자들이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 떠도는 노숙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부랑하는 주민들은 생활이 안착되지 않고 생계가 극심하게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범죄 행위에 저지르거나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구층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에서도 이 ‘부랑성’이 갖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격리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을 안착시키기에 국가의 안전망은 역부족이거나 수단적으로 부재하다. 따라서 대체로 협동농장에 청년분조를 꾸려 그들을 안착시키거나¹⁸⁰ 구제소에 격리시키

I
II
III
IV
V

려고 하지만 그 부랑성을 제거하거나 부랑성을 이겨낼 생활의 안정감을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부랑성은 이미 통제와 규율에서 벗어난 것이며 그것에 익숙한 삶이란 측면에서 쉽게 제거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이 부랑성 역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나 정체성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이들 부랑하는 인구는 도시를 근거지로 주로 절도나 강도 등 범죄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장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표적 삼아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심한 경우 살인까지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런 사례들은 그들에 대한 사회의 불안감 때문에 더욱 소문을 통해 과장되는 경우가 있다. 오히려 그런 범죄 사례들은 그들이 처한 삶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로 봐야 할 것이다.

가령 2010년 6월에 평안남도 성천군 신성천 철도역 부근의 인가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그 피해자는 황해남도 과일군 과일읍에 사는 31세 여성이었다. 이 여성은 장사를 하러 떠났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시의 숙박검열을 통해 잡힌 범인들은 남자 어른 꽃제비 세 명이었다. 이들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여성이 ‘대기 숙박’을 찾아 나선 것을 보고 뒤따라가 덮쳤다고 한다. 장사를 다니는 여성이라, 배낭 안에는 신의주산 까치신발 25켤레와 남자

180. 강원도 평강군 협동농장에는 꽃제비 아이들로 구성된 청년분조가 2007년 처음으로 결성되었다. 강원도 도당의 관내 꽃제비 구제소에서 중학생 6학년 아이들을 주축으로 하는 26세 미만 청년 꽃제비 40여 명을 모아 만든 분조이다. 하지만 자꾸 달아나고 있다고 한다. 달아난 청년분조원들은 식량과 현금분배를 제대로 못 받고 치우가 나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로 “일하는 재미가 없다. 더 이상 통제와 규율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 보겠다”라며 달아났다는 것이라고 한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48호 (2010년 7월 2일), p. 6.

운동화 30켤레 등 신발류와 봄 향기 세숫비누 50장 등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꽃제비들은 근처 공동화장실에 사체를 유기한 뒤, 배낭과 손목시계, 그리고 현금 23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잡혔다고 한다.¹⁸¹

이런 부랑하는 인구에 대한 국가의 불안 역시 여러 조치에서 발견되고 있다. 특히 국경연선지역 도시들이나 부랑 인구들이 많은 도시역전 주변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 생계의 안정감을 부여할 국가적 수단의 부재로 인해 단속은 오히려 그들을 사회적 배제의 대상으로 낙인을 찍는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가령 ‘무직자, 돈 내고 직장에 이름만 걸고 나가지 않는 자, 직장에 잘 출근하지 않는 자, 83으로 있는 자, 병원 진단서 끊고 출근 안하는 자, 평소에 말썽을 자주 부리는 자, 전과가 있는 자, 탈북한 가족이 있는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해 사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인민반장들에게는 담당 보안원과의 협조를 통해 병으로 앓아누운 사람이라고 해도 반드시 집에 찾아가보고, 병원 진단서를 확인한 뒤 담당의사에게 가서 “병원에 몇 번 찾아왔는가? 병으로 출근할 수 없는 처지가 맞는가?” 등을 상세히 물어보라는 지침까지 내리고 있다. 다른 지역에 나간 사람들도 목적지와 이유, 만난 사람들을 상세히 파악해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은 감시가 주기적으로 계속되는 이유는 이들 부랑하는 인구, 유동하는 인구에 대한 국가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¹⁸¹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50호 (2010년 7월 7일), p. 6.

I
II
III
IV
V

(다) 강제적인 건설동원과 범죄

연중 계속되는 대규모 전국단위의 건설동원이 주민들을 범죄로 내모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각지에서 차출된 대규모 인력들에 대한 식량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들의 식량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한 지역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되어 있다. 각종 건설지원 명목으로 해당 지역 각 단위에서 조달한 식량으로 지급된다. 지역에 따라, 식량 사정이나 먹고 사는 사정에 따라 조달 능력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또 공사 시기가 어느 계절이냐에 따라 조달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나 힘든 노동에 비해 조달된 양도 적고 배급되는 양도 공사기간에 비해 현격하게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배고픔으로 인해 공사 현장 부근 마을을 상대로 한 절도, 주민 살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 예로, 2010년 들어 전국적인 규모로 진행되었던 양강도 김일성 혁명전적지 건설의 경우, 동원된 청년돌격대들은 각 도에서 여단을 조직하고, 그 밑에 시, 군 단위에서 대대를 편성해 여단의 지시를 받으며 공사를 하였다. 전국 단위의 큰 건설 사업이지만, 식량 사정은 어느 건설 현장과 다름없이 심각했다고 한다. 이 건설장에서는 함경남도과 황해북도, 강원도 여단의 식량사정이 제일 안 좋았다고 한다. 다른 여단에서 옥수수밥을 먹을 때, 이 3개 여단에서는 겨우 옥수수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다. 이 지역들은 각각 지역 사정의 측면에서 식량 조달이 여의치 않은 지역들이다.

조달 능력이 모자란 지역의 굶주린 돌격대원들이 인근 농가를 찾아가 음식을 구걸하거나, 입을 옷을 팔아 허기를 면하기도 했다고 한다. 돌격대원들은 민가에 내려가 가축이나 남의 재물을 빼앗는 일도 서슴

지 않는다. 하도 도난사고가 많아서 혁명전적지 건설 현장 인근 마을 들에서는 밤에도 잠을 안 자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지킬 정도이다. 중앙지휘부에 돌격대원들이 저지르는 사고 소식이 하루에도 20여 건 이상씩 접수되었다고 한다. 처음에는 강력히 처벌했는데, 집에서 오던 돈이 아예 끊겨버린 돌격대원들이 많아지고, 도난사고가 늘어나면서 인명 살상 등의 사건도 발생했다고 한다.¹⁸² 때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려고 꽃제비와 고아출신으로 돌격대를 조직해 작업을 시키기도 한다. 이 경우 식량 사정은 더욱 열악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인근 마을은 허기진 군인과 돌격대원들의 절도로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예로, 2010년 3월부터 시작된 평양시 삼석구역 사과농장 면적 확대 공사현장에서는 주로 인민보안부 산하 각 도 보안국 돌격대들이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 중에 날이 갈수록 돌격대원들의 식량 사정이 어려워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 탈영하는 사태가 속출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비생산적인 전국단위의 건설동원이 안 그래도 어려운 가족 경제생활에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건설현장의 열악한 노동 조건과 부실한 식량 공급으로 인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건설동원은 국가의 주민들에 대한 이중, 삼중의 착취 - 국가배급 부재, 지역 식량자원 차출, 개인 생계활동 중지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그 열악함으로 인해 범죄를 낳는 배경이 되고 있다.

I

II

III

IV

V

¹⁸²-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59호 (2010년 8월 4일), p. 6.

(3) ‘범죄 없는 나라’의 사회적 공포와 폭력

(가) ‘강간은 경범죄, 성립되지 않는 강간죄’: 침묵과 웃음

북한에서 성폭력은 ‘침묵 속의 범죄’다. 피해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침묵을 사회로부터 강요받는다. 고발해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고발했을 때 감당해야 하는 무관심, 냉소,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빈번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성폭력은 사실상 폭력적인 남성 지배구조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차적인 폭력은 성폭력이라는 물리적 폭력 그 자체이다. 이차적인 폭력은 그러한 성폭력을 범죄화시키지 않는 치안기관의 태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폭력을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대다수 남성들의 태도이다. 사실 북한사회에서 성폭력이 갖는 심각성은 물리적 폭력 그 자체도 있지만 대다수 남성들에 의해 그것이 묵살되고 가볍게 인식된다는 점이다. 물론 북한 성범죄의 규모와 빈도가 어느 정도 인가 하는 문제는 계량적인 통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그러나 그러한 통계자료의 부재가 북한의 성폭력 수준을 가볍게 보거나 지나쳐야 할 이유는 아니다. 물론 몇몇 구술자료의 사례들에 근거하여 그 심각성을 주장하는 것도 한계는 있다. 그러나 통계자료가 아니더라도 북한의 성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탈북자들의 인터뷰 태도와 구술을 통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성범죄에 관한 일정한 계량적 통계가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성폭력 수준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성폭력이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¹⁸³

¹⁸³-1992년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북한 ‘성폭력(강간)’ 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잠시 연구자가 경험한 포커스 인터뷰 상황을 묘사하고자 한다. 본 연구자가 “성폭력(강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가?”라고 3명의 탈북자 남성에게 질문하였다. 일순간 그들은 모두 질문 자체가 우습다는 듯이 동시에 웃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웃으며 “신고를 안 하거니와 또 해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고 말지”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강간범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이유를 설명했다.

강간범죄가 성립되는 거는 어떻게 성립되는가 하면, 그 누구의 지원을 구원을 받지 못할 장소에서 흥기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본의 아니게 준, 여자라 하는 거. 근데 그저 손으로 데려가지 칼로 찌르겠다고 데려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웃음) 그렇게 해서 하면 강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¹⁸⁴

“생명을 위협했어도 흥기로 위협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가끔 강간범으로 잡혀 오는 경우에도 흥기로 위협을 안 했기 때문에 처벌이 거의 안 된다고 한다. 이어지는 보안원 출신의 구술은 북한 남성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도 그 심각성이 이미 지적되고 있다. 인터뷰에 응한 13명 중에 강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6명,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 보통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 별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비교적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았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지방(특히 대단위 공사가 진행되는 곳)에서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밤 12시 이후로 여자들이 밤거리가 무서워 잘 다니지 못하였다고 한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에서 강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p. 269. 따라서 성폭력의 경우는 1990년대 이전부터 남성지배적인 구조에서 상당히 일상화된 형태로 존재해 왔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¹⁸⁴. 포커스 인터뷰 내용.

I
II
III
IV
V

폭행에 가까운 처벌이죠. 경범죄예요 그게. 북한에서 사실 뭐 여자들, 야 한번 할까 그래도 다 주지 뭐 이렇게... (웃음) 여기서(남한)처럼... (웃음)¹⁸⁵

한편 군인들이 행하는 성폭력 역시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성폭력은 ‘선군시대’라는 이유로 범죄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운이 좋지 않다면 군부대 내의 단련대를 6개월 가량 갔다 오면 끝이라고 한다. 다만 열 번 이상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 제대시켜서 보안기관에 넘긴다고 한다.

이런 남성들의 태도는 범죄에 관한 도덕적 인식에서 매우 이중적인 태도로 비춰진다.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한 불평등 구조에는 상대적으로 민감한 도덕적 판단을 보여주는 반면, 여성들에게 가하는 일상적인 폭력에 관해서는 그것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않거나 도덕적 판단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태도이다. 이것은 지배자(국가)-피지배자(인민)의 구도 속에서는 포착되지 않는, 그 안의 더 많은 폭력적 권력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남성-여성 권력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폭력구조이다. 이것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궁핍의 시기를 지나며 더욱 강화되는 측면을 발견할 수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사회적 공포와 폭력의 또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¹⁸⁶

¹⁸⁵-포커스 인터뷰 내용.

¹⁸⁶-여성들의 장사 활동은 다양한 사회적 폭력에 노출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시장에서의 장사부터 지역 간 이동 과정에서 국가 권력을 빙자한 남성들로부터 심리적 괴롭힘,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체로 인민보안부로부터 가장 큰 괴롭힘을 당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장관리소 사람들, 당 기관 간부, 공식·비공식적인 운송 관련 남성들, 군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폭력을 당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런 경험적 수치들은 여성들의 시장 활동이 국가적 또는 남성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시장 활동이 여성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반해, 시장 통제는 주로 남성권력에 의해

(나) 일상화된 마약 범죄: 최광철 사건을 통해 본 마약 도시의 모습
 2009년 대규모 마약 범죄가 적발되었다. 일명 ‘최광철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이다. 최광철은 함경남도 함흥 사람으로 사포 구역에 집을 두고 마약장사를 해 왔다. 이 과정에서 몇 번 시(市)보안서에 붙잡혔는데, 그때마다 뇌물을 써서 풀려나곤 했다고 한다. 그러다 2003년 잡혔을 때 워낙 크게 걸려서 함흥시로 돌아가지 못하고 회령시 오산덕동으로 거주지를 옮겼다고 한다. 그는 이후 7년 동안 함흥, 청진, 회령의 시당일꾼들의 아내와 보안원 가족들이 가져온 마약을 중국 대방에게 넘겨주는 일을 해왔다. 최씨는 그동안에도 각종 뇌물을 써가며 보안 일꾼들에게 입막음을 해왔다. 2009년 8월 150일 전투 검열 기간에 결국 체포되었다. 보안기관에서 최광철을 심문한 결과 회령, 김책, 청진, 함흥 등에서 마약 생산 및 판매망에 연루된 사람들이 총 11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회령에서만 약 50여 명, 김책 20여 명, 청진 30여 명, 함흥 15명 등이었다.¹⁸⁷

이 같은 국가의 강력한 단속 의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새 청진, 평성, 평양 등 대도시에서 마약중독자가 점점 늘고 있다. 심지어 청진에서는 ‘얼음’(빙두)을 생일 선물로 주고받을 정도라고 한다. 마약은 함흥에서 청진으로 제일 많이 유통되는데, 대부분 중국으로 넘기기 위해서이다. 얼음은 1g당 인민폐 50~60위안에 거래된다. 청진에서 자체 소비되는 양도 상당하지만, 중국에 넘어가는 것도 적지 않다.¹⁸⁸

주도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시장=감독·통제의 대상=여성공간’, ‘국가=감독·통제의 주체=남성공간’이란 구도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의미에서 여성들의 생계와 관련한 시장 활동에 국가와 관료, 남성들이 기생하며 착취적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박순성 외, 국가인권위원회 편,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p. 64.

¹⁸⁷-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30호 (2010년 2월 9일), p. 6.

I
II
III
IV
V

마약은 보안법 중에서도 중범죄인 반역죄처럼 엄중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마약 범죄자들은 ‘성공하면 신세를 고칠 수 있다’라는 유혹에 마약 장사에서 좀처럼 손을 떼지 못한다. 주민들은 ‘나라에서 정한 규정대로 하면, 개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보수도 없고, 무엇보다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느니 한 번에 성공하든지, 죽어버리든지 하는 것이 차라리 시원할 것 같다’라며, 요즘에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딱 굶어죽기 쉽고, 오히려 하지 말라는 마약장사 같은 것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표한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마약이 주로 집중 생산되는 곳은 함흥이다. 함흥은 마약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는 함흥이 과거부터 화학공업이 발전한 도시인데다 주로 배급을 받는 공장노동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 배급이 끊기면서 치명적인 기근의 타격을 받은 도시였다. 이 시기 함흥 주민들 중 화학기술을 이용한 마약 제조를 통해 생존하는 방식이 터득된 것이다. 그런 이유로 현재 함흥 약학대생 약 40%가 빙두 등 마약류를 제조하는 것으로 함경남도 보안국은 보고 있다고 한다.¹⁸⁹

최근에는 함흥은 물론이고, 새로운 마약 생산지로 급부상한 평안남도 순천시와 평성시 등지에서 마약 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된 마약은 평안북도 신의주, 량강도 혜산, 함경북도 무산, 회령 등 국경연선지역 뿐만 아니라, 평양에도 대량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급속한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¹⁸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009년 9월 27일), p. 8.

¹⁸⁹-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306호 (2009년 11월 24일), p. 12.

북한 당국은 주요 마약 도시에 마약 범죄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마약 중독은 사회주의 제도를 해치는 암조’라는 제목으로 구역 동사무소 인민반들에 나가 정치 강연활동을 하고 있으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이다. 주기적으로 국가 행사나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계절이면 대대적인 마약 단속을 실시하지만 보안원들이 실적 위주로 단속을 해 효과는 크지 않다고 한다. 가령 신고를 통해 적발했을 경우, 보안원이나 검열관이 300kg을 압수하면 신고(고발)한 사람에게 그 중 100kg을 주는 방식이다. 실적을 위한 적발을 하기 위해 신고자와 압수 마약을 나누는 방식으로 검열이 진행되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기 힘든 상황이다.

(4) 군대의 범죄: 선군과 약탈 사이에서

(가) 군인들의 민간인 상대 강절도 범죄

1990년대 이전에도 군인들의 민간인 상대 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¹⁹⁰ 다만 1990년대 들어 양적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방법 역시 다양해진 것이 차이점이다. 물론 정확한 통계로 확인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탈북자 인터뷰에서 확인된 바는 확연하게 군인들의 범죄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북한에 처벌된 군인 범죄에 대한 내부 통계가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해도 사실상 거의 범죄화되지 않은 군인들의 일상화된 범죄 행각을 고려한다면 의미 있는 수치가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들의 민간인 상대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열악해진 군대의 식량사정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1990

¹⁹⁰ 최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p. 268.

년대 후반 선군정치가 표방된 이후 현재까지 군인 범죄는 줄지 않고
 보다 커지고 다양화되었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점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선군정치가 군인들의 범죄 행
 각에 면죄부를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선군정치를 훼손
 하는 범죄 행각을 국가에서 드러내고 처벌하기엔 힘들기 때문에
 선군정치가 군인 범죄를 묵인하거나 방관할 수밖에 없는 담론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다.

군인들의 민간인 상대 범죄의 심각성은 그 대상이 주로 일반 주민
 들을 상대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대체로 민가에 내려와 식량이
 나 필요 물품을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성폭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가령 협동농장에서는 식량을 훔치려다 경비를 서는 농장원
 들과 군인들 사이에 패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한
 경우 절도에 그치지 않고 인명 살상까지도 발생한다.¹⁹¹ 군민관계를
 훼손하여 민심이 동요하는 것을 막는 차원에서 종종 표본적으로 강하
 게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잡지 못하거나 경미하게 처리
 된다고 한다.

이런 군인들의 민간에 대한 약탈 행위는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도 이루어지고 있다. 가령 2009년 동해에서 있었던 사건이다. 동해에
 서는 낙지잡이철이면 일명 ‘바다해적’이 빈번하게 출몰한다고 한다.

¹⁹¹-2009년 6월 2일에 황해북도 황주군 황주읍 협동농장에서 경비원 한 명이
 군인 도적에게 구타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가해자 4.25
 훈련소 군인 네 명은 훈련소 보위부에 곧 체포됐다. 군인들은 2작업반 감
 자발 경비원에게 처음에는 좋은 말로 감자를 달라고 사정했다고 한다. 분
 대 동료 생일이니 감자를 두 배낭만 달라고 했는데 사정을 들어주지 않고,
 맞서자 활검에 달려들었다고 한다. 이들에게 구타당한 경비원은 치료받
 는 도중 이틀 만에 장 파열로 숨졌다.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
 소식』, 286호 (2009년 7월 6일), p. 13.

이들은 낙지는 물론 배의 부속품, 고기잡이 공구 및 용품을 싹쓸이해 간다. 그런데 이 바다해적들은 주로 해안 경비대, 해군 전대 사람들이라고 한다. 사복으로 변장하고 있지만 바다 출입이 철저하게 통제되기 때문에 민간인 출어가 쉽지 않고 총이나 칼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해군이 약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⁹²

이런 군인 범죄에 대해 탈북자들은 공통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 경험과 위협에 대한 공포감을 가졌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군대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복무 시절 식량을 비롯하여 부대에서 필요한 물품의 많은 부분을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조절’하여 생활했다고 구술하고 있다(사례 54). 선군과 군대 약탈 사이에서 주민들이 심각하게 도덕적 이반과 불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민간인 상대 범죄는 선군정치의 딜레마이자 역설이라고 할 수 있다. 체제를 지키기 위해 채택된 선군정치가 밑으로는 민심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 군대, 의적이 되다 - 전국적 털이범 부대

북한 특수부대 출신의 탈북자 구술은 군대의 조직적인 약탈 행위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충격적이다. 또한 약탈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실태는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술자는 함흥 장진군에 있는 특수부대 108훈련소(일명 ‘폭풍부대’)에서 복무했다. 이 부대에서는 중대별로 4~5명씩 조를 짜서 조직적으로 절도 및 강도를 벌였다고 한다. 특수부대 내에서 가장 무술 실력이 뛰어난 군인 네 명을 한 조로 하고, 여기에 사민(민간인)이

¹⁹²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287호 (2009년 7월 14일), p. 9.

브로커로 결합하여 복무 기관 중 3년 정도를 전국적으로 돌며 절도와 강도 행각을 했다고 한다. 1년에 4개월은 부대에서 훈련을 받고 나머지 8개월 정도는 전국에 원정을 다녔다고 한다. 보통 한 사람이 2년 정도 하고 두세 명을 교체하는데, 네 명 모두를 바꾸면 절도 루트를 제대로 인계 못 하기 때문이다.

훈련장도는 세고, 말하자면 군인들 식량 주는 건 다 군관들이 갖다 소비하니까 우리 군인들이 한 달에 그저 20일밖에 먹을 게 없거든요. 열흘치를 어디 가서 도둑질하든 굶든 해야 다음 달에 식량 공급받으니까. 먹을 거 없으니까. 우리 분대가 열한 명이니까 네 명을 떼 가지고 전문 도둑질 내보냈거든요. 네 명이 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에서도 훈련도 좀 뛰어나게 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평균적인 사람 세 명 정도는 웃으면서 다 때려눕힐 정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나오든가 들키면 주인 다 때려서 눕힐 정도로 돼야지. 그 사람들이 한 달이면 한 달 4명이 나가서 도둑질해다가 팔아가지고 돈이든 식량이든 부대에다 들여보내고, 또 다음 달에 또 하고. (사례 53)

중대는 이렇게 원정을 다니며 절도한 것으로 먹고살았다고 한다. 이들은 원정을 나갈 때 군복을 입고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 군인들 특히 특수부대원들은 단속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대 간부들은 조직적으로 절도를 할 수 있도록 휴가 조치와 장비를 제공했다고 한다. 차를 타고 함흥, 원산, 황해북도 사리원 등 전국을 차로 누비며 기동력 있는 절도 행각을 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일정한 규칙이 있다고 한다. 전국에 주요 특수부대 지역이 관할하는 지역은 피하고 자신들의 영역에서만 하는 것이다. 사실상 특수부대들은 자신의 관할 영역에서만 절도를 하고 타 부대의 영역에서는 절도를 하지 않는 규칙이 있는 것이다.¹⁹³ 일정하게 비공식적인 도둑질의 영역이

있다. 서로 이것은 지키면서 한다.

평성에는 21여단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로 말하면 낙하산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공수부대 사람들이 주둔군이니까. 순천, 평성 그 지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잡아놓은 터니까. 다 서로 내 부대 어디 있다 지켜주죠. 서로 피해 주거든요. 부딪혀도 다 같은 특수부대 사람들끼리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은 한 조가 나와서 8개월씩 있으니까. 우리 보다 먼저 나와 있던 사람들이 다 이거 선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 부대에서 왔다 서로 피해 주기도 하고. 야, 이 지대엔 들어오지 마라. 다 지정돼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루트로만 움직이죠. (사례 53)

이들의 절도 행각은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민간인 브로커를 끼고 자신의 관할 영역에서 돈이 있는 집이 어디인가 정보를 듣고 쳐들어가는 방식이다. 훔친 물건은 민간인 브로커를 통해 돈이나 쌀로 바꿔 오는데 대체로 돈으로 바꿔와 브로커에게 수고비를 주고 부대에 보내면 부대에서 쌀을 구입했다고 한다. 이렇게 부대에 들어간 돈이나 쌀은 부대의 식량이나 필요 물품을 구입하는 데 쓰이기도 하지만 거의 50%가량이 간부들에게 들어갔다고 한다. 돈을 못 벌어도 면 처벌도 받고 욕과 매질도 당했다고 한다.

절도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곳은 리당비서, 관리위원장, 군당간부 등의 집이었다고 한다. 그 밖에 순천 ‘깜대’, 사리원 ‘왕가’, 함흥 ‘백손’ 등 일명 돈주들의 집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구술자는 이들을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털었던 경험을 매우 통쾌한 일로 회고하는

193. 이금철의 구술에 따르면,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특수부대로는 21여단(순천, 평성, 황해남도, 공수부대), 17여단(황북), 19여단(황해남도 신천군, 신천복수대, 공수), 59여단(평남), 58여단(함북, 해상육전대) 등이었다고 한다.

I
II
III
IV
V

모습을 보였다. 주로 힘으로 뇌물을 받아 축재한 사람들, 시장에서 관료들과 결탁해 돈을 굴러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것을 훔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들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의적이 된 듯 통쾌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구술자가 전국을 돌며 이런 사람들의 집을 털었던 경험을 얘기하는 대목에서 이런 범죄 행각에 담겨 있는 도덕적 에토스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2002년도, 장진군당 책임비서 집이었는데, 그 집엔 돈이 정말 많더라구요. 인민들에게 많이 뇌물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은 도둑맞아도 알리지도 않죠. 북한 돈으로 4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미국 달러로 계산하면 그저 1,300달러 정도. 그 다음에 또 금도 있고, 텔레비전도 훔쳐오고, 식량은 그런 집에 없거든요. 그런 집엔 돈 털러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다음엔 현금은 뺐으면 바로 상급에 군관들한테 주거든요, 사람 시켜갖고. (사례 53)

이외에도 크게 털 집으로는 황해북도 사리원 은행 지배인 집이 있는데, 6만 달러와 금 1~2kg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은 절도를 당하고도 신고를 대부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워낙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절도 행각이 이루어져 잡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도둑맞았다고 신고할 경우 그 많은 돈들의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보안서에 신고는 하더라도 피해액이나 품목은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런 구술 사례는 우선 군대가 조직적으로 민간을 상대로 털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부대를 운영하고 이를 간부들의 개인 사취로 썼다는 점에서 충격적인 면을 갖는다. 이것은 권력을 악용하여 주민들을 약탈하는 권력기관의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군대 역시도 군대가 갖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약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가 얼마나 약탈적인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런 구도에서

본다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상층 지배 엘리트들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주민 수탈이 사실상 사회 곳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체제가 갖는 ‘약탈국가’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한편으로 힘 있고 돈 있는 자들이 축재한 부를 흠치는 행위를 통해 한 도덕적 복수로 회고하고 해석해 내는 구술자의 태도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갖는 체제에 대한 생계윤리의 한 단면을 엿볼 수도 있다. 국가로 상징되는 지배집단이 주민들에 대해 마땅한 생존의 조건을 마련해 주지 않을 때, 부당하고 불공평한 힘의 행사와 부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 피지배집단인 주민들에게는 도덕적 분노에 해당하는 생계윤리의 심성이 보다 적극화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다.

라. 소결: 범죄와 정체성 변화

(1) 포고령의 정치: ‘예외상태’의 국가와 도덕적 트러블

북한은 예외상태(State of Exception)의 국가라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전체주의는 예외상태를 통해 정치적 반대자뿐 아니라 어떠한 이유에서건 정치체제에 통합시킬 수 없는 모든 범주의 시민들을 육체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합)법적 내전을 수립한 체제로 정의될 수 있다.¹⁹⁴ 항구적인 비상사태의 자발적 창출이 국가의 본질적 실천이 된

¹⁹⁴ 아감벤에 의하면 ‘예외상태’는 공법과 정치적 사실 사이의 불균형점을 구성하며, 이 불균형점은 - 내전, 봉기, 레지스탕스와 같이 -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이 교차하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경계선에 자리한다. 따라서 경계에 대한 물음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본다. 만약 예외 조치가 실제로 정치적 위기가 계속되면서 나온 결과이며, 따라서 법률적·헌법적 토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예외상태가 상례가 된 순간부터 그것이 점점 더 예외적 조치 대신 통치술로 등장할 뿐만 아니라 법질서를 구성하는 패러다임으로서의 본성을 드러내기까지 하는 사태라고 할 수 있다.¹⁹⁵ 북한은 국가와 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법을 정지시키고 그 예외상태를 국가의 존속 메커니즘으로 만든 사회인 것이다.

북한에서 ‘포고문(령)’이 지배하는 일상화된 사회적 상황을 그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포고문’의 형태로 법을 뛰어넘어 폭력과 공포를 일상에 부여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이 극히 예외적인 특정기간의 예외상황이 아닌 ‘예외’ 자체가 일상화된 통치 관행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예외상태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의 구분을 일시적으로 폐기하는 일이 그렇지 않은 것과 특별한 구분 없이 일상에서 작동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포고령을 통한 정치가 일상화되었고 그것이 일상을 잠식하는 공포의 수단이라면, 이 국가는 예외상태를 통해 지속되게끔 구조화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예외상태의 국가에서 범죄는 법률적, 정치적, 도덕적 경계선이 모호한 상태에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범죄는 법률적 경계선

대 자체가 아니라 정치 영역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면, 예외상태는 법률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 없는 법률적 조치라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되며, 어떤 법률적 형식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법률적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다른 한편 법이 생명에 가 닿고 스스로를 효력 정지시켜 생명을 포섭하기 위한 근원적 장치가 예외상태라면 예외상태에 관한 이론은 살아 있는 자를 법에 묶는 동시에 법으로부터 내버리는 관계를 정의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조르조 아감벤, 김항 율김,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10), p. 14. 따라서 범죄의 가능성이 높은 집단을 만드는 방식은 당과 관료조직이 포섭하는 범주집단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서용석, “북한사회의 범죄,” p. 53.

¹⁹⁵-조르조 아감벤, 김항 율김, 『예외상태』, p. 23.

에 의해 최종 확정(낙인)되지만, 그전까지 대부분은 정치적 과정 안에서 ‘범죄화’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실제 법적 차원에서는 불법이라고 해도 그것이 범죄로 낙인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치적 문제의 영역, 정치과정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즉 과연 누구(또는 집단)에 의해서 행해졌는가, 누가 얼마나 정치자본을 소유하고 있는가, 관료적 장(場)의 관계 역학은 어떠한가, 파벌과 공모의 연계 수준이 어떠한가 등에 따라 범죄는 일정한 정치적 경계선을 갖게 되며 그것은 법률적 금기 선을 넘어서도 범죄로 확정되지 않는 것이다.

반면 도덕적 경계선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 존재한다. 그것은 국가(통치자)가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의 질서와 주민들이 국가에 요구하는 도덕의 기대가 맞물리는 지점에 형성된다. 국가와 인민은 서로에 대한 질서와 기대를 통해 도덕적 레버리지(moral leverage)를 갖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에서 범죄는 하나의 ‘도덕적 트러블’(moral trouble)의 현상이다. 위로부터 부과되는 통치의 도덕질서와 주민들의 생계윤리가 갈등하는 지점에 범죄가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범죄현상의 만연을 1990년대 이후의 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범죄의 사회적 동학 속에 내장되어 있는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간과할 위험을 갖는다. 물론 동기나 내용의 측면에서 시기적 변화는 있으나 범죄는 1990년대 이전부터 줄곧 북한체제의 작동 메커니즘 속에 ‘문혀’ 있었던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적 관계의 ‘발현태’이자 도덕적 트러블이었다. 권위적인 정치체제와 억압적인 질서, 계획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범죄는 드러난 형태와 은폐된 형태로 존재해 왔다.

출신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 한 사회적 위계로부터의 소외와 불안감, 계획경제의 불확실성과 물자부족 속에서 국가재산에 대한 절취와

I
II
III
IV
V

형령의 만연, 통제 일변도의 집단적 생활 속에서 다양한 문화적 일탈 등이 법·제도의 금기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오가며 표출되어 왔다. 정치와 경제의 통합, 명령경제의 수직적인 구조, 정치권력의 집중, 관료적 집단들의 배타적 연결고리의 형성과 밑으로부터의 상승의 봉쇄는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체제 외적으로 소외된 집단들을 구조적 사회 신분계급으로 고착화시켰던 사회경제적 기제들이었다.¹⁹⁶ 그것은 범죄가 특정 시기의 사회적 병리(病理) 현상이 아닌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 특성의 산물이자 이 체제가 예외상태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결국 199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사회의 다양한 범죄 현상들은 생계 현실과 도덕적 기대 사이의 미묘한 함수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변화된 새로운 의식의 등장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며 발견하게 된 여러 얼굴을 가진 자기 정체성 발견이기도 하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적인 욕심이나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사회주의 집단주의적 도덕설정이 개인의 은밀성과 두려움을 또 한 세계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항상 인민들의 은밀한 타락이라는 배반의 두려움 속에서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그 ‘타락’과 ‘배반’은 주민 차원에서는 자기 발견의 얼굴이자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¹⁹⁶-서용석, “북한사회의 범죄,” p. 57.

(2) 범죄와 생계윤리: 일상의 정치와 저항의 범죄

1990년대 초부터 북한사회는 경제난과 시장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민들의 국가 의존도 약화와 시장 의존도 증대, 관료문화와 실천코드 변화, 공동체성과 개인정체성 변화, 사회적 연결망 및 정보유통 활성화, 경제관념 및 심성의 변화, 부와 소유 관념 변화, 장터문화의 형성,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적 층화, 가족해체 및 가족구조 변화, 노동 및 직장에 대한 태도 및 심성 변화, 교육의 양극화, 세대 간 가치갈등, 도시 기능과 주거문화의 변화 등과 같은 일상생활세계에서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국가의 각종 법적·제도적 조치들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변화의 내용과 속도에서 이 둘의 ‘비동시성’은 생계 차원의 범죄 일상화를 낳고 있다.

탈북자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이 살았던 북한사회를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 사회’라고 말하고 있다. 그 자체가 국가 시스템에 의한 범죄이지 주민들의 본성이 나빠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다양한 범죄와 관련한 구술들은 국가와 관료에 대한 심성, 법·제도 등에 대한 ‘생계윤리’적 자기 해석이 담겨져 있다.

생계윤리적 자기 해석은 공공의 규범에 대한 주민 생계일상 차원에서 해석과 실천이다. 범죄는 국가의 공적 규범과 주민 생계윤리 사이의 충돌의 결과이며 체제의 불확실성을 재전유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국가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지 않거나 억압할 때 ‘생계윤리’는 적극화된다. 이것이 범죄적 양태를 가질 때, 국가에 대한 가시적 저항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범죄라는 수단을 통해 표현된 생계윤리의 심성, 즉 ‘일상의 정치’이자 ‘저항의 범죄’

I

II

III

IV

V

라는 성격을 갖게 된다. 그것은 고도의 도덕적 이상으로 무장한 공식 담론과 비도덕적이며 부패한 현실 사이의 괴리가 커질수록 범죄의 방식으로 적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불공정한 박탈의 감정과도 같다. 불공정한 박탈은 좌절, 분노 및 소외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이다. 하나의 제도가 그 제도가 세운 기준의 관점에서 현실과 대비해 볼 때,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식적 규범의 정당성을 받아들인 동기를 약화시키며 개인이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서 대안적인 행동양식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한다.¹⁹⁷ 범죄는 공식적 규범의 정당성이 약화되는 그 지점에서 대안적인 행동양식의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¹⁹⁷-Richard A. Cloward and Lloyd E. Ohlin, *Delinquency and Opportunity -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New York: Free Press, 1960), p. 115.

IV. 경험의 확장과 미시권력의 변화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1. 여성의 공간경험 확장과 의식 변화

가. 북한 여성과 공간경험

여성이 바깥세상에 대한 각성이 없이는 사회 성원으로서는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현진건의 단편 『술 권하는 사회』(1921년)의 마지막 문장은 ‘그 몫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 하고 끝났다. 이 소설은 암담한 식민지 사회에서 지식인은 주정꾼 노릇밖에 할 일이 없으므로 결국 조선 사회가 술을 권한다는 풍자적인 내용으로, 3·1운동 직후의 시대 상황과 사회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아내는 그 엄혹한 식민지 시대의 ‘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안주인’이었다.

북한 여성의 생활공간은 것처럼 가정에 묶여 있지 않았지만, 거주 이전이나 여행의 자유가 없는 폐쇄적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들은 넓은 세상을 알지 못하는 우물 안 개구리 같았다. 말하자면 주어진 공간 이외의 사회를 체험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기회가 북한사회 최악의 식량난과 사회 대혼란으로 인해 찾아왔다. 국가가 통제력을 상실함으로써 통행권 없이 새로운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자연발생적으로 장마당이 생기고, 그것이 계획 경제를 벗어난 시장경제의 맹아가 되고 사회변화의 틈새가 되었다.

사람은 주어진 생활공간에서 길을 나뉘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다. 거주지를 떠나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현실에 처함으로써, 여성들은 기존 사회와는 다른 현실을 체험한다. 생존을 위해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를 찾아 나선 것이 새로운 삶의 반경(半徑)으로 확장되는 ‘공간경험’은 여성들의 의식,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측면에서 공간경험은, 예를 들면 장마당을 따라 생존 활동 반경

I

II

III

IV

V

을 넓혀가면서 이뤄나간, 세계 인식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경험세계이다. 다시 말해 새로운 공간경험은 생존수단을 확보하기도 하고, 기존 사회 변화의 원동력 또는 잠재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북한사회 변동의 주요 변수가 된다. 총체적 의미의 공간경험은 일차적 의미의 지리적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어 개인의 삶의 방식, 태도, 의식 등에 영향을 끼치는 이차적 의미의 공간경험이 형성됨을 뜻한다.¹⁹⁸ 북한사회의 시장화 과정에서 주민들의 공간경험의 변화는, 기존의 삶이 한정된 공간체험 아래 정체(停滯)된 북한 사회체제에 변화의 동인이 되지 못한 점과 대비해 보면, 획기적인 사회변동 요인이기에 지나칠 수 없는 연구대상이다.

따라서 아래에서 북한 여성의 공간경험과 의식을 연구과제로 다루므로써, 북한사회의 일상 혹은 미시사회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데 북한사회는 밖에서도, 안에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북한 안에서는 사회주의 사회의 ‘일색화’ 논리에 따라 사회 비판이론이 부재하고, 내부 사회 인식의 틀이 막연하기 때문이다. 밖에서는 현상과 사실 자체도 오리무중처럼 접근이 불가능한 영역이 많기 때문이다. 피상적인 현상을 잡고 이론적으로 진단하면 이중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이해의 틀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북한사회에 대해, 미시담론은 어떻게 가능한가?

북한여성의 공간경험 확장은 ‘장마당’에서 출발하는 북한의 시장화

¹⁹⁸ 홍민은 북한 주민의 일상 경험세계에서 삶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을 ‘지리적 공간과 사회적 공간’으로 설명한 바 있다. 현재 북한 주민의 경험공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론적 천착이 부족한 측면에서 ‘사회적 공간’ 개념 등으로 생활을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홍민, “북한 시장일상생활연구-그로테스크와 부조리극 ‘사이’에서,” 박순성·홍민 엮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 297.

가운데 벌어진다. 또 한편으로 북·중접경지역을 통해 자본주의 시장을 직접 체험하는 여성이나 탈북 이력자들의 공간경험을 포함하여, 여성의식의 역동적 변화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여성의 공간경험 확장 가운데, 그들 의식의 진보성과 보수성에 관해서 고찰함으로써, 북한사회변동에서 여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변동의 변수로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등을 살펴본다.

특히 접경지역이 공간적으로 남한-중국-북한의 삼각구도로 연계되는 구도에서 접점을 찾아가는 ‘소통’의 의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 중에 불법 월경하여 중국에 있는 경우, 중국에 합법적으로 들어간 방문자의 경우, 한국으로 탈북하여 들어온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를 분류하여 ‘중국 체험’의 의미가 다른지, 비슷한지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면담조사연구는 그동안 문헌연구의 한계를 보완해 주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북한 내부에서 떨어져 나온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식의 굴절을 겪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의식’에 투영된 북한은 또 다른 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중접경지역에 노출되는 북한 현실상의 포착은 현재진행형의 사회의식을 보다 가깝게 읽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문헌 자료로 확인되는 전형성을 현실과의 관계로 검증하는 ‘북한여성의식’의 포착은 그나마 한계가 많은 북한연구에서 틈새를 메울 수 있는 새로운 접근이 될 것이다.

나. 공간 경험의 확장과 의식 변화

(1) 시장을 통한 변화

북한사회의 시장화는 생활 변화에서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여성

I

II

III

IV

V

의 시장경험은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을 만들어낸다. 시장경험은 사회변화에 무의식적인 힘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힘으로 구체화하지 못한 상황, 또는 '세력화에 미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지만, 그 역동성에 주목함으로써 북한사회변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고 본다.

보편적으로 시장을 통한 공간체험의 확장은 의식의 변화에 큰 계기가 되고 있다. '앉아 있는 영웅보다 돌아다니는 머저리가 낫다'는 북한 유행어처럼, '고난의 행군' 시장시기보다 현재 시장시기에 의식이 많이 깨어났다. 이를테면, 특구인 라선시는 중국과 내왕의 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민들 중에서도 라선시장을 돌아보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 결과로 보는 눈과 의식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과 담화도 해보고, 장마당생활에서 어떤 상품을 국가는 팔지 못하게 해도 눈을 속여 가며 팔고 사니 돈도 많이 벌고 세상 물정을 알게 된다. 이런 체험 속에서 '라진을 개방하니 좋은 점'을 생각하게 되고, 다음으로 '조선도 빨리 개방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다.¹⁹⁹

그런데 시장의 공간경험에는 체험하는 주체의 세대 차, 조직생활문화 차이, 활동규모 차이 등이 반영되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동시에 체제 변화를 암시하는 유행어로, '북한 주민은 승냥이만 살아남았다' 또는 '비사회주의자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비사회주의'의 성격이 여성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런 사회에서 여성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런 고찰은 북한을 획일적이고 전체주의적 사회로 진단하는

¹⁹⁹-연변인 강씨 전언, 2010년 7월 중. (전언은 접경지역 현장조사에서 간접적으로 청취하게 되는 자료를 의미한다.)

상투성에서 벗어나고, 기존 체제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양태를 다층적인 세부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북한사회는 대체로 비판의식, 시민사회적의식, 인권의식, 진보의식 등을 직접 표현하기 어려운 사회이고, 또 여성문제를 반봉건적 의식으로서나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제기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사회주의 가치’가 무너지면서 생활 태도, 가치관과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명기의 어둠 속과 같은 사회상을 유추하는 측면에서, 10대 후반에 장사를 시작한 김미경 씨(30대)와 시장 부근에 창고가 딸린 집에 살았던 나선순 씨(60대)의 경우를 비교하면서, 시장을 통한 공간경험의 확장이 주는 변화의 단초를 살펴보자.

(1) 젊으니까 장마당에 앉지는 못하고. 농촌을 다녔어요. 걸어 다니면서 장사했거든요, 하루 백 리 길을. 제대로 먹고살까. 최초로 그 나이에 장사했거든요. 내 또래 장사하는 사람 없었어요. 항상 원망스러운 거예요. 내 꿈도 못 펼치지. 그런데도 내가 장사를 하는데도 내가 속옷 하나 사 입을 정도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오겠지.²⁰⁰

(2) 나는 빚을 안 지고 살았어요. 신망이 신용이 좋다나니까 사람들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돈도 잘 빌려주는 거예요, 나한테는. 좀 나아진 게 탄(炭) 장사라고 차로 탄을 팔구. 그랬다가 평성역에 나갔다가 여기서, **가서 장사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범위가 넓은 데서.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건데. 버섯장사가 좀 돈이 되거든요. 돈을 떼인 거예요. **에 있을 때. 모아둔 돈이 홀랑 날아가 버린

²⁰⁰-구술자 녹취록 인용문의 번호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연구자가 임의로 붙인 것이다. 또한 인용문 중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밑줄을 쳐서 표시하였다.

I
II
III
IV
V

거예요. 빈털털이 된 거야. 답답하잖아요. 고향에서 장사하면 돈 벌기가 쉽지 않거든요. 요만큼 가지구 해봐야겠다. 해서 나와서 처음 시작한 게 국수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3) 결혼해서 가는 것처럼 해서 (농촌에서 **시로 이사를 했는데) ... 약속을 해 갖고 ... 내가 돈을 준 거야 ... 거주를 했으니까 이혼해야 하는데...

(4) 2002년도. 국수장사를 몇 개월 했어요. 국수를 팔은 거예요. 국수장사를 하면서 좀 더 나아진 생각이 고기장사. 식당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각이, 고기장사 해서 식당 하면서 돈이 돈이 낳는다는 걸 느꼈어요. ... 내가 시골 다니며 장사하는 거 하고 국수 장사할 때하고 시야가 틀리고. 또 앉아서 손님이 올라가니까, 수준이 올라가니까 내 수준보다 높은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상대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죠.

(5) 사람들이 그전에는 굶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니까 장사를 해야 먹고산다는, 돈에 대한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에 사람이 다 모이는 거지. 평성이에요. 그걸 보면서 자본주의가 돼 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나는. 피가 터지는 거예요. 전국 도매시장이야, 남포하고 평성이. 더구나 평성이 그렇고. 남포는 브랜드를 날조하는 데가 남포가 유명해요. 중국상품이 인기 있다 그러면 똑같이 만들어내요. 신발도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 모방하고 똑같이 만드는 게 남포고, 평성시장은 도매시장이고. 그걸 보면서 자본주의화 되고 있고 사람들 생각도 수령주의 이거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 얘기하는 데서. ... 근데 그건 밖에서는 아니고, 식당 하면서. 아이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네. 물론 김정일을 욕하는 말은 잘 안 하죠. 그러나 의견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고 한국에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한국 비디오투를 많이 봐요. ... 우리는 연애하는 것도 사상투쟁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많이 지금 개방돼 있는데 자유라는 데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래서 거기서 한국이 잘 산다는 건 안 거예요.

(6) 자본주의 시장. 자기 돈을 버니까.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머리 계속 쓰니까. ... 장사는 머리가 중요하거든요. 나는 큰 장사를 안 해봐가지고 큰 장사하는 사람 얘길 들어볼 때. ... 옷을 만든다 하면 개인이 만들잖아요. 디자인이 그런 게 나올까요. 신발도 예쁜 신발 만든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옷도 똑같아요. 유행에 따라서 옷을 만들어 낸단 말이에요.

(7) (통제사회다 이런 생각 느낀 적 있어요?) ...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 맘대로 하니까. ... 통행증 있는데 그것도 돈 주고 다 사요. ... 아무래도 가만있는 푹푹이보다 돌아다니는 바보가 낫다는 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게 많으니까 아무래도 생각이 자꾸자꾸 바뀌고. 돌아다니고 그랬으니까 중국 갈 생각까지 했겠죠, 트니까. 그리고 돌아다니다 보면 장사를 어떻게 할까 생기잖아요. 정치에는 많이 관심 없었어요. 북한 살 때도. (사례 18)

김미경 씨는 고등중학교를 마치자마자 고난의 행군 시기를 맞았다. 시장공간의 의미를 파악할 여지도 없이, 하루 백 리 길을 걸어 다니면서 제대로 먹고살까를 노심초사하면서 장사를 시작했다. ‘그 나이에...’라는 회상처럼, 또래도 없이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너무 어린 나이에 뛰어난 장사였음에도, 속옷 하나 사 입을 정도가 안 되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시장에서 잔뼈가 굵어지는 경험 가운데 미래에는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희망 하나는 있었다. 그 현실에는 없었던 꿈, 이 ‘좋은 미래’는 기성세대로 사회화되지 않았던 나이에 설정된 것이기에, 이후의 경험세계의 가치가 새롭게 전개될 여지가 큰 것이다.

그의 의식의 변화를 가져온 사건과 전개과정을 요약해 보면,
 i) 위장결혼을 해서, 농촌에서 큰 시장이 있는 도시로 진출했다.
 ii) 장사의 규모는 시골장사-국수장사-고기장사식당으로 발전한다.
 iii) 자본주의가 돼 가고 있는 현실을 발견했다. iv) 결과적으로, 가만

I
II
III
IV
V

히 있는 똑똑이보다 돌아다니는 바보가 낫다고, 돌아다니다 보니 중국까지 가게 되었다.

이처럼, 김미경 씨의 공간경험 발전은 자기 시야와 대상 수준을 확장시킴을 의미한다. 신용이 밀천이 되어 차를 이용한 탄 장사를 하면서 ‘범위가 넓은 데’로 발전함으로써, 이동수단과 공간체험의 의미를 인식하게 되었다. 고생스럽고 두려움 속에서 걸었던 삶의 반경이 “장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의미 있는 공간경험으로 들어오므로써, 장사 머리가 터져버린 결과를 낳았다.

이때 공간은 비로소 가치관을 반영하는 삶의 반경이 된다. 그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하여 삶의 가치, 문제해결 방향을 능동적으로 찾아 움직이게 된다. 시야가 넓어짐으로써 돈이 돈을 낳는 경쟁의 수준을 높이고, 그와 함께 높은 사람들과 상대함으로써 정보의 양과 지식의 수준이 올라갔다. 이것은 시장경쟁을 중심에 놓는 자본주의 가치관의 체득을 의미한다. 기존 북한사회의 사회주의 가치관에서는 부정했던 일인데, 김미경 씨는 자본주의 시장이 피가 터지는 경쟁 속에 도매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유행에 따라 옷을 만들어 내기 위해 머리가 중요하므로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하는 것으로 인식했다. 말하자면 자기 현실이 사상투쟁을 하던 기성 문화와 다른 세상이 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기서 더 나가면, 자본주의 문화를 선망하여 한국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바는 시장화의 수준이 공간적 흐름과 일치함에 있고, 자본의 축적보다 의식 수준상의 변화에 있다. 농촌-대도시-중국-한국은 이 여성이 차례로 직접 체험한 공간이지만, 그 이전에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가는 ‘의식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정치에는 관심 없이’ 돈을 따라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발견되었다.

다시 말해 김미경 씨의 경우, 기성세대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웠던 나이에 출발한 시장걸음이 무의식 속에 ‘좋은 날이 오겠지’라는 희망으로 작동함으로써, 기성사회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의식의 공간을 만들어갔다고 할 수 있다. 이 여성은 위장결혼을 하여 도시로 진출한 후에는 이혼을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성과를 얻어냈다. 어떤 가능성을 실행에 옮길 때, 과거의 ‘조직생활세대’와는 다른 면모로 행동할 수 있는 가치관이 무의식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신세대 행동양식은, 생활총화에서 걸리는 것이 없도록 자기검열을 하곤 하던 구세대가 사회 감시와 통제를 의식하는 것과는 달리, 그럴 필요를 느껴보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정치에 관심 없다’는 말은 북한사회의 내부 변화에 중요한 동인으로 포착되는 문화현상으로 주목된다.

북한사회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중시해야 하는 매우 정치적인 사회이다.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비사검열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장사하는 사람은 항상 정치권력과 적당히 타협을 해야 한다. 이 측면에서 정치에 관심 없다는 말은 심층적인 의미로 분석해 보아야 한다.

이 사례에서 보면, 생각이 트이는 진보성은 조직생활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신세대적 가치에서 나온다. 그것이 중국과 같은 외부세계 경험과 결합될 때, 지향성이 더 뚜렷해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왜 ‘탕생소생’²⁰¹ 하면서 선망의 대상으로 삼을까? 또는 돈이라는 자

²⁰¹ 탕생이라는 것은 외국에 몇 탕했는가. “재소 한탕”은, 구소련에 갔던, 벌목공 등, 한 탕 두 탕 삼년짜리 한탕... 이런 식으로 말한다. 탕생은 재소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친척방문을 몇 번 했는가, 외국에 장사거래를 몇 탕했는가를 주민들은 평가한다. 소생은 교화소의 ‘소’ 경험자, 즉 교화소를 몇 번 갔다 왔는가가 중요한 업적이 된다. 시장 흐름에서 이들이 주요한

I
II
III
IV
V

본주의적 가치관의 단초가 기존 사회주의사회의 가치관과 타협하느냐 아니면 기존 질서에서 진보하느냐는 갈래가 어떻게 갈라질 것인가? 김미경 씨를 보면, 의식변화의 적극성 또는 진보성향의 맹아는 시장변화로만 이뤄지지 않으며, 정치적 관심의 변화, 조직생활문화로부터의 변화가 관건이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시장 공간을 조직생활문화에 젖어 있는 60대가 경험할 때는 신세대와 다른 특성을 생각할 수 있다. 구세대인 나선순 씨의 경우와 비교해 보기로 하자.

(1) 창고 크니까 시장이랑 가까우니까 ... 공업품이요 무슨 농산물이요 남새요. 창고 큰 게 돌이 났으니까. 짐 보관으로 생계를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 시장이 건설되기 전에는 우리 집 앞에까지 짝 바닥에 앉아서... 그 다음 새로 시장이 완공되니 일체 길바닥에 앉게 못 하니까 점차 짐 보관이 좋아지고, 창고 수입을 가지고는 아니 되겠습니다. ... 지금 시장이 완전히 건설돼 이사해 내려간 다음부터는 그 창고수입을 내 못 먹고 ... 우리 시멘트 넣고 ... 그래 나도 시멘트 장사도 하고 우리 아바이도 돌봐주고... 시멘이 끝이 나고 식당을 했어요. 창고에 화목도 넣고, 김치움 안에 독이 있지.

(2) 소소하긴 했는데 그 물건은 우리 앞에 잡화를 넘겨주는 아줌마가 있어요. ... 나진선봉에 차를 가지고 가서 사다가 우리 앞집 아줌마한테다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줌마가 거기 얼마간 붙여서리 실제 파는 아줌마들한테 넘겨주지. ... 나는 어떨 때는 외상도 가져오고. 낮에 팔아서 저녁에 본전주고. ... 그때는 무슨 하루 2,000도 벌고 3,000도 벌고. ... 그때 입쌀은 500원 할 때예요. 500원 하다가 1,000원. 그때 입쌀이 하루 벌이는 됐어요. ... 골목에서 잡

역할을 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화를 놓고, 담배, 사탕, 과자. 그것도 단속 아니하고 마음대로 앉아 팔게 하면 입살이는 하겠습디다.

(3) 장마당 통로니까, 우리 집이. 장마당 가고 오고 하는 거니까 아주 유리하죠. ... 근데 자꾸 시장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매대 있으니까 마음대로 팔아먹고, 자리 없이 길바닥에서 해매는 거는 하루 종일 쫓아다니고, 그리고 좀 못된 사람은 단속물건을 치넣었다가 저녁이 되면 벌금물고 찾고... 하루 입벌이를 못한단 말입니다. 파는 시장이 있어야 수입이 있겠는데... 장마당 앞에 길거리도 포함하고 장마당 근처 집까지 포함해 가지고 시장이 자꾸 바깥으로 번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자꾸 단속한단 말입니다.

(4) 자기 능력껏 벌어먹게 가만히 뒤 두면 의견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 한결같이 말하는 게 우리는 무슨 국가에다 쌀 달라는가 돈 달라는가... 제 능력껏 벌어먹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단속하는가, 누구든 이렇게 말하면 또 붙들어잡니다.

(5) 약매대도... 짝 앉아서 신약은 내는 못 놓고, 앞애다 동약을 내놓고 조금씩. 거 단속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다음에는... 사람 지나가면 자꾸 물어 보죠, 무슨 약 필요합니까, 뭐를 사겠다 하면 꺼내주고. 그렇게 단속하니까 더 비싸고 흥정이라는 게 없고 부르는 돈대로 주고 사죠.

(6) 압록강 물을 길어 먹어도 되는데, 높은 둔덕에 있는 거는 구르마에 물을 싣고 땀을 찼찼 흘리매 올라가고 그것도 정신이 있는 건 물장사를 했어요. 압록강 물 그냥 퍼가는 것도 식당도 물을 갖다 팔고 개인집도 돈 있는 건 물을 사먹고, 그래 옛날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전기가 없으니까 물이 물론 아니 나오겠는데, 의문이다. 그 풀리지 않는 의문이죠, 지금도. (사례 12)

I
II
III
IV
V

나선순 씨는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기관의 부기원으로 일하다가 50대 중반에 장사를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 그의 주거환경은 큰 창고가 딸린 집이 시장 통로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먹고살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자기 골목에서 잡화를 놓고 팔아서 입벌이가 되기도 했다. 2003년 종합시장화²⁰² 등의 조치로, 장마당 통로라는 민간의 자연발생적 이권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권력기관에 의한 새 시장건설로 인해 기득권이 상실되는 셈이지만, 시장정비 명분으로 들어오는 침해에 대한 문제인식 없이 소극적 불만만을 표했다. 이 여성에게 시장이란 개념은 ‘시장이 있어야 수입이 있고 먹고살 수 있다’는 단순한 인식 이외에 경험이 없다.

분석해 보면, 인용 (1)~(3)에서 나선순 씨의 환경은 운 좋게 주어진 것이었다. 반면 밖에서 전개되는 시장 상황에서는 시장 문리가 트인 사람들의 능동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 (4)~(6)에서도 엿볼 수 있는 바, 도매, 중간상인, 소상공인의 물류의 분업화, 약 매대처럼 부르는 게 값일 수밖에 없는 특정 시장가격 구조, 압록강 물장사 같은 ‘서비스’ 틈새시장에 이르기까지 시장의 질적 변화상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대비할 때, 나선순 씨의 경우 시장에 대한 경험은 매우 한정적이고 소극적이다. 그는 자기 삶의 반경을 벗어나는 공간경험을 바탕으로 한 시장 생활을 못해 보았다. 또, 기성세대의 세계관을 뛰어넘는 정보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 ‘국가에서 주는 게 없으면 능력껏 벌어

²⁰² 고난의 행군시기 인민들의 자구적 행태로 폭발적으로 번지게 된 시장은 선군정치에 따라 군부의 시장활동까지 허용되면서, 시장 판도가 군/관의 권력기관과 민간의 대결구도처럼 되었다. 1990년 시장부문의 단계적 발전은 안중수, “북한시장화와 주민생활에서의 변화,”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남북소통의 길』 (2010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08.12), pp. 92~93 참조.

먹게 두어 뒀으면’, ‘살자는데 왜 이렇게 단속하는가, 누구든 이렇게 말하면 또 붙들어간다’, ‘옛날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것도 없었는데 왜 그런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등, 불만을 표출하지만 순응적이다.

우리 보면서... 나쁜 말은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거 보지 말라 하는가, 중국통로(방송)를 보면 단련대요. 한국영화를 보면 교화요. 뭐 한국영화를 봐서 교화 간 게 많아요. 그다음에 한국영화 CD알 장사하다가 교화 간 것도 많고. 우선 나쁜 사상 없는데 왜 보지 말라 하는가, 그러다가 또 이렇게 여럿 앉아 보면서 우리나라 생활수준하고 사는 게 하늘과 땅 차이니까 보지 말라 하겠지, 그저 짐작에... .. 우물 안의 개구리다 우리는, 다 인정해요. 북한사람들은, 우물 안 개구리다. (사례 12)

나선순 씨는 중국방송, 한국영화를 보고도 나쁜 사상이 없다고, 단지 생활수준의 차이로만 인식하였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생각도 세계관, 의식 수준의 각성이 아님은 생활총화에 대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생활총화를 응당하게 했다. 총화 내용을 ‘거짓 말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오직 근면하고 충실하게 대응했다.

이 점은 나선순 씨가 온 좋게 이미 시장 공간 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공간경험이 우물 안처럼 닫혀 있었기 때문에 한국영화를 접했더라도 문화적 차이에 대한 욕구로 반응하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의식면에서 보수성은 나선순 씨의 남편이 바람을 심하게 피웠는데도 ‘그저 내 보는데서 하지 말라’는 식으로 넘어갔던 행동에도 경험세계의 한계와 비슷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김미경 씨가 공간경험의 범위에 따른 자기 시야의 확장과 의식 수준의 변화를 보인 태도와는 반대된다.

시장의 공간체험에는 체험주체의 세대차, 조직생활문화 차이, 활동

I
II
III
IV
V

규모 차이 등을 반영한다는 가설 하에서, 활동규모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업가형의 경우를 살펴보자. 북한은 시장의 발전상 나름의 규모를 가져가면서 질서화가 나타나는데, 연변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전언에 의하면 “2008년 보니, 사회가 질서가 잡혀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버스운수사업의 변화를 보면, 7, 8년 전부터 버스를 콩나물처럼 태워 가는데, 100원 받으면 다른 곳에는 70원 받았다. 이렇게 값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값이 딱 정해졌다. 그런 속에 벌이가 나왔다.”²⁰³ 이런 가운데 장사도 규모가 생기고, 성공적 여성 기업인도 생기게 되고 문화적 차별성도 보이게 된다. 이런 부류의 여성들은 한국영화 한 번만 봐도 조선영화 못 본다는 표현을 하고, 자본주의 문화를 쉽게 수용한다.

자체탄광 기지장을 하는 여성이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을 초대할 자리를 보자.²⁰⁴ 값비싼 유행복 입성에 ‘가꾸어진 꽃밭처럼 자연미는 없었지만 모두의 얼굴 미용은 별로 미인은 아니더라도 하얀 얼굴들을 한층 더 보기 좋게 만들어’, 장마당을 돌아다니며 얼굴을 햇볕에 그을린 일반 여성들 모습과는 태가 다르다. 이들은 ‘지금은 돈이자 인격이고 인격이자 세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기를 바란다’는 욕망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의 차별성을 드러내려는 욕구가 강렬하다.

한 여성 자전거 선구자의 경우를 보면, 1990년대 초 사적지 견학차 혜산을 다녀오면서 그곳 시장에서 국내제품과 질적으로 대조가 되는 중국 수입상품을 접한 후, 여성주문옷 판매 상업에 뛰어들었다. 두 지역의 수요공급 차이를 연계시켜 수입을 올리는 장사를 하면서, 편

203- 연변인 채씨 전언, 2010년 3월 중.

204- 손혜민, “스칼렛 오히라”와 조선여성, 『임진강』, 7호 (4월호, 2010.03), p. 113.

리한 기동력을 발휘하는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이윤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아차리고, 남 먼저 그것을 이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여자가 자전거를 타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봉건적 문화 낙후성, 세대 간 가치관의 갈등이 있었다.

자전거를 발단으로 번진 격동은 그 여성을 낳은 질서로 되돌아갈 수 없도록 단호히 리탈시켰다. 아니, 오히려 그 여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찾아 새로운 길로 나서도록 떠미는 추동력이 되었다. 단순한 부부나 가정 내의 불화로 인한 대결이 아니라 신구 세대 가치관 사이의 비타협적인 상황, 즉 “누가 누구를?”하는 사태로 번지었다. 1년 후, 마침내 리혼을 하고… 그녀의 뒤를 이어 거리에는 이미 여성 자전거행렬이 흘러넘치면서 그 여성은 새 세대 선구자로서… 10년쯤 지나서는 복장업의 중심에 선 기업인으로까지 되었다.²⁰⁵

‘자전거 이혼’ 사태로 번진 것과 같은, 여성들의 공간경험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 변화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듯하다. 여성들이 개척한 경험세계의 중심에 남편보다 높은 수준에 놓이는 ‘자전거’가 상징하는 바는 남성권위주의에 금이 가고 있는 현실 인정이다. ‘장군님 선물 녹음기’를 팔아 자전거를 샀다는 여배우 일화²⁰⁶가 회자되고, 여성들의 자전거 금지령을 김정일 방침²⁰⁷으로 내려보낸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여성 자전거는 젊은 여성들의 돈주 스타일, 새 세대 유행의 문화상징이었다. 자전거 이용이 문제가 아니라, ‘여자가 자전

²⁰⁵ 채순, “개인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대중화된 자전거 이동수단,” 『임진강』, 9호 (2010 가을), pp. 89~90.

²⁰⁶ 위의 글, p. 90.

²⁰⁷ 이 방침은 2000년에 내려져서 여성의 교통권이 단속대상이 되었지만, ‘자전거 전쟁’에 저항하는 여성들에 밀려 2010년 1월 방침에 여성에 대한 자전거와 치마단속을 없애게 되었다. 위의 글, pp. 97~101.

I
II
III
IV
V

거를 타면...’이라며 관습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남성중심 세계관에 대한 도전이 문제인 것이다. 이동과 운반 수요를 창출한 공간경험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끌어낸 실리에서 더 나아가, 여성의 물적 토대가 구축된 만큼 가부장 체제에 틈을 만드는 새로운 의식과 문화 욕망이 표출되는 것이다.

30대에 시장에서 성공한 한 여성은 “마흔 살까지는 경제적 토대를 이대로 닦아 놓다가 사십대 가서는 그때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갖자. 명예, 권력, 이거 내가 포기한 상태가 아닙니까? 이걸 이제 내가 이때 가서 몽땅 찾는다, 이제 내가, 이렇게 인생 계획을 짚” 세웠다(사례 40). 경제적 토대와는 다른 차원의 것으로 발전하는 의식의 변화에는 물적 토대가 있기 때문에 여자도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제된다.

그것은 생계형이 아니라 더 잘살기 위한 욕망에서 필연적으로 바깥 세상에 대한 경험 확장을 요구한다.²⁰⁸ 국가는 중국방문자 숫자를 제한하여,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외부의 영향을 차단하려고 하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여권이나 비자를 받기 위해 드는 비용과 시간이 수백 달러에 몇 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는다. 그만큼 외부 세계에 대한 전망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전망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의 경우로 보면, 경제적 생활고를 해결하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발전적인 ‘욕구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²⁰⁸ 고난의 행군시기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두만강, 압록강을 도강하였지만, 점차 생계형 비법월경은 줄어들고 도강자도 생활여건을 낮게 하려는 발전된 욕구로 변화했다.

(2) 중국경험을 통한 변화

북·중접경지역은 북한의 대외 교류가 음으로 양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외국 문화의 주요 통로가 된다. 북한 주민으로서 중국을 경험하는 경우는 비자를 받아서 친척 방문을 하는 경우가 가장 공식적인 통로이다. 이 경우는 1960년대 일본의 북송과 같이 중국 교포가 귀향의 목적으로, 또는 이주와 같은 상황으로 교육이나 직업을 얻기 위해 북한으로 들어갔던 장본인이거나 그 친척들이 기본 인원이 된다.²⁰⁹ 또 공식 방문을 위해서는 이런 비슷한 상황을 빌미로 하여 친인척 관계를 꾸며서 방문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중국 연구자로서 중국을 방문한 북한사람을 ‘사사여행자’로 통칭한다. 사사여행자 외에 비법 월경자인 탈북자는 결혼 등으로 정착하거나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중국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중국 경험을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주민 의식의 변화와 사회적 영향은 방문 횟수나 접촉 체험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대개 외부와의 접촉을 매우 두려워한다. 3대 세습이 북한정치의 관건이 되고 있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중국에 ‘안기부와 특무가 가득하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그 현실 상황 맥락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움에 떨게 된다. 이런 방문자들도 대부분 한국방송을 접하게 되는데, 위성방송을 시청하는 중국 조선족 가정에서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식이 없는 문화접촉은 보는 것일 뿐, 문제의식을 갖게 하지는 못한다. 문화 차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학습효과’를 만들어 내기 전에, 개방된 사회를 일방적 우위에

²⁰⁹ 리규이, “바둑치-한 중국 귀국자의 이야기,” 『임진강』, 6호 (2009.01), pp. 45~61 참조.

I
II
III
IV
V

놓고 문화 차별성을 강조 받게 되면, 열등감이 뒤섞이는 의식의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한 전언 사례를 보자. 어머니가 형제들 도움을 받기 위해 중국사사 여행을 해왔는데, 사망하여 그 딸이 이모 집을 방문한 경우이다. 2010년 8월, 처음 방문한 여성 양 모씨(50대)는 자녀들 결혼 자금과 생계비를 보조받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동안 어머니가 받아온 중국 친척들의 도움으로 생계에 보탬이 되었는데, 그들이 후대까지 돌봐줄 마음이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씨는 도움을 안 주는 친척들을 원망하고 있을 뿐, 처음 보는 바깥세상인 중국사회가 궁금하여 돌아보거나 생활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의 가치를 잡을 줄 몰랐다.²¹⁰ 양씨의 경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목적 이외의 일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을 수 있다. 외국이란 여비와 안내자 없이는 여러 가지 미지의 두려움만 있기 마련이다. 게다가 북한정권은 ‘안기부와 특무’가 활동한다는 뜬소문을 만들고 그것을 사실처럼 주입했다.²¹¹ 외국에서 자본주의 사상에 물이 들고, 반체제적 싹이 트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안기부 간첩잡이’를 실제로 두려워한 것이다.²¹²

이와 같이 닫혀있는 의식세계도 국경을 넘어 개방된 사회를 여행함

210- 연변인 강씨 전언, 2010년 9월 중. 강씨는 이 방문자에게 적극적인 조언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211- 한 실례를 보면 “**에서 무슨 일이 안되면, 안기부 돈 받아먹고 불났다. 기차가 가다가 철길이 사고 났어요. 안기부 돈 받아먹고 기차 사고 났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 **장도 그런 소문났거든요.” (사례 10)

212- 안기부를 들먹여 안보위기를 부추겨서 실제로 간첩잡이를 하므로 공포가 된다. 이를테면 자본주의 바람, 즉 ‘비사회주의 현상’을 검열하여 공개재판을 한 2000년 해산사건에서 한 여성 기업인 박정순을 처형한 죄목은 ‘안기부의 돈을 먹고 리용당함’이었다. 이런 일은 반체제 저항을 사전에 제압하는 한 수단이 된다. 름근오, “<선군의 통치방식을 짚어보다> 2000년 해산 비사검열과 그 잘못,” 『임진강』, 7호 (2010.03), p. 17 참조.

으로써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고 인식이 변화하는 이차적 의미의 공간경험이 형성된다. 북한사회에서 중국 사사여행자들은 부러움의 대상이다. 역사적으로는 북·중협약으로 1980년 중반부터 여행통로가 열렸는데, 그 혜택자들이 상대적으로 잘살았다. 사사여행은 단혀있는 사회에서 외국을 보았다는 점과 ‘국가로임’(월급)으로는 얻을 수 없는 재부를 가져다주기 때문에 선망한다.

1990년대 말까지 사사여행자들은 정해진 기일 안에 친척들이 주는 재정이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이 관례였다. 대혼란기를 넘어 시장경제로 변한 현실은 사람들에게 자립적인 자본만이 살길이며 자본을 마련하는 데 제도적 장치를 서서히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의 발현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사여행자들에게 기존의 틀을 벗어나게 했는데, 자본을 만들기 위해 노동력을 팔았다. 처음에는 중국의 식당, 가정집에서 보모로 일하면서 귀국기일을 연장하여 일 년 동안 돈을 벌며 가서는 상부에게 사업비를 주면서 음성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이것이 서서히 밀접한 의례적 관계로 시장화하면서, 시간을 얻어²¹³ 해외세력과 대방을 잡아 기업까지 끌고 나가려는 의식변화가 2000년대 중순부터는 공식화하였다. 화폐교환이 지난 올해부터는 기일연장이 아닌 외국에서의 노동력으로 장기간 돈을 벌며 집안의 무너진 재정을 일떠세우려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되었다.²¹⁴

이 전언은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했던 사사여행이 중국을 통한 자본문화접촉 효과로 인해 의식과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는 ‘노동현상’으로 이행하는 현실을 확인해 준다. 공간경험의 확장이 새로운 문화수용으로 되는 과정은 북한사회의 변화를 읽는 중요한 단면이기

²¹³ 직장에 적을 올려놓고 돈을 내면 출근하지 않고 개인 벌이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 흔히 이런 경우를 ‘8.3’이라 한다.

²¹⁴ 연변인 채씨 전언, 2010년 9월 중.

I
II
III
IV
V

에, 다양한 층위를 점검하는 비교 사례로, 중국 귀국자인 고속자 씨(60대)와 개인 기업을 하다가 사사여행자로 중국을 방문했던 도정순 씨(40대)의 경우를 살펴보자.

1984년, 처음 엄마 보러 왔다. 중국 친척들 도움으로 아들, 딸 결혼을 시켰다.

1988년, 두 번째 장사머리가 났다. 명태 값이 배(倍)가 되고, 낙지가 얼마가 남는다는, 시장 가격의 차이를 이용하면 되는 것을 알았다.

1992년, 털게를 했다. 라진시장에서 무역하는 털게를 냉동해서 지함에 포장하여 중국으로 왔다. 도문에서 조선 게를 찾고, 그때 조선 돈이 녹었기 때문에 남긴 돈으로 조선에 없는 옷가지, 신발들을 사서 귀향했다. 세상에 가져가니까, 문쪽에 붙이 냈다. 연유도 꿀도 가져와서 신발 사가겠다고 했다.

1996년, 약재, 산수유를 가져왔다. 약재하는 사람에게 10키로 받았는데 대신 녹음기를 사 달라고 했다. 산수유를 손봐서 6키로 되게 가져갔다. 그 이후 산수유, 털게, 짝태(복어)도 외화벌이 품목이 되었다. 개인이 가만히 가져가는 것은 반동이라고 막았다.

2000년, 금을 가져왔다. 조선 금이 좋다. 아들 옷을 다 사고, 헛대보 같은 생활용품을 한 자동차 사 가져갔다. 아버지가 여기서(중국)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나도 그 머리를 닮았던 것 같다. 해삼도 가져오고 했는데, 지금은 마약과 얼음이 유행이다.

2005년, 명란을 했다. 바닷가에서 일을 하는 아들이 해서, 조선에서 한 근에 24원, 23원인데 배가 되는 장사였다. 명란 40키로, 낙지 10키로, 참미역과 함께 일본 세이코시계 두 개를 빚을 지고 가져왔다. 시계는 (중국 사촌)동생하고 동생 각시 주었다. 천 원 받았다. 일본 동포가 가져온 것 돈을 끈 것을 갚자니까, 엔 세장이라 장사 아니하니까 빚이 되었다.

2005년에는 조선 단가가 높아지고 장사가 안 맞아졌다. 돈이 나올 구멍이 없었다. 결국 빚 때문에 떨어져 중국에서 보모질을 하고 생계가 바빴다.²¹⁵

2002년도에 제가 법놀음 제가 좀 했던 말입니다. 2002년도, 아무래도 제처럼 이렇게 크게 나가는 사람은 법망에 딱 찍혀 있지 않습니까. 보위 사람들 검열 붙으면서 제가 제일 딱 걸렸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취조 받았는가? 약건에 걸려가지구. 그래도 그 약까지 어쨌든 백지화되기까지는 얼마나 재정이 들어갑니까. 다시 령이 댔던 말입니다. ... 령이 되서 그때 생각한 것이 그때 제가 느낀 게 뭐가, 나는 권력이 없구나, 나는 권력의 지반이 없구나, 그때 걸렸을 때 누가 우리 집에선가 권력이 있었으면은 누구나 다 해먹는 시장인데, 물론 남보다 하지 않는 좀 큰 장사는 압니다. 이런 약장사 일은, 크게 봤습니다. 그러나 한마디 누가 권력에 나서서 뭐야, 한마디라도 전화로 내가 좀 알아, 그저 좀 혼내라, 전화 한 통이면 전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전 이게 없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부터 열까지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다시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는 내가 재정이 없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다면 두 번째는 권력이 없구나, 권력의 그때 빈 공허함, 이 사회에서는 권력이 없이는 내가 앞으로 발전을 기다리기는 어리석은 망상이구나. 그러면 내가 권력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무슨 내가 사회적 집안,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저의 아버지하구 이야기 한 게 그 이야기했던 말입니다. “아버지는 왜 여지껏 살면서 우리에게 ‘군중지반’ 하나 넘겨주지 못했는가?” 군중지반이라는 게 뭐니까? 뭐 크게 제가 바랬습니까? 인맥관계, 이걸 저희한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맥 관계가 군중 지반 아닙니까?

... 말하자면, 이렇게 댔을 때게 큰 이런 호화세상은 몰라두 튼튼히 자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사둔, 다 이런 관계루 그때 느낀 제가 가만히 총화지은기, 부모가 너무 고지식한 당의 이런 생활로써 절름발이 인생을 걸었구나. 자기 것을 희생한 대가가 현실에 와서는 이젠 사회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여기서 우리 형제가 여기서 다시 시작해야 하겠구나, 령에서부터. 시장 하나만이 생활의 전재간이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 난 권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I
II
III
IV
V

215. 연변인 강씨 전언, 2010년 9월 중.

시장이라는 것이 벌써 이제는 개인시장을 지나서 이제는 무역, 개인 취업을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뒤에 제가 기업 기반, 무역 기반을 가지려니까 권력이 꼭 있어야, 그게 제가 이게 없구나, 나는 이게 안 된다, 이제, 이제 내가 이걸 개척하려면 시간이 공백이다. 난 해외에 나가야 된다. ... 좌우지간 그 누구도 생각 못했걸 전 하나 그때 난 해외에 뭔가 모르는 권력의 빈 공허, 난 너무 권력이 없구나, 해외로 나가야 된다, 뭔가 나가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조 문건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형제들이 보면 놀랍니다, 야 이거 넌 좀 특이하다. 우리 그런 거 특이성이라 말해야 됩니까? 전 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런 거 발전했던 말입니다. 동의서를 위조해서 돈을 투자해서 우리 언니랑 야, 너 무섭지 않니? 이런 건 도박이야, 이런 거 잘못하다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2003년도에 중국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사례 40)

고숙자 씨는 1960년대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갔던 사람이다. 북·중 합의로 친척방문이 가능해진 초기부터 사사여행자 대열에 끼어, 여섯 차례에 걸쳐 중국사회를 경험할 수 있었다. 그는 국가 간의 시장가격차를 발견하는 장사머리로 생활 여유를 만들어냈다. 그는 사사여행 때마다 품목을 바꾸어 가면서 국경 간 가격 차이에서 이윤을 낸 보따리상으로 끝났는데, 그는 왜 무역상이나 개인 기업가로 발전하지 못했을까?

그가 찾아낸 돈이 되는 물건은, 권력기관에서 하는 외화벌이 품목으로 통제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거래가 불가능했다. 북한의 시장화는 제도적 개방에 의한 것이 아니고, 외화벌이가 출현하는 초기부터 ‘국가권력의 탈을 쓰고 불공정한 특권을 행사하는 것이었다.’²¹⁶ 이런 까닭에 개인이 국가통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권력

216. 안중수, “북한 시장화와 주민생활에서의 변화,”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구조에 진입하는 국내 경험이 있어야 한다. 즉, 그의 장사머리는 국내 시장 공간경험에서 경쟁으로 올라선 것이 아니기에, 그 경쟁 속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일종의 낙오자가 되어 중국 내에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장기 체류자로 남았다. 이 경우 공간경험은 자본주의 사회를 받아들이는 의식에서 진보적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사회에서 배제되는, 타의에 의한 국외자가 되게 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탈북자도 아니면서 장기간 해외 체류자로서 국내와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으로써 간접적이고 잠재적인 사회 변화 동인이 된다. 이 지점은 북한사회 변동에 작용하는 의식변화상의 다양한 층위를 시사한다.

한편으로 고숙자 씨의 ‘실패’는 세대문화의 차이로도 이해되는데, 그와 비교되는 도정순 씨의 경우는 경쟁력을 만들어 내는 공간경험의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도정순 씨는 30대에 가내 수공업 제약업으로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던 경험을 가진 개인 사업가였다.²¹⁷ 그는 ‘법놀음’ 즉, 권력기관을 끼고 법망을 이용한 장사의 방법을 터득한 사람이다. 나중에는 비록 뇌물을 쓰느라 재정이 제로 상태로 추락했지만, 보위부 검열에 걸렸을 때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재정이 없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다면, 두 번째는 권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의 말대로, 시장에서 성공과 실패를 겪는 과정에서 그가 파악한 사회 권력은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권력이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북한의 ‘음성적 시장화’²¹⁸의 단면을 말하는 특권적 법놀음이 가능한

I
II
III
IV
V

남북소통의 길』(2010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08.12), p. 91.
²¹⁷ 그는 북한 경제기반의 붕괴로 제약공장도 멈추자, 가내수공업으로 링겔, 항생제 등을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균증지반’이 있어야 가능하다. 즉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되는 인맥관계’ 속에서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시장화 과정에서 북한사회가 특권적 기득권층을 형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뜻한다. ‘관료적 권한과 시장적 이익 간의 결탁·공모현상이 구조화’²¹⁹한 가운데, 이와 같은 인맥의 지반이 없는 것을 만회하여 그 상층으로 진입하기 위해, 도정순 씨는 해외인 중국을 기회로 잡으려고 한다. ‘시간의 공백’과 ‘권력의 빈공간’을 메우기 위해 선택한 “해외”는 그에게 뭔가 모르지만 바라는 것을 채워 줄 수 있는 막연한 전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도정순 씨는 30대에 시장 공간 경험을 했던 신세대로서, 앞에서 보았던 김미경 씨처럼 과감하게 위조문건을 만들어서라도 목표지점으로 진입한다. 도정순 씨도 시장을 경험하기 전에는 “조선에서 살 바에는 장군님이 내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내가 되자, 이게 내 목표”였던 사람이다. 그랬던 그가 사상과 무관하게 오직 실리를 추구하고 주관을 관철하기 위해 도전한 것은 돈을 먼저 벌었던 친구가 옷차림새에서 돈보이는 것을 보고, 당적·정치적 신임보다 경제적 재정이 압도하는 것을 알았기 때 문이다.

재판을 통한 교양사업, 이런 길 보고 균증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 누구 하나 쪽 나와서 재판을 받아서 한 명은 총살 먹구, 한 명은 교화 몇 년을, 약 장사를 했습니다. 약 제조, 향생제 제조, 지금 같으면 얼마나 대중적 시장입니까? 그게, 그런데 그 실행자들이 첫 선구자가, 그때 누가 생

²¹⁸- 위의 글, p. 96.

²¹⁹- 김중욱, “북한 관료들의 일상생활세계: 회색의 아우라,” 박순성·홍민 엮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p. 298.

각도 못한 항생제를 집에서 제조하구 이 일을 이렇게 해서 한 명은 총살하고 몽땅 교화에 쓸어 넣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난 이상하게 거기서 뭔가 발견하게 된 거는 아 저거구나, 저게 시장의 싸이로구나, 나두 저거 해야 되겠다, 내가 처음 하게 된 동기입니다. (사례 40)

인용에서 보는 바처럼, 도정순 씨는 공개재판이라는 정치적 사건에서 사회주의 가치관에서 움직이지 않는 시장 도전자를 성공 모델로 삼았다. 이 측면은 고속자 씨가 시장에 적응하는 것과 다르게 능력을 발휘하는데,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판단하는 일종의 가치관의 변화를 엿보게 한다. 자본시장에 대한 감각적 이해가 있었기에, 그는 콜레라가 유행할 때 약을 만들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시장경험이 축적됨으로써 위조문건을 만들어서라도 중국행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은 북한과는 큰 차이가 있는 문화적 이국이다.

외국은 모든 게 다 번쩍번쩍하니까 돈도 나무에서 푹푹 딸 것이다. 아주 환상적인 가서 돈을 한 배낭 메고와서 두 달 만에 와서 내가 기업을 차린다. 이런 시장은 눈에 다 트인 상태니까. 이렇게 나와서 제가 첫 심리적 타격 받아 안은 거지. 약소민족의 슬픔, 야, 이게 아니로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외국이라고 돈이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구 이런 자본의 국가일수록 돈에 대한 이런, 이게 얼마나 피땀으로 이뤄지구, 시장 경제 모든 것이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여기서 내가 뭘 깨달았다고 말해야 될까? 뭔가 인식이 확 바뀐단 말입니다. (사례 40)

중국방문 후 북한과 비교하여 보는 가운데 도정순 씨는 잘못 생각했던 환상이 깨어지고 인식이 확 바뀌었다. 이미 시장에 눈이 트였기 때문에 자신이 있다고 알았는데, 진입할 수 없는 벽이 있음을 안 것이다. 즉, 시장과 사회문화의 차이를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첫째는

I
II
III
IV
V

북한에서처럼 자본이 없이 ‘영(零)’에서도 시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선택한 길인데, 외국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약소국의 약자로 전락해 있다. 인맥관계, ‘군중지반’을 만들면 돈이 없이도 장사 할 수 있는 곳이 북한인데,²²⁰ 북한식의 신용이 중국에서는 통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자신에서 문화차이 상의 높은 벽을 느낀 것이다. 이 열등감 때문에 또다른 도전이 생기는 반면, 중국과 비교해서 시장의 성격을 다르게 파악하는 측면에서는 발전의 가능성이 열린다.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의식이 북한내부로 향할 때, 시장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파고들어 가게 한다. 도정순 씨는 돈이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냉혹함을 보았다. 또한 자신을 되짚어 보고, 외부 세계와 실질적 문제로써 비교하는 ‘대상’을 발견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경험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환점이 된다.

중국경험이 다르게 비교되는 한 농촌 출신의 방문자 한 모씨(59세)의 말을 들어보자. 그는 중국이 자유세상의 경제가 발전해 인민생활에 걱정이 없고,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인민들이 쉽게 일할 수 있어서 좋고, 교육문화가 발전해 인민들이 선진국에 유학하여 문화수준 과학기술의 시대가 되어 좋고, 보건부문이 발전되어 병이 나도 약이 많아 좋고, 인권존중, 사람중심의 나라라고 인식한다. 반대로 북한은 세상

220- “우리 동생 돈 좀 벌게 해주라, 이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권력을 꺾어서 좋아, 하나는 돈 잘 쥐서 좋아. 준단 말입니다, 달라는 대루. 그러하면 이 사람은 다음부터 자기 능력이란 말입니다, 친절하게 자기 어느 만큼 빨리 유통키는 거, 그 팔지 못해서 (있는 물건을) 다 팔아치우고, 그 돈가지구 다시 나가구. 그리고 그 돈 총화 해주고 이번엔 수매해 달라, 요구대로, 시장이 이렇게 넓혀져, 아 시장이 이렇게구나, 내 이때 그 원리를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인맥이 담보로 해서.” (사례 40) 이처럼, 북한시장은 자본이 ‘영(零)’이라도 인맥을 담보로 해서 외상으로 받은 물건을 팔아서 돌리는 방법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을 너무도 몰라 경제가 발전하지 못해 의식주 문제가 곤란하다, 틀에 박혀 기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생계유지를 위해 과학기사가 시장에서 장사하여야 하는 현실이다, 자기 권리를 향수하지 못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중국을 잡자면 30년이 걸린다고 말한다.²²¹

중국을 볼 때 한씨는 좋다, 못하다는 피상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고, 눈에 보이는 물질생활 수준 차이를 크게 느끼고 있다. 반면에 젊은 세대의 도정순 씨는 문제의 방향을 자기 능력으로 돌려서, 진입할 수 없는 한계, 열등감과 문화장벽을 느꼈다.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인식 여부가 세대 간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사사여행자에게 다양한 수준의 경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

밑천을 해서, 제가 다니는 장사에서 조금 이윤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돈이 있으면 그런 장사를 할 수 있겠다, 업종적으로 이런 생각해서. 일 년만 중국 와서 고생하게 되면 밑천을 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니까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례 38)

중국에 친척 방문 왔던 사람들이 다 장사 다니잖아요. 해외 장사 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거 있으니까 말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아니로구나. 중국은 잘산다, 중국보다 한국이 잘산다, 한국보다 미국이 더 잘산대, 뭐 이러며. 여론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을 가진단 말이지. 살아봤으면 좋겠다. (사례 43)

민경옥 씨(30대)는 안내자를 따라 2008년에 두만강을 건너와서 중국 친척집 식당에서 복무원을 했던 사람인데, 도강(渡江)을 했던 이유는 이윤을 내는 국내 장사 밑천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살아봤으면

²²¹ 연변인 강씨 전언, 2010년 7월 중.

I
II
III
IV
V

좋겠다는 환상을 가지는' 경우는 대개 외국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접하기 때문이다. 환상과 피상성은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기대를 낳지만, 직접 체험함으로써 얻는 판단은 '오니까 가고 싶지 않다'는 선명한 경계를 긋는다.

민경옥 씨는 그런데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곳 정도로 알았던 중국이 생활 편의 측면만으로도 질적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 또 '불 하나에서 매혹되었다'고 했다. 강을 사이에 두고 야간 조명만 봐도 전기사정이 좋다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직접 가사노동에서 진가를 발휘하는 편의성을 누려보는 것은 다른 의미를 준 것이다. 그의 경우는 문화충격의 강도가 삶의 길을 다르게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²²²

이와 반대로 중국에서 돈벌이를 하면서 낮은 대우와 인격적 모욕을 받음으로 인해 중국생활에 대해 '지긋지긋한 생활'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돈을 벌자고 하니까 보모질도 해보고, 보모질 하느라 하면 주인하고, 나는 일하는 사람이고. 한테, 그 주인 자체가 어딘가 조선 사람이라고 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해서 몹시 그렇게 보는 감은 내가 가진단 말야. 이럴 때마다 소위 자존심이라 할까. 이래서 이 생활 얼마나 해야겠는지 지긋지긋하구나. (사례 41)

북한 여성의 중국경험은 초기에 식량난으로 대량 탈북했던 '고난의 행군'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위 사례처럼 사사여행자로 왔다

²²² 북한 내부를 보고 이해하는 데에도, 단순히 '강너머 바라보기'가 아니라, '건너서 뒤집어보기'를 하여 체험강도를 높임으로써 실상에 다가갈 수 있음을 말한다.

가 돈을 벌기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되어 불법 신분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 김현숙 씨(60대)는 인권 침해가 흔히 발생하는 외국인노동자 신세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면서, “이 생활 얼마나 해야” 하는지 모를, 전망 부재의 총체적 사회현실문제 앞에 끼여 있다. 주민들이 시장이 없이는 살아가기 불가능한 상황으로 되고 있지만, ‘시장이 계획체제를 대체하는 메커니즘을 확립하지 못함’²²³으로써, 개인이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일상의 삶은 비법적인 일이 되고 만다. 문제에 도전하자면 권력과 결탁하고 뇌물을 주고 인맥관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기성세대로서 이미 내면화한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현실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다.

구세대는 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문화차이를 극복하는 힘도 약하다. 하지만 40대 이하의 북한여성의 경우는 문화충격을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을 보인다. 1990년대 시장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국을 경험하는 젊은 세대들은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면서 인터넷, 영화, 방송 등 한국문화에 친숙해진다. 사업 수완이 남다름을 과시하려고 하고, 패션과 유행에 대한 감각을 표현할 줄도 안다. ‘남편은 아주 빨강다’는 말로, 정치체제상의 불만이라고 볼 수 있는 의식의 단편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치와 경제를 철저히 분리하며, 외부세계의 사람들과는 정치적 문제에 침묵함으로써 오직 돈벌이를 위한 공간으로 중국시장을 활용한다. 사사여행자이지만, 개인외화벌이 사업가로서 수완을 발휘하여 한 푼이라도 돈이 되는 품목을 찾아내어

²²³.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희진, “북한 시장의 진진과 후퇴: 수직적 이중경제 체제 중심,” 『기로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은?』 (현대북한연구회 창립1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2010.08.24) 참조.

I
II
III
IV
V

북-중 양방향으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실어 나른다. 그들 중에는 ‘순창고추장’, ‘금영노래방기기’ 등 특정 한국 상표를 선별하여 쓸 정도로 소비생활수준이 높아져 있다.

한두 번의 방문으로는 개방사회의 의미나 시장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지만, 시장의 작동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중국경험 정보를 축적하여 개인의 경제적 삶을 윤택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한다. 즉, 양쪽 시장의 차이를 체득하고 경제의 흐름을 만들거나 편승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한편 방문자의 중국체류가 길어지는 경우, 방문자의 네트워크²²⁴에 의해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공간을 형성한다. 이때 탈북 브로커와 연결되는 경우도 생기고, 한국행이라는 새로운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갈등을 겪기도 한다.

이와 같이 중국 동북지역의 변경은 북한 사시여행자들에게 기존의 삶에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욕망의 발전소’의 역할을 한다. 국내시장의 경험을 중국사회로 확장시키는 경우는 문화충격의 체감 강도가 높아지고, 이는 실질적인 의식의 변화로 연결된다. 주민의식 변화가 체제변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가설을 세워볼 때, 중국경험은 북한 사회의 변화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변수로 된다. 방문자들은 중국경험으로 생각과 의식이 바뀌고 북한 내부와 충돌하는 가치관을 가진다 해도, 일단 길으로는 변화를 숨기고 귀국한다. 국경이라는 경계가 체제적 단절을 만들고 있지만, 시장의 물류와 심리적 경계를 단절하지는 못한다. 즉, 제한적 의미이지만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은 직간접적

²²⁴ 방문자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클럽모임이나, 단동의 산마루와 같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교류하면서 돈벌이 직업소개, 새로운 생활정보를 나누고 있다.

으로 중국변경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변경문화를 형성해 가는 열린 공간으로도 이해해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의 물질문화 수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를 폐쇄적이라 보는 진부한 이해에서 벗어나, 변화의 계기가 다각적으로 작동함을 보고, 이 측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²²⁵

다. 의식 변화의 양상과 영향

(1) 가정생활 측면: 성역할과 가족관계의 변화

북한 주민의 가정생활에서 문제적 의식은 봉건적 가부장성을 벗어나지 못한 점이다.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기서는 여성들 구타 건수가 많습니다. 남편한테 구타당하는 게. 남자들 반응이... 첫째로 맞을 짓을 했길래 맞았지. 둘째는 여자가 꼬리치기 시작하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거고. ...뚜드려야 여자가 고분고분해지지, 그러지 않으면 요즘 세월에는 여자가 벌이하는 세월이기 때문에 남자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똥 쏘자고 겁어든다. (40대 남성, 사례 13)

세월이 바뀌어 여성의 역할이 높아져도 폭력을 사용하면서까지 여성지위를 종속시키려고 하는 가부장 권력은 가족 내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이는 과거 북한 사회체제가 공산주의적 도덕품을 강조하고 ‘아버이 수령’을 중심으로 한 집단주의를 지향하면서 형성된 ‘집단 가부장성’과 중첩된 모순을 띠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초반에 등장한

²²⁵ 노귀남, “북한 여성의 의식 변화와 평화소통의 길,”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남북소통의 길』 (2010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08.12), pp. 67~69 참조.

I
II
III
IV
V

‘사회주의적 대가정’이라는 이념은 여성의 가정생활과 가족관계의 가치를 완전한 사회주의의 것으로 바꿔놓으려 했다. 대가정의 요구는 ‘단결이 힘의 원천이며 승리의 결정적 담보’라는 단순한 논리 속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세계관으로 몰아갔다. 당과 수령을 구심점으로 온 사회를 단합된 대가정으로 전면시켰던 일은 모든 인민들을 마치 한 개의 혈연적 집단처럼 무조건적으로 움직여 김일성 유일체제의 당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관철하는 실행력이 되었다.²²⁶

그런데 1980년대 후반에 배급경제가 심각성을 더해가고, 외화벌이와 외국문화를 대중들도 접하게 되는 가운데, 가정생활에서 여성의 자의식이 싹트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그 무렵에 나온 백남룡의 중편 『벗』(1988)을 분석적으로 보면, 북한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혁명적 가정에 균열이 일어나는 징후를 찾아볼 수 있다.

『벗』은 여성이 가부장에 도전하여 이혼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로, 정진우 판사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관료의 전형을 그리고자 한다. 이혼 문제에 대한 주제적 관점을 인민성의 문제, 즉 관료와 인민 관계를 ‘벗’으로 하는 구도로 설정하여, 가정 기능을 당과 인민을 하나로 묶는 집단주의 사회를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정상화시킨다.

하지만, 주인공을 채순희로 놓고 여성 관점으로 이 작품을 재구성하여 보면 다른 의미가 읽힌다. 그것은 당과 인민의 관계에 대하여 진부하게 교양된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혼하겠다는, 집단의 가부장성과 가족 내 가부장성의 이중적 모

²²⁶ 노귀남, “소설로 본 북한문학의 가정생활-1980년대 말 이후를 중심으로,” 김중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4』 (서울: 청동거울, 2007).

순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즉, 당과 인민을 하나로 하는 사회주의적 대가정에 균열이 일어나는 현상이 감지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²²⁷

다시 말해, 『벗』은 집단 중심의 가치관 속에서 여성을 통해 자아와 개성을 표출한 것인데, 집단주의적 의식에 일종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실생활에서도 1990년대 경제난이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배급 식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여, 계획경제체제 내의 공급부족의 틈을 보충하는 소비시장부문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던 바,²²⁸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전후하여 시장을 매개한 개인의 개성적 욕망이 유행적으로 표출되었다. 당시 간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초년생이었던 옥미화 씨(40대)의 말을 들어보자.

남조선은 계속 시위한다고, 병도 던지고 막 그러잖아요. 최루탄도 막. 그런걸 텔레비에 내보내거든요. 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는 이런 거 한다고, 시위투쟁 한다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몰랐는데 대학생들 옷 엄청 잘 입었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와, 저 남조선 맨 거지만 있고 집도 판자 집밖에 없는데 옷을 어떻게 잘 입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임수경이 왔어요. 임수경이 왔을 때 옷 입은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임수경 와서 입은 옷 스타일이 그다음에 유행이 됐어요. 북한은 티 같은 거 입고 밖에 못 나갔어요. 그걸 속옷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입고 나가면 단속하거든요, 안전원들이. 이런 정장 같은 거 갖춰 입어야 돼요. 잠바 같은 거 입어도 티도 못 입었어요. 그런데 임수경이 오면서 유행이 됐어요. 그 티가, 평양에서부터 유행이 돼 가지고 티가 엄청 잘 팔렸어요. 그리고 임수경 바지 있잖아요. 색깔까지 유행이 돼 가지고. (사례 10)

227. 『벗』에 대한 작품 분석은 노귀남, “‘인민성’의 문제로 읽은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경희어문학』, 제17집 (1997) 참조.

228. ‘북한경제가 상시적으로 필요로 한 시장부문’에 대해서는 안중수, “북한 시장화와 주민생활에서의 변화,” pp. 90~92 참조.

I
II
III
IV
V

유행이란 자본시장의 소비를 늘이기 위한 욕망충동이 관건이 되는 현상으로, 개인의 욕망이자 집단화한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1990년대 국가경제 위기 속에 개인과 가정이 생존 위기에 몰리면서 자구책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으로써, 오늘날 북한의 가정과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가치관은 시장과 관련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²²⁹ 북한에서 유행과 시장이 결합된 매개로서 ‘임수경 스타일’이 젊은 층을 매료시켰던 일은 의미가 깊다. 젊은이들에게 “씩어빠진 자본주의 사회”라는 선전 방송보다 “대학생들 옷 엄청 잘 입었던” 사실이 더 인상 깊게 다가갔는데, 임수경 스타일은 그 영상 속의 옷에 대한 이미지가 사라지지 않고 실제 유행으로 폭발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말하자면 북한 젊은이들에게 유행의 원형은 ‘남조선(남한)’, ‘자본주의’, ‘여성’이 시장의 주요 코드를 이루는 가운데 되새겨진다. 마침내, 북한사회에서 물질생활을 영위하는 데 시장은 없어서는 안 되는 일상공간이 되고, 기존의 계획경제 때의 생활문화와 다른 양상들을 발생시켰다. 한국의 위성방송 드라마가 방송 하루 만에 북·중접경지역에서 DVD로 만들어져 북한 쪽에 팔리고 있듯이,²³⁰ 생활의 수요가 있는 곳은 어디라도 상품을 공급하는 시장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남한, 자본주의, 여성의 코드를 결합하면, ‘자본주의적 가치

²²⁹-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 이후 북한의 시장 발전단계를 보면, (1) 1단계는 배급제가 전반적으로 무너지면서 장마당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시장의 폭발기’(1997년 무렵까지), (2) 2단계는 7.1경제관리조치가 나오기까지 선군 정치에 의해 군부에게까지 시장화가 확산한 ‘시장의 정돈기’ (1998~2002년), (3) 3단계는 박봉주 내각에 의해 종합시장화 조치에 의한 ‘시장의 개화기’ (2003~2006년), (4) 4단계는 김영일 내각 등장과 시장 개선정책 후퇴기로, 종합시장보다 상점화, 매점화에 중점을 두는 시기로 ‘시장의 불경기’로 나눌 수 있다. 위의 글, p. 92.

²³⁰-“남한 드라마, 하루면 북한에 간다,” 『연합뉴스』, 2010년 10월 20일.

관이 가정생활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또는 ‘여성들의 새로운 의식과 가치관이 사회변동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 전자는 아래 제1절에서, 후자는 제2절에서 다루보자.

앞 절에서 살펴보았던, 시장경험을 통해 자본주의 머리가 트였다는 말은, 기성세대와 비교할 때 신세대 여성들이 시장 없이 살아갈 수 없게 된 가정생활을 꾸려가야 하는 새로운 현실 앞에 빨리 적응하고, 동시에 사고방식을 바꾸어 자본주의 의식을 쉽게 따라간다는 측면에서 진보적인 성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신세대 여성의 변화는 ‘여성주체에 의해 남한문화를 선망하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시장 성격을 변형시킨다는 가설을 세워보게 한다.²³¹

아래에서 최근의 시장상황을 통해 이 문제를 먼저 살펴보자. 2009년 11월, 화폐교환과 동시에 단행한 시장규제 조치는 시장에 의존해 있는 주민의 생활을 흔들어 놓았다. 왜 정권은 “자기 능력껏 벌어들여 가만히 두면 의견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사례 12)라며, 시장을 규제하지 말아 달라는 주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가? 2003년 종합시장화 조치로, 새로 건설한 시장 안에 매대를 꾸려놓고 관리체계 아래 주민 장사를 허용했던 시장정책을 왜 다시 뒤집으려고 하는가?

장마당 문제는 내 아는 데까지 얘기하겠는데, 철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있을 때만 해도 일체 중국 상품 못 판다. 그래서 못 팔고 가지고 있다가 가만가만 조금씩 팔았는데, 4월 1일부터 중국 상품이 들어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점에 가져간다 했는데 지금은 원래대로 됐죠. 왜 그러냐?

231. “이게 아랫마을 거요 높이도 말 안한단 말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한국 중고라면, 어쨌든 중국 중고보다 월등하니까.” (사례 12). 이 역시, 남한문화를 선망하는 성격을 말해준다.

I
II
III
IV
V

상품이 온다는 게 안 왔으니까. 사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너네 가지고 있는 너네 상품이라도 팔아라. 그래서 원래대로 들어가서 팔고. 또 하나 뭐인가 하면 올 때 상품을 상점에 놓게 되면 사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늙은이만 앉히겠다. 말로는 우리 그때는 50 이상만 앉히고 농산물 같은 거나 팔게 하고, 아래 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 얻어서 일하라. 그런데 상품이 안 들어왔으니,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 제자리 앉아서 팔아라. 원 상태로 뒀습니다. 그런데 뭐이 원상태대로 아니 돼서 인민들이 애를 먹나? 가격이 100분의 1 상품이 안 들어왔으니까. 10분의 1로 판단 말입니다. 그런데 돈은 화폐 교환한 조그만 돈 가지고 있으니까. 그동안 살았으니 돈은 없지, 상품가격은 10분의 1이지. 상품 사자니까 비싸고. 입쌀도 못 사고, 돼지고기도 내 올 때만 해도 5천인지 6천인지 했습니다. 돼지고기도 사 먹을 궁리도 안 하고. 기름도 있는 집은 있고 없는 집은 없고, 내 말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더 바쁠 겁니다. (시장이 열렸기야 하는데 손님이 없겠네?)²³² 손님이야 있지. 그 시장을 이용 아니하면 갈 데 없으니까. 자기에겐 적당한 거. 돈이 적은 사람 녹은 거 사고. 돈이 많은 사람은 비싼 거 사고 좋은 거 사고. (사례 41)

중국 방문자 김현숙 씨(60대)가 구술한 내용에서만 살펴보면, 2009년 화폐교환의 후속조치인 시장규제는 두 가지였다. 첫째, 시장의 상점 확대, 시장을 철수시켜 개인이 중국상품(공업품)을 일절 못 팔게 했다. 대신 시장을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점’으로 대체하려고 했다. 둘째, 시장을 원래 농민시장으로 복귀시키려 했다. 그것은 시장 규모를 축소시켜 시장활동은 50대 이상만 허용하여 농산물 거래만 하고, 젊은 여성들은 직장에 복귀시키려는 조치였다. 비어 있는 상점에 놓을 상품은 중국의 협조로 들어온다고 했는데,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²³²-괄호 안은 연구자의 질문임.

않았다. 그래서 결국 ‘너네 상품이라도 팔아라’하여 주민들은 원래 시장에 다시 들어가서 팔 수 있게 되었다. 시장이 원 상태로 되었는데, 주민들이 더 고통스러워진 것은 가격 폭등이었다. 구권과 신권을 100:1로 바꾸면서, 중국에서 상품을 들여와 화폐교환 비례대로 가격을 100분의 1로 낮추려고 했다. 그러나 주민 수종의 돈은 100분의 1로 줄었는데 상품 가격은 10분의 1로 되어, 실제로는 가격은 폭등하고 구매력은 90%가 증발해버린 결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열려 구매력에 따라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권의 화폐개혁과 시장규제의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그 성패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할까? 시장은 장마당에서 성장한, 주로 여성들이 참여하여 발달시켜 놓은 ‘주민의’ 시장을 뜻한다. 즉, 활동주체가 관이 아닌 주민이다. 반면 상점은 운영주체가 ‘국가’이고, 국가 주도로 시장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바꾸려는 것이다. 왜 그런 조치를 취했는가?

여기에서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1990년대 시장 폭발기를 경험한 신세대 여성들의 진보성 문제가 발견된다. 권력과 결탁한 큰손 돈주들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시장발달에서 신세대 여성들이 주목 세력으로 약진했고,²³³ 시장화 과정에서 극심한 빈부차가 가시적인 일상생활 속에 들어왔다. 그 이면의 실상을 여기서 다 분석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화폐교환의 구도 속에는 시장경험을 통해 진보의식이

²³³ 다음과 같은 구술은 시장에서의 신세대 여성들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우리가 장사 큰 장사 했거든요. 큰 장사는 한 3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보다 더 큰 장사가 많으니까. 초창기에는 우리가 크다 했는데 이젠 우리가 밀려요. 30대 젊은 사람들이 팍 일어났어요. 우리 나이는 밀려요. 그 사람들 따르지 못해요. 돈이 더 많아졌어요...갑자기 춤추기 시작하게 2005년부터. 개네를 우리가 따르지 못해요.” (사례 19)

I
II
III
IV
V

커져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들어 있었고, 이를 은폐하여 주민에게 화폐교환을 ‘개혁’이라 말했던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왜 개혁이라 했는가? 조선도 회사를 다니거나 무역을 다니는 사람들은 잘 살았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인민들은 그날 벌고 그날 살고 하니까 돈이 없는 인민들이 대부분이고, 극소수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말이에요. 이번에 화폐교환을 하면서 평균이 됐단 말입니다. 딱 10만 원만 바꿔준다. 한 세대,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은 그 처리 못 했던 말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방법을 내서, 돈 많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 돈을 만들기 위해서. 그저 100명은 못하는 거고 한 열 명이라도 아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국가에서는 허용 아니하니까, 비법이니까, 다니면서 내 것 좀 바꿔달라. 내 너를 얼마 주겠다. 바꿔주면 널 몇% 주겠다, 이래서 바꾸긴 바꿨지만 그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의 100분의 1밖에 아니 됐지. 그러니까 나머지 돈을 국가에다 다 바쳤단 말입니다. (사례 41)

인용을 보면, 북한 당국은 극심한 빈부차를 ‘평균화’하는 일시적 효과를 거둠으로써 화폐교환을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후속 시장규제로 조치했던 가운데 여성의 진보의식의 원천을 막으려 한 실제 의도를 호도하려고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남한, 자본주의, 여성을 시장 코드로 묶어주는 신세대 여성 의식변화의 주요 의미는 무엇일까? ‘여성주체에 의해 남한문화를 선망하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시장 성격을 변형시킨다는 가설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김현숙 씨의 구술에서 확인되는 바로는, 시장을 매개한 여성의 개성적 욕망은 정권 차원의 체제와 상충하는 위험한 것이므로 규제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 여성들의 가치관, 의식 사회변화 속에는 봉건적 가족 질서상의 많은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 이것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북한사회변화 속의 여성 노동과 역할 변화와 밀접한 것이었다.

여성이 시장공간을 경험함으로써 “세상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여성의식의 변화가 경제적 이해관계 가운데 놓인 가족관계, 봉양의식, 효 의식의 변화로 나타나는 문제를 포착하여 보자. 한 지붕 아래에 살아도 부모세대, 자식세대의 소비생활에 선을 긋기도 한다. 식사를 차려도 부모상을 차리든지 말든지 관계하지 않고 자기네 상만 차려 먹는 며느리의 각박함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돈 계산에 철저해졌다. 결과적으로 핵가족화하면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구호로 집단주의를 강조하던 인간관계는 붕괴되어 가고 있다.²³⁴

이런 현상은 얼마만큼 만연한지 알 수 없지만, 주부이자 생계 별이를 맡은 여성에게 주어진 가정경제의 여건이 가족 내 가부장 의식을 완화시키고 있음을 말해준다. 극단적으로는 결혼과 이혼을 전략적으로 하고, 가족적 유대에 의한 생존보다 개인의 개체 생존을 위해 기존의 ‘도덕적’ 인간관계와 가족관계의 가치관은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의 밑바닥에는 경제적 혼란기를 통과하면서 생존 차원의 ‘안전의 욕구’²³⁵에 강하게 집착함으로써 형성된 방어심리가 남아있는 것이다. 결국 존재를 수단화하는 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생활태도까지 변형시킨 것이다.²³⁶

234. 연변인 채씨 전언, 2010년 7월 중.

235. 심리학자 매슬로우(A. H. Maslow, 1908~1970)는 욕망을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5단계로 나눠서 설명한다. 1~4단계는 ‘결핍욕구’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욕구로 결핍해소 또는 긴장완화를 추구한다. 5단계의 자아실현이라는 ‘성장욕구’는 일시적인 해소가 아니라 더 큰 성취를 위해 더 높은 긴장을 즐기는 최고수준의 욕구이다.(김경훈,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6), pp. 45~50 참조 재인용.)

I
II
III
IV
V

“여기 있는 사람들 누가 제 남편 하나만 데리고 살아? 공식적인 남편 하나만 보고 산다면 사는 재미가 없지. 난 너무 힘들어 다리 끝 맥조차 없다가도 좋아하는 남자가 보이면 행진이라도 할 힘이 나오는 걸! ‘편의상 결혼하고 쾌락으로련애한다’ 레트의 이 말이 얼마나 명언이냐?”
 “맞아! 맞아!”²³⁷

이런 상황은 여성을 직장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형된 시장 성격을 되돌려놓겠다는 시장규제의 의도를 관철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시장적 가치를 수용한 생존방식과 수입구조에 맞춰가는 가족관계에서, 여성을 직장생활로 불러내고 다시 조직생활을 엄격히 함으로써, 사회주의적 도덕품성을 가진 인간으로 개조될 수 있겠는가? 여성의 성역할이 남편 내조자의 처지에서 서서히 벗어남으로써, 가족 내 가부장성에 맞서고 여성의 자의식이 강화되어 가는 일은 자연스럽다. ‘자본주의 머리가 트인’ 여성을 직장으로 복귀시키고, 과거방식의 물적 토대로 환원시킬 수 없음을, 시장 문을 닫게 할 수 없었던 화폐교환의 실패에서 확인되었다.

(2) 사회생활 측면: 조직생활문화와 가부장성의 변화

가정경제를 주도적으로 꾸려나가야 하는 새로운 상황에서 형성되는 여성의식의 변화는 기존사회의 여성관을 낳았던 봉건적, 사회구조적 모순과 갈등하게 되어 있다.

²³⁶ 이 문제는 성의식의 해방, 자의식과 자유를 표현하는 여성의식의 측면보다 왜곡된 시장화 과정의 부정적 측면과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²³⁷ 손혜민, “스칼렛 오히라”와 조선여성, pp. 115~116. (『입진강』 6, 7호에 실린 손혜민의 글들은 성공한 여성의 ‘여성적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그것은 북한여성의 여성주의적 자의식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다.)

여자가 시장활동으로 수입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 입금하면서 남편은 집에서 집일을 하며 아내를 돕는데, 남편을 잘 내세우고 공대하면서도 성적인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슨 감정이라고 말해야 하는지? … 그렇다고 성욕이 부족한 남자도 아닌데 남자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²³⁸

이 질문은 남편을 겉으로 잘 모시고 있지만 부부간의 내적 갈등이 만만치 않음을 드러낸다. 성적인 공감의 문제를 제기함이란 여성적 순종성을 탈피하는 일이며, 뭔가 불공평하고 부조리하고 ‘억울하다’는 성차별 상황을 토로한 것이다. 때문에 스스로 그 틀을 깨려고 하는 여성의 진보성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부장성과의 갈등은 여성의식의 변화를 촉발하는 힘을 유발한다.²³⁹ 이 점은 남한 사회에서 여성주의가 사회의식의 진보에 견인차 역할을 했던 바로 이미 입증된 일이다. 그런데 경제혼란 속에 여성이 생계를 위해 앞장서고, 사회성원으로 활동하는 데에 있어, ‘자전거 이혼’ 건이 보여주었듯이²⁴⁰ 일차적으로 가족 내 가부장성이 걸림돌이라면, 이차적으로 사회제도의 가부장성이 문제가 된다. 북한사회의 완강한 가부장성은 시장의 발전과 여성 돈주·기업가의 성장 속에서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듯하다. 그런 가운데 남편과의 공감의 문제를 물었듯이, 성차별에 대한 문제의식과 가부장성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그것으로 미루어 보아, 북한 남성보다 여성에 의해 더 진보적인 사회동력이 나온다고 할 수 있는가? 북한 여성이

²³⁸ 도정순 씨와의 면담시간 외 질문에서, 2010.07.04.

²³⁹ 여성의식의 진보성향은 노귀남, “북한 여성의 의식 변화와 평화소통의 길,” pp. 78~81에 다루었고, 여기서는 그 논지를 보완하였다.

²⁴⁰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pp. 18~19.

I
II
III
IV
V

쓴 다음의 글을 보자.

내 요즘 미국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았는데 내용이 좋더라. 주인공 여자도 돈을 버느라고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우리와 비슷하고, 뭐 하긴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그녀가 열렬하게 사랑하는 애슐리와 레트의 실패한 사랑의 원인,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 이게 잘 풀리지 않아. 나는 애슐리도 가지고 싶고 레트도 가지고 싶다.²⁴¹

돈과 사랑을 추구하는 방향에 투영되어 있는, ‘나’의 의식세계를 더듬어보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내용으로 유추한다면, 애슐리와 레트를 다 가지겠다는 말에는 순수한 사랑과 기득권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불순한 사랑이 있다. 스칼렛의 욕망 속에는 허영심과 과시욕이 있고, 악착같이 궁핍으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경제 전선에서 앞서가는 여성으로서, ‘나’는 ‘건전하게 돈 버는 사람 있냐’라며, 진입한 남성 사회에 대해 비판하기보다 주어진 사회여건을 비판으로 삼는 개인의 욕망이 크다.

평양 화교 한 사람은 화폐교환으로 많은 돈을 날렸다. 어머니가 시름에 젖어 누웠다가, 최근에 다시 몇 달 활동하고 있는데, 주로 집안 장식 소품으로 많은 돈을 번다고 한다.²⁴² ‘강남 아줌마들’이 ‘커튼 유행’을 따라 경쟁적으로 집안 치장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과 같이 ‘평양 아줌마들’은 레이스 소품, 손잡이 장식 등, 이미 갖춰놓은 가구들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일에 몰두한다고 한다. 동영상 ‘동대원구역 금붕어 기르는 집 이야기’²⁴³에서처럼, <꽃, 금붕어 상점>을 이용할 수

²⁴¹ 손혜민, ““스칼렛 오하라”와 조선여성,” pp. 114~115.

²⁴² 단동 한인 전언, 2010년 10월 중.

있는 계층은 생활에서 행복의 의미가 평민과 다르게 나타난다. 관상용 물고기의 먹이와 물 온도를 맞춰주고, 전기가 보장되어야 하는 취미생활은 자본주의 중산층을 지향하는 가치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계층화하는 삶에 투영된 의식의 저변에 기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비판보다 체제 모순의 심화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여성적 순종성을 탈피하는 진보적 성향, 남성기득권을 수단으로 삼는 의식의 이중성 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은 모순구조의 확대재생산인가? 여성경제력 부상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연착륙과의 상관성 혹은 영향력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여성의 의식변화가 사회변동에서 여러 측면의 변수로 작용할 것인데, 그것을 기존 집단주의 사회를 끌여가기 위해 설계된 조직생활문화와 관련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조직생활은 “핵(核) 이상으로 중요한 조선의 축도”²⁴⁴라고 말한다. 그것은 당과 4대 근로단체를 통해 당원과 온 주민의 생활을 조직적으로 관리·통치하였기 때문이다.

(화폐개혁 실패에 대해) 막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과를 했다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난 우스워서. 국가적으로 어찌겠습니까. 처음엔 이내 우리 장군님께서,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해야지, 장군님께서 인민들 생활이 이렇게 되고 실패를 본 후에 인민들 생활이 이렇게 되니까 인민들이 앞에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인민들이 내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다 해도 나는 어떻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사죄했단 말입니다.
... 장군님이 인민들한테 친히 사과를 한다, 우리 이해하자, 이렇게 하고. 소문인데, 이걸 장군님이 직접 간부들한테다

²⁴³. 우리민족끼리, <<http://www.uriminzokkiri.com>> (검색일: 2010.09.30).

²⁴⁴. 리규이, “변화하고 있는 “조직생활의 나라”, 『임진강』, 9호 가을호 (2010), p. 112.

I
II
III
IV
V

말씀한 건 옳다 말입니다. 또 장군님으로써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인민들한테 죄를 지기는 졌지만 내 생각에도 장군님은 그래도 인민들 편이고 인민들 잘살게 하자고 한 것만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인민들 못살게 되고 인민들 잘 해주자는 게 인민들의 증오를 받고 인민들에게 죄를 지은 게 됐습니다. 사죄할 수 있었지. 대통령으로 아직은 우리 장군님까지도 이렇게 말씀 있었다하고. (사례 41)

조직생활문화란 1970년대를 전후하여 강화된 조직생활총화에 익숙해짐으로써 주민들이 내면화한 의식문화의 측면을 가진다. 김현숙씨는 20대 중후반부터 유일사상10대원칙에 입각한 조직생활을 하고 당원이 되었던 사람으로서, 방문자로 중국에 입국하기 직전까지 생활총화를 지켰다. 이런 모습이 구술 중에 잘 나타나면서도, 의식의 분열과 굴절이 함께 보인다. “인민들 앞에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 없다”는 말 가운데는 ‘장군님’을 지칭하면서 남한 사회의 용어인 ‘대통령’과 말을 혼동한다. 실패한 화폐개혁이지만 ‘인민을 잘살게 해주려고 했다’는 믿음과는 달리 의식상의 혼선이 있는 것이다. 인민들에게 친히 사과하고, ‘장군님이 직접 간부들한테다 말씀한 건 옳다’는 확신을 또 강조한다. 그 말의 실상은 ‘소문’으로 들은 것이므로 확신할 수 없는 일이다. ‘아이고 난 우스워서’, ‘국가적으로 어찌겠습니까’, ‘인민들한테 죄를 지기는 졌지만 내 생각에도 장군님은 그래도 인민들 편’이라는 말들에서, 역시 정치적 사상성을 검토하는 조직생활문화의 이중성이라 할 수 있는 면이 묻어 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의 편’이라는 판단의 이중성이 그렇다.

한번은 버스 칸에서 막 할머니 한 분이 버스까지 늦게 다닌다고 하면서, 운전수가 뭐 운전해 가는 게 늦게 가면 얼마나 늦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야 이 할머니 볼만 부린다 이

렇게 해서, 이거야 전형적인 불만분자구나,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그런데 아마 바다를 가는 거 같아. 미역 주으러 가는지. 그래 가는데 한 분이 노래를 부르단 말입니다. 이쪽 할머니 같이 불려요. 이거 분위기 좋다 하고, 늙으신 분들이 다만 야 저 아매하고 대비적이다. 아매는 이렇게 노래 부르니까 얼마나 분위기 좋습니까. 완전 아매 둘이가 버스칸에서 분위기 조성했습니다, 내 이랬단 말이지. 그 아매들 야 이거 무슨 방송원질 하지 않았는가 인식했단 말입니다, 평가하는 게. 조선사람치고는 이런 정도로는 인식해야 됩니다. 불만이나 부러서 일이 풀리는 문제입니까, 이랬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러구 말았는데 심지어 버스가 늦게 가면 얼마나 늦게 가겠어, 가는 놈이 가겠지. 그런데 버스가 늦게 가는 정도까지 불만을 부리는 사람은 그저 앞으면 불만, 밥 먹고 앉아서 불만, 말세를 좋아하고 불만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앉아서 불만. 군데군데 불만 부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살기 바쁘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불만이 나오겠지요. 근데 이해를 하는 사람보다 살기 바쁘니까 불만 부리는 사람들이 더 많죠.

… 내적으로는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나도 이래 보여도 올려 뺏는데는 뭐 있습니다. 보는 견해가 있으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당비서, 경리면 경리 지배인한테다 보는 대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면 내 견해가 옳기 때문에 다 접수하면서 회의하다가도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아무개 동무.”, “네, 맞습니다.” 내같은 거한테 물어보면 “집행하십시오, 정확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이래 보여도 나는 올려 뺏을 땐 뺏습니다. 내 견해 같은 거 할 적에는. (사례 41)

이 사소한 일화는 생활문화의 단면을 보여주는데, 가치판단의 이중성은 여기서도 반복해서 나타난다. 김현숙 씨는 불만은 있어도 “당증을 냈다는 게 이해해야지”라는 반응을 했다. 인민 속에 있는 전형적인 ‘불만분자’와는 자신과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간다”는 구호처럼, 다른 한 노인은 바다로 나가는지 생업의 어떤

고난이 엿보여도 노래를 부르고 또 따라 부르는 사람까지 분위기를 좋게 한다. 김현숙 씨는 순응적 반응을 보이면서도 주장이 뚜렷함을 말하고 싶어 한다. 직장생활 하면서 당비서, 지배인한테다 할 말은 하고 따질 것은 따졌고, 당의 회의는 “내 같은 거”한테도 물어보고 집행한다는 절차상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구술하는 서두에는 “소위 인생은 좀 너무 기구했습니다”고 하여, 결정적으로 ‘당’과 분리되는 이중적 의식 세계를 보여주었다. 개인의 삶과 조직생활과는 어떤 의미로 상관이 있는가? 다음은 조직생활에 관한 60대, 50대, 30대 여성의 구술이다.

여맹하고 당생활총화가 좀 차이가 있고, 여맹하고 당원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생활총화에 최근에는 생활이 바쁘고 하니까 아마 90%는 아니 참가하는 거 같아요. (김현숙, 60대, 사례 41)

여맹조직생활 진짜 엉망이에요. 여맹은 있으나 마나 한 형태고, 진짜 이걸 목을 끌고 줄줄줄 해야지 참가하는 정도지 안 참가한다구. 날 죽이라 한다고, 여맹은, 여맹일군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직맹조직생활도 직장에 매여 생활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 일하고 무조건 생활총화를 업으로 생각하지만.

... 나도 8.3가내반 반장하면서 여맹위원장이 나한테 명단 제출했어요. 자 이 대상은 누군데 요거요거 누구는 별도로 적어 좀 봐달라. 나한테 임무 준다구. 자기 알속있는 사람들 이란 말야. 그런 사람들은 무역배 타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들어오게 되면 자기한테 준다든가. ... 한 달에 2만 원씩. 이렇게 내는데 거기서 썩 또 그 사람 없는 걸로 대체해서 명단제출 안 하구. 그러니까 우리 여맹위원장이 뭘하는지 알아요. 나보구 명단 좀 써낼 때 한 대목 그저 단 다발만 보수 차고 있어라, 나보고 이렇게까지 말하던데. 그게 비자금이란 말야. (구명숙, 50대, 사례 43)

연구자: 선생님 느끼기에 생활 속에서 내가 통제를 당하고 있다, 통제사회다, 이런 생각 느낀 적 있어요?

구술자: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내 맘대로 하니까.

연구자: 어디 다닐 땐 통행증 있어야.

구술자: 통행증 있는데 그것도 돈 주고 다 사요. (김미경, 30대, 사례 18)

여성들은 직장이 없는 비당원이면 여성동맹에 소속된다. 여맹원은 돈벌이를 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90% 이상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례에서, ‘조직생활이 엉망’이라는 말은 한 달에 돈을 얼마씩 내면, 명단에서 빼기도 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여맹위원장은 경우에 따라 그런 돈을 따로 챙기기도 하여, 또 하나의 조직이 일종의 시장의 상부처럼 거대하게 짜놓은 인맥관계를 형성한다. 그것은 엉망이 된 조직조차 조직문화의 집단적 가부장성을 벗어나기 어려움을 뜻한다. 즉 당의 영도 아래 형식적으로 망라되면서 동시에 비정상적인 관계로라도 끈을 놓을 수 없도록 엮어놓는다.

이렇게 여성이 조직생활문화에 대응하는 이중적 의식 세계를 보여주는 바, 시장을 매개한 여성의 개성적 욕망이 아무리 정권 차원의 체제와 상충하는 ‘위험한 요소’가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그 힘을 약화시키는 다른 측면의 사회구조와 만나게 된다.

그런데 30대의 김미경 씨는 서류상 위장 결혼을 하고, 그조차 파기한 독신녀였다. 그는 ‘통제사회’라고 느낀 적이 없다고 가볍고 단호하게 말한다. 앞에서 그의 삶에 대해 분석하여 보았듯이, 그는 정치에 전혀 무관심했다. 그 스스로는 집단적 가부장성이나 성차별조차도 무화시킴으로써 얻는 자유가 있었다.

성차별의 문제를 성적 욕망에서부터 사회적 제도까지 포괄하여 심층적으로 다루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올 것이다. 김미경 씨처럼 신세대

I
II
III
IV
V

독신이라는 특별한 경우로, 조직생활문화로부터 떨어져 나오다시피 한다면 그 측면을 감안하여야 할 일이지만, 북한사회의 신세대적 특성이 앞으로 심화될 것으로 본다면 시사점이 크다.

라. 소결: 의식 변화의 이중성과 사회변동

북한사회에 만연한 남존여비의 성차별 아래 여성은 정치체제와 가정에 이중적으로 억압되고 예측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문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정치체제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모순이기에 여성 의식을 일깨울 변변한 주체도 나오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이 국가체제와는 이반하여, 계획경제에서 시장과 자본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에, 미시적 일상생활 속에서는 기존의 세계관에 균열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여성의 의식 또한 도전적, 진보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를 찾아 나선 것이 새로운 삶의 반경(半徑)으로 확장되는 ‘공간경험’을 넓혀가는 과정이 되었다. 공간경험이란 일차적 의미의 지리적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고, 이것이 개인의 삶의 방식, 태도, 의식 등에 영향을 끼치는 이차적 의미의 공간경험을 형성하는 총체적 의미이다. 여성들이 농촌-도시-중국과 자본주의 문화를 만나는 공간경험의 확장은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그 속에서 자본주의 머리가 트었다고 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는 거의 장바닥에서 직간접으로 이뤄진 생체험이었다.

시장의 공간경험은 체험하는 주체의 시야와 대상 수준을 확장시킴

을 의미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의미있는 공간경험으로 들어오는 지식과 정보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개인능력 차이, 활동범위와 규모 차이, 나아가 중국경험의 유무에 따라 여성의 진보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 조직생활경험차로 나타나는 세대차이로 이해할 수 있었다. 북한사회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중시해야 하는 매우 정치적인 사회인데, 신세대는 ‘정치’보다 돈을 따라 흐르다 보니 대담하게 나갈 수 있었다. 생각과 가치관이 트인 진보성은 조직생활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신세대적 가치에서 나왔다. 그것이 중국과 같은 외부세계 경험과 결합될 때, 지향성이 더 뚜렷해질 수 있었다.

시장화 속에서 변화하게 된 여성의 의식세계는 여러 겹으로 중첩되고 모순된 이중성을 띠었다. 첫째는 임수경 스타일이 시사했던 바, 북한 젊은이들에게 충격이 된 유행의 원형은 ‘남한’, ‘자본주의’, ‘여성’을 시장의 주요 코드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했다. 시장으로부터 배우는 새로운 가치관의 흐름이 ‘자본주의 남한’을 바닥에 깔고 있었던 점은, 이후 시장의 주체가 되었던 여성들의 의식이 기존 사회의 가치관과 대립하고 진보적 성향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되었다.

둘째, 여성이 시장으로 나가면서 깨어나는 진보적 의식은 가족 내 가부장성과 기존 조직생활문화의 집단적 가부장성과의 갈등을 의미했다. 이런 가운데 가부장성을 깨지 못한 채 사회제도적 틀에 맞춰서 성역할을 조정해 가는 경향도 보였다. 이처럼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용과 반작용의 이중성을 보였다.

북한에서 개인 장사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검열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²⁴⁵ 항상 검열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하고 성공하는 것은 인맥관계, 균중지반의 배경이 없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사회

I
II
III
IV
V

문화가 가정경제를 유지 성장시키기 위한 성역할 분담에서, 여자는 돈으로 받침을 하고 남자는 직위로 받침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켰다. 남자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남자를 출세시켜 지위를 높임으로써 활동공간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녀 성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구조화는 기존 체제와 동일한 구조로 분담한 것이다. 즉, ‘북한사회의 기성 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당과 근로단체를 통해 관리한 조직생활문화를 재생산하는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 점은 여성이 경제권력에서 진보적 위상을 확보했다고 해도 사회정치적으로는 기득권과 결탁하는 구조화, 즉 조직문화의 내면화 양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성과위가 실질적으로 사회변동의 힘으로 작용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런데 2009년 11월 화폐개혁으로 벌어진 시장변동과정은 새 시장 세력으로 부상한 여성의 힘이 어떤 의미를 가졌던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1990년대 시장 폭발기를 경험한 신세대 여성들의 진보성은 새롭게 발달하여 가는 시장의 성격을 남한문화를 선망하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키워갔다. 화폐개혁의 후속 시장규제에서 시장을 원래 농민시장으로 돌려놓고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 중심으로 시장기능을 바꾸려 했던 점, 50대 이하의 여성들을 직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은, 시장경험을 통해 진보의식이 커가는 문제를 제

245. 이와 관련하여 40대 여성 북한이탈주민(사례 19)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항상 검열을 염두에 두고 사업해야 되거든요. 여자들은 일 안해도 일 없지만 남자들은 일 안하면 법적으로도 걸리고 사회적으로 인기가 없어요. 내가 돈이 많은 거만큼 남편에게 출세를 시켜요. 출세시키면 내가 돈을 벌어요. 남편이 출세가 높으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해도 남편 직위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나서지. ...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울타리죠”

도적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여성 시장세력의 확산, 즉 부상하는 여성파위의 의미를 평가할 때, 변화하는 여성의 의식이 여러 층위로 중첩되는 이중성을 띠고 있었다. 그 문제의 핵심은 공간경험 주체의 세대차와 조직생활문화차이에 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여성주체에서 접근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정치 체제의 가부장성에 직결된 정치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는 문제이다. 즉 정치보다 경제를 중시하는 자본문화를 어떻게 체감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그것은 현재의 북한체제에서 시장의 성격을 어떻게 정립해 가느냐의 문제가 된다. 이 지점은 앞으로도 여성의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2. 북한의 사회변동과 섹슈얼리티

가. 성(性)적 체험의 변화와 사회 재생산

이 장에서는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를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의 식량위기를 매개로 북한의 사회주의적 규범과 질서가 상대적으로 신뢰를 상실하는 한편, 개인적인 생존 전략이 일상생활에서 새롭게 구조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일상의 성적 경험과 실천 또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최근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性)’에 대한 경험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북한사회의 섹슈얼리티 재구성(reconstruction of sexuality)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섹슈얼리티’를 매개로 북한사회의 변동에 접근하고자

I
II
III
IV
V

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에서 섹슈얼리티는 성적인 욕망을 지시, 표현하며 이를 조직하고 창출하여 다양한 성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존재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뜻한다.²⁴⁶ 즉 섹슈얼리티는 일상생활에서 성적 행위를 뜻하는 섹스 혹은 성적 환상이나 욕구로 축소된 어떤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역사적 시공간에 위치한 개인들이 성별, 신체조건, 나이, 계급, 민족, 인종 등의 소속에 기초하여 수행하는 사랑과 관계 및 이를 둘러싼 결혼, 임신, 출산, 양육, 교육 등의 사회적 제도 및 성적 욕망과 정체성을 포괄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섹슈얼리티는 사회의 중요한 구성 기제(technology)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 문화적 권력지배의 양식이다. 누가, 왜, 연애, 결혼, 사랑 등의 관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주체화되며, 특정한 결혼제도와 사랑의 방식이 어떤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칭송되는 반면 특정한 성적 결합은 금기시되는지, 혹은 역사 속에서 여성의 거래가 권력의 재생산을 위해 어떻게 구조화되어왔는지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섹슈얼리티가 생물학적 성에 고착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과정의 구성적 산물임을 분명히 하였다.²⁴⁷

역사적 사례의 하나인 그리스 사회의 성에 대한 푸코의 연구²⁴⁸는

²⁴⁶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1. 얌의 의지』, (파주: 나남출판, 2004), p. 125; 제프리 워스, 서동진 외 옮김,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 p. 19.

²⁴⁷ 섹슈얼리티의 사회 구성적 특성에 대한 미국과 유럽에서의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라(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Stevi Jackson and Sue Scott (eds.), *Feminism and Sexuality: A R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Seyla Benhabib, Judith Butler, Drucilla Cornell, and Nancy Fraser, *Der Streit um Differenz. Feminismus und postmoderne in der Gegenwart* (Frankfurt am Main: Fischer, 1993); Stefan Hradil (ed.), *Differenz und Integration. Die Zukunft moderner Gesellschaften* (Frankfurt am Main: Campus, 1997).

성에 관한 규범과 제도가 당시 귀족 남성들의 주체형성에 관련된 것임을 보여준다. 성을 악으로 규정하고 금욕을 찬미했던 중세시대와 달리, 그리스 사회의 도덕은 남성들이 성을 적절히 조절하고 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에 관하여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푸코가 성에 관한 규범과 제도를 통해 그리스 귀족 남성들의 주체형성문제에 접근한 것은 사회의 중요한 주체인 귀족 남성들이 삶과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잘 인지하면서 일상을 유지하는 데 성적 활동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그리스의 성에 관한 규범은 남성들이 무절제한 성행위를 통해 기력이 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적당한 시기와 조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리스 사회의 도덕이 결혼한 남성에게 적절한 성행위를 권고하는 것은 혼외 관계를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유인인 남편이 자신에게 속한 아내에 대하여 행사하는 정당한 권리양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²⁴⁹ 그리스 사회의 성에 대한 도덕 중 독특함을 드러내는 성인 남자와 소년 사이의 연애술에 대한 기술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수동성과 능동성이라고 하는 동일성의 원리에 따르고 있다. 즉 미래의 성인이 될 소년과 연상의 남자와의 성관계가 동성애이기 때문에 문제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 사이에서 한쪽이 소위 ‘열등한 여성’과 같은 수동적이고 지배당하며 복종하는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그리스 사회의 성도덕을 고려하고 실천하면서 당시 귀족 남성들은 지배계급으로서 자신을 주체화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앞에서 간단히 기술한 ‘특정한 양

²⁴⁸.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성의 역사 1. 삶의 의지』.

²⁴⁹.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경 옮김,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과주: 나남출판, 2004), p. 235.

I
II
III
IV
V

식'의 섹슈얼리티가 당시 그리스 지배계급의 권력행사 및 주체화의 중요한 기제 중 하나였던 것이다.²⁵⁰

이성애에 기초한 일부일처제를 소위 '정상' 제도로 규정한 근대 사회의 섹슈얼리티는 동성 사이의 성적 친밀성과 결혼제도 바깥의 친밀성²⁵¹을 '비정상'으로 간주하여 배제할 뿐만 아니라, 젠더화된 특성(gendered sexuality)을 갖는다. 젠더화된 섹슈얼리티란 사회적으로 형성된 성(性)인 젠더(gender)와 성적 욕망을 뜻하는 섹슈얼리티를 상징적, 경험적으로 결합시키는 사고방식 및 행위를 뜻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수동적인 행위와 상징(gender)을 생물학적 여성의 성적 특성으로 결합시키고, 사회적으로 능동적 혹은 공격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와 양식을 남성의 성적 특성으로 간주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성기구조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생물학적 차이가 마치 사회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을 본질적으로 생산하는 것처럼 상식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서로 다른 사회문화 속에서 '정상'의 잔여로 간주되는 동성애, 양성애 등의 성적 취향과 특정한 형태의 성적 실천의 양식들은 역설적으로 섹슈얼리티가 소위 정상적인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원적 규범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획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로 만들어진다"

250- 이희영, "도덕은 성(性) 중립적인가-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도덕," 김광기 외, 『대한민국은 도덕적인가: 한국사회 도덕 살리기 프로젝트』 (서울: 동아아시아, 2009), pp. 196~225.

251- 국가가 승인하는 결혼만을 가족 재생산 혹은 친밀한 관계의 배타적인 제도로 인정하는 사회적인 규범은 1960년대 이후 광범하게 비판되었다. 한 연령대의 절대다수가 결혼하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현재 서구 유럽 사회에서 결혼제도를 받아들이는 인구는 한 연령대의 1/3 정도이며, 나머지 다수의 개인은 자유로운 친밀성의 관계(동거)를 형성하고 있다. Ulrich Beck and Elizabeth Beck-Gernsheim,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2005).

는 보바르(제3의 성)의 명제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특성(젠더)을 밝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분화된 젠더의 프레임으로 섹슈얼리티를 상상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현실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분석의 편의를 위해 생물학적인 성(sex), 사회문화적인 성(gender), 성적 욕망으로서의 섹슈얼리티라는 기존의 구분을 차용하지만, 이 세 가지가 모두 사회역사적 산물이며 권력의 사회적 재생산의 기제라는 관점²⁵²에서 북한사회의 섹슈얼리티 재구성 과정을 고찰할 것이다.

북한사회의 최근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한사회에서는 1990년대 극심한 식량난을 겪으며 가족이 흩어지고 이혼 및 사실희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권력관계의 하위에 놓인 북한 여성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몸을 자원화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량난으로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 등 제3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북한사회 내에서도 성(性)을 생존 자원으로 삼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⁵³ 다른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개척했던 중국-북한 사이의 밀무역 길을 통해 새로운 생활 윤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이 국가가 중단한 배급을 스스로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윤리를 터득함과 동시에

²⁵²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p. 97.

²⁵³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p. 219~223;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박순성 외,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이미경,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제 18집 1호 (2006), pp. 33~55.

I
II
III
IV
V

일상에서 소위 ‘혁명적 동지애’와는 구별되는 성문화 및 생활규범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²⁵⁴ 이것은 정치적 토대와 당에 대한 충성을 기준으로 형성되었던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재생산 구조가 미묘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 가족의 계급적 토대와 정치적 경력을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형성되던 성적 경험 및 연애, 결혼제도의 관행이 자본과 생존원리를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북한 사회주의 권력의 재생산 기제가 미묘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추정하게 한다.

나. 생애사와 구술 텍스트 분석

이 장에서는 북한사회의 성(性)에 대한 교육, 사랑 및 연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태도와 경험, 결혼관계 및 부부생활, 결혼제도 밖의 성(性) 경험 및 실천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식량난 전후 북한사회 남녀의 일상생활 속에서 섹슈얼리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서로 다른 계급, 계층에 속한 남녀의 생애사적 경험을 재구성하였다. 생애사 연구는 개인의 중장기적인 생애 경험을 매개로 사회의 변화에 접근하고자 하는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이다. 이때 생애사(life history)는 해당 사회의 정치, 문화적 규범(a life as lived)과 개인의 생애사적 노력이 상호적으로 빚어낸 산물이다.²⁵⁵ 따라서 구체적 개인의 삶의 이력인 생애사를 통해 우리는 한 개인이 직면했던 사회 역사적 규범의 내용과 이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experiences)을 이해할

²⁵⁴-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p. 249~262.

²⁵⁵-Gabriele Rosenthal, *Erlebte und erzählte Lebensgeschichte: Gestalt und Struktur biographischer selbstbeschreibungen* (Frankfurt am Main: Campus, 1995); 이희영, “북한 일상생활 연구자료의 생성과 해석,” pp. 200~247.

수 있다. 개인의 생애사를 통해 재구성되는 역사적 과정과 경험의 내용은 구체적 개인이 직면했던 역사와 그것을 통해 전유된 삶의 내용을 담은 개별 사례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로 해당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유형적 사례이다. 이는 개인의 행위가 갖는 본원적 사회성에 기인한 것이며, 개인과 사회의 상호적 산물인 생애사가 갖는 ‘구체적 일반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²⁵⁶ 즉 한 개인의 생애사에 대한 재구성 내용은 사회의 ‘부분’만을 드러내는 어떤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의 생애 이력이자 해당 사회의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생애사 연구는 구술생애사 텍스트를 포함한 다양한 질적 자료들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과거의 체험에 대한 기억을 매개로 회상되는 구술 텍스트 속에는 과거 체험의 사실성을 지시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사후적 해석이 혼재되어 있다. 이 연구의 사례 재구성 과정에서는 구술 생애사 텍스트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이야기의 차원(a life as told)과 체험의 차원(a life as experienced)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수행한 전체 구술 인터뷰 중 특히 이 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하게 될 사례는 아래 8명의 생애사이다.

²⁵⁶ 구체적 일반성(das konkrete Allgemeine)은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개념으로 양적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언급하는 보편성 혹은 일반성과 구별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pp. 120~148.

I
II
III
IV
V

표 IV-1 구술자 인적사항

사례 번호	이름(성별) (가명)	나이	고향/ 현 거주지	북한에서의 활동	탈북 연도	입국 연도	현재 활동
27	김철영(남)	1969(41세)	함북/경남	노동 및 장사	2007	2007	양봉업
28	도진아(여)	1970(40세)	함북/경남	호텔관리원	2006	2008	양봉업
29	노호철(남)	1968(42세)	함북/서울	농업노동자	2008	2008	회사원
30	도진선(여)	1962(48세)	함북/경남	창고장	2004	2007	서비스직
34	진남수(남)	1969(41세)	함북/서울	교수	2008	2008	대학원생
35	홍희숙(여)	1975(35세)	양강/경북	물자관리원	2008	2009	학원생
36	윤미라(여)	1967(43세)	함북/서울	농장원	2001	2006	생산직
39	이옥순(여)	1974(36세)	함북/서울	교사	2007	2007	문화강사

위의 구술자 인적 사항은 모두 익명화되었다. 이 중 사례 27의 김철영 씨와 사례 28의 도진아 씨, 그리고 사례 34의 진남수 씨와 사례 39의 이옥순 씨는 각각 결혼한 부부이다. 그리고 사례 28의 도진아 씨와 사례 30의 도진선 씨는 친자매이다. 2010년 진행된 인터뷰에서 위 여덟 사람의 전체 생애사에 대한 구술을 채록하였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재구성 과정을 통해 북한의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성적 규범 및 실천의 양식, 즉 섹슈얼리티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 질문에 주목하였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연애, 결혼, 사랑 및 가족의 일상적 수행이 갖는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북한사회의 성에 대한 규범과 주민들의 일상적인 성적 체험 사이의 관계가 갖는 특성은 무엇인가? 셋째, 최근 북한사회에서 드러나는 섹슈얼리티의 변화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짐작할 수 있는 사회재생산 기제는 어떤 특성을 갖는가?

다. 북한사회의 성교육과 결혼제도

(1) 부모의 성(性)과 성교육

불건적인 유교문화의 영향이 큰 아시아 사회의 일상에서 성(性)에 관한 언술은 대부분의 경우 금기시된다. 한국 사회와 마찬가지로 북한사회에서도 자식들이 경험하는 부모는 ‘무성(無性)’적인 존재인 것으로 보인다.

제가 철이 들어서는- 내가 시집간 담에 집에 자식들이 다 시집 장가가고 하니깐 아버지 엄마가 같이 자더라고요. 한 번도, 내가 철이 들어서 아버지 엄마가 같이 자는 거 시집 갔을 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어머니 월경하는지도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철이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철저했어요, 자식교양 이런 데는-. (도진아 (사례 28) 구술녹취록, 2010 I/22)

1970년에 출생한 도진아 씨의 구술에 의하면 어린 시절 구술자의 부모는 자식들에게 부부 사이의 성관계 혹은 이와 관련된 어떤 행동이나 말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잠자리에 들지도 않았다고 한다. 5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도진아 씨는 2010년 인터뷰에서 자신의 가족을 “완전 빨갱이 집안”이라고 소개하였다. 구술자의 아버지가 안 전부에서 활동하였고, 자신과 가족들 또한 당원으로서 소위 정치적 ‘토대’와 직업이 좋은 집안 출신이었다. 위의 구술에서 도진아 씨는 이러한 부모들의 태도를 철저한 자식 교양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부모들이 자식들 앞에서 부부간 애정 표현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침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을 당시 북한사회가 권장하던 자식 교양 사업의 일환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먼저 애정에 기초한

I
II
III
IV
V

부부관계가 가족의 중심이 아니라 부자 사이의 관계가 중심이 되는 봉건적 유교 관습에 따른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북한 ‘사회주의 대가정’의 일상 윤리에 기초한 것이기도 하다. 북한은 사회 전체의 ‘혁명화’를 위해 ‘가정의 혁명화’를 강조해왔다.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혁명화가 사회 전체의 혁명화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일환으로 부모의 혁명화와 자녀의 혁명화를 가족의 중요한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부모와 자식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여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는 것을 의미한다.²⁵⁷ 이런 관점에서 부부 사이의 애정 표현과 같은 행위는 ‘혁명적 가정’의 자식교양에서 암묵적으로 배제되어 온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달리 말해 수령과 당에 대한 수직적 충성과 애정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는 반면 부부 혹은 애인 사이의 수평적 사랑과 온정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것이다.

위의 단락에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성(性)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북한의 가족 내에서 적극적으로 전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성교육에서도 ‘생물학적인 내용’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 그러면은 북한에서는 성교육 같은 건 안 시키나요?
 구술자: 없지요. 없고 어: 토끼를 놓고 생물 시간에 배워주는데 여학생 실습이라는 게 있는데. 여학생 실습에선 여자들이 어, 그거 있잖아요. 그 생리하는 걸- 그걸 월경이라 하거든요. 북한에 월경하는 걸 13살 때 배워주거든요. 월경이라는 거 여학생 위생 시간에 배워줘요. 그거는 위생 시간에 배워주거든요. 여학생 실습에서는 밥하고 바느질하고 이런 걸 배워줘요. 근데 대체로 위생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위생 시간이 어: 대체로 보게 되면 중학교 4학년 때 위생이라는 게 생기는데, 어 1년에 위생 시간이 기

²⁵⁷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p. 134.

씻어야 한 뭐 열 번 정도나 과목 있겠는지- 그리고 없어요. 없는데 위생 시간에 어떤 걸 배워주는가 하면 얼굴에 나는 뽀드라지(...) 그 답에 손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깨끗하게 먹고 뭐 이런 걸 배운 거 같아요. 근데 남녀 간에 이런 건 안 배우고 생물 시간에 토끼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중부하면 새끼를 낳는 것, 중부는 이렇게 교미하게 되면- 새끼를 낳는 것 배워주대요. 그래도 그때까지도 학교 때는 몰랐어요. 성교육이라는 거는 할 수도 없고, 여학생 실습시간에는 유방이 커지게 되면 가슴띠를 차는 걸 이거 배워주고요 ((웃으며)) 저 그래서 스무 살 때까지 남자 여자 임신되는 것 몰랐다니까, 손대서 임신 되는 줄 알아서 막 울었다니까- 손대서 임신 되는 건가 하고 막 울었어요. (도진아(사례 28) 구술녹취록, 2010 I/21~22)

도진아 씨의 구술에 의하면 1970~80년대 북한의 학교에서 성교육은 암묵적으로 여학생들의 월경, 여드름, 가슴띠에 대해서 설명하는 위생 시간에 다루어지나, 정작 성행위(sex)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 성인이 될 때까지 임신 과정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한다. 1970~80년대 남한사회의 극히 빈약한 성교육과 유사하게 북한의 학교에서도 성(性)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²⁵⁸ 이러한 문화가 학생들에게 성(性)이란 공공연히 말할 수 없거나, 부정

²⁵⁸ 2010년 9월 26일 '세계 피임의 날'을 기념해 한국을 포함한 미국,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 세계 25개국의 15~24세 남녀 청소년 총 5,2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性)과 피임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 대한 설문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들은 피임에 대한 인식이 아주 낮을 뿐 아니라,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응답자 중 54%는 성관계 시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매일경제』, 2010년 09월 24일). 이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성에 대한 담론과 지식이 넘쳐나는 남한 사회 청소년의 피임에 대한 '무지'는 '성'에 대한 남한사회의 '가부장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I
II
III
IV
V

한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임신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갖게 하거나,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어린 여성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북한]는 피임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거기선 제가 있을 때도 몰랐어요. 콘돔이 뭔지도 몰랐구, 뭐 좀 약 먹는 것도 몰랐구-, 그니까 애들이 그냥 [태아를] 버리구 그냥- 자면은 가지는 거예요. 뭐 저녁때 그렇잖아요. 뭐 잤다 하면은 (막 애가) 생기구, 몇 개월 지나면 배가 볼르구, 막 얼굴도 이상해지고 막- 막 그런 경우 많아요. (윤미라(사례 36) 구술녹취록, 2010 I/22).

1967년생으로 함경북도에서 농장원으로 생활했던 윤미라 씨의 경험에 의하면 34살의 나이인 2001년도에 남편과 아들을 두고 중국으로 장삿길을 떠날 때까지 약품 혹은 기구 등에 의한 피임법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교의 위생 시간에 성행위(sex)와 임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음에 따라 자연주기법에 의한 피임도 실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신과 피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여성들의 경우 이로 인해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적극적인 출산 조절법인 피임은 성(sex)을 출산으로부터 독립시켰다. 특히 출산을 정신과 몸을 통해 직접 경험하는 여성에게 피임은 쾌락으로서의 성(sex)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피임에 대한 교육과 약품 및 기구가 적극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경우 성(性)은 재생산(출산)에서 자유롭지 못한 특성을 갖게 된다. 나아가 대부분의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여성이 지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가로막게 된다. 이런 관

점에서 피임이 적극적으로 실행되지 못하는 북한 주민의 성적 경험은 세대 재생산과 여성의 몸에 결박된 특성을 보여준다.

(2) 혁명적 동지애와 국가가 통제하는 연애

북한사회에서 권장하는 사랑은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한 것이다. 즉 북한 사회주의 수령과 당에 충성하며 사회주의 혁명 대오에 앞장서는 동지들 사이의 결합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개인 사이의 사랑의 감정보다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헌신과 각오가 중요하다. 즉 혁명성이 사적인 결합에 있어서도 우선적인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 연애를 많이 통제합니다. 북한에서는 다 통제합니다. 통제하고 그: 그 집단에 그런 연애하는 분위기가 설까봐 수정주의 날라리풍이라고 그건 당에서 딱 짝어가지구 수정주의 날라리풍이라고 정해가지고, 청춘남녀간에 고상한 당을 향한 이 우정과 연애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안일, 해이한 태도는 버리라, 이럽니다. 여기처럼 자기 이상에 맞게 자기 성향에 맞게 친할 수 있고, 서로 연애하고 또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북한에선 그거 100프로 반답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의 척도에 따라서 동지를 사귀며- 그 동지라 합니다. 인자 혁명의 길을 함께 갈 혁명적 동지라 그렇게 해서 혁명적 동지에 기초한 혁명적 사랑을 하라 그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노호철(사례 29) 구술녹취록, 2010 I/23).

1968년도 함북지역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2008년 탈북한 노호철 씨의 구술에 의하면 ‘혁명적 사랑’은 당을 향한 우정과 연애인 반면 청춘남녀의 사랑과 연애는 ‘수정주의 날라리 풍’에 의한 안일하고 해이한 태도로 비판된다. 즉 개인 사이의 연애와 사랑이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섹슈얼리티에 대한 사회의 공식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I
II
III
IV
V

개인 사이의 결합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반대의 경우인 선호하지 않는 혹은 꺼리는 개인 사이의 결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규제는 직·간접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성(性)적인 기호와 실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위의 구술에서는 당을 향한 충실성이 혁명적 동지애의 척도가 되는 반면 개인 사이의 연애, 즉 사적인 ‘친밀성(intimacy)’은 집단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즉 수령을 정점으로 한 북한 노동당에 대한 집단적 정체감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개인의 사랑을 사회주의적 집단 정체감의 원천으로 포섭, 조직하는 것이다.

구술자: 저기는[북한은] 비(非) 혼인관계에서 그 뭐 가정 안 가진 상태래두 미혼 상태에서 그 둘이 한자리 들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경찰도 단속합니다. 그거 걸리면 그거 무조건 그 죄목에 있습니다-, 단속합니다.

연구자: 무슨 죄목이죠?

구술자: 그 죄목 그 우리는 그 범법, 법에 대해 공부 아니합니다. 무조건 당이 생활에서 법인가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죄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집이 저기 누구 둘이 뭐이 요양원, 요양원이라든가 요양소라든가 휴양지에서 남녀 둘이 갔다 하면 소장이 통제할 권한이 있고, 둘이 동침 들어가 현장에서 발각되면-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그 뭐 솔직히 말해 그저 정말 인권인데 그것도 그거는 사람들이 쫓겨 줄 알고 두려워서 남이 보는 게 창피해서가 아니라 발각될까봐 그 숨어서 장난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이혼 관계라 해두, 둘이 동침하는 거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머리에 있습니다. (노호철(사례 29) 구술녹취록, 2010 I/28~29)

위의 단락에 의하면 북한사회는 개인의 자유로운 성관계를 규제하고 있다.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결혼한 남녀의 혼외관계뿐만 아니라, 비혼 혹은 이혼 상태의 남녀 개인들이 동침하는 것까지 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²⁵⁹ 아버지가 김일성대학 2기생으로 인텔리 집안의 아들이며 스스로 북한의 사상체계에 정통하다고 자부하는 노호철 씨는 개인의 성관계에 대한 통제의 법적 기준을 모른다. 단지 ‘혁명적 동지애’라는 당의 10대원칙 등이 법을 대신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공적 영역에서 개인들의 자유로운 성관계가 불법이므로, 결혼한 부부가 아닌 개인들의 성관계는 대부분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구술자들 중 일부는 연애 관계에서 비공식적으로 임신하게 되었고, 부모들의 사후 승인을 얻어 결혼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연애 관계를 부모들에게 밝히고 가족 관계 내에서 암묵적인 인정을 받으며 사귀다가, 임신한 후 결혼식을 하기도 하였다.

오죽하면 북한에 이런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 이런 대본들이 민간에 돌겠습니까- 남녀 간에 북한에서 그 당의 유일 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²⁶⁰, 10대원칙에 따라, 그에 기준하여 살게 됐는데, 남녀 간에 결혼해서 첫날밤에 그 남자가 여자 몸에 손대니까 여자가 “동무, 10대원칙에서 이렇게 하

259. 남한의 경우 결혼한 남녀의 혼외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간통법이 있다. 2010년 현재 이러한 법조항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에 불과하다. 최근 간통죄가 헌법에서 정한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법무부 형사법개정특위에서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MBC, 2010년 03월 19일).

260. 북한의 주체사상 및 수령론을 강화하기 위해 1974년 2월 북한노동당 제5기 8차 중앙위원회 총회에서 채택된 노동당 규약으로 10개의 원칙과 65개의 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규약은 북한의 모든 성문법에 우선하여 사회구성원의 생활지침이 되고 있다.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24~27, pp. 212~227(부록).

I
II
III
IV
V

라고 했습니까?” 할 정도로 이 말이 돌 정도까지 사람들이 그 세뇌되고 그 남녀사랑 간이나 연애 간에서도 그렇게 기형이 됐다고 봐야죠. (노호철(사례 29) 구술녹취록, 2010 I/24)

한 사회에 통용되는 속담은 일상생활에서 형성된 무형의 윤리가 제도화된 형태이다.²⁶¹ 속담은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 훈계하고 풍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교훈을 전달한다. 위에서 소개되는 북한 속담은 결혼한 부부의 첫날밤에서조차 환기될 정도로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이라는 당규약이 북한사회의 일상에서 절대적인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위대한 김일성 수령 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로 시작하는 10대원칙이 사적인 신혼부부의 친밀성의 공간에서 작동하는 행동윤리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친밀성의 공간과 정치 사회적 공간 사이에 동일한 윤리적 문법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시에 이런 속담 혹은 에피소드를 일상에서 ‘냉소적’으로 소비하는 주민들의 태도 속에서 공식담론과 일상적 실천 사이의 거리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조혼인데 북한에서 말하는 조혼인데 당에서는 조혼을 철저히 반대합니다. 혁명의식이 마비되고 그: 자기 정열과 청춘을 당에 바칠 생각 안 하구 그 가정과 사랑에 바치길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노호철(사례 29) 구술녹취록, 2010 I/24)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윤리 원칙에 따라 긴 군대생활을 마친 후 소

²⁶¹-Peter L. Berger and Thomas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Penguin Books, 1967).

위 ‘적령기’에 결혼할 것을 권장한다.²⁶² 1970년대 사회적으로 부족한 노동력을 동원하기 위하여 남성과 여성의 결혼연령을 각각 32세와 28세로 정한 이후 결혼 연령이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노호철 씨는 군복무 중 24살의 나이에 현재의 부인과 연애하여 결혼하였다. 노호철 씨는 20대인 1986년, 정치범으로 구속되었던 아버지의 권고로 지방 대안사업소에 자원하여 산간오지를 개간하며 생활하다가 결혼한 것이다. 대부분의 북한 남성들이 30세 전후에 결혼하는 것에 비해 일찍 결혼한 편으로, 이를 두고 구술자는 위의 단락에서 ‘조혼’이라 표현하고 있다. 사례분석에 의하면 노호철 씨는 정치범의 가족이라는 신분상의 제약을 일찍 파악하고 1980년대 중반부터 산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북한사회에 상대적으로 거리를 둔 생활을 했으며, 연애와 결혼 또한 사회적인 규범과 상관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였다.

북한사회에서 정치적 경력을 쌓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군복무와 노동당 입당이다. 이를 위해 많은 남녀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10대 중, 후반의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6~10년 복무를 하면서 무상노동을 제공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대장 이하의 군인들은 결혼할 수 없다는 점이다.

²⁶² 1946년 제정된 북한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에 따르면 “남자는 18세, 여자는 17세부터 결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봉건적 유산인 조혼제도를 철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근대적 핵가족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박영자, “북한의 남녀평등 정책의 형성과 굴절(1945~70): 북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2호 (2004), pp. 306~308.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 산아 제한을 권장하고 노동력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71년 6월 사로청 제6차 당대회에서 ‘남자는 32세, 여자는 28세’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이태영, “북한여성의 가정생활,” 『통일한국』, 제2권 2호 (1984), p. 38. 이후 북한은 1990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을 채택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김영규, “최근 남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그 접근가능성,” 『법학논총』, 제20집 (2008), pp. 24~25.

I
II
III
IV
V

그래서 장교들도 중대장 이상급 장교들만 결혼하게 돼 있거든요. 그니까 소대장 그다음에 중대장 (XXX) 중대장 부 중대장 각종 이제 이런 중대급 장교들은 결혼 못하게 돼 있어요. 다 총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 비밀 각시집 이 다 있지. 결혼은 안하고 중대장들 다 그런 것도 실제 이제 대대 이제 뭐 대대참모나 뭐나 대대급으로 이제 올라가야지만이 결혼하거든요. 그니까 뭐 실지 중대장 소대장들 자기가 장교를 하면서 이제 여자하고 이제 막 동거를 하면서 이제 아를 낳고 막 이런 거가 있어요. 그러가지고 막 그 사회적으로 제기 돼가지고-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그 남편 이름을 대면 남편이가 군복을 벗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침군 보내니까 이제 그니까 끝끝내 안대는 거죠. 그니까 출생증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남자가 이제 중대장에서 이제 대대급으로 이제 조정이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결혼을 하면서 아이 출생증까지 띠어내는 거지. 그런 현상도 많아요. (진남수(사례 34) 구술녹취록, 2010 I/29)

위의 단락은 1968년생으로 군사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대학교수로 생활하다가 2008년 탈북한 진남수 씨가 자신과 군 고위급 간부였던 아버지의 경험을 통해서 본 북한 군인들의 생활을 전달한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화를 위해 10대 중반에서 20대 중반의 남녀를 최고 10년까지 군인으로 동원하는 북한사회에서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되기 전에는 결혼할 수 없도록 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사생활의 영역이 조절되고 있다. 즉 북한사회의 공적 영역에서 좋은 정치경력을 갖고 자 하는 모든 개인은 학교 졸업 후 군대를 제대할 때까지인 20대 중반까지 친밀성의 공간을 가질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공식 규정을 지키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사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일상의 생활윤리를 관철하고 있다. 군 생활 중 ‘비밀 각시집’에서 동거를 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구술에 따르면 군 생활 중 형성된 비공식적인 ‘개인 관계’가 이후 합법적인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에 이르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떠안게 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옮겨 다니는 군 간부의 생활 특성으로 인해 적지 않게 혼외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위의 구술이 일회적인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에 대한 묘사(description)로서, 이와 같은 사적인 관계들이 ‘불법’이지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만 되지 않으면 묵인해 주는 관행이 되고 있음을 시사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북한사회에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사회주의 혁명화가 사회주의 체제 재생산의 중요한 원리이며, 이와 같은 정치적 원리가 공적 영역을 넘어 개인의 친밀성의 공간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인 법조항이 아니라 ‘유일사상체계 확립 10대원칙’과 같은 당 규약이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규율로 작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결혼한 부부의 성관계와 애정 표현은 극도로 자제되며, 20대 중반의 나이가 될 때까지 결혼이 금지된 군인들과 비혼 상태의 모든 개인들의 자유로운 성관계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친밀성의 공간이 극도로 제약된 공적인 영역이 아닌, 사적인 공간을 통해 북한 주민의 성적인 욕망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공적인 영역에서 강조되는 ‘혁명적 섹슈얼리티’와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친밀성의 섹슈얼리티’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례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성적인 실천이 많은 경우 비공식적인 관행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제 식민지시기를 거치며 잔존하고 있던 가부장적 규범이 공적인 영역에서 관철되는 소위 사회주의적 근대성의 윤리와 거리를 둔 채 사적 관계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동거관계 혹은 애인 사이인 개인들에게 작동하는 권위

I
II
III
IV
V

적인 태도나 폭력, 혹은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해도 공식적으로 사회 제도에 의한 조정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관행에 따라 무마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남성 파트너의 부정행위, 폭력 혹은 비합법적 임신과 출산 등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사회의 결혼과 사랑, 그리고 이혼

북한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결혼은 가족의 정치적 성분(토대)이 좋으면서, 주요 권력기관인 군고위간부,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성, 검찰소, 재판소, 국가 검열성 등에서 근무하는 파트너와 결합하는 것이다. 이는 ‘혁명적 동지애’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을 위한 제도의 하나인 결혼이 정치적 성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당 조직지도부 제5과를 통해 선발되는 소위 당 고위 간부들을 위한 서비스직 여성들의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²⁶³

이 여성들은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중앙당 조직지도부 제5과를 통해 선발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매년 북한 전역 고등중학교 졸업 무렵의 10대 중반 여학생들 중 미모와 체격이 출중한 사람들을 ‘100배수 원칙’에 따라 추천받은 후 얼굴형, 신장, 체격 등 각종 기준에 따라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들은 북한의 주요 권력기관에서 남

²⁶³ 이들은 북한의 당 고위 간부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미혼 여성들을 지칭한다. 자료에 의하면 선발된 여성들은 보통 6개월 정도의 교육기간에 기초적인 의료 서비스 및 각종 기예 등을 익혀 조별로 활동한다. 이러한 북한 여성들을 남한의 언론과 자료에서 소위 ‘기쁨조’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이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최근 당5과에 선발되어 활동했던 여성 탈북자 혹은 조직 관련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외신을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http://www.nknet.org>>.

성 고위 간부들을 위한 서비스 활동(비서, 간호사, 연예활동 등)에 종사하게 된다.²⁶⁴

우선 5과에 가면 그 영광으로 가문에 영광으로 생각한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가서는 그다음에는 다 그 당에서 조직하는데, 당에서는 남자, 여자두 붙여서 결혼하는 게 많습시다 (...). 그니까 지정해주죠, 대상을- 직접 대상을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자들 올라갔다가 뭐 그 이성 세계도 또 알게 되겠지. 되고 그: 우리 북한에 있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뭐 대남공작대 말하자면 여기 왔다가 간 사람들이라든가 여기 파견된 사람들이 그: 결혼시켜준 걸로 하고, 또 해외에 파견한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런 여자들 결혼시켜주고, 또 당에서 필요한 사람인데 쪽 문건 뒤져보고 ‘이 여자 되겠다.’ 하면 그 여자를 가져다가 이 여자가 결혼하게끔 당에서 권고한다 말이에요. 권고란 게 명령이죠, 대부분은- 거긴 권고란 게 뭐 권고 없습니다. 당에서 하라하면 하는, 딱 ‘당이 결심하면 우린 한다.’ 이렇게 구호가 있습니다. 그니까 당에서 와서 “이 사람 어때?”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살지요. 그런 경우- 그 뽕혀 올라간 5과 태생들은 대체로 그리 결혼합니다. 자기 이상에 맞게 결혼하는 게 없고-. (노호철(사례 29) 구술녹취록, 2010 I/32~33)

중앙당 5과에서 선발되어 활동하던 여성들은 만 25세 정도가 되면 소위계급을 받아 명목상 인민군 군관이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당의 추천에 따라 결혼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노호철 씨의 구술에 의하면 5과에 선발된 여성들은 사회적 출세의 길이 열린 것으로 여기고, 전체 가족이 “영광”으로 생각한다. 일정한 기간 5과 소속으로 활

²⁶⁴ 사례 36의 윤미라 씨는 자신의 고등중학교 친구가 5과에 선발되어 갔던 일을 소개하였다. 그 친구가 이후 돌아와서 “막 좋아서 갈 일이 아니다”라며 전달했던 경험은 다음에서 소개하는 결혼만이 아니라 이들 여성들의 역할과 관련하여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하는 경우 당 고위 간부와 결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위의 단락에서 주목할 점은 여성들이 고위간부들의 노동세계 속에서 맺게 되는 사적인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 조직의 필요에 의한 결혼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대남공작원이나 해외과관자들과 같이 당에 대한 헌신의 정도가 큰 남성들의 결혼 파트너로 선정되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관행이라고 한다. 이러한 결혼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원리는 당에 대한 충성과 헌신, 즉 사회주의 혁명성이다.

뭐 얼굴도 모르는데 “니하고 니 살아라.” 하고 그냥 다음날 결혼식 올리는 거예요. 정 싫지만 않으면- 근데 벌써 중앙 당에 벌써 남자와 여자고 맺어줄 땐 여자는 인물이 빼어난 건 말할 수도 없고, 남자들도 벌써 그만한 정치적인 토대- 다 정치적 토대를 우선 먼저 보거든요. 뭐 그럼 벌써 정치적 토대하고 인물하면 다 된 거죠. 뭐 다른 게 있어. 그 사람 마음이 나쁜지 뭐 마귀 같지만 않으면야 뭐 살면 다 정이 드는 그렇겠죠, 뭐- 다: 하거든요. 그걸 여자들인 경우 다 부러워하지요. 그만큼 아니 뽕혀 올라갔을 때는 인물도 인물이지만 정치적 토대는 더 말할 수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막 사돈에 8촌까지 보거든요. 토대- 아무리 내가 인물이 빼어나면 뭘 해? 집에 뭐가 걸리는 있으면 못 올라가거든요. 그럼 뭐 다른 거 볼 것도 없거든. 그게 또 남자들도 똑같고- 남자 5과들두- 그럼 거기서 짝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그냥 국가 그거 기관에서 봉급을 타 먹으면서 일생을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처럼 치열한 경쟁이 없어요. 내가 완전한 정치적인 과오가 없는 아들이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게 보장이 다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부러워하는 대상이었지. (이옥순(사례 39) 구술녹취록, 2010 I/32).

아버지가 북한 중앙당 고위 간부였고 본인 또한 군복무 후 교사로 활동하다가 2007년 남편과 함께 탈북한 이옥순 씨의 위 구술에 의하면, 당사자들이 당의 결정을 받아들여 결혼하게 되는 배경에는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보장이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제5과에서 선발된 여성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에서 추천하는 남성들 또한 정치적 토대가 좋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직업 또한 권력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위의 구술과 같이, 당이 추천한 상대가 ‘마귀 같지만 앓’은 인상이면 사회주의 북한사회에서 선망하는 성(性)적 대상인 것이다. 남한사회에서 인물과 함께 경제적 능력을 파트너의 중요한 조건으로 선망하는 반면 북한사회에서는 정치적 토대와 권력을 선망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능력이 핵심적인 사회구성의 원리인 것과 달리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치적 권력이 핵심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사회의 상층 핵심계층이 사회주의 혁명성이라고 하는 정치적 원리에 의해 배타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사회주의적 정치이념의 토대가 훌륭한 집안이면서 현재 북한 정치권력의 핵심부에서 활동하는 젊은 개인들 사이의 결혼이 목적의식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한편으로는 정치권력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며, 다른 한편 ‘혁명적 동지애’에 기초한 섹슈얼리티가 재구성되는 것이다. 사회주의적 정치이념과 권력을 겸비한 개인들 사이에서 친밀성을 형성하게 하는 사회적 윤리와 제도적 장치가 존재함으로써 ‘혁명적 섹슈얼리티’가 구성되고 있다.

이와 같은 권력 상층부의 계급재생산의 원리는 북한사회의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1960~70년대 출생자인 이 연구의 구술자들은 거의 대부분 부모들의 정혼에 의한 결혼을 요구받았다. 사례 27의 김철영, 사례 30의 도진선, 사례 35의 홍희숙, 사례 36의 윤미

I
II
III
IV
V

라 씨는 부모들이 추천한 파트너와 결혼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애인이 있었으나 결국 부모의 요구에 따라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과정에서 애초 부모들의 기대와 달리 상대방의 정치적 경력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나를 속이구 데려간 거죠. 당원이 아닌데 당원이다- 네. 그런 그렇게 속아서 갔고, 처음에는 진짜 그런 말 듣구 북한에 있을 때까지만 해두 당원이 아니면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걸로 취급을 하고 했으니까- 이제는 남자로 태어나서는 당에 입당은 해야 되구 군대는 갔다 와야 되구- 근데 뭐 군대도 안 갔다오구- 그러니 결혼할 때두 다 속은 거죠. 처음엔 그 막연했어요. 뭐 애들 잘 낳아서 둘다 똑똑하게 낳아서 그래두 나라에 뭐 민족간부라도 진짜로 해야 되구 뭐 이런 꿈이란 게 있잖아요. 여자들은 자식이 내가 못한 거만큼은 자식 시킬려고 하구 막 이런 부푼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말을 딱 그제 착 깨지는 날에 ‘어, 그러면 이제부터 그냥 동물처럼 먹고 사는 데만 신경쓰구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고, ‘이혼을 해야 된다. 애 앞날을 봐서래두 아빠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윤미라(사례 36) 구술녹취록, 2010 I/11).

1967년 6남매의 막내로 태어난 윤미라 씨는 소위 윤씨 가문의 엄한 가정교육을 받으며, 당세포비서로 활동하던 아버지와 농장활동을 하던 어머니의 권유로 결혼하였다. 그러나 위의 구술에서 짐작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군복무를 마친 당원으로 알고 결혼했던 남편이 토대가 나쁜 집안 출신이고 군 복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이후 자신의 삶을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는 동물 같은’ 생활에 비유하고 있다. 사례 분석에 의하면 첫째,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동요계급 및 적대계급 출신의 개인과 결혼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크며, 이로 인해 출신성분을 속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출신계급과

함께 입당 및 군복무와 같은 정치적 경력이 ‘연좌제’의 형식으로 이후 자녀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남편의 토대와 경력이 나쁘면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 또한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이익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인 명예에서 배제된 채 생계만을 유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셋째, 북한사회에서 정치적 토대와 경력이 나쁜 남편 혹은 아버지는 이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개인사이의 친밀성에 기초한 사랑보다 사회주의 혁명성이 가족 구성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었으므로, 가족 재구성의 원리 또한 당적 및 군경력과 같은 사회주의 혁명성에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 및 재혼을 통해 부부 중 한쪽 당사자의 정치적 토대를 개선할 수 있다면 이를 인정하는 사회적 규범이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사회에서 정치적 혁명성에 기초한 부모의 권고가 기본적인 결혼 방식이지만 당사자의 연애에 의한 결혼도 적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사례 29의 노호철, 사례 34의 진남수, 사례 39의 이옥순 씨는 자신이 희망하는 파트너와 사귀다가 부모들의 사후 승인을 받아서 결혼하였다. 물론 이들의 연애 파트너의 정치적 토대와 경력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비해 사례 30의 도진선 씨는 부모가 정한 파트너를 두고 정치적 토대가 나쁜 애인과 결혼하여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하였다. 정식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결혼 과정에서 친정 가족의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받지 못했다. 결국 친정가족의 정치적 경력을 위해 이혼하게 되었다고 한다.

근데 그 남편이 결국에는 지주: 지주 둘째 딸의 손자잖아요. 토대가 걸려도 한참 걸려요. 그래 우리 큰애가 결국에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 남편도 발전이 없고 그 아들 삼형제가- 그러니까 그거 그 영향이 우리 오빠한테까지 미치는

I

II

III

IV

V

거예요. 정치대학을 나와서 배치를 “정치 일꾼으로 배치 받아야 될 사람이 행정 일꾼으로 배치받는다” 이런 결론이 떨어지니까 형님이 와 울고 사돈 사돈댁도 다 보위부 계통인데 와 막 우는 거예요. 좀 어떻게 오빠를 살려달라고- 우리한테는 만사위고 한데 형님은 형님대로 만오빠인데-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할 수 없이 이혼할 당시에는 ‘토대 때문에 이혼한다.’ 그러고 했어요. (도진아 (사례 28) 구술녹취록, 2010 I/7~8)

위의 텍스트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친정 가족을 떠나 시댁 가족 속에서 결혼생활을 하던 도진아 씨는 결혼 3년 무렵 남편의 출신성분으로 인해 친정가족 전체가 사회활동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끈질긴 애원과 요청에 따라 오랫동안 고민하던 중 결국 이혼하였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각종 사회계급에 대해 광폭정치(廣幅政治)²⁶⁵를 실시한다고 강조한다. 즉 부모 혹은 조부모의 과거 정치적 활동이나 토대와 상관없이 당사자의 혁명성에 기초하여 사회적 대우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진아 씨는 당이 표방하던 광폭정치와 달리 토대가 좋지 않은 사회구성원(남편)을 차별하는 현실을 직접 경험하고 분노하였다(사례 28). 사례 분석에 의하면 도진아 씨의 남편은 할머니가 지주의 딸이라는 이유로 핵심계급에서 배제되었다. 조모세대의 출신계급에 의해 연좌제가 적용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계급적 차별제도가 4대째인 구술자의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북한사회의 일상 속에서는 토대가 나쁜 집안의 자손으로 분류된 경우 세대에 걸쳐 정치적 박해를 받게 되며, 나아가 성적 결합의 과정에서 회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

²⁶⁵-1990년대 초부터 북한의 공식문건에 등장한 표현으로, 김정일의 ‘통이 큰 통치방식’을 뜻한다.(북한용어사전)

라. 결혼 제도 안과 밖에서의 성적 체험과 실천들

(1) 부부의 서로 다른 경험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가족 재생산이라는 출산의 목적을 넘어서 쾌락을 매개한 하나의 소통방식이기도 하다. 일부일처제의 사회에서는 파트너 사이의 친밀한 정서를 나누는 유형·무형의 행위를 통해 배타적인 관계가 형성된다. 이 연구의 구술자들의 생애경험에 의하면 대부분 부부 사이의 친밀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전형적인 가부장적 위계에 기초하고 있다. 사례 36의 윤미라 씨는 결혼 전 아는 언니를 통해서 소위 ‘부부관계’에 대해서 간접적인 조언을 들었다.

절 아는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자는 무조건 신랑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된다, ‘왜지?’ 그럼 우린 생각하잖아요. ‘왜 신랑이 하자는 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밤에 늦게 들어와서 신랑이- 늦게 들어오고 또 늦게 들어와서 잠자자고 해도, 굳이 그 말인지 몰랐어요. 잠자자고 해도 싸우지 말고 그냥 하자는 대로 해, 해야 응? 집안이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잘 살 수 있다구-, 그래서 그게 뭐 소린가 했죠. (윤미라(사례 36) 구술녹취록, 2010 I/16)

20세가 될 때까지 왜 임신이 되는지를 몰랐던 윤미라 씨는 위의 구술에서 ‘신랑이 하자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으며, 왜 결혼하면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몰라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위의 단락에서 구술자의 지인은 먼저 결혼한 여성으로서 북한사회에서 통용되는 부부 사이의 일상윤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즉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것은 부인이 남편의 성(性)적 요구에 순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늦은 밤 남편의 성적 요구에 부인이 순응하지 않을 경우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되고, 보통 그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I
II
III
IV
V

남편이 요구하자면 하는 거지요. 여자는 또 응당 남편이 하자 하면 해야지. 그걸 물리치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북한에서는- 어떻게 내가 남편이 하자는데 못한다 그래요. 그럼 맞아 죽었지. 오늘 낮에는 장마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남편이) 이리 오라.’ 또 이래하면 해야 되지, 그거는- 북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북한 여자들이 안주게 되면 집안이 시끄럽지요. (도진아(사례 28) 구술녹취록, 2010 I/24)

많은 구술자들은 부부 사이에서 남성 가정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전한다. 또한 스스로 남편의 폭력을 직접 경험한 사례도 적지 않다. 위의 구술에서처럼 부인이 남편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남편은 물리적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이 흔한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부인은 남편의 성적 요구에 순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이를 거부하는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의 태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런 관계에서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서로의 자유의사에 따른 애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남성가부장이 자신의 성적 욕구에 따라 행하는 권리이자, 부인들의 일방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친밀성의 표현이기보다 남성가부장의 일방적인 권위에 의존하는 경우 쾌락을 경험하지 못하는 북한 여성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진아 씨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세였던 1990년 연애했던 첫 남편과 결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진아 씨는 구술에서 남편과의 성관계에서 전혀 쾌락을 알지 못했다고 전한다. 도진아 씨는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롯한 북한의 아내들이 경험하는 성관계를 ‘수령 아버지’를 생각하며 누워있는 행위에 비유하였다. 부부 사이의 성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서적, 육체적 교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수령 아버지’에 대한 충성의 표현으

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가족 혁명화’를 요구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정치윤리와 동일한 구조의 비유다. 북한사회의 공적 담론에서 부부의 애정과 쾌락이 정치적 수렁에 대한 충성으로 대체되고 있다.²⁶⁶ 이러한 성적 규범의 실천과정에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는 많은 경우 쾌락의 부재라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도진아 씨는 중국에서 성(性)에 관한 영상물을 보게 된 것을 계기로 부부 사이의 성적 쾌락에 대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전한다. 인터뷰에서 구술자는 ‘그런 영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 마치 그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사례 28). 성적 쾌락에 대한 지식과 상상이 부재했던 구술자의 생애경험 속에서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가정 혁명화’를 위한 아내의 의무이다. 이와 유사하게 부부 사이의 성적 쾌락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사례 30의 도진선, 사례 36의 윤미라 씨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한편 사례 39의 이옥순 씨와 사례 35의 홍희숙 씨는 이와 다른 경험을 전한다. 1975년 양강도에서 출생한 홍희숙 씨는 대학교수였던 아버지 덕분에 대학을 졸업할 때인 1990년대 중반까지 생활 걱정을 모르고 지냈다고 한다. 아버지가 중앙당 간부였던 이옥숙 씨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솔직히 조건이 좀 좋았어요. 우린 내가 또 돈을 벌 어가지고 갔었고 생활 자체를 단독생활을 했거든요. 결혼 해서부터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솔직히 [남들이] 재미를 못 느꼈다 하는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 솔직히 우리는 북에 살면서도 음; 북에 쫓 나는 그래도 많이 개방

²⁶⁶ 박영자,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性)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06), pp. 129~161.

I
II
III
IV
V

을 좀 했다고 봐요, 내가- 내가 그러다나니까 이렇게 밤에 잘 때는 어: 드러내놓고 다 드러내놓고 자는 편이거든요, 나는- 내가 편하게 우리 신랑도 그런- 그렇게 하고 편하게 - 잠자리해도 내가 다 벗으면 시원하니까 다 하는 편인데, 우리 오빠들이랑 사는 걸 보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우리 형님들이랑 얘기 들어보면 (...) (홍희숙(사례 35) 구술녹취록, 녹취록, 2010 I/22)

위의 단락에서 홍희숙 씨는 부부생활의 공간을 비교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경제적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구술자 부부의 경우 부모들로부터 독립하여 ‘단독생활’을 하며 자유롭게 몸을 드러내는 ‘개방생활’을 했던 반면, 그렇지 못한 다른 부부들의 경우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서 제대로 옷도 벗지 못한 채 성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요컨대 극소수의 상층 이외에 하층계급에 속하는 대부분의 개인들이 방 1칸에서 부모와 자식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북한사회에서²⁶⁷ 독립적인 부부생활의 공간이 없으며, 이로 인해 정서적, 육체적으로 극히 제한된 부부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치적 계층에 의해 차별적으로 분배된 주거공간에 의해 부부의 성적 경험 또한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앞으면 쌍소리[음담폐설]도 대단히 잘해요. 예를 들면 부부간에 자는데 숙박검열이 왔어요. (...) 밤에 정말 북한에선 숙박검열 자주 오거든요. 밤중에도 문 탕탕탕 두드려요. “숙박검열” 이래요. 인민반장이 물론 먼저 두드리지만은 둘이 뭐 하다가라도 일어나야 되고 문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문 두드리기 때문에 문 깨고라도 들어와야 돼요. (도진아(사례 28) 구술녹취록, 2010 I/25)

²⁶⁷-북한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치적 권력에 따라 차별화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하층계급 주민들은 공동화장실에 단칸방 생활을 하고 있다. 조경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p. 90~92.

북한사회에서 숙박검열은 통행 제한의 일환으로 행해진다. 수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외부인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위의 구술에 의하면 국가의 숙박검열은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일방적인 우위에 있다. 숙박검열관은 부부의 잠자리까지도 침입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즉 북한사회의 일상 속에서 사회주의 당 조직의 통제와 규율은 언제든지 부부의 사생활에까지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배타적인 친밀성의 공간이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

(2) 사회적 인정과 여성(女性)의 충성서약

여성의 몸(body)이 사회적으로 거래되어온 역사는 길다. 신분제 사회에서 여성은 신분과 성(性)이라고 하는 중층적 구조에 의해 차별받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사회적 권력의 우위를 점하는 남성들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었다. 여성들의 사회적 가치가 남성 개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도구화된 성(性)으로 평가되어 온 것이다. 신분제도가 해체된 근대사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을 뿐이다. 남한 사회를 비롯해 자본주의적 사회질서 속에서 여성이 상품화된 성으로 취급되는 현실은 인신매매 혹은 성매매와 같이 노골적인 사회문제에 서만이 아니라, 각종 대중매체와 결혼시장, 가족 및 친족관계의 일상 속에 직·간접적으로 존재한다.²⁶⁸

북한사회에서는 1946년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 제정 등을 통해 봉건적인 성차별을 해소하고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

²⁶⁸ 최근 남한사회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이희영, “섹슈얼리티와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대중 종합여성지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86집 (2010), pp. 181~219.

I
II
III
IV
V

한다. 그러나 현대 북한 사회주의 가부장제를 경험한 대부분의 여성 및 남성 구술자들은 북한 여성(女性)들의 사회적 위치를 ‘값이 없는 신세’라고 표현하였다.

내가 어려서부터 계속 예술, 예술을 하다다니니까 아 000쪽으로 뽑혔어요, 제가- 뽑혀서 갔는데, 그냥 선전대 화력발전, 00시 화력발전소 선전대로 들어갔었어요. 한 1년을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아 아빠가 예술을 하지 말라 하대요. 북한은 예술 하는 사람들은 잘 못살아요. 못살고 우리 아빠는 그때 당시 그걸 생각했나 봐요. 내가 예술 그- 계통에 그냥 있으면, 남녀관계 있잖아요. 북한은 예술 하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여기는 뭐 성추행 성폭행 이걸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정말 꿈도 못 꾸는 일인데, 북한은 그래요, 어느 회사 다닌다든지 뭐 어느 예술단 다닌다든지 거기 단장이 내 [를] 곱게 생각해서 나를[하고] 하루 밤 자자고 신청해서 하면 말 못하는 거예요. 간부가 해먹는데, 거기다 대고 제기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북한은- 뭐 어디 회사 사장이라 하면 저기 자기 직원은 응당 하룻밤 자는 거쯤은 북한에서는 막말로 잡아먹는다 하거든요. 그걸 여자를 해먹는 걸 ‘해먹는다, 잡아먹는다,’ 영광으로 생각하고 거기는 응당 ‘그래야 되는갑다’ 해야 돼요. (...) 간부들이 누구를 해먹었다면 그것은 강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강간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북한 실정이 그래요. (도진아(사례 28) 구술녹취록, 2010 I/14)

토대가 좋은 집안이자 안전부에서 활동했던 아버지를 둔 도진아 씨는 위의 단락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직업 활동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구술하고 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예술 활동을 했던 도진아 씨가 다른 분야의 직업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으로 당시 예술 분야에 관행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소위 ‘정상납’²⁶⁹에 대하여 언급

²⁶⁹- 남한 사회의 연예분야에서 광범하게 정착된 ‘정상납’의 사례로는 2009년

하고 있다. 안전부에서 활동하던 구술자의 아버지가 딸의 장래와 관련하여 걱정했던 점은 남성 간부의 성적요구에 대한 우려였다. 위의 텍스트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당시 북한사회의 관행은 직장의 남성 상급자가 여성 직원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여성들은 거절이나 항의와 같은 “제기”는 커녕,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 사례분석에 의하면 여성구술자들이 남성 상급자의 성적 요구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이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남한 사회에서와 유사하게²⁷⁰ 북한의 직장 내에서의 편의 혹은 이권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 여성들이 남성 상급자의 성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순한 부응을 넘어서 ‘영광’으로 여기게 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은 무엇일까?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어: 그런 낀 군에서 좀 있다고 봐야죠, 군에서 군에 갔다 오면 입당을 해야 되는 게 법칙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입당을 못하고 오면 병신이다 여기거든요. ‘자[저 아이]는 애가 모자라가지고 입당도 못하고 왔다.’ 이런 관념이 있으니까- 솔직히 군에 가면은 상사한테, 입당을 한 여자들이 들어보면 상사한테 몸을 안 바꿨다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안 시켜준대요. 사회생활은 안 그래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 사람한테 바랄 게 없으니까, 내가 잘하면 되니까-. (홍희숙(사례 35) 구술 녹취록, 2010 I/21)

장자연 씨 자살을 통해 드러난 사건과 2010년 가수지망생에 대한 성상납 강요를 들 수 있다.

²⁷⁰ 남한 사회에서 남성 상급자와 여성 하급자 사이의 성관계를 매개로 직장 내에서 승진 이루어지는 소위 ‘소파 승진’의 경우를 들 수 있다.

I
II
III
IV
V

아버지가 대학교수로 1970~80년대에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홍희숙 씨는 성적 거래의 관행이 주로 군에 입대한 여성들이 입당하기 위해 선택하는 강제된 의무로 평가한다. 북한사회에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한 10대 말의 어린 여성들이 군대에 가는 이유는 사회주의 혁명성을 입증하여 정치적 경력을 쌓기 위해서이다. 나아가 북한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 필수 조건인 당원 자격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되는데,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입당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남성 상급자에게 ‘몸’을 바치는 것이 암묵적인 전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가부장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노동당 입당이라는 사회적 인정의 반대급부로 여성에게는 성상납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 권력체제의 핵심인 노동당에 북한 여성들이 편입되는 동시에 남성 간부들의 성적 대상이 되는 성별화된 권력구조를 짐작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위의 단락에서 홍희숙 씨는 군대와 일반 사회생활의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즉 군에서 생활하며 입당하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남성 간부의 ‘성적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들의 사례에 의하면 위에서 살펴본 상급자의 성적 요구가 군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그 비서 그 당비서의 뭐 그 문건에 따라서 애를 입당시켜 줄 수도 있고, 정말 10년을 나가서 건설현장에서 뼈를 바치는 사람도 입당하기 힘든데 비서한테 그냥 잘 보이면 몇 개월 1년이면 입당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문건을 정치적 문건을 만들기 타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자주는 게 더 쉽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머리가 도는, 벌써 그런 사람은-. (이옥순(사례 39) 구술녹취록, 2010 I/31)

그 바람피우는 사람들 보면 제일 그 많은 비중 차지하는 게 당비서들이에요. 편안하고 실권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 거기는 초급 당비서가 그 여자를 남의 처녀나 그 무슨 이런 남의 뭐 부인이면 부인이든 어쨌든 그 막 자기 가질 능력이 법적으로 돼 있진 않지만 자기 마음대로 주무르는 건 사실이고 그 주무르는 게 또 노출되면 그 초급 당비서는 목이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집니다. 근데 예: 내가 또 잘못 제기하면 능력이 있어서 더 높는데 이길 수 있는데 제기해야지, 잘못 제기하면 내가, 제기한 사람이 또 까꾸로 곤두 박질하지요. 그래서 바람 피는 비중이 제일 많은 게 당 비서들이고, 당일꾼들도 또 당의 눈치를 보고. (노호철(사례 29) 구술녹취록, 2010 I/31)

아버지가 중앙당 고위 간부였던 이옥순 씨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먼저 구술자는 입당과정에서 당비서의 정치적 문건 하나가 10여년의 건설현장 노동과 같은 헌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는 현실을 북한사회의 일반적인 생활원리로 인정하고 있다. 즉 당비서가 어떤 정치적 평가를 하는가에 따라 10년 노동을 하고도 입당하지 못할 수 있는 반면, 당비서에게 잘 보이면 몇 개월 혹은 1년 이내에도 입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구술자는 당비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냥 한두 번 자 주는 것’을 더 쉬운 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을 ‘머리가 일찍 도는 사람들’로 평가하고 있다. 사례분석에 의하면 이옥순 씨는 다른 단락에서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당 배급체제로부터 독립하여 소위 자본주의 영리를 깨달아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머리가 일찍 도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였다. 구술자는 이들과 중앙당 고위 간부의 딸인 자신을 암묵적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전체 사례분석에서 이러한 현상을 합법적이지 않지만 실리를 위해서는 현명한 행위로 여기고 있다.²⁷¹ 이러한 맥락에서 구술자는 남성간부의 성적 요구와 입당을 위해 이에 응하는 여성들 사이의 성적 거래를 즐겁지는 않지만 보다

I
II
III
IV
V

나은 미래를 위해서 선택하는 ‘현실적인 태도’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 사회적 출세와 거리를 두고 살았던 주호철 씨의 경우 위의 두 번째 인용문에서 성적 거래의 주된 책임을 당비서들의 권력 남용으로 평가하고 있다. 당비서들이 여성들의 정치적 성향 및 능력 평가에 대한 결정권을 미끼로 여성들의 몸/성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요컨대 전자의 이옥순 씨는 ‘머리가 빨리 도는’ 여성들의 실리적인 선택을 강조한 반면, 후자의 노호철 씨는 북한인 일상적 생활세계에서 권력을 가진 남성들, 많은 당비서들의 가부장적 권력행사를 강조하고 있다.

(3) 성공적인 생애 계획과 성(性)

북한에서 대학교수로 일했던 이옥순 씨의 남편인 진남수 씨는 직,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례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저기 우리 교수들: 이제 교원들의 경우에도 여자들이 여자 교원들 여성들이 뭐 기본 좀 불륜 쪽으로 좀 많이 좀 가는 거기가 이제 당연화하고, 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입당을 좀 빨리할라면- 그니까 이제 교원을, 자기가 아무리 이제 교원 경력이 어리다 해도 입당을 못하면 그 자기가 다문 이제 분과장도 못 해먹거든요. 그니까 뭐 분과장이나 이제 강좌장이나 자기 이제 상급교원이나 뭐 이렇게 돼서 물론 이제 교원 이제 급수 자격이가 급수, 자기가 이제 연한에 대해서 이렇게 치지만은 그 입당하고 항상 이제

271. 교사였던 구술자는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시기 배급이 중단되자, 이전부터 하고 있던 개인지도 학생의 부모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 처음에는 배급 이외에 다른 수입이 없는 선생님의 형편을 염려한 학부형들의 지원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전 월급의 서너 배 이상에 달하는 고정적인 ‘과외 수입비’ 및 현물 지원으로 변화하였다. 결국 구술자는 교사활동을 그만두고 ‘사교육’을 전적으로 하며 생활하였다.

결부돼 있기 때문에 입당을 위해서 좀 그런 이제 간부들하고 이제 좀 있는 거죠. (진남수(사례 34) 구술녹취록, 2010 I/32)

위의 구술에서 진남수 씨는 교직 사회 내에서 불가분의 연관을 맺고 있는 승진과 입당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아무리 어린 나이에 교원발령을 받아서 급수가 높아도 노동당원이 아닐 경우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사회에서 노동당 입당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가져야 하는 기본적 인정인 셈이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교직 사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경우 결혼 전 입당을 ‘바람직한 생애경로’로 여기며, 가족의 정치적 지원 등 다른 힘이 없는 경우 암묵적으로 남성 간부의 성적 요구에 응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행에 의해 북한사회의 결혼한 남성 간부와 미혼의 여성 하급자 사이에 소위 혼외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즉 북한 사회주의 노동당원으로서의 인정투쟁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섹슈얼리티의 한 양식(style)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혁명성이라고 하는 정치사상 및 경력이 핵심적인 사회활동의 규범이자 윤리인 북한사회에서 노동당 입당이라는 기본적인 사회적 인정을 매개로 여성의 성이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정치’를 통해 북한사회의 섹슈얼리티가 구성되는 기본 양식이기도 하다. 다음의 구술은 사회주의 북한사회에서 권력관계를 매개로 여성의 성이 거래되는 기본양식이 어떻게 주민들의 일상에 정착하게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것을 시사한다.

음, 많아요. 그건[여성에 대한 성적 요구와 응대] 사실이에요. 사실이구요, 어: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간부니까 거절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그냥 하면은 좋는데

I

II

III

IV

V

우리 상사니까 여자들의 상사니까 그냥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는 이런 인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니까 이런 성교육에 대한 교육이 없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여자는 남자가 끝면 끄는 데로 가야 되는가-’ 이런 관점들이 많아요. 막 당당하게 내가 아닌 내 생각과 다르게 ‘니 생각이 뭐냐?’ 이런 게 없잖아요. 북한에는 우선 교육이란 게 무조건 위에서 간부들이란 작자가 당일꾼들이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고 교양사업을 하고 막 학습하고 막 이런 게 이리다 보니까 그게 자연히 생활도 따라와요. 그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윤미라(사례 36) 구술녹취록, 2010 I/21)

앞에서 자식들의 정치활동을 위해 비(非)당원이며 군대 경력이 없는 남편과의 이혼을 고려하기도 했던 윤미라 씨는 당비서 등의 남성들에 대한 여성의 성상납을 북한사회의 성교육 및 사회주의 교양사업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2001년 장사를 위해 중국 국경을 넘었던 윤미라 씨는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2006년 남한 사회에 입국하였다. 2009년 연구자와의 면담 때 ‘여성의 인권’이라는 말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자신의 생활을 반복하여 언급했던 구술자는 2010년 위의 면담에서 지나간 자신의 체험을 성찰하고 있다.²⁷² 남성간부의 성상납 요구를 받아들여지게 되는 북한여성들의 처지, 즉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신의 체험에 근거하여 돌아보고 있는 것이다. 구술자는 성(sexuality)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교육이 부재한 상태에서 가족과 학교 등의 공간에서 암묵적으로 통용되는 가부장적 생활윤리 즉 ‘그냥 여자는 남자가 끝면 끄는 데로 가야 되는’ 일상적인 성적 규범을 체화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

²⁷² 탈북 여성들의 생애체험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인권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한다. 박순성 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pp. 123~127.

사회주의 국가의 수령을 중심으로 위계화된 사회에서 “당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는 교양사업은 공적인 주체인 개인이 사회, 정치적 영역에서의 비판적 행위보다 순응을 기본으로 하는 행위양식을 체화하게 한다. 따라서 남성이자 상사인 당간부의 행위는 사회적 도덕과 규범을 통해 인정되고 있으므로, 여성이자 일반인인 개인은 이를 비판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을 갖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암묵적으로 스스로를 남성과 당에 순응하도록 인정하는 북한 사회주의 가부장 체제 하의 자아형성 과정이자 섹슈얼리티의 재구성 과정이다.

마. 고난의 행군과 성적 정체성의 재구성

(1) 외화벌이와 가족의 목인

1990년대 식량 위기 이후 국내외의 상거래를 통해 외화벌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북한사회 내에서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배급제도와 상관없이 돈을 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음식과 물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²⁷³ 이 연구에 참여한 다수의 구술자들은 외화벌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암묵적으로 사회적 권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외화벌이를 보고 부화벌이 이제 교화벌이-[라고 하는데], 그 이제 부화벌이라는 거는 거기에 그런데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제 불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녀 이제 대충 문제가 무조건 있고, 교화벌이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오래 있고 이제 또 그러면 교화간다 그렇습니다. 노동교화- 그래서 이제- 네. 부화벌이, 교화벌이 그런 얘기하거든요,

²⁷³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p. 208.

외화별이를-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여자들이나 남자들
 이나 그게 이게 들어가면 그거를 이제, 음란한 것으로 이렇
 게 해서 그 남자들 자체도 자기 와이프가 그 외화별이 회사
 에 취직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척 딱 그 그저 표상이가 뭐
그건 거죠. 그래서 일단 거길 가서 자연히 또 환경이가 그
 렇게 됐기 때문에 여자가 그렇게 가지만 여자는 또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어오니까 그거를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니까 이제 다 공식적으로 그런 이제 뭐 사회 여론화가 됐
 고 실지 그 안에 생활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생활이 아예
 뭐 불가피하게 존재는 하지만 그거를 가정들에선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남자나 여자나-. (진남수(사례 34) 구술녹
 취록, 2010 I/33)

진남수 씨는 외화별이 사업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두 단어로 압축하고 있다. 첫 번째 단어인 ‘부화별이’가 무엇을 의미하
 는지 단번에 이해하기는 힘들다. 다만 일반적인 용례에 비추어보면
 먼저, 외화별이를 통해 각종 부귀영화(富華)를 누린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른 해석에 의하면 비법(非法)인 남녀 관계의 부화(孵化)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화별이’와 관련하
 여 주목할 점은 구술자가 이러한 관행을 예외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무조건’, ‘척 딱 표상’, ‘공식적으로 사회 여론화’ 등의
 표현을 통해 북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
 다. 뿐만 아니라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부인의 성상납과 이를 통해
 형성되는 남성 간부와 의 혼외관계를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관행으로
 감안하고 있다고 한다. 즉 외화별이 사업소 간부와 부화관계를 형성
 하여 돈을 벌어들여오는 부인의 행위를 남편들 또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관행이 있다는 점이다. 위의 단락에서 진남수 씨가 처음에
 는 성상납의 관행을 ‘불륜’, ‘남녀문제’, ‘음란한 것’ 등으로 표현하다가,
 중반 이후의 단락에서 부부 사이의 관행으로 기술할 때는 ‘그런 것’

등의 대명사만으로 표현함으로써 남편과 부인이 입으로 직접 거론하지 않는 관행임을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식량난 이후 외화벌이 사업소로 대변되는 자본주의적 상거래의 관련자들이 소위 사회적 권력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성상납이 개인적 차원이 아닌 가족 혹은 결혼한 부부차원의 인정을 획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아가 외화벌이 사업소의 남성과 여성이 선망하는 결혼상대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 노동당 입당을 둘러싼 인정투쟁을 매개로 형성되는 혁명적 섹슈얼리티와는 구별되는, 경제적 이윤 및 축적을 매개로 한 성적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식량난과 이혼, 중혼 그리고 사실혼

1980년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은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에 기초하여 사회적 생산영역에 동원했던 여성인력을 가족과 지역 단위의 재생산 영역으로 배치하였다. 나아가 가족법 제정을 통해 그동안 국가가 책임졌던 가족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돌림으로써 결국 여성들이 그 책임을 떠안게 되었다.²⁷⁴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이 본격화되면서 국가의 배급이 중단되자 여성들은 가족 생계를 위해 장사에 나서게 되었다. 거주지 이전이 통제되는 반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사회적 분배가 이루어지던 북한사회에서 공급 중단이 일상화되자 생계 보존을 위한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ty)이 비공식적으로 높아지게

²⁷⁴ 북한은 1990년 10월 24일 처음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을 채택하면서 그동안 국가가 책임졌던 가족부양의 의무를 가족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가족부양의 의무를 진 여성이 가족 생계에 대한 의무를 떠안게 되었다.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pp. 136~137; 최진이, “여성 ‘기본존엄’ 보장 안되는 왜곡된 성문화 만연,” 『월간 말』, 9월호 (2004), p. 77.

I
II
III
IV
V

된 것이다. 이것은 소위 ‘달리기’ 등을 하며 생계활동을 하는 여성과 남성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지역공간에 고정되었던 가족의 안정성이 크게 낮아지게 된 것을 뜻한다.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극심한 식량 부족과 가족 구성원의 잦은 부재로 인해 북한사회에서 사실상의 이혼과 가족의 해체가 광범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실지 이혼하는 게 보게 되면 쌀독에 쌀이 많아야 인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쌀독에 먹을게 없다니니까는 부부간에 싸움이 잦은 거예요. 그니까 북한이 이혼 그게 막: 많이 들어오는데, 이혼도 뭐 고일[뇌물로 바칠] 뭉가가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혼이 쉽게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갈라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이혼도 못하고 시집도 못가고 장가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서 말로만 이혼했지, 법적으로는 이혼이 안 났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북한은 부지기수예요. 그 나라 사정이 (XXX)부터 시작해서 다 이혼하는 거예요. 입(食)건사[해결]를 못하니까- 뭐 남편은 남편대로 “어머니 집 가서 살겠습니다.” 그러고 처는 처대로 어머니 집 가서 살고, 이렇게 입 건사를 못하기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먹을게 없어가지고 이혼해요, 북한은- 뭐 뭐 의사- 여기는 뭐 우리들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무슨 이런 게 맞지 않아서 이혼한다 이러잖아요. 북한은 아니예요. 먹을 게 없어 이혼해요. 딱 까놓고 말하면- 가족이 흩어지고 먹을 게 없고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는 것도 다 그렇게 헤어지는 거예요. (도진아(사례 28) 구술녹취록, 2010 I/20)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이로 인한 이혼요구가 높은 반면, 합의 이혼이 아닌 재판 이혼만이 허용되는 북한사회에서 이를 위한 비용을 대지 못해 형식적인 부부이지만 사실상 이혼상태의 부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어린 시절 친아버지가 정치범으로 체포된 이후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정치적 박해를 체험한 김철영 씨는 결혼 당시 부인의 가족에게 자신의 가족

배경을 밝히지 않았다. 즉 이미 재혼한 어머니의 전 남편인 생부의 정치범 경력을 밝히지 않은 것이다. 이로 인해 결혼 생활동안 ‘장인이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하지 않는 등, 처가로부터 암묵적인 소외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고난의 행군 시기 정치적 경력과 거리를 두었던 구술자는 일찌감치 중국과의 무역을 하던 중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했다’. 1990년대 후반 약초거래와 함께 중국 도자기 밀매 등의 비법(非法)활동을 하던 구술자가 열흘 혹은 한 달 이상 연락두절의 상태가 되자 이를 불안하게 여기던 부인이 이혼 신청을 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일찍 자본주의적 영리활동에 참가했던 김철영 씨는 식량난 이후 북한의 가족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술하였다.

구술자: 제 친구 한 친구는 그 친구가 처를 세 번 바꿨는데, 별로 흠이 없습니다. (...) 보면은 제 친구들도 무슨 뭐 몇 년씩, 내보다 더 오래 연애하다가 무슨 안 살고 다른 여자 하고 결혼하고 사는 것도 많은데-(...) 아 배 안에 아[아이]가 있어도 이혼하면 그저 끝납니다, 그건-(...) 이혼 안 해도 이혼을 법적으로 승인 안 해도 뭐- ((웃으며)) 안 살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맞는 여자를 데리고 살면 예: 오래 그걸 살면 중첩생활이라 그런 그 그걸 해가지고 법에서 잡아끄는데 그것도 돈만 맥 이면은 또 무마 됩니다, 그건-. (김철영(사례 27) 구술녹취록, 2010 I/17)

구술자는 위의 단락에서 정치적 경력과 상관없이 생활하는 북한 일반주민들의 경우 고난의 행군을 경험하면서 상대적으로 결혼과 이혼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혼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의 생존 논리가 최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식량난의 시기에 결혼과 이혼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규범이 이완되면서 법적인 이혼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동거나

I
II
III
IV
V

혹은 중혼의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돈이라는 경제력만 있으면 합법적인 승인을 받기도 하는 것이다.

구술자: 제 몸을 팔아도 남자- 남자를 하나, 그 애인 관계지요. 이 한국어로 말하면? 그렇지요? 그거보고 뭐라고- 애인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그거? 유부남을 만나는 경우-(...)혹 총각을 만나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도움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누가 비웃지 않습니다. 이전엔 비웃었는데 지금 현시대 그- 또 그런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많이 붙거든요.(...) 그거가지고 또 비웃지 않습니다, 옆에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김철영(사례 27) 구술녹취록, 2010 I/19)

위의 단락에서 구술자가 전하는 여성과 남성의 관계는 상호적이다. 생존을 위해 여성이 유부남 혹은 남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장사 활동을 하는 여성에게 ‘붙어서’ 생활하는 남성들의 경우 등 북한사회의 하층 계급 내에서 생존을 위한 실용적인 성적 관계가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더 이상 북한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김철영 씨는 당일꾼, 법관 등의 행정일꾼, 보위부 간부나 안전원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뻔뻔하고, 당당하게” 뇌물 혹은 성적 서비스를 받아먹는 것에 비교하여, 하층계급에 속한 개인들의 성적 거래를 “미안한 마음”으로 행하는 생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김철영(사례 27) 구술녹취록, 2010 I/25).

그러게,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계 좀 인제 차원이 달라지기도 해요. 뭐 똑같이 장사를 하면서 똑같이 어: 장사에 그리도 가겠죠. 왜냐면은 00이라든지 어떤 좀 돈이 좀 고가를,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장사를 한 사람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하고 또 그 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떤 한 열차에- 아니면 (3) 하여튼 그런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

람을 한 사람을 사귀면 그 사람에 의해서 뭐 뭐든지 여행증명서라든지 그리고 뭐 기차에 이동할 때 옮겨 옮겨갈 때 물건을 옮겨 신고, 옮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열차 안전원이나 아니면 보위부에 뭐 증명서 해주는 그 기관에 안전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사귀야 되겠죠. (윤미라(사례 36) 구술녹취록, 2010 I/24)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시기에 약초 팔기 등 중국과의 장사에 관여했던 윤미라 씨는 위의 단락에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 장사에 나선 여성들이 흔히 처하게 되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반면, 이익이 많이 남는 비법적인 물건 거래를 눈감아주는 대신 여행증명서 등의 발행 권한을 가진 남성 간부들이 성적 요구를 하거나 혹은 여성들이 돈 대신 성적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를 암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앞서 구술한 바와 같이 남성 상급자의 요구를 거역할 수 없는 일상의 윤리와 함께 하층계급의 여성들인 경우 생계를 위해 돈 대신 ‘육체적 자원’을 거래하기도 하는 것이다.

(3) 국경을 오가는 ‘여성들과 본처 찾기’ 운동

식량난 이후 가족과 본인의 생존을 위해 중국 국경을 넘어간 북한 여성들이 성매매 조직으로 거래되거나 혹은 매매혼을 하게 되는 비인권적인 사례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간 북한 여성과 남성들은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오거나, 혹은 많은 경우 중국사회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비인간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서는 순간 ‘비(非)국민’인 북한 여성들은 중국사회에서 최하위의 계층으로 매매되고 거래되는 성으로 취급되기도 한다.²⁷⁵

이 연구에 참여한 구술자들의 사례를 보면 정치범이었던 아버지의

I
II
III
IV
V

조언에 따라 수년간 준비하여 탈북한 노호철 씨를 제외한 7명의 경우 직, 간접적으로 중국 무역을 통한 장사를 하다가 정치적 규제가 심해 지자 탈북하였다. 윤미라 씨의 경우 2001년 아는 언니를 따라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갔다가 2006년 남한으로 올 때까지 다양한 형태의 성적 고통을 경험하였다. 홍희숙, 도진아, 김철영 씨의 경우 수년에 걸쳐 중국을 오가며 장사를 하다가 돈으로 무마할 수 없는 비법 행위가 발각되어 탈북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먼저, 2002년 경제조치를 통해 상거래가 부분적으로 합법화되면서 여성들의 장사 활동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²⁷⁵

구술자: 잘살면 “야: 너는 정말 마누라 잘 만나서 잘사는구나.” 남자는 뭐를 하면 솔직히 남자가 못할 거기 뛰 나면 여자는 뭐 불법을 해도 간단히 용서래도 받고 사회적으로 뭐 “너는 왜 그렇게 이렇게-” 정말 위신이 깎일 일이 없어요. 먹고 살자 하는 뜻 그거는 당연히 여자가 뛰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된다- 그게 사회적 풍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가

²⁷⁵-이와 관련된 자료는 좋은벗들,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서울: 정토출판사, 1999); 김인성, “탈북자 현황분석,” 『민족연구』, 제14호 (2005) pp. 6~34와 같이 탈북주민들의 현황에 관한 조사연구와 백영옥,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6집 1호 (2002), pp. 241~264; 이미경,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제18집 1호 (2006), pp. 33~55; 임순희,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의 삶의 변화,” 『평화연구』, 제30호 (2005a), pp. 115~140; 임순희,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43호(2005b), pp. 167~191; 박순성 외,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학술논문으로 나눌 수 있다.

²⁷⁶-북한은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해 배급제 폐지를 추진하는 대신, 기업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가격, 임금, 환율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경제정책을 단행했다. 또한 2003년 3월에는 농민시장을 종합 시장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단행하였다.

일단 불법을 한다든가 뭘 먹고 살자고 장사를 한다든가 하면 머저리처럼 간주 돼가지고- ‘저 남자로 생겨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아직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버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래서 조금 좀 나아지고 있는 게 이제는 남자도 벌어야 된다 하는 관념이 조금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 그러니까 여자가 먹여 살리면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가 생기죠. 사회적으로는 없어도- 내 가정이 내가 마누라 잘 만나 먹구 사니까 남편은 당연히 자기 마누라를 거하게 되고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고- 또 당연히 여자는 남편이 벌어도 못 주고 자기가 버는 거는 애나고 하니까 남편은 또 불필요한 존재로 또 여기게 되고, 점점 또 그렇게 돼요. 지금 실상이-

연구자: 근데 왜 사회는 그런 걸 인정을 안 해줄까요?

구술자: 사회가 인정해줄 수가 없죠. 사회가 체제- 아무튼 사회가 인정해 주자면 사회에서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는 여자가 능력을 낼 수 있는 게 없다 말이에요. (홍희숙(사례 35) 구술녹취록, 2010 I/25~27).

홍희숙 씨는 1998년 기아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가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결혼한 후 장사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살았다. 결혼 후 남편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약초, 술, 담배, 비디오 등을 중개하는 비법 활동으로 많은 돈을 벌었으나,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들의 북한 내 가족을 찾아주는 브로커활동을 하다가 ‘역적죄’로 보위부의 조사를 받던 중 2008년 탈출하였다. 이처럼 홍희숙 씨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 형성된 북한사회의 비공식적 ‘무역인’이다. 북한사회가 공식적으로 개방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중반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었던 개인들의 경험이 중국과의 국경에 무수한 무형의 ‘구멍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사례분석에 의하면 홍희숙 씨는 1970년대에 태어나 사

I
II
III
IV
V

회주의 혁명화의 주역을 꿈꾸며 성장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탈북과 자본주의적 거래를 경험하면서 소위 비법을 통해 사회적 출세를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텍스트에서 구술자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가정에서는 작은 변화를 만들고 있으나,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위의 텍스트에서 짐작할 수 있는 가정 내에서의 작은 변화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작동하는 권력관계이다. 즉 남성가부장은 가족생계부양자이며 아내는 가족재생산의 담당자라는 가정 내에서의 역할이 깨어지면서 실제 가족재생산과 생계부양을 동시에 책임지는 아내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반면 경제능력을 상실한 남편은 가족 내에서의 권위와 힘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러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및 재생산노동이 사회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위의 단락 마지막 부분에서 홍희숙 씨는 여성들의 장사와 같은 활동을 “사회적으로 능력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확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사회에서 자본주의적 이윤을 추구하는 ‘장사’를 비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사행위가 북한체제의 공식적인 법과 규정을 어기는 비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광범위하게 장마당 경제 활동에 참여하게 된 북한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한계를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장사를 하기 위해 북한의 각 지역을 오가거나, 혹은 중국으로의 국경을 오가는 경험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각종 영상자료이다. 앞의 단락에서 도진아 씨는 중국에서 보게 된 성에 관한 동영상들 통해 처음으로 성적 쾌락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혁명적 동지애’를 위해 주체화된 자신의 섹

슈얼리티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성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것이다.²⁷⁷ 비슷한 경우로 홍희숙 씨가 중국을 오가며 거래했던 물건 중에는 북한 물건으로 위장된 각종 영상자료가 있었으며, 남편이 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부탁을 받아서 중개하기도 했다고 한다(사례 35). 또한 대학교수로 지내다가 2004년 남한 드라마 시청 주모자로 발각되어 강등생활을 했던 진남수 씨의 경우도 있다.

근데 그 영어강좌 선생님들도 많이 좀 친했고 하니까 영어 강좌 선생님들하고 우리 이제 강좌하고 해서 이제 그 TV 그 ‘남자의 향기’ 있지, 이 남한 드라마- 그거를 본거지. 이 딱 달아걸고 서리 문, 커튼 다 치고 이력하고 몰래 봤는데, 거기가 이제 그런 이제 내가 이제 군대 때 하던 이런 정보 원이가 거기 계속 있는 거지. 그 다음 날에 바로 이제 호출을 당한 거죠. (진남수(사례 34) 구술녹취록, 2010 I/19).

진남수 씨의 구술에 의하면 장삿길을 통해서 수입된 각종 영상물이 북한 대학의 교수 사회에서도 광범하게 시청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영상자료가 교육교재로 일반화된 사정과 연관되어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도 교육기관의 각종 재교육 자료로 외국어 원어민 프로그램을 활용하게 되면서 교육용 CD가 일반화되었고, 교수들이 이러한 영상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자재가 구비된 것이다. 다른 한편 고난의 행군 시기 중국과의 비공식적 장삿길을 통해 한류열풍으로 제작된 한국 드라마들이 북한 장마당에서 소위 ‘광명비디오’라는 껍데기를 쓰고 거래되기 시작한 것이다. 2000년대를 넘어 가면서 남한 드라마 시청은 교직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말하는 정

²⁷⁷ 이러한 영상물 중 ‘음란물 CD’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성생활의 쾌감을 보급하는 일종의 성교육 교과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교덕 외,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116.

I
II
III
IV
V

도”가 되었다고 한다(사례 34). 이러한 드라마 시청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단정하기 어렵다. “실지 남자가 깡패지 만은 여자를 위해서 어쨌든 남자가 이제 희생되는 이런 어쨌든 항시 긍정적인 면은, 이런 거기 때문에 보는 거죠”(사례 34)라는 표현을 등을 통해 적어도 ‘혁명적 동지애’로 환원될 수 없는 남한사회의 섹슈 얼리티의 실천 과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20대 초반 중국으로 탈북하여 “온갖 것을 다 경험한” 홍희숙 씨는 북한사회 내에서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내가 배우던 시기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부모들 시대 우리 또래가 다 부모가 되고 그랬는데 이제는 내 새끼를 김 일성역사를 배워주고 싶지 않거든요. 내뿐이 아니에요. 지금 부모들 정신상태가 그렇거든요. 여자애들이면 피아노 배워줄려고 하고 예능 쪽으로 나갈려고 하고, 우리 남아들 인 경우에는 영어를 배워줄려고 하고 수학을 잘해야 되고 컴퓨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똑같잖아요, 지금- 시대 차가- 지금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 문화적 침투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 같아요. 이, 내처럼 비디오를 날라오는 사람들, 남한의 비디오 날라오고 아무튼 옷이고 화장품 이랑 이런 거 들여오고 이러는 사람들 제일 청산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비디오를 날라오는 거는 문화적 사상문화적 침투를 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 말마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무섭다고 하거든요, 북에서는- 실지 사상전쟁이 잦아요. 드라마가 들어오면 그걸 보고 느끼니까 그게 제일 빠른 거잖아요. 사람이 절실히 느끼는 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드라마가 뭐 10년 동안 2000년대 들어서서부터는 뭐 한국 드라마가 이젠 다 퍼졌어요. 이젠 여기 와서 보면 북한에서 보던 드라마가 많이 나오거든요. (홍희숙(사례 35) 구술녹취록, 2010 I/25)

1970~80년대 북한의 강성대국 노선에 따라 성장했던 구술자는 20대

이후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북한사회에 자본주의적인 문화사상적 침투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한다. 위의 단락에서 구술자는 먼저 2010년대에 아이를 키우는 30~40대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기술하고 있다. 부모세대와 자신이 속한 세대의 시대 차를 자식에 대한 교육관의 차이를 예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에서 북한 당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문화사상적 침투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결국 이와 같은 “시대 차”의 중요한 원인이 비디오, 옷, 화장품 등을 통해 전달되는 남한의 문화와 사상에 있음을 시사한다. 요컨대 북한의 배급중단 사태를 대체하였던 중국으로부터의 밀무역 상품들이 소리 없이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문화와 생각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즉 김일성 역사 대신 피아노와 컴퓨터, 혹은 제국주의 언어인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상문화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다른 한편 2005년 정도부터 소위 ‘본처찾기 운동’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한다.

그때- 그니까 그 본처찾기 운동이라는 기 그게 2006년도부턴가? 2005년도부턴가 그렇게 해서 그 이제 재판에서 이제 일단 이혼 했었는데 그: 뭐 어쨌든- 여기서는 그거 보고 조강지처라고 뭐 이런 소릴 하는 데 거기서는 조강지처라는 말은 없고 이 본처찾기 이기가 있어가지고, 이전에 이혼했던 자기 이제 본처하고 이제 뭐 결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재판소에서 그: 이쪽에 이제 지금 새 가정에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 우리도 그때 충격음- 그게 2005년도 맞겠다, 2005년도- 그래서 그 했는데, 결국은 이제 재판소에서 이제 그 이혼사유라는 게 이제 본처하구 자기네 무조건 살기로 이렇게 당에서 결론을 했단니까 후처에 대한 이제 일상적인 이제 그 그니까 완전히 뭐 무슨 뭐 구타를 했다던가 뭐 바람을 폈다던가 이런 이제 뭐 이제 딱 그 이혼조건이 없이도 성립이 된 거죠. (진남수(사례 34) 구술록

I
II
III
IV
V

취록, 2010 I/35).

북한사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사실상의 이혼, 재혼, 동거 등의 관계들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런데 식량위기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증장기적인 상황으로 전환되던 2005년 무렵, 헤어졌던 본처와 살겠다는 남편의 주장이 있으면 재판소에서 남편과 새 부인 사이의 결혼관계를 해소하는 판결을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즉 남편과 새 부인의 이혼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조건이 없어도, 본처와 재결합하겠다는 남편의 의견만 있으면 이혼이 성립되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이혼과 재혼을 사실상 불허하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관계의 절대적 우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를 인정함으로써 남성가부장의 권위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치는 고난의 행군을 통해 신뢰를 상실하게 된 가부장적 사회주의 체제의 복구를 위한 국가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장마당에 대한 최근의 규제와 화폐개혁 등의 경제조치²⁷⁸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려는 노력이라면, ‘본처찾기’에 대한 사법적 인정은 사회주의 혁명화의 기본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족의 혁명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²⁷⁸ 북한은 2008년 초부터 40세 미만의 여성들이 장마당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2009년 화폐개혁 단행 및 장마당 폐쇄 등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규제 조치를 실시하였다.

바. 소결: 북한사회의 섹슈얼리티의 특징

앞의 사례분석에서 살펴본 북한사회의 섹슈얼리티가 갖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사회에서 ‘혁명적 섹슈얼리티’는 가부장적 사회주의 체제를 구조화하는 중요한 공적 담론이자,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소위 정치적 토대가 좋은 집안 사이의 결혼이 혁명적인 사랑으로 칭송되고, 실천됨으로써 주체식 사회주의를 체현하는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재생산되고 있다. 동시에 ‘수정주의 날나리풍’에 대한 사회적 구별짓기(Broudieu)를 통해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주의 사회의 규범과 윤리가 재생산된다. 북한사회의 공식적인 담론인 ‘혁명적 섹슈얼리티’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급적 위계를 재생산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주의 권력의 재생산 기제가 되는 반면, 북한 주민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친밀성의 섹슈얼리티’가 성적 욕망과 실천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적령기가 되기 이전에 형성된 친밀성의 관계들은 가족 내에서의 인정의례(부모들과의 상견례), 묵인되는 동거(비밀 각시 집 등)를 거치며 결혼제도에 흡수되기도 한다. 이러한 묵인과 관행들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혁명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는 양식으로서 식민지시기를 이어온 가부장적 잔재에 기초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친밀성의 섹슈얼리티는 불법은 아니지만 ‘비법’으로 전유된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의 성적 욕구와 실천은 혁명적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의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서로 다른 윤리를 통해 동전의 양면처럼 구조화되는 경향이 있다. 개인은 일상에서 양자 사이의 긴장된 줄타기를 내면화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구성원으로 주체화된다.

I
II
III
IV
V

둘째,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북한사회의 권력 분배구조는 정치적 토대(계급)와 충성도(헌신)에 따라 위계화될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젠더화’된 특성을 보여준다.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노동당 최고위 남성간부들과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주된 임무로 특화된 중앙당 조직지도부 제5과 소속의 여성들 사이의 관계는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달리 말해 정치적 토대를 기반으로 북한 권력의 최고 엘리트가 선발, 조직되는 과정에서 권력 담지자와 권력의 보조자는 남성과 여성으로 젠더화된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권력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입당 과정에서 남성들은 계급적 성분과 충성도에 의해 구별되지만 여성들은 계급적-성적으로 구별된다. 사례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주의 권력은 여성의 노동당 입당을 인정하는 동시에 남성 권력자의 성적 대상으로 구조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로 확인되는 북한 여성들의 암묵적인 성상납은 노동당 입당, 직업에서의 승진 등을 위한 ‘충성서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셋째, 사례분석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의 식량난을 경과하면서 국가의 사회적 분배가 중단되자 북한사회의 하층 계급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몸/성이 정치,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혼, 사실혼, 중혼의 확대를 통한 가족의 재구성은 식량난의 시기 ‘위기의 가족’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성적 경험을 매개로 한 ‘실용적 가족’ 구성의 시도가 삶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은 식량난 시기 생존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개척된 중국과의 밀무역 길을 통해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윤리만이 아니라 개인의 발견과 자기실현의 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직,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2000년대 중반 등장한 ‘본처찾기 운동’은 사회주의 노동당이 ‘혁명적 섹슈얼리티’에 기초한 결혼제도를 재강조함으로써 체제 재생산의 기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전의 결혼관계를 상징하는 본처관계를 국가권력으로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화폐개혁이나 시장통제와 동일한 원리로 새롭게 형성되는 북한 주민들의 ‘실용적 섹슈얼리티’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I

II

III

IV

V

V. 결론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이 연구에서는 교육학, 심리학, 미시사, 정치학, 사회학, 여성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발전되어온 의식 및 정체성 관련 이론과 분석틀을 활용하여,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의 다면적, 다층적 측면을 최근 북한사회의 변화와 연관시켜 탐구하였다.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의 특징과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주제영역을 크게 △의식 변화의 내적 기제 및 개인적·집단적 정체성의 형성과 재구성이라는 개인 주체의 내면적, 심리적 영역, △개인의 의식 속에서 국가와 개인이 어떻게 대면하는가에 초점을 둔 국가의 통제와 주민의 대응, △사회 변화가 가져오는 경험의 확장과 이로 인한 미시권력과 정체성의 변화라는 세 영역, 여섯 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I장 1절에서는 구술생애사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학습, 특히 ‘관점전환학습’의 측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생애 경로를 탐색함으로써 이들의 생애경로에 영향을 미친 경험과 경험의 재구성, 그 과정에서 일어난 정체성의 변화에 관하여 탐색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례를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의식의 딜레마를 초래하는 생애사건을 접하면서 기존의 의미구조에 의문을 품게 되고, 직관, 자아성찰, 비판적 평가 등의 기제를 통해 기존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의미관점의 형성을 이루어내는 구체적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 주민들의 생애사를 통해 혼란스러운 딜레마, 자기 검열, 인식론적·사회문화적·심리적 가정을 비판적으로 평가, 불만과 전환의 절차를 타인과 공유하며 다른 사람도 유사한 변화를 겪었음을 인식, 새로운 역할·관계·행동의 선택지 개발, 행동 절차 계획, 자신의 행동을 실현할 지식·기술 습득, 일시적으로 새로운 역할 시도, 새로운 역할·관계에 대한 능력 구축과 자기확신, 새로운 관점에 의한 자신의 삶의

I
II
III
IV
V

재통합 등의 관점전환학습의 단계가 반드시 단선적으로,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식의 혼란과 전환의 과정을 타인과 공유하며 다른 사람도 유사한 변화를 겪었음을 인식하는 단계는 정치적 불만의 표출로 인해 극단적인 불이익이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북한과 같은 사회 속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국가관, 남한관과 같은 정치적 관점과 관련된 인식의 전환인 경우 새로운 역할·관계·행동의 선택지를 개발할 가능성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시민사회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렵거나, 사회 내부에서 대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회로의 탈출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생애사례들은 의미관점의 전환이 특정한 사건이나 통찰을 계기로 단번에 이루어지기보다는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관점전환의 충분한 에너지가 생길 때까지 특정 과정을 나선형의 순환 궤적을 그리면서 반복하기도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관점전환의 핵심적 요소는 사회, 정치, 경제체계에 관한 신념뿐만 아니라 도덕적 추론과 인간관계, 정서적 반응을 지배하는 지배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관점전환을 야기하는 성찰의 맥락과 구체적인 계기는 다양하여, 자신의 미래 삶의 방향에 대한 고민과 자아성찰이라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체사상의 진리성 여부나 정권의 성격과 같이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기도 하고, 개인적 사건이 발화점이 되어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 확대되기도 한다. 북한의 전반적인 사회문화적 환경은 개개인의 성찰성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억압하

지만, 오히려 국가가 강요하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을 일상적으로 접하기 어려운 사회, 개개인의 자유로운 성찰이 억압된 사회에서 억압의 틈을 뚫고 나오는 개개인의 성찰성은 관점전환을 촉진하는 데 있어 더 큰 잠재력과 폭발력을 갖는다. 특히 엘리트와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북한 정권이나 북한의 미래에 대한 성찰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식인들은 지식인 특유의 성찰성을 지니고 있고 더불어 외부 세계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다른 주민들에 비해 북한사회를 다른 사회와의 비교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생애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관점전환학습의 촉진 요인은 사회구조적 불평등, 즉 출신성분으로 인한 박탈감과 불평등 경험과, 외부 세계와의 문화적 접촉 및 대안으로서의 남한 사회의 존재이다. 사회 구조에 대한 무비판적인 수용과 입당이라는 사회적 인정의 기제를 통해 북한사회의 주변인들은 사회에 통합되어 나간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좌절, 입당이라는 사회적 인정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유리천정의 존재에 대한 자각, 순응하는 삶이 아닌 대안적 삶의 가능성은 자신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가치체계에 의문을 품고 의미관점의 전환을 모색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는 곧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인해 손상된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며, 북한의 공민이라는 집단적 자아로부터 개인적 자아가 독립되어 나오는 과정이기도 하다.

북한 주민들의 관점전환학습을 촉진하는 또 한 가지의 주요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외부세계의 문화 및 정보 접촉이다. 경제난의 영향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의 인적왕래 및 물자거래가 급증하

I
II
III
IV
V

고 장사 등의 목적으로 북한사회 내부에서 주민들의 이동과 정보소통이 활성화되면서 외부 문화 및 정보 접촉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남한 영화와 드라마 CD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남한에 대한 인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구술을 통해서 남한 영화와 드라마 등의 영상물이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서 두 가지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학교교육이나 북한의 방송매체와 공식 선전물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공식적인 교육 내용이나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접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남한에 대한 지식과 생각은 물론이고 자신이 살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며, 이는 ‘관점전환학습’의 계기로 작용한다. 또한 영화와 드라마 속의 남한은 북한 주민들에게 현실의 자기 자신의 삶과 대비되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 즉 일종의 이상향으로 다가온다. 드라마 속의 남한으로 대표되는 이상적 사회에 대한 동경은 역으로 자신이 밟고 있는 현실을 보다 비판적인 안목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고, 이는 궁극적으로 총체적인 관점전환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외부 세계와의 문화적 접촉과 이로 인한 의식의 변화는 또한 북·중접경 지역이라는 공간을 통해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장사를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방문비자를 받지 않고 뇌물을 써서 수시로 국경을 넘나드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은 개혁개방이 진행된 중국 사회의 모습과 북한사회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정보를 접하고 기존의 가치관에 의문을 품게 된다.

II장 2절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집단정체성 형성의 과정과 기제를

살펴보고, 경제난 이후 시장화가 진행되고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확대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 속에서의 한편으로는 집단정체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개인정체성이 강하게 드러나고 확대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북한은 집단정체성을 매우 강조하는 사회이고 학교, 직장 등 조직 내에서 끊임없이 당과 수령을 위한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고와 감정체계 깊숙이 집단주의 가치가 내면화되어 있다. 그 결과 자신을 독립적 개인으로 인식하기에 앞서 집단의 성원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집단의 목표에 일치시키는 등 집단정체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출신성분에 따라 삶의 행로가 결정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나 독특성을 드러내고 성장시킬 기회가 없고, 그러겠다는 생각을 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각종 사회화의 기제와 조직생활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적 정체성은 이에 복속시키는 삶을 강요당하는 이면에, 조직생활에 대한 염오와 반감, 불만을 지니고 있으며,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특히 경제난 이후의 사회적 변화와 시장화, 자본주의 가치의 유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행동방식이 새로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생활을 통해 체득하면서, 그동안 집단적 정체성의 그늘 하에 가려져있던 개인정체성이 표면에 드러나고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기성세대보다 젊은층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세계적 변화의 추세는 더욱 거세어질 것이고, 북한 역시 외부세계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외부세계

I
II
III
IV
V

로부터의 문화 전파와 시장관계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개인정체성의 확장 및 강화 속도는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것이다.

Ⅲ장 1절에서는 국가, 노동당, 최고지도자(김정일 위원장), 근로단체(조직)생활, 언론매체, 그리고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자신의 권리와 의무, 역할 등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 평가, 태도 등을 분석하였다.

먼저 국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보면, 김일성의 통치가 끝나고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악화, 지속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국가와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자긍심이 당국의 강변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주민들 사이에 ‘인민’의 생활을 책임지고 보장해 주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국가에 대한 원망과 불신이 점차 확산, 심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아주 못 사는 나라이지만 ‘당국이 선전하는 대로’ 군사적으로는 아주 강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북한이 군사적으로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부세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생활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도 한다.

법 관련 인식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사회주의 헌법을 비롯한 다양한 현행 부문법에 대한 인지 및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에 있어서도 법보다는 돈을 우선으로 하여 해결을 모색하는 편이다. 북한 주민들은 국가보위부, 인민보안성, 검찰소, 재판소 등 법을 집행하는 이른바 ‘법기관’ 사람들의 말이 곧 법이 되며 현행법보다 더한 위력을 갖는다고 알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법보다는 돈(뇌물)의 힘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법은 돈의 위력에 무력화된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는 경제난이 지속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당의 지시를 외면하는 등 ‘어머니 품’으로서의 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편이다.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적 시혜가 줄어들고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힘들어지면서 당에 대한 실망과 무관심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확산, 심화되어 갔다는 것이다. ‘어머니 품’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실망과 무관심은 주민들의 입당에 대한 선호도에서도 엿볼 수 있다. 경제난으로 인해 생활고가 심화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당원이 되는 것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며 당원을 선망하지도 않는다. 이보다는 생계유지 및 치부를 위한 경제활동을 더 중시한다.

지도자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는, 김정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은 김일성에 대한 인식과 크게 다르며 경제난이 악화, 지속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 최고지도자 김정일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원망과 반감이 확산, 심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후광으로 최고 권력자가 되었고 ‘평백성’(인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무책임한 지도자이며, 나라 살림을 잘 못해 경제난을 해소하지 못하는 통치자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일이 군사부문에만 치중하고 인민들은 먹여 살리지 못하며 고생도 전혀 안 해보고 아버지(김일성)의 업적도 다 맡아먹은 사람이라고 비난한다.

조직생활과 관련해서는 경제난의 악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면서 강요적이고 일상적인 조직생활에 피로와 염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들 사이에 무단, 또는 편법을 동원하여 조직

I
II
III
IV
V

생활에서 벗어나는 사상 및 체제 이탈 행위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일상적인 조직생활에 대한 권태와 이탈은 특히 주민통제의 사상적 기제인 생활총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의 정치 관련 매체에 관한 인식을 보면, 언론매체의 종류, 매체의 이름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다. 국내외 소식들과 관련하여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언론매체는 '3방송'이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합법·불법적 중국 왕래 횡수가 증가하고 장사 등으로 인해 지역 이동 및 상호 정보 교환의 계기가 많아짐에 따라 '3방송'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주민들 사이에 '3방송'의 사실 왜곡 및 조작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당국으로부터 정치 주체로서의 권리 내지 권한 행사를 철저히 제약당하며 수령과 노동당이 실질적인 정치의 주체로서 무제한적인 권력 행사를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은 아주 소극적이며 수동적이다.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를 정치의 주체가 아닌 정치의 객체로 대상화한다. 이들은 자신들이 주권자로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 권력자들이 '만들어 내는 정치(정책)'에 의해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의식, 규정한다. 바로 이와 같은 의식이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케 하며 중국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는 근원으로 작용한다.

북한 주민들은 선거에의 참여가 자신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의식하기보다는 자신들은 반드시 선거에 참여하여 당에서 내세운 특정인물에 대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무감 내지 강박감을 가지고 투표행위를 할 뿐이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국가, 사회, 정치, 법, 민주주의, 권리, 의무, 언

론, 조직, 당 등 정치·사회적 용어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며 북한당국에 의해 정치적·이념적으로 조작된 개념정의에 대해서도 지식 및 이해가 부족한 편이다.

북한 주민들은 당·국가의 정책을 말없이 따르고 당·국가의 시혜 및 배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인민’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의식화되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거나 몇 마디 언급하는 것조차도 ‘평백성’에 불과한 자신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행동이며 자칫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는 무모한 짓이라고 생각하며, 당·국가 정치(정책)에 대해 소극적·수동적 태도로 반응한다.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당·국가의 정치논리 및 정책에 대해 파악, 이해한 후 이를 수용, 또는 저항하기보다는 무비판·무조건적으로 전면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Ⅲ장 2절에서는 국가의 통제 대상이 되는 일탈행위인 범죄가 주민들의 심성세계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실천되어 왔는가를 고찰하였다. 북한의 범죄는 법률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그리고 도덕적인 것이 교차하는 모호하고 불확정적인 경계선에 자리하고 있다. 범죄의 증가 추이의 측면에서, 탈북자 구술을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에서 범죄의 양적 증가는 고난의 행군 전후로 확연하게 증가일로에 있었다. 이런 범죄 증가 추이에 대한 정보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경제범이나 민생 관련 범죄를 다루는 인민보안부와 달리 국가안전보위부와 같은 주로 사상범이나 정치범을 다루는 기관을 통해 ‘범죄화’된 사건들 역시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들에 의해 적발되거나 범죄로 처벌된 사건 수를 포함시킨다면 북한에서의 범죄 증가의 규모는 보다 클 가능성이 높다. 한편 범죄의 증가 추이는 크게 자연적 증가 추이, 시장에 대한 통제 수준에 따른 시기별 증가 추이, 그리고 정치적으로 기획된 범죄

I
II
III
IV
V

증가 등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범죄의 일상화와 관련해서, 탈북자들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인민들의 공공재산에 대한 절도는 생계윤리의 차원에서 해석한다면 절박한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가가 일용할 양식을 주지 못할 때 발동하는 자구적인 주민들의 자기생존의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행위가 비법 또는 불법인 것을 분명히 인지하였지만,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 차원에서는 법적 차원을 넘어서는 생존의 자구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전인민이 도둑놈’이 되었다는 것은 비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범죄행위의 일상화를 의미하는 한편 국가의 주민들에 대한 부양 능력의 저하가 범죄 일상화와 일정한 함수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의 유형화와 관련하여, 대부분이 탈북자들은 범죄의 유형을 ‘생계형’과 ‘권력형’으로 구분하였고, 그런 인식 속에는 단순한 유형화를 넘어 이러한 행위 처벌에서 계급적 구분이 작동하는 왜곡된 법적 처벌 체계, 권력계층에 대한 강한 불신을 담고 있었다. 절박한 생존의 문제로 행한 불법적 행위와 개인적 축재를 위해 행해지는 불법적 행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이 불평등하다는 강한 불만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고난의 행군 이후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연해지기 시작한 경제적 ‘계층화’가 주민들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경제난으로 대표되는 고난의 행군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살지 못하게끔, 가장 일반적인 생활도 영위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라는 인식은 불법적 행위나 범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체제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것은 일종의 국가나 체제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범죄를 개인의 도덕적

문제가 아닌 ‘운이 없어’ 적발돼 처벌받는 개인의 ‘운’ 문제로 보거나, 같은 불법적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범죄 여부가 판별되는 ‘권력 소유’ 여부 문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범죄의 일상화는 주민 차원에서는 체제에 대한 도덕적 분노나 불신을 보다 많이 체감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을 이용한 범죄적 행위의 경우 주민들은 ‘수탈’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수탈 방식도 특정 계통의 간부들만이 아닌 각 계통의 간부들이 총체적으로 서로 공모하고 묵인하면서 ‘힘없고 뺨 없는’ 농장, 기업소를 대상으로 수탈을 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상 수탈의 물자들이 주민들을 통해 조성된다는 점에서 전 인민을 대상으로 한 권력의 ‘수탈’이 하층 일상에 팽배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탈’이란 용어 사용 속에는 권력을 이용한 갈취에 대해 상당한 도덕적 분노가 담겨 있다. 한편으로 상대적으로 일반 주민 자신들이 행하는 작은 비법은 언제나 범죄로 낙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억울함’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보안기관들은 모든 곳에서 통제 권한을 이용해 약탈적 행위를 하고 있다. 해당 관할 지역과 단위의 특성과 이해관계에 파고들어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심지어 범죄 행위자들과 결탁하여 오히려 범죄 행위를 보호하면서 치안 권한을 이용한 자신들의 ‘특수’를 독점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의 도덕적인 비난의 표적이 되는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권력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경우라도 정치논리를 개입시켜 표본적으로 처단하는 방식이 지속되고 있다. 권력 유지를 위한 ‘희생양’ 처단메커니즘이다.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불법적 행위는 대부분 범죄로 적발되거나

I
II
III
IV
V

처벌받지 않는 반면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한 범죄 낙인과 처벌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계획적’, ‘조직적’, ‘몰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행태는 보안기관의 ‘성과주의’와 조직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사실상 권력기관의 존재 이유와 성과의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고난의 행군 이후 15년 가까운 시간은 ‘부랑성’이 번성하는 시기였다. 대부분이 먹고사는 문제로 집과 가재도구를 팔거나 가족 해체로 인해 부랑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부랑하는 주민들은 생활이 안착되지 않고 생계가 극심하게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불법적인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구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술을 통해 군대의 조직적인 민간인 약탈의 실상도 드러났다. 권력을 악용하여 주민들을 약탈하는 권력기관의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군대 역시도 군대가 갖는 특수성을 이용하여 주민들을 약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체제가 얼마나 약탈적인 구조 속에서 작동하는가를 보여준다. 그런 구도에서 본다면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비롯하여 상층 지배엘리트들이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주민 수탈이 사실상 사회 곳곳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체제가 갖는 ‘약탈국가’적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결국 1990년대 이후 나타나고 있는 북한사회의 다양한 범죄 현상들은 생계 현실과 도덕적 기대 사이의 미묘한 함수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에 대한 변화된 새로운 의식의 등장을 의미하며, 한편으로 고달픈 현실을 살아가며 발견하게 된 여러 얼굴을 가진 자기 정체성 발견이기도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적인 욕심이나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집단주의적 도덕

설정이 개인의 은밀성과 두려움을 또 하나의 세계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항상 인민들의 은밀한 타락이라는 배반의 두려움 속에서 존재해 왔다. 그러나 그 ‘타락’과 ‘배반’은 주민 차원에서는 자기 발견의 얼굴이자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IV장 1절에서는 시장과 중국이라는 이전 시기에 경험하지 못한 공간이 북한 여성들에게 어떻게 경험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여성의 의식과 남녀간의 미시권력에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북한사회에 만연한 남존여비의 성차별 아래 여성은 정치체제와 가정에 이중적으로 억압되고 예측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문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성 정치체제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모순이기에 여성 의식을 일깨울 변변한 주체도 나오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북한 주민의 경제생활이 국가체제와는 이반하여, 계획경제에서 시장과 자본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기에, 미시적 일상생활 속에서는 기존의 세계관에 균열이 생겨나고, 그 가운데 여성의 의식 또한 도전적, 진보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생존을 위해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를 찾아 나선 것이 새로운 삶의 반경으로 확장되는 ‘공간경험’은 여성들의 의식, 세계관, 가치관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서 공간경험이란, 일차적 의미의 지리적 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어 개인의 삶의 방식, 태도, 의식 등에 영향을 끼치는 이차적 의미의 공간경험을 형성하는 총제적 의미이다. 여성들이 농촌-도시-중국과 자본주의 문화를 만나는 공간경험의 확장은 기본적으로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그 속에서 자본주의 머리가 트였다고 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

I
II
III
IV
V

는 거의 장바닥에서 직간접으로 이뤄진 생체험이었다.

시장의 공간경험은 체험하는 주체의 시야와 대상 수준을 확장시킴을 의미했다.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의미 있는 공간경험으로 들어오는 지식과 정보들을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개인능력 차이, 활동범위와 규모 차이, 나아가 중국경험의 유무에 따라 여성의 진보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그것은 사회문화적 배경이 되는 조직생활경험차로 나타나는 세대차이로 이해할 수 있었다. 북한사회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중시해야 하는 매우 정치적인 사회인데, 신세대는 ‘정치’보다 돈을 따라 흐르다 보니 대담하게 나갈 수 있었다. 생각과 가치관이 트인 진보성은 조직생활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신세대적 가치에서 나왔다. 그것이 중국과 같은 외부세계 경험과 결합될 때, 지향성이 더 뚜렷해질 수 있었다.

시장화 속에서 변화하게 된 여성의 의식세계는 여러 겹으로 중첩되고 모순된 이중성을 띠었다. 첫째는 임수경 스타일이 시사했던 바, 북한 젊은이들에게 충격이 된 유행의 원형은 ‘남한’, ‘자본주의’, ‘여성’을 시장의 주요 코드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했다. 시장으로부터 배우는 새로운 가치관의 흐름이 ‘자본주의 남한’을 바닥에 깔고 있었던 점은, 이후 시장의 주체가 되었던 여성들의 의식이 기존 사회의 가치관과 대립하고 진보적 성향으로 작용하는 이유가 되었다. 둘째, 여성이 시장으로 나가면서 깨어나는 진보적 의식은 가족 내 가부장성과 기존 조직생활문화의 집단적 가부장성과의 갈등을 의미했다. 이런 가운데 가부장성을 깨지 못한 채 사회제도적 틀에 맞춰서 성역할을 조정해 가는 경향도 보였다. 이처럼 사회를 변화시키는 작용과 반작용의 이중성을 보였다.

북한에서 개인 장사를 통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항상 검열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항상 검열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인맥관계, 군중지반의 배경이 없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런 사회문화가 가정경제를 유지 성장시키기 위한 성역할 분담에서 여자는 돈으로 받침을 하고 남자는 직위로 받침을 할 수 있도록 구조화시켰다. 남자가 출근을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처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남자를 출세시켜 지위를 높임으로써 활동공간을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남녀 성역할을 재조정하는 것이다. 이 구조화는 기존 체제와 동일한 구조로 분담한 것이다. 즉, ‘북한사회의 기성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당과 근로단체를 통해 관리한 조직생활문화를 재생산하는 고리가 끊어지지 않았다.

이 점은 여성이 경제권력에서 진보적 위상을 확보했다고 해도 사회정치적으로는 기득권과 결탁하는 구조화, 즉 조직문화의 내면화 양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여성파위가 실질적으로 사회변동의 힘으로 작용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런데 2009년 11월 화폐개혁으로 벌어진 시장변동과정은 새 시장세력으로 부상한 여성의 힘이 어떤 의미를 가졌던 것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1990년대 시장 폭발기를 경험한 신세대 여성들의 진보성은 새롭게 발달하여 가는 시장의 성격을 남한문화를 선망하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쪽으로 키워갔다. 화폐개혁의 후속 시장규제에서 시장을 원래 농민시장으로 돌려놓고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 중심으로 시장기능을 바꾸려 했던 점, 50대 이하의 여성들을 직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은 시장경험을 통해 진보의식이 커지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으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여성 시장세력의 확산, 즉 부상하는 여성파위의 의미를 평가할 때, 변화하는 여성의 의식이 여러 층위로 중첩되는 이중성을 띠

I
II
III
IV
V

고 있었다. 그 문제에서 핵심은 공간경험 주체의 세대차와 조직생활 문화차이에서 발견되었다. 그것은 여성주체에서 접근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정치 체제의 가부장성에 직결된 정치의식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는 문제이다. 즉 정치보다 경제를 중시하는 자본문화를 어떻게 체감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그것은 현재의 북한체제에서 시장의 성격을 어떻게 정립해 가느냐의 문제가 된다. 이 지점은 앞으로도 여성의식의 변화와 관련해서 깊이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IV장 2절에서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섹슈얼리티를 통해 고찰하였다. 섹슈얼리티는 한 사회의 중요한 구성 기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정치, 문화적 권력지배의 양식이다. 생물학적인 성(sex), 사회적인 성(gender)과 성적 욕망으로서의 섹슈얼리티는 사회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개념적 도구로서 상호 구별되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역사적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공통의 특성을 갖는다.

북한이탈주민의 생애사를 통해 살펴본 북한 주민들의 성적 규범, 경험 및 성적 욕망이 갖는 특징은 무엇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혁명적 섹슈얼리티’로 나타난다.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주의 체제를 구조화하는 중요한 공적 담론이자, 기제로 작동하는 혁명적 섹슈얼리티는 ‘유일사상체계 10대원칙’이라고 하는 북한사회의 정치적 윤리를 토대로 형성된다. 북한사회에서 소위 정치적 토대가 좋은 집안 사이의 결혼이 혁명적인 사랑으로 칭송되고, 실천됨으로써 주체식 사회주의를 체현하는 개인과 가족 및 사회적 관계가 재생산되고 있다. 동시에 ‘수정주의 날나리풍’에 대한 사회적 구별짓기를 통해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규율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주의 사회의 규범과 윤리가 재생산된다. 북한사회의 공식적인 생활윤리이자 도덕인 ‘유일사

상체계 10대원칙'은 부부 사이의 성적 경험에 '사회주의 혁명성'을 부여한다. 즉 개인의 성적 수행과 경험을 수령을 중심으로 위계화된 북한의 주체식 사회주의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혁명적 섹슈얼리티'는 사회주의 정치성과 당에 대한 충성이라는 가치를 좀 더 강하게 체현하는 개인과 조직을 선망하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특성을 갖는다.

북한사회의 공식적인 담론인 '혁명적 섹슈얼리티'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급적 위계를 재생산함으로써 가부장적 사회주의 권력의 재생산 기제가 되는 반면, 북한 주민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친밀성의 섹슈얼리티'가 성적 욕망과 실천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적령기가 되기 이전에 형성된 친밀성의 관계들은 가족 내에서의 인정 의례(부모들과의 상견례), 묵인되는 동거(비밀 각시집 등)를 거치며 결혼제도에 흡수되기도 한다. 이러한 묵인과 관행들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에서 '혁명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욕구를 실현하는 양식으로서 불법은 아니지만 비법으로 전유된 사적 영역에서의 성적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북한사회의 성적 욕구와 실천은 혁명적 섹슈얼리티와 친밀성의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서로 다른 윤리를 통해 동전의 양면처럼 구조화된다고 할 수 있다. 개인은 일상에서 양자사이의 긴장된 줄타기를 내면화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구성원으로 주체화된다. 요컨대 북한사회의 개인에 의해 사적으로 전유된 '친밀성의 섹슈얼리티'는 공적 영역에서 전면화된 사회주의적 근대화 프로젝트의 다른 얼굴로서 식민지시기를 통해 이어져 온 봉건적, 반(半) 봉건적 잔재를 내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성적 상상과 실행(결혼 관계, 비밀 연애, 임신, 출산, 성폭력, 매춘 등)이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할 수 있는

I
II
III
IV
V

공식적 통로를 갖지 못한 채 사회주의 혁명화의 다른 얼굴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북한사회의 권력 분배구조는 정치적 토대(계급)와 충성도(헌신)에 따라 위계화될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라 ‘젠더화’된 특성을 보여준다.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노동당 최고위 남성간부들과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주된 임무로 특화된 중앙당 조직지도부 제5과 소속의 여성들 사이의 관계는 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달리 말해 정치적 토대를 기반으로 북한 권력의 최고 엘리트가 선발, 조직되는 과정에서 권력 담지자와 권력의 보조자는 남성과 여성으로 젠더화된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권력체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당 입당 과정에서 남성들은 계급적 성분과 충성도에 의해 구별되지만, 여성들은 계급적-성적으로 구별된다. 사례 분석에 의하면 북한의 가부장적 사회주의 권력은 여성의 노동당 입당을 인정하는 동시에 남성 권력자의 성적 대상으로 구조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례로 확인되는 북한 여성들의 암묵적인 성상납은 노동당 입당, 직업에서의 승진 등을 위한 ‘충성서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

나아가 사례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의 식량난을 경과하면서 국가의 사회적 분배가 중단되자 북한사회의 하층 계급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몸/성이 정치, 경제적 자원의 재분배를 위한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가족구성원의 사망, 이별, 해체 등을 통해 이혼, 사실흘, 중혼 등의 현상이 확산되었다. 이를 통한 가족의 재구성은 식량난의 시기 ‘위기의 가족’으로 형성된 것이기도 하지만 성적 경험을 매개로 한 ‘실용적 결합’의 시도가 삶으로 지속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식량위기는 특정한 시기를 거쳐 해소될 수 있지만, 위기를 통과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다양한 성적 경험들은 북한 주민의 일상 속에 새로운 행위 요소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난 시기 생존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개척된 중국과의 밀무역 길을 통해 알게 된 자본주의적 이윤추구의 윤리와 함께, 개인의 발견과 자기실현의 욕망이 형성되고 있는 것과 직, 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에서 확인되는 한국 드라마와 성에 관한 동영상 씨디의 광범한 확산은 무한복제의 기술을 매개로 북한사회에서 새로운 사랑과 연애, 가족의 구성 및 성적 욕망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하여 2000년대 중반 등장한 ‘본처찾기 운동’은 사회주의 노동당이 ‘혁명적 섹슈얼리티’에 기초한 결혼제도를 재강조함으로써 체제재생산의 기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고난의 행군 이전의 결혼관계를 상징하는 본처관계를 국가권력으로 복구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경제적 차원에서의 화폐개혁이나 시장통제와 동일한 원리로 새롭게 형성되는 북한 주민들의 ‘실용적 섹슈얼리티’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된다.

이 연구를 통해서 경제난 이후 생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시장이 확대되고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난 시기 삶의 극한체험과 이후 자생적 시장을 매개로 한 이윤추구의 경험, 중국으로 대표되는 외부세계와의 접촉은 역사적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는 새로운 사고방

I
II
III
IV
V

식과 삶의 방식, 신념체계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삶의 공간의 확장을 의미했다.

새로운 경험과 삶의 공간의 확장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로 작용하였다. 국가관, 당과 지도자에 대한 생각, 집단주의적 의식, 남한에 대한 생각과 개혁개방에 대한 의식, 돈에 대한 가치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의식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전반적으로 당과 국가에 대한 의존과 사회주의 사상의식이 크게 약화되고 시장 경제 중심의 마인드와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과 남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크게 증가하는 등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 주민 의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에도 모종의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열된 복수의 정체성에 의해 구성되며, 개인의 삶을 통해 이러한 다양한 정체성 간의 선택, 서열 설정, 통합의 과정이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개인정체성을 국가를 정점으로 하는 다층적인 집단정체성에 귀속시키는 다양한 기제가 발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담론으로서의 정체성과 다른 내용을 갖는 것들은 집단정체성의 그늘 아래에서 억압되거나 공적인 영역이 아닌 곳에서 ‘묵인’의 형태로 존재해왔다. 정체체성을 예로 들면, 북한사회에서 ‘혁명적 섹슈얼리티’가 가부장적 사회주의 체제를 구조화하는 중요한 공적 담론이자 기제로 작동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친밀성의 섹슈얼리티’가 성적 욕망과 실천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일상에서 양자 사이의 긴장된 줄타기를 내면화함으로써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구성원으로 주체화되어왔다.

그런데 경제난과 시장화로 인한 새로운 삶의 체험은 집단정체성 하에 억압되어 있던 정체성의 다면적 측면과 자아의식, 개인정체성을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들었다. 마치 단일하게 통합되어 있던 것으로 보였던 북한 주민들의 정체성은 개인 주체가 귀속되는 계급, 성, 연령 등에 따라 분열되고 접합되는 불안정한 양상을, 그 여러 개의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성과 ‘새 세대’라고 불리는 젊은 층의 정체성 변화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해석하고 예측하는 온도계가 된다. 또한 삶의 경제적 기반이 국가로부터 독립되는 과정에서 당·국가로부터의 경제적·의식적 독립과 함께, ‘타인과 구분되는 의미의 차이’를 획득하는 과정으로서의 개인정체성의 확장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식과 정체성의 변화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지점은 욕망의 변화이다. 경제난 시기 가장 낮은 차원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급급했던 북한 주민들에게, 2000년대 이후 날로 확장되는 시장 공간은 다양한 욕구를 표현하고 창출하는 장이 되었다. 시장의 팽창은 집단주의적 방식의 소비생활에서 억제되었던 차별화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조건을 형성하였고, 자신의 경제적 부나 사회적 지위를 물질적 상징의 소유를 통해 확인하고 과시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망이 차별화된 소비행태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전 시기, 좋은 출신성분을 가진 특정 계층의 주민들에 한해 혁명적 담론의 틀 내에서만 충족될 수 있었던 ‘자존감의 욕구’와 ‘자아실현의 욕구’가 이제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분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시장활동이다. 북한 주민들에게 시장활동을 통한 자산의 축적은 이윤추구 행위만이 아니라 개인의 발견과 자기실현으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또한 시장은 북한 주민들을 국가의 경계를 넘어 다른 세계와 연결

I
II
III
IV
V

시킨다. 중국의, 남한의 문화상품과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이 북·중 접경지역을 통과해서 각 지방의 시장을 거쳐 북한 주민들의 안방으로 흘러들어간다. 북한 주민들의 욕망은 이전의 지역적이고 국가의 틀에서 기획된 것이 아닌 개별화되고 세계화된 욕망으로 발전하고 있다. 결코 ‘혁명적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욕망이 때로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때로는 전면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정체성의 변화가 곧바로 북한 정권이나 정치 체제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주민 의식의 변화가 사회 저변에서 의사소통의 활성화와 네트워크의 증가와 비판적인 대항 담론의 형성 등의 형태로 더욱 진전된다면 외부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내부 정책의 ‘조그만’ 변화를 계기로 북한체제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에 우리의 우월한 경제력과 문화적 파급력을 적극 활용한 대북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촉진하는 한편, 북한사회 내에서 시민사회의 형성을 통한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내문헌〉

-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上)』. 국가정보원, 2008.
- 김경훈. 『대한민국 욕망의 지도』. 서울: 위즈덤하우스, 2006.
- 김병로. 『북한사회의 종교성: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서울: 통일연구원, 2000.
- 김연수. 『세계의 끝 여자친구』. 파주: 문학동네, 2009.
- 김운태. 『정치학 원론』. 서울: 박영사, 1991.
- 미셸 푸코, 문경자·신은영 역. 『성의 역사 2. 쾌락의 활용』. 파주: 나남출판, 2004.
- _____. 이규현 역.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파주: 나남출판, 2004.
- 박순성 외. 국가인권위원회 편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박영호 외. 『북한인권백서 2010』. 서울: 통일연구원, 2010.
-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3.
-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정치범 수용 실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9.
- 악셀 호네프,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론』. 파주: 동녘, 1996.
- 앤드류 헤이우드, 조현수 역. 『정치학(개정판)』. 서울: 성균관대학교

- 출판부, 2010.
- 앤서니 기든스, 권기돈 역.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서울: 새물결, 1997.
- 월간조선 편집부. 『북한, 그 충격의 실상』. 서울: 조선일보사, 1991.
- 윤택림.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아르케, 2004.
- 이교덕 외.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_____.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8』.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_____. 『북한인권백서 2009』. 서울: 통일연구원, 2009.
- 이대성. 『진리에 관한 다학제적 성찰』.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9.
- 이수영. 『권력이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2009.
-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서울: 그린비, 2009.
- 이태건 외. 『21세기 북한학 특강』. 서울: 인간사랑, 2003.
- 임순희. 『북한 새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전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 _____.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제임스 스콧. 김춘동 역. 『농민의 도덕경제: 동남아시아의 반란과 생계』. 서울: 아카넷, 2004.

- 제프리 위스, 서동진 외 역. 『섹슈얼리티. 성의 정치』. 서울: 현실문화 연구, 1999.
- 조르조 아감벤, 김항 역. 『예외상태』. 서울: 새물결, 2010.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사)좋은벗들. 『북한 ‘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서울: 정토출판사, 1999.
- 최수영. 『북한의 제2경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7.
- 크리스 바카·다리우시 갈라신스키. 백선기 역.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폴 리콴르, 김한식 역. 『시간과 이야기 3: 이야기된 시간』.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 홍민. “북한 시장일상생활연구-그로테스크와 부조리극 ‘사이’에서.” 박순성·홍민 엮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0.

〈북한문헌〉

- 김근식. 『형법학2』.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 김일성. “우리나라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 『김일성저작집 4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_____.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김일성저작집 2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김일성저작집 2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 끝까지 완성하자.” 『김일성저작집 4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정일. “동, 인민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평양시 서성구역 하신동 일군들과 한 담화 1972년 7월11일).” 『김정일선집 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1년5월10일).” 『김정일선집 1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조선로동당은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이다(1990년10월3일).” 『김정일선집 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6년 7월 15일).”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87년 10월 10일).” 『김정일선집 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백과사전출판사. 『조선대백과사전 13』.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 _____. 『조선대백과사전 17』.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_____. 『조선말대사전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_____. 『조선말대사전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외국문헌〉

- Beck, Ulrich. and Elisabeth Beck-Gernsheim. *Das ganz normale Chaos der Lieb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2005.
- Benhabib, Seyla, Judith Butler, Drucilla Cornell, and Nancy Fraser, *Der Streit um Differenz. Feminismus und Postmoderne in der Gegenwart*. Frankfurt am Main: Fischer, 1993
- Berger, Peter L. and Thomas L. Luckman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Penguin Books, 1967.
- Bourdieu, Pierre.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 Butler, Judith.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New York: Routledge, 1990.
- Castells, Manuel. *The Power of identity*. MA: Wiley-Blackwell, 1997.
- Chamberlayne, Prue, Joanna Bornat, and Tom Wengraf. *The Turn to Biographical Methods in Social Science*. New York: Routledge, 2000.
- Cloward, Richard A. and Lloyd E. Ohlin. *Delinquency and Opportunity - A Theory of Delinquent Gangs*. New York: Free Press, 1960.
- Erickson, E. H.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1968.

- Giddens, Anthony.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st Modern 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1.
- Hall, R. *National Collective Identity: Social Constructs and International System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9.
- Hradil, Stefan. (ed.) *Differenz und Integration: Die Zukunft moderner Gesellschaften*. Frankfurt am Main: Campus, 1997.
- Ilya Zeldes, J. D. *The Problem of Crime in the USSR*. Illinois: Charles C. Thomas, 1981.
- Jackson, Stevi. and Sue Scott (eds.) *Feminism and Sexuality: A R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6.
- Jenkins, R. *Social Identity*. London: Routledge, 1996.
- Langton, Kenneth P. *Political Socializ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 Los, Maria. *Communist Ideology, Law and Crime*. New York: St. Martin's Press, 1988.
- Merriam, Sharan B. and M. Carolyn Clark. *Life lines: patterns of work, love, and learning in adulthood*. San Francisco: Jossey-bass, 1991.
- Mezirow, J. *Transformative Dimensions of Adult Learning*.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1991.
- Nettle, Gwynne. *Explaining Crime*. New York: McGraw Hill, 1984.
- Portelli, Alessandro. *The Death of Luigi Trastulli and Other*

Stories: Form and Meaning in Oral History.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1.

Rosenthal, Gabriele. *Erlebte und erzählte Lebensgeschichte: Gestalt und Struktur biographischer Selbstbeschreibungen*. Frankfurt am Main: Campus, 1995.

2. 논문

〈국내문헌〉

곽승지. “북한사회 미시연구를 위한 시론: 북중 접경지역 활용을 중심으로.”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남북소통의 길』. 2010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김영규. “최근 남북한 가족법의 변모와 그 접근가능성.” 『법학논총』. 제20집, 2008.

김인성. “탈북자 현황분석.” 『민족연구』. 제14호, 2005.

김종욱. “북한 관료들의 일상생활세계: 회색의 아우라.” 박순성, 홍민역,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서울: 한올아카데미, 2010.

노귀남. “‘인민성’의 문제로 읽은 북한문학의 변화와 전망.” 『경희어문학』. 제17집, 1997.

_____. “북한 여성의 의식 변화와 평화소통의 길.”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남북소통의 길』. 2010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_____. “소설로 본 북한문학의 가정생활-1980년대 말 이후를 중심으로

- 로.” 김종희 편. 『북한문학의 이해 4』. 서울: 청동거울, 2007.
- 리규이. “바둑치-한 중국 귀국자의 이야기.” 『임진강』. 6호, 2009.
- _____. “변화하고 있는 “조직생활의 나라.” 『임진강』. 9호, 2010 가을.
- 림근오. “<선군의 통치방식을 짚어보다> 2000년 예산 비사검열과 그 잘못.” 『임진강』. 7호, 2010.
- 박영자. “북한의 남녀평등 정책의 형성과 굴절(1945~70): 북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변화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43집 2호, 2004.
- _____. “선군시대 북한여성의 섹슈얼리티 연구: 군사주의 국가권력의 성(性) 정체성 구성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2호, 2010.
- 박종철. “북한의 국가·사회와 정치적 변화.” 『북한연구』. 제4권 3호 가을호, 1993.
- 박희진. “북한 시장의 전진과 후퇴: 수직적 이중경제체제 중심.” 『기회에 선 북한, 김정일의 선택은?』. 현대북한연구회 창립10주년 기념 학술회의 자료집, 2010.
- 백영옥. “중국 내 탈북 여성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북한연구학회보』. 제6집 1호, 2002.
- 서용석. “북한사회의 범죄.” 『아세아연구』. 제35권 1호,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92.
- 손병우. “대중문화와 생애사 연구의 문제설정.” 『언론과 사회』. 제14권 제2호, 2006.
- 손혜민. ““스칼렛 오히라”와 조선녀성.” 『임진강』. 7호, 2010. 3(4월호).
- 안중수. “북한 시장화와 주민생활에서의 변화.”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남북소통의 길』. 2010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 안중수. “북한시장화와 주민생활에서의 변화.” 『북한주민의 생활변화와 남북소통의 길』. 2010 만해축전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10.
- 이미경. “탈북여성과의 심층면접을 통해서 본 경제난 이후 북한 여성의 지위변화 전망.” 『가족과 문화』. 제18집 1호, 2006.
- 이주철. “북한주민의 정권인식과 체제 선전에 대한 반응.” 『통일문제 연구』. 2001년 하반기호, 2001.
- 이 철.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대한 개념적 접근: “비유효 범죄” 영역의 개념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이태영. “북한여성의 가정생활.” 『통일한국』. 제2권 2호, 1984.
- 이희영. “사회학 방법론으로서의 생애사 재구성.” 『한국사회학』. 제39집 3호, 2005.
- _____. “북한 일상생활 연구자료의 생성과 해석.” 박순성·홍민 엮음.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외침과 속삭임』. 파주: 한올아카데미, 2010.
- _____. “도덕은 성(性) 중립적인가-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도덕.” 김광기 외. 『대한민국은 도덕적인가: 한국사회 도덕 살리기 프로젝트』. 서울: 동아아시아, 2009.
- _____. “새로운 시민의 참여와 인정투쟁-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 구성에 대한 구술 사례연구.” 『한국사회학』. 제44집 1호, 한국사회학회, 2010.
- _____. “섹슈얼리티와 신자유주의적 주체화: 대중 종합여성지의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제86집, 2010.

- 임순희. “식량난 이후 북한 여성의 삶의 변화.” 『평화연구』. 제30호, 2005.
- _____. “식량난이 북한여성에게 미친 영향.” 『통일문제연구』. 제43호, 2005.
- 장00. “북한정보체계 협동연구 자문회의 결과 보고서.” 2010. 5. 7.
- 정순희. “탈북자를 알고 사랑의 실천을.” 『북녘마을』. 통권 6호, 2010.
- 채 순. “개인소유의 수위는 어디까지 올라왔나?-대중화된 자전거 이동수단.” 『임진강』. 9호, (가을) 2010.
- 최금준. “간부혁명화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할 수 있게 한 역사적 문헌.”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제50권 제3호, 2004.
- 최길상. “새세기와 선군혁명문학.” 『조선문학』. 639호, 평양: 조선작가동맹, 2001.
- 최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제3권 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최진이. “여성 ‘기본존엄’ 보장 안되는 왜곡된 성문화 만연.” 『월간 말』. 9월호, 2004.
- 한만길. “통일이후 남북한 교육통합 방안연구: 북한 학생의 재사회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 연구용역보고서, 1997.
- 홍 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Ezzat A. Fattah, “체제변환 국가의 범죄현상.” 『형사정책연구소식』. 통권 제4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외국문헌〉

- Brookfield, S. D. "Transformative Learning as Ideology Critique." J. Mezirow (ed.) *Learning as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 Chase, S. E. "Narrative Inquiry: Multiple Lenses, Approaches, Voices." Norman K. Denzin and Yvonna S. Lincoln (eds.) *The Sag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lifornia: Sage Publication, 2005.
- Cranton, P. "Individual Differences and Transformative Learning." J. Mezirow (ed.) *Learning as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 Daloz, L. "Transformative Learning for the Common Good." J. Mezirow (ed.) *Learning as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 Hogg, Michael A. "Social Identity." Mark R. Leary and June Prince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ew York & London: The Guilford Press, 2005.
- Mezirow, J. "Learning To Think Like An Adult: Core Concepts of Transformation Theory." J. Mezirow (ed.) *Learning as Transform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2000.
- Michalowsky, R. "Perspective and Paradigm: Structuring Criminological Thought." R. Meier (ed.) *Theoretical Criminology*. Beverly Hills, CA: Sage, 1977.
- Smith, A. D. "National Identity and the Idea of European Unity."

International Affairs. Vol. 68, No. 1, 1992.

Stets, J. E. and P. J. Burke. "A Sociological Approach to Self and Identity." Leary, Mark R., June P. Tangney (eds.) *Handbook of Self and Identity*, New York & London: The Guilford Press, 2005.

Wendt, A. "Collective Identity Formation and the International Stat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8, No. 2, 1994.

3. 기타자료

『로동신문』.

『매일경제』.

『열린북한방송』.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MBC』.

<<http://100.naver.com/100.nhn?docid=133667>>.

사)북한민주화네트워크 <<http://www.uriminzokkiri.com>>.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운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합의 전병곤,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근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운,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 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 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송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종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종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2,000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14,000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13,000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7,000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 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출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아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한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비매출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소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소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비매품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e Meet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www.kinu.or.kr